연구용역 보고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2018. 12

한국금융연구원

제 출 문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당 연구원에 의뢰한 『부산 금융중심지육성 2030』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손 상 호

연 구 진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위원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JIM LEE	Kensho Technology / Pyth

— 목 차 —

<요 약>

Ⅰ. 서론 ····· 1

Ⅱ.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평가 ····· 3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정책 및 액션플랜의 성취도 평가 3

가. 부문별 목표 ····· 3

나. 분야별 액션플랜 ····· 20

1) 선박 및 수산금융 ····· 20

2) 파생 및 신성장 금융 ····· 55

3)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 64

4)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 66

5)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 75

2. 부산의 경제 및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 80

가. 부산 경제 및 금융 동향 ····· 80

나.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 83

3. 10년간 부산시 정책에 대한 평가 ····· 89

가. 선박금융 분야 ····· 89

나. 파생 및 신성장 금융 분야 ····· 94

다.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분야 ····· 97

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 99

마. 시사점 ····· 102

Ⅲ.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전망 ····· 105

1. 주요 선진국의 금융산업 현황, 경제기여도 및 전망 ····· 105

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주요 환경과 전망 ····· 106

나.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112
다. 금융산업별 동향 및 전망 ····115
2. 글로벌 선박금융 동향 및 전망 ····139
가. 동향 ····139
나. 전망 ····142
3. 해운업 동향 및 모멘텀 ····146
가. 동향 ····146
나. 모멘텀 ····150
4. 4차산업혁명型 해운클러스터의 대두와 현 선박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160
가. 해운클러스터2.0의 등장배경 ····160
나. 전통적인 해운클러스터의 발전추이 ····161
다. 해운클러스터2.0의 전개성향 및 KSF(Key Success Factor)분석 165
라. 시사점 ····168
5. 핀테크 및 ICT 산업의 변화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69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169
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73
6. 신흥시장의 자본유출입 현황 ····190
7. 국내외 자본축적에 따른 자산운용산업의 전망 ····193
가. 공적연금 현황 ····193
나. 퇴직연금 현황 ····197
다. 공사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해외투자의 증가 ····208

Ⅳ. Benchmark 대상 글로벌 금융중심지 변화 및 시사점 ····212
1. 광저우 (Guangzhou) ····213
가. 순위(ranking) 및 총점(rating) 트렌드 점검 ····213
나. 정책적 이슈 ····213
다. 최근 동향 및 기사 ····214
라. 시사점 ····218
2. 오사카(Osaka) ····219
가. 순위(ranking) 및 총점(rating) 트렌드 점검 ····219
나. 정책적 이슈 ····220
다. 시사점 ····222
3. 함부르크(Hambrug) ····223
가. 순위(ranking) 및 총점(rating) 트렌드 점검 ····223
나. 정책적 이슈 ····223
다. 최근 동향 및 기사 ····228
라. 시사점 ····229
4. 칭다오(Qingdao) ····230
가. 개요 ····230
나. 경제 ····231
다. 해양경제 중심지로서 칭다오 ····233
5. 밴쿠버(Vancouver) ····234
가. 개요 ····234
나. 금융환경 및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236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237
6. 두바이(Dubai) ····240
가. 개요 ····240
나. 경제 ····241
다. 금융센터 및 증권거래소 ····244
7. 멜버른(Melbourne) ····247
가. 개요 ····247
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249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250
8. 텔아비브(Tel Aviv) ····253
가. 개요 ····253
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255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256
9. 방콕(Bangkok) ····· 258
가. 개요 ····· 258
나. 경제현황 ····· 260
다. 가계소득 및 지출 분석 ····· 261
라. 태국 증권거래소(SET) ····· 262
10. 글로벌 금융중심지 확충 및 발전에 대한 시사점 ····· 264
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금융중심지 ····· 264
나. 산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클러스터(cluster) 역할 ····· 264
다. 혁신(innovation)과 연계한 금융중심지의 역할 강화 ····· 265
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발전 ····· 266
마. 역내 금융허브 간 역할분담을 통한 독자적 위상 확보 ····· 267

Ⅴ. 부산 금융중심지의 향후 10년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 ····· 268
1. 향후 10년 비전 ····· 268
2. 전략적 방향성 ····· 270

Ⅵ. 분야별 주요 전략 agenda ····· 274
1. 해양금융 ····· 274
가. 연합형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전략 추진 및 클러스터 멤버에의 공급 ····· 274
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핀테크 기반 선박금융 투자은행 모델의 제시와 개발 283
다. 아시아 해운클러스터 연합에서의 리더십 발휘 ····· 285
2. 핀테크 및 기술금융 ····· 286
가. 규제자유지역 설립 추진 ····· 286
나.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모델 강화 ····· 292
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유치 추진 ····· 295
3. 위안화 허브 등 동북아금융허브 역할 ····· 301
가. 위안화 역외 허브 관련 추세 ····· 301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위안화 허브(RMB Hub) ····· 312
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동북아 허브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 315
4. 백오피스/백업 센터 구축 ····· 318
가. 중국 gateway로서의 부산금융중심지 역할 제고 ····· 318
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對일본 백업센터 활성화 추진 ····· 323
5. 파생금융상품 기반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 324
가. 파생금융상품시장과 글로벌 위상 제고 ····· 324
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 ····· 327
6. 자산운용업 활성화 ····· 330
가. 자산운용업 환경 분석 ····· 330
나. 전략적 방향성 ····· 332
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자산운용업 지역시장 공략의 개념 ····· 333
라. 부산소재 금융회사의 부산지역 자금운용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334
마. 자산운용사의 육성 및 부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341
바. 자산운용사의 육성을 위한 민관조직체계 설립 ····· 342
7. 남북경협과 연계한 금융 등 비즈니스 강화 ····· 347
가. 남북경협의 현황 ····· 347
나. 남북 경협기금 현황 ····· 348
다. 남북 경협과 부산금융중심지의 역할 ····· 349
라.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추진 과제 ····· 350
8.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및 관련 인프라 ····· 354
가. 금융특구 설정 ····· 354
나. 금융특구와 연계된 외국인 및 금융종사자의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 358
다. 금융포럼 및 행사 유치 ····· 359
9. BIFC 확대 발전 ····· 360
가. BIFC 입주기관과의 협업생태계 확대 발전 ····· 360
나. 금융공기업 유치단 T/F구성 ····· 360

10.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 ····· 361
가. 회원제(Membership)도입 방안 ····· 361
나.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 강화 ····· 363
다. 해외 사례 ····· 367

Ⅶ. 결론 및 시사점 ····· 383

<부 록> ····· 388

- 표 목 차 -

<표 Ⅱ-1> 기존 목표 (선박금융) ····· 4
<표 Ⅱ-2>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증감률 및 거래비중 ····· 11
<표 Ⅱ-3>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 (파생금융) ····· 11
<표 Ⅱ-4>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및 증감률 ····· 12
<표 Ⅱ-5> 동북아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 ····· 13
<표 Ⅱ-6>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 달성현황 (파생금융) ····· 14
<표 Ⅱ-7>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백오피스/백업센터) ····· 15
<표 Ⅱ-8>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 달성현황(백오피스/백업센터) ····· 18
<표 Ⅱ-9>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도구변수 목표치 ····· 19
<표 Ⅱ-10>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 업무 ····· 23
<표 Ⅱ-11> 선박운용회사 현황 (총 6개사) ····· 30
<표 Ⅱ-12> 운용사별 운용중 선박투자회사 ····· 30
<표 Ⅱ-13>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총 183개 펀드) ····· 31
<표 Ⅱ-14>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국내 조선사) 39
<표 Ⅱ-15>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국내해운사) 39
<표 Ⅱ-16> 해양금융 프로그램 종류 ····· 40
<표 Ⅱ-17> 수출입금융 ····· 42
<표 Ⅱ-18> 선박금융 ····· 43
<표 Ⅱ-19> 프로젝트 금융(항만, 인프라) ····· 43
<표 Ⅱ-20> 2012-2017년 부산은행 선박금융대출현황 ····· 45
<표 Ⅱ-21> 선박 및 수산금융분야 액션플랜 달성여부 ····· 54
<표 Ⅱ-22> KRX 일반상품시장 개설경과 ····· 59
<표 Ⅱ-23> 종류별 청산소(CCP) 거래증거금 예탁 추이 ····· 61
<표 Ⅱ-24> 파생 및 신성장 금융 액션플랜 달성여부 ····· 63
<표 Ⅱ-25>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액션플랜 달성여부 ····· 65
<표 Ⅱ-26>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액션플랜 달성여부 ····· 74

〈표 Ⅱ-27〉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액션플랜 달성여부 ·····80
〈표 Ⅱ-28〉 부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GRDP) 추이 등 ·····81
〈표 Ⅱ-29〉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비중 추이 ·····81
〈표 Ⅱ-30〉 부산시 금융기관 분포 ·····82
〈표 Ⅱ-31〉 부산 내 주요 금융기관 ·····83
〈표 Ⅱ-32〉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및 점수 ·····84
〈표 Ⅱ-33〉 아시아·태평양지역 top15개 국가의 GFCI 지수 ·····85
〈표 Ⅱ-34〉 부산의 분류상 위상 변화 GFCI 15~23 (2014.3~2018.3) ·····87
〈표 Ⅱ-35〉 GFCI 평가분야별 Top 15 ·····88
〈표 Ⅱ-36〉 주요국 선박금융의 특징 ·····90
〈표 Ⅱ-37〉 조선3사 자구안 및 해운사 구조조정 현황 ·····93
〈표 Ⅱ-38〉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및 증감률 ·····95
〈표 Ⅱ-39〉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 ·····95
〈표 Ⅱ-40〉 서울 및 부산 금융 관련 국제회의 개최 성과 ·····96
〈표 Ⅱ-41〉 콜센터 및 백업센터 유치기관 현황 ·····97
〈표 Ⅱ-42〉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요 활동 ·····100
〈표 Ⅱ-43〉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도입 노력 활동 ·····101
〈표 Ⅲ-1〉 경제성장률 추이(세계 경제, 선진국, 신흥국) ·····109
〈표 Ⅲ-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규제의 특징 ·····111
〈표 Ⅲ-3〉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 비중 추이 ·····117
〈표 Ⅲ-4〉 국가별 은행권의 BIS Tier Ⅰ 자기자본비율 ·····119
〈표 Ⅲ-5〉 국가별 은행 순이자마진율 추이 ·····120
〈표 Ⅲ-6〉 국가별 은행 고정이하 부실여신비율 추이 ·····121
〈표 Ⅲ-7〉 글로벌 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유동성 ·····126
〈표 Ⅲ-8〉 세계 자산운용규모 추이 ·····134
〈표 Ⅲ-9〉 국가별 자산운용시장 점유율 추이 ·····136
〈표 Ⅲ-10〉 2012-2016년 운용상품별 추이 ·····137
〈표 Ⅲ-11〉 상위 20개 자산운용기관의 회사소유구조 ·····137
〈표 Ⅲ-12〉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141
〈표 Ⅲ-13〉 세계주요품목별 해상물동량 ·····146
〈표 Ⅲ-14〉 영업 수익, 영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금액 비율 ·157
〈표 Ⅲ-15〉 달러 환율 변동이 영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 ·····157
〈표 Ⅲ-16〉 세계항만 컨테이너 취급항 Top20 ·····159
〈표 Ⅲ-17〉 노르웨이 해운클러스터 ·····163
〈표 Ⅲ-18〉 인공지능의 세부 기술 ·····172
〈표 Ⅲ-19〉 국내 주요 카드사 경영전략 및 활동계획 ·····176
〈표 Ⅲ-20〉 기업가치 10억$ 이상의 P2P대출 분야 기업 ·····179
〈표 Ⅲ-21〉 국내 주요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현황 ·····183
〈표 Ⅲ-22〉 국내 금융권 IoT 적용사례 ·····186
〈표 Ⅲ-23〉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디지털화 가능 영역 ·····187
〈표 Ⅲ-24〉 국민연금 부문별 수익현황 ·····195
〈표 Ⅲ-25〉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196
〈표 Ⅲ-26〉 제도유형별 운용현황 ·····199
〈표 Ⅲ-27〉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201
〈표 Ⅲ-28〉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202
〈표 Ⅲ-29〉 제도유형별 세부 적립금 현황 ·····203
〈표 Ⅲ-30〉 권역별 제도유형별 비중 ·····204
〈표 Ⅲ-31〉 권역별 적립금 증감 현황 ·····205
〈표 Ⅲ-32〉 권역별 운용현황 ·····205
〈표 Ⅲ-33〉 권역별 운용세부현황 ·····206
〈표 Ⅲ-34〉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207
〈표 Ⅲ-35〉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208
〈표 Ⅲ-36〉 해외투자펀드(공모펀드) 자산별 순자산가치 ·····210
〈표 Ⅳ-1〉 Z/YEN 보고서에 의한 금융중심지 ·····212
〈표 Ⅳ-2〉 난샤(Nansha) 금융 및 유사 금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18
〈표 Ⅳ-3〉 함부르크 클러스터 전문가 양성 교육 ·····226

〈표 Ⅳ-4〉 캐나다의 지역별 소매판매 현황 ·····236
〈표 Ⅳ-5〉 두바이 2016-2017년 항목별 GDP ·····242
〈표 Ⅳ-6〉 호주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248
〈표 Ⅳ-7〉 빅토리아주 스타트업 지원 기관 ·····251
〈표 Ⅳ-8〉 멜버른의 스타트업 유망업종 ·····252
〈표 Ⅳ-9〉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규모 ·····254
〈표 Ⅳ-10〉 이스라엘의 혁신기술 스타트업 지원 정책 ·····257
〈표 Ⅳ-11〉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259
〈표 Ⅳ-12〉 태국의 지역별·소득구간별 연평균 가계소득 ·····262
〈표 Ⅵ-1〉 중국을 제외한 위안화 글로벌 청산비율 분포(금액 기준) 302
〈표 Ⅵ-2〉 위안화 글로벌 거래 비중(금액 기준) ·····305
〈표 Ⅵ-3〉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309
〈표 Ⅵ-4〉 위안화의 국제화 관련 내용 ·····313
〈표 Ⅵ-5〉 위안화 역외 허브 유형 ·····314
〈표 Ⅵ-6〉 최근 부산시의 외국인투자(FDI) 현황 ·····318
〈표 Ⅵ-7〉 아시아 국채 시장 규모(2018년 6월) ·····328
〈표 Ⅵ-8〉 OCIO(Outsourced CIO) 사업모델 ·····336
〈표 Ⅵ-9 〉 캐나다 4대 금융중심지 추진 조직 ·····367
〈표 Ⅵ-10〉 토론토 금융연합의 회원사 ·····370
〈표 Ⅵ-11〉 밴쿠버 국제금융센터의 정회원사 ·····372
〈표 Ⅵ-12〉 밴쿠버 국제금융센터의 준회원사 ·····373
〈표 Ⅵ-13〉 파이낸스 몬트리올의 회원사 ·····375
〈표 Ⅵ-14〉 파리 유로플레이스의 회원사 ·····378
〈표 Ⅵ-15〉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 회원사 ·····381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국내 선박금융 시장규모 ·····4
〈그림 Ⅱ-2〉 국내 선박금융 투자추이 ·····5
〈그림 Ⅱ-3〉 해운금융 지원실적 ·····5
〈그림 Ⅱ-4〉 은행별 선박금융대출 현황 ·····6
〈그림 Ⅱ-5〉 중국과 한국의 연간 탄소배출권시장 거래량 규모 ·····14
〈그림 Ⅱ-6〉 한국해양진흥공사 조직도 ·····23
〈그림 Ⅱ-7〉 한국선박해양 주식회사 구조도(안) ·····29
〈그림 Ⅱ-8〉 해양금융종합센터 조직도 ·····38
〈그림 Ⅱ-9〉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지 도면 ·····51
〈그림 Ⅱ-10〉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 ····51
〈그림 Ⅱ-11〉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량 추이 ·····56
〈그림 Ⅱ-12〉 국내 탄소 배출권 일일 가격, 평균가격 추이 ·····56
〈그림 Ⅱ-13〉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월별 거래량 추이 ·····59
〈그림 Ⅱ-14〉 부산의 GFCI 지수 추이 ·····84
〈그림 Ⅱ-15〉 서울의 GFCI 지수 추이 ·····85
〈그림 Ⅱ-16〉 아시아·태평양지역 top5개 국가의 GFCI 지수 ·····86
〈그림 Ⅱ-17〉 전 세계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89
〈그림 Ⅱ-18〉 국제 유가 추이 ·····90
〈그림 Ⅱ-19〉 벌크선 운임 지수(BDI) 추이 ·····91
〈그림 Ⅱ-20〉 2017년 상선 신규수주 추이 ·····92
〈그림 Ⅱ-21〉 회사별 수주잔고 및 매출액 추이 ·····92
〈그림 Ⅲ-1〉 Fed, ECB, BOJ의 기준금리 추이 ·····107
〈그림 Ⅲ-2〉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추이(Fed, ECB, BoJ) ·····107
〈그림 Ⅲ-3〉 글로벌 상품교역[1] 증가율 ·····108
〈그림 Ⅲ-4〉 권역별 상품교역[1] 증가율 ·····108
〈그림 Ⅲ-5〉 주요 주가지수 추이(Dow Jones, Nasdaq, DAX, Nikkei) 110
〈그림 Ⅲ-6〉 주요 선진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 추이 ·····110

〈그림 Ⅲ-7〉 주요국의 금융산업의 기여도 추이 ·····113
〈그림 Ⅲ-8〉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금융흑자 및 적자 추이 ·····114
〈그림 Ⅲ-9〉 국가별 은행권의 총자산 증가율 추이 ·····116
〈그림 Ⅲ-10〉 국경 간 거래의 연간 변화율 ·····118
〈그림 Ⅲ-11〉 통화별 역외조달 규모 ·····118
〈그림 Ⅲ-12〉 투자은행 업무의 규모 및 국제화 추이 ·····122
〈그림 Ⅲ-13〉 투자은행의 수익 및 자산, 자기자본 비교 ·····123
〈그림 Ⅲ-14〉 지역별 기술기업의 IPO 추이 ·····124
〈그림 Ⅲ-15〉 지역별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125
〈그림 Ⅲ-16〉 세계 지역별 GDP 대비 생명보험료 추이 ·····127
〈그림 Ⅲ-17〉 주요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 ·····128
〈그림 Ⅲ-18〉 주요국 생명보험사 위험자산 비중 추이 ·····128
〈그림 Ⅲ-19〉 국가별 생명보험사의 투자성과 연동형 상품 비중 추이 129
〈그림 Ⅲ-20〉 세계 지역별 생명보험사 ROE 및 PBR 추이 ·····130
〈그림 Ⅲ-21〉 2015~2019년 중 지역별 손해보험료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31
〈그림 Ⅲ-22〉 미국 및 유럽 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 추이 ·····132
〈그림 Ⅲ-23〉 세계 손해보험사의 ROE 및 수익기여도 추이 및 전망 132
〈그림 Ⅲ-24〉 재보험사의 합산비율 및 ROE, 자본구조 추이 ·····133
〈그림 Ⅲ-25〉 세계 규모별 자산운용기관 시장점유율 추이 ·····135
〈그림 Ⅲ-26〉 2012-2016년 적극적 및 소극적 운용펀드의 운용규모 추이138
〈그림 Ⅲ-27〉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140
〈그림 Ⅲ-28〉 선박금융에 있어서 ECA비중의 연간추이 ·····143
〈그림 Ⅲ-28〉 선박금융에 있어서 ECA비중의 연간추이 ·····143
〈그림 Ⅲ-29〉 중국의 전형적인 financial lease안건구조 ·····145
〈그림 Ⅲ-30〉 세계컨테이너의 물동량 ·····147
〈그림 Ⅲ-31〉 아시아 주요항만의 컨테이너취급량 추이 ·····147
〈그림 Ⅲ-32〉 북미항로운임추이 ·····148
〈그림 Ⅲ-33〉 구주항로운임추이 ·····149
〈그림 Ⅲ-34〉 LNG수출/수입의 변동 예상 ·····154
〈그림 Ⅲ-35〉 산업혁명4.0의 5가지 촉매기술 ·····160
〈그림 Ⅲ-36〉 산업혁명의 변천 1, 2, 3, 4차 ·····160
〈그림 Ⅲ-37〉 향후 해운섹터의 가치창출 종류 ·····161
〈그림 Ⅲ-38〉 노르웨이 해운클러스터 ·····162
〈그림 Ⅲ-39〉 Maritime by Holland의 커버섹터 ·····165
〈그림 Ⅲ-40〉현존 주요 해운클러스터의 전략적인 위치에 관한 이해 167
〈그림 Ⅲ-41〉 디지털혁신에 의한 금융업의 변화 ·····173
〈그림 Ⅲ-42〉 국내 간편결제 시장추이 ·····175
〈그림 Ⅲ-43〉 리플(Ripple)사의 송금서비스 ·····178
〈그림 Ⅲ-44〉 한국 P2P대출취급액 현황 ·····180
〈그림 Ⅲ-45〉 국내 크라우드 펀딩 발행 실적 규모 ·····181
〈그림 Ⅲ-46〉 블록체인을 응용한 크라우드 펀딩 ·····181
〈그림 Ⅲ-47〉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182
〈그림 Ⅲ-48〉 B2B형 헤지펀드 운용알고리즘 ·····184
〈그림 Ⅲ-49〉 바이오인증 기술의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전망 ·····185
〈그림 Ⅲ-50〉 독일 Slock.it 블록체인 ·····186
〈그림 Ⅲ-51〉 신흥시장포트폴리오 유입 ·····191
〈그림 Ⅲ-52〉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유입예상액과 외부자금수요액 ··192
〈그림 Ⅲ-53〉 신흥국 비거주자 포트폴리오 유입액과 누적액, Gross Reserves의 변화 ·····193
〈그림 Ⅲ-54〉 국민연금 투자부문 ·····194
〈그림 Ⅲ-55〉 연도별 수익금현황 ·····194
〈그림 Ⅲ-56〉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196
〈그림 Ⅲ-57〉 최근 3년간 적립금 및 수익률 ·····197
〈그림 Ⅲ-58〉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 및 가입 근로자 수 ·····198
〈그림 Ⅲ-59〉 운용방법별 적립금 추이/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추이 ···199
〈그림 Ⅲ-60〉 연도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추이/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형 점유율 ·····200

〈그림 Ⅲ-61〉 권역별 점유율 추이/사업자별 점유율 ·····203
〈그림 Ⅲ-62〉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추이/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추이208
〈그림 Ⅲ-63〉 해외투자펀드(공모펀드) 순자산총액추이 ·····209
〈그림 Ⅲ-64〉 해외주식/혼합형펀드 유형별 설정잔액 ·····211
〈그림 Ⅲ-65〉 해외직접투자 (신고기준) ·····211
〈그림 Ⅳ-1〉 광저우 GFCI 추이 ·····213
〈그림 Ⅳ-2〉 오사카 GFCI 추이 ·····219
〈그림 Ⅳ-3〉 오사카 증권거래소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추이 ·····221
〈그림 Ⅳ-4〉 오사카 증권거래소 야간시장 파생상품 거래량 및 비율 추이 221
〈그림 Ⅳ-5〉 함부르크 GFCI 추이 ·····223
〈그림 Ⅳ-6〉 2017년 중국 31개 지역 GDP 및 성장률 ·····232
〈그림 Ⅳ-7〉 밴쿠버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237
〈그림 Ⅳ-8〉 멜버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250
〈그림 Ⅳ-9〉 텔아비브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255
〈그림 Ⅳ-10〉 국가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보유 현황 ·····256
〈그림 Ⅳ-11〉 이스라엘의 양자/다자 간 협력 프로그램 ·····258
〈그림 Ⅳ-12〉 2015년 태국 지역별 1인당 GDP ·····260
〈그림 Ⅳ-13〉 태국 증권거래소(SET)의 역할 ·····263
〈그림 Ⅵ-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재산의 형성 프로세스 ·····276
〈그림 Ⅵ-2〉 연합형 마스터데이터베이스를 인프라로 활용한
인공지능의 이벤트 인식 및 그 대응의 예 ·····277
〈그림 Ⅵ-3〉 글로벌 뱅킹업무의 행위별 분석 ·····278
〈그림 Ⅵ-4〉 매크로이벤트의 종류 ·····279
〈그림 Ⅵ-5〉 인공지능의 장단점 비교 ·····280
〈그림 Ⅵ-6〉 금융패러다임의 재정립에 있어 Supervisor의 중요성 ···280
〈그림 Ⅵ-7〉 비정형화기반 자료의 증가로 인한 인공지능/인지기술
도입필요성의 대두 ·····281
〈그림 Ⅵ-8〉 조달비용의 차이로 인한 악순환 구조 ·····282
〈그림 Ⅵ-9〉 해운클러스터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AI 솔루션 구축 ···285
〈그림 Ⅵ-10〉 런던의 일평균 위안화 외환시장 거래량 ·····303
〈그림 Ⅵ-11〉 런던 채권시장에서의 딤섬본드 및 표면금리 ·····303
〈그림 Ⅵ-12〉 싱가포르의 위안화 예금액 추이 ·····306
〈그림 Ⅵ-13〉 주요국 무역 비율 및 위안화 결제 비율 ·····307
〈그림 Ⅵ-14〉 2018년(1~8월) 대중(對中) 대만 무역 규모 ·····310
〈그림 Ⅵ-15〉 대만의 위안화(RMB) 예금 및 대출 추이 ·····311
〈그림 Ⅵ-16〉 대만 내 포모사 채권(formosa bond) 발행규모 추이 및 비중 311
〈그림 Ⅵ-17〉 2018년 1분기 대중 무역 비중 ·····315
〈그림 Ⅵ-18〉 2017년 거래소별 파생상품 형태 수 ·····325
〈그림 Ⅵ-19〉 KRX 파생상품의 세계 거래량 비중 추이 ·····326
〈그림 Ⅵ-20〉 남북교역 규모 및 남북경협의 전개과정(‘89~’ 16년) 348
〈그림 Ⅵ-21〉 남북교역 규모 ·····349
〈그림 Ⅵ-22〉 부산역과 부산항 물류허브 연계도 ·····351
〈그림 Ⅵ-23〉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예시) ·····365
〈그림 Ⅵ-24〉 토론토 금융연합 ·····369

<요 약>

Ⅰ. 서론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후 과거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금융중심지 조성 차원의 상당한 진전이 있는 측면도 있는 반면 아직 부산이 손색없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임

▣ 금융산업 자체가 생물처럼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융중심지의 생태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융의 규제 체계가 강화되고 주요 국가별로 금융산업은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조만간 영국의 브렉시트가 가시화되면 금융중심지간의 경쟁 구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 과거 10년간의 금융환경 및 금융중심지 경쟁구도 변화 속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점검하고 향후의 전략 방향을 재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Ⅱ.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평가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정책 및 액션플랜의 성취도 평가

가. 부문별 목표

1) 선박 및 수산금융

가)목표

① 선박금융 목표

▣ 2009년 선박자금조달 기준으로 아시아, 한국, 부산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5%(332억불), 4.2%(54억불), 0.12%(1억 6,000만불)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2018년까지 부산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3%, 아시아시장 점유율을 12% 내외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

<표 1 > 기존 목표 (선박금융)

	기준	시점: 2009년(as-is)	2018년 목표
선박 금융	선박자금조달 기준 부산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부산: 0.12% (1억 6천만불) 한국;4.2% (54억불)	글로벌시장점유율: 3.0% 아시아시장점유율: 12%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2016년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8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시장규모는 74% 감소함

○ 해운업 부진에 따른 수주 절벽 등으로 국내 선박금융은 급감함

<그림 1> 국내 선박금융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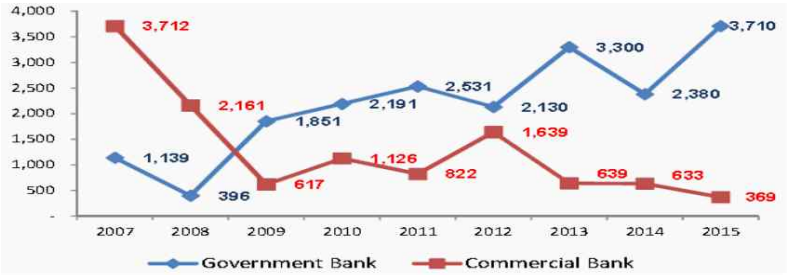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

▣ 2015년 기준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4.08조 원 가량이며, 공적은행 비중은 2007년 23.5%에서 2015년 91.0%로 증가함

○ 국내 상업은행들은 공적은행 대비 10%로 축소된 것으로 해운 및 조선시황이 악화되면서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기피 현상 심화됨

<그림 2> 국내 선박금융 투자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Marine Money 재인용

▣ 선박금융대출 잔액이 지난 2012년 14조 9,105억 원에서 2017년 6월 21조 700억 원으로 6조 1,595억 원, 41.3% 증가하였음

○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의 대출규모는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제외)들의 선박금융 대출규모는 2012년 3조 5,472억 원에서 2017년 6월 2조 3,795억 원으로 32.9%로 감소함

<그림 3> 은행별 선박금융대출 현황

(단위 : 조원)

자료: 김한표 의원 국정감사

2) 파생 및 신성장 금융

가) 목표

▣ 파생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장내거래소 파생상품거래량의 세계 최고 위상 유지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동북아시아 3대 파생상품시장으로 발돋움

○ '08년 기준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량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세계적 선두 위치를 유지

○ 장외시장의 경우 청산소(CCP), 상품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 유치 시 이자율스왑(IRS) 거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거래 활성화로 동북아시아 3대 파생상품도시를 지향

○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의 경우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거래량 규모를 가진 거래소를 목표로 설정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장내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IRS, CDS 등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동북아시아 3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으로 진입과 동시에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을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확장

▣ '17년 현재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한국거래소는 '16년도 대비 약 46.5%의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1위를 기록하며 목표치 대비 미흡

○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인프라는 유치되었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 시현

▣ 2015년 1월 한국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장한 후, 탄소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미미한 시장

3)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가) 목표

▣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경우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양적 통계가 알려져 있지 않아 양적 목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질적인 목표를 우선 설정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과 '17년, '20년 그리고 '22년에 맞추어 단계별로 부산금융중심지가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 및 주요 금융기관 유치를 목표

▣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를 각 1개 이상 유치

<표 2> 부산금융중심지의 목표 달성현황(백오피스/백업센터)

부문	부분별 목표	달성여부
백오피스/백업센터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에 맞추어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	△
	▷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를 각 1개 이상 유치	×
	▷ 2017년까지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	×
	▷ 2020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
	▷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 확보	△
	▷ 해외전문 기업의 유치 및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아웃소싱 클러스터 기반 조성	×
	▷ 2022년까지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지 기능 확보	△

4)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인력·영업환경·시장접근성·인프라·일반경쟁력 등 현행 5가지 도구변수별 글로벌 금융중심지 비교에서 부산은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 목표치를 100위 이내로 설정

▣ 2018년 3월 현재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총점 618점으로 전체 100개 국가 중 46위를 기록

○ 부산은 2014년 3월 GFCI 순위에 27위로 처음 진입하였으며, 2016년 3월 38위, 2017년 3월 50위, 2017년 9월 70위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 3월 46위로 상승함

나. 분야별 액션플랜

1) 선박 및 수산금융

▣ 선박 및 수산금융분야 액션플랜에서는 7개의 단기과제와 2개의 중장기 과제 중에서 각각 5개(1개 부분 달성 포함), 1개 과제가 달성되어 총 9개 과제 중에서 7개(1개 부분 달성 포함) 과제를 달성, 전반적으로 높은 달성 비율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선박운용회사의 유치 및 설립, 부산 국제해운거래소 설립(부분 달성),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기능 부산유치, 부산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제고,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조성 및 해운기업의 설립 등의 7개 과제가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수협은행 본사 유치를 통한 수산금융산업 활성화의 2개 과제는 목표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표 3> 선박 및 수산금융분야 액션플랜 달성여부

구분	사 업 명	추진기간 (년)	사업비 (억원)	실현 가능성	달성여부
단기 핵심	1.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2010~2015	3,028.5	중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2018년 7월 5일)
	2.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2010~2016	88.1	상	○ 한국해양대(해양금융전문대학원)개원, 부산대(파생금융전문대학원)개원 (2018년 9월)
	3. 선박운용회사의 유치 및 설립	2010~2013	-	상	○ 한국선박해양 설립(2017년 1월)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흡수
	4. 부산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2010~2016	200	상	△ 진행중 (2017년 3월 거래소 설립을 위한 해운업법 국회통과)
	5.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2010~2020	10	중	× 미달성
단 기	6.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부산유치	2010~2020	1	중	○ 현재 대부분의 선박금융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부문을 포함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BIFC에 개소 (2014년)
	7. 부산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제고	2010~2020	비예산	중	○ 부산은행, 한국해양보증보험과 업무협약으로 선박금융대출 증가 (2016년)
중장기	8.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조성 및 해운기업의 설립	2011~2020	4,200	상	○ 부산 동삼동 혁신지구 부산해양클러스터 완료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지정(2018년 1월)
	9. 수협은행 본사 유치를 통한 수산금융산업 활성화	2013~2020	-	중	× 수협은행은 전산비용 등의 문제로 이전이 무리라는 입장(2016년 12월)

2) 파생 및 신성장 금융

사업 1 |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 KRX 부산본사 내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을 목표

▣ '14. 1. 14 KRX 부산본사 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을 공고하고 '15. 1. 12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단기적 관점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참여 유인은 유효해 보이나 시장조성에 대한 증권사 등의 참여도가 아직까지 낮은 편

* 최근 일부 증권사의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가 기대

사업 2 |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 파생상품 개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파생상품 R&D 센터 설립을 추진

▣ 부산시와 KRX, 부산은행,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2012년 2월 파생상품 연구센터를 개설

▣ 논문 및 간행물, 파생상품시장 브리프(Derivatives Briefs) 등의 연구활동과 투자자교육 및 강연 등을 진행해오고 있음

* 파생상품시장 브리프 2012년~2016년 까지 분기별 또는 연 2회 자료를 발간
* 한국파생금융포럼 개최, 우수논문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학계 등 연구 협력 강화
* 2017년 이후 간행물 발간 등 연구활동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

사업 3 | **상품거래소 유치**

▣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소 및 상품거래소 부산 유치 추진

<표 4> KRX 일반상품시장 개설경과

일자	주관	주요 내용
'10. 6월	정부(위기관리대책회의)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 발표 (금 거래 양성화)
'11. 4월	정부(경제정책조정회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 발표(유가인하)
'12. 3월	KRX	석유시장 개설 - 정부의 석유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에 기여
'13. 7월	금융위원회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발표
'14. 1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로 KRX 지정 - 저탄소녹색성장
'14. 3월	KRX	금시장 개설 -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금산업 활성화 지원
'15. 1월	KRX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 국제 기후변화 이슈 선점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 상품(Commodity)파생상품은 돈육 및 금 선물 시장이 개설되었으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

○ 2008년 7월 돈육선물시장 개설 이후 현재 거래가 거의 전무

○ 2010년 9월 미니금선물시장 개설 이후 금 가격의 하락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약화

사업 4	중앙청산소 유치

▣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중앙청산소(CCP) 부산 유치

▣ 자본시장법 개정('13. 7. 6 시행) 및 KRX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사(CCP) 인가 취득('13. 9. 11)

▣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프라 개선으로 국제적 정합성은 제고
- ○ 원화이자율스왑의 CCP(Central Counter Party) 청산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
- ○ '17. 9월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변동증거금 제도를 본격 시행

사업 5	국제회의 유치

▣ WFE 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 '14년도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회원총회는 유치하지 못했으나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

3)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사업 1	백업센터 및 전산센터 구축

▣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 등을 추진

▣ 공동백업센터(제3백업센터) 유치는 '15년 결정, '16년 착공을 시작하려는 계획 있었으나 무산되어 현재 중단된 상황

사업 2	백오피스 업무 중심의 글로벌 아웃소싱센터 기반조성 사업

▣ 금융특구 내에서 초기에 국내 대형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기능이 분화되어 집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금융중심지 내 또는 역내 국내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기능은 아직까지 제한적
- ○ 룩셈부르크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언어장벽이나 규제체계의 차이 등으로 진출유인이 낮은 편
- ○ 거래소 등의 관련 기관에 의한 추진력 확보도 아직까지 미성숙

4)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1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 부산의 국제적인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육성과 이를 위한 부산시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나 현재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

사업 2	금융특구 조성

▣ 해양금융중심지 발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선박금융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과 특별법에 의해서 금융특구가 조성되어야만 해양·파생금융지로 발전할 수 있음

▣ 금융특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 3	부산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부산지역의 금융전문 인력양성은 주로 지역대학의 학부수준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 국제금융연수원('14년 9월 개원) 및 금융전문대학원('18년 9월)은 설립되었으나 외국 MBA 분교 유치 등 다른 목표는 미달성

사업 4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 부산지역 공공금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과의 협업으로 파생금융 전문인력을 양성

▣ 부산 금융전문대학원은 부산대-한국해양대 공동학위 과정으로 2018년 9월 개설

○ 부산 금융전문대학원은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파생 금융 실무 특강, 핀테크, 금융 빅데이터 등 해양·파생금융 관련 강좌를 비중 있게 다룸

○ 부산시와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모두 80억원을 들여 금융전문대학원 시설비와 학생장학금, 과정운영비 등을 지원

사업 5	해외 금융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 글로벌 아웃소싱 센터의 기반조성, 해외 증권금융결제와 관련된 업무(CCP 관리), 국제해운거래소와 선박금융 관련 서비스를 위한 국제인력 확보, 은행금융기관의 업무에서 IBF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외인력 등이 필요

▣ 해외금융인력들을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조세혜택 등)의 적용상의 한계로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하기에 여전히 미흡

사업 6	기보의 녹색금융 활성화 사업 지원

▣ 기보가 녹색채권 유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녹색채권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산시가 후순위채권의 인수자로서의 역할 필요

▣ 2010년 녹색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인증기준이 높고 혜택에 대한 제한이 많아 활성화에는 실패했으며, 이후 녹색금융 논의 약화

사업 7	한국예탁결제원의 ICSD 추진

▣ 한국예탁결제원이 역내 ICSD[1]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가 꼭 필요한 선제 조건

▣ ICSD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간의 이해관계, 규제완화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

1) 특정한 국가나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화된 역외시장에서 국제증권투자자를 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함

사업 8	캡티브 보험사 유치 및 설립

▣ 주요국 기업을 대상으로 캡티브 보험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법 규제를 제·개정하거나 캡티브 보험 관련 특별법을 제정

▣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열악한 국내 금융환경과 경쟁력, 인프라 부족(설립지원 서비스체계, 외국인력의 근무 환경 등)의 문제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사업 9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 지원

▣ 부산권역 수출입업자들의 해상보험(적하, 선박 등) 가입을 위한 상호보험회사 설립, 적하보험가입센터 설치, 해상보험기관 유치 등

▣ 상호회사 설립을 위한 법 개정, 관련 규제 마련의 미흡으로 달성되기 어려움

사업 10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 부산시에서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글로벌 금융연수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여건 조성이 우선사항으로 단계별 추진

▣ 2014년 9월 개원한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연간 7,000여명의 금융회사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파생금융 및 선박·해양플랜트 financing 특화 교육 실시

5)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사업 1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조달

▣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와 자본 유인 여건 등 검토하여 이슬람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적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

▣ 수쿠크(이자대신 다른 수익배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슬람형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2011년)

사업 2	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유치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한다는 계획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국제 정세 및 대북 관계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 유치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사업 3	부산금융공사 설립

▣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을 추진할 추진체 필요성에 의한 부산금융공사 설립을 계획

▣ 2020년까지 부산금융공사 설립하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축을 위한 가시적 노력은 아직 미흡

○ 지역개발 펀드 또는 지방정부와 대형금융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한 장기적인 자금조달 기반 마련을 고려할 필요

사업 4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항재개발지역 및 해운대 센텀지역을 문현금융지역과 연계한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을 계획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항재개발지역 및 해운대 센텀지역은 문현금융지역과 연계하여 금융자유지대로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역외 금융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물류 산업 등 신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경제적·법률적·제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고려

▣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추진을 통한 부산신항의 완공(2020년 목표), 국제업무지구의 추진(명지지역), 여가 및 휴양시설 추진 등은 금융기반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부산금융중심지가 있는 문현금융지구와 북항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 되어 해양물류와 금융을 연계한 국제 업무지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2. 부산의 경제 및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가. 부산 경제 및 금융 동향

▣ 부산시 경제는 2008년 이후 조선 및 해운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동산 등의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9년간 평균 1.9%(2016년 기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 부산 금융산업의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은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 대비 큰 격차가 존재

○ 금융중심지 지정 시기와 비교하면 금융기관의 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2008년 3,144개에서 2016년 말 3,264개로 증가

○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에 따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부산 금융 산업의 양적기반과 특성화는 진행 중

▣ 업종별 금융기관 분포를 보면 2016년 기준 보험(44%), 은행(36%), 증권(8%), 기타(12%) 순으로 형성

○ 부산시의 전체 산업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2008년 6.5%에서 2011년 7.4%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6.5%로 하락

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 Z/Yen에서 6개월마다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23(2018.3월)에 따르면 런던·뉴욕·홍콩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서울은 27위, 부산은 46위를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기준 홍콩·싱가포르·도쿄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서울은 10위, 부산은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16위를 차지

▣ 금융중심지의 업무별/지역별 위상측면을 살펴보면, 부산은 '지역적

기존주자(Established Players GFCI 15~16)' → '국제적 기존주자(Established International: GFCI 17) → 국제적 다업무 범위(International Diversified; GFCI 18,22,23)로 변화하며 발전

▣ 한편, GFCI의 5개의 평가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부산과 서울 모두 15위권이내에 들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

3. 10년간 부산시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선박금융 분야

▣ 선박금융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호황이 있었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조선업 및 해운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주 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장기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건조 수요의 축소에 따라 기존 주문의 완성 이후 위축 국면이 나타나면서 조선업 관련 업종의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 부문의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정책금융의 역할이 확대

○ 국내 조선업계는 중견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중국 조선업계의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민간 상업은행의 자금지원은 전반적으로 축소

▣ 한편 선박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인프라, 금융지원, 금융기관의 유치, 지역금융기관의 협업 등은 나름대로의 토대를 마련

▣ 해운비지니스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한 해양기업의 유치는 기대되고 있으나,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은행의 본사 유치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나. 파생 및 신성장 금융 분야

1) 파생상품

▣ 국내 장내 파생상품거래는 파생거래의 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위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중심지 지정 이전에 비해 위축되는 양상

▣ 파생상품 R&D센터의 설립이나 CCP 유치, 탄소배출거래소 유치 등 한국거래소와 연계한 세부 실행계획은 달성

▣ 한국거래소의 업무기반 강화와 연계한 상품거래소의 유치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노력은 부분적인 성과를 창출

다.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분야

▣ BIFC 등 문현금융단지 입주를 기점으로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콜센터 및 전산백업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업종, 해외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반면 백업오피스 이외에 수탁회사, 대행처리회사, 운용사 등 전문형

금융기관의 유치나 공동 전산센터 유치, 해외 전문기업의 글로벌 백오피스 업무 유치 등은 타 세부계획에 비해 아직까지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한 백업센터 기능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차별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

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 부산 금융중심지는 중장기 목표로 이슬람금융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자체 금융공사 설립, 금융자유지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가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한편 캡티브 보험사 설립은 법적 기반의 미비와 해운 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 그 유인이 약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 과제에 해당

○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수출입업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수요에도 불구 기업 간 이해관계 및 위험분담 이슈 등을 감안하여 해운산업의 회복시기와 연동하여 재점검

마. 시사점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조선업 등 관련 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외연 확대와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금융공기업의 이전 등에 따른 성과 창출

○ 해양금융 및 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화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금융산업의 규제강화 등 안정화, 합리화 기조에 직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거래소의 본사 이전과 더불어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한 운용사, 지원기관, 공공 금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이 확대

○ 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집적화 노력, 항만 기반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서울과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충

○ 선박 금융 및 해양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은 조선업의 경기위축 및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 기관의 확대와 역내 유치를 지속함으로써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는 대내외 금융여건 및 산업여건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정부 간의 협력 및 관심에 기인

▣ 그동안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공공기관의 유치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의한 효과가 큰 반면 민간 금융사의 참여나 유인, 성과 등은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지원이 요구

○ 금융중심지 전략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유관 기관의 역할을 통해 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특화전략을 유지

○ 선박금융의 경우에도 조선 및 해양업의 위축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부문을 통한 활성화 기반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유인책이나 개선이 요구

○ 백업센터 및 콜센터의 유치 등과 같은 금융인프라 부문의 경우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여도가 아직까지 낮은 편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1단계의 보완 등을 통해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공공부문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기반 강화, 역내 추진력의 재강화, 역외수요의 충족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1단계는 공공기관의 유치,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마련

○ 2단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정착 및 업무기반 강화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 금융부문의 재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 제고, 그리고 역외 수요의 충족이나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위상 및 글로벌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 2단계 활성화는 1단계의 정부 주도, 공공부문 주도, 산업정책에 의한 보완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참여, 비즈니스 기회 증대, 기존 기관의 업무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점진적,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

Ⅲ.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전망

1. 주요 선진국의 금융산업 현황, 경제기여도 및 전망

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주요 환경과 전망

▣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환경은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효과에 힘입어 위기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회복 기반을 마련

▣ 한편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적정화 및 합리화 기조를 지속

나.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부실비용의 증가, 규제강화에 따른 레버리지의 축소, 구조조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까지 위축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위기해소 과정에서 위축되었으나, 우호적인 거시금융 여건에 의해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 및 미국 주도의 양상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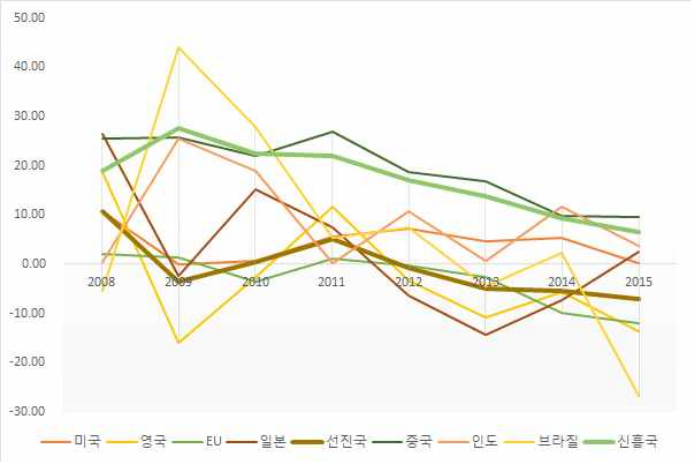
다. 금융산업별 동향 및 전망

1) 은행업

가) 총자산 및 GDP 대비 비중

▣ 은행권의 경우 총자산 증가율은 글로벌 위기 이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의 자산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그림 4> 국가별 은행권의 총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 FSB

▣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 비중은 유럽 및 홍콩, 싱가포르 등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등 은행권의 역할이 위기 이후에도 확대

▣ 글로벌 은행업무는 대형은행의 사업 구조조정, 본국 감독기구에 의한 규제 강화,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역외조달이 확대

나) 자본적정성

▣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은 글로벌 금융개혁에 따른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글로벌 시장 또는 국가별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위권 은행(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을 중심으로 한 추가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은행권의 자본비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개선

다) 순이자마진

▣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저금리 하에서 예대마진 축소와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운용,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수익기조는 안정화 또는 회복국면으로 평가

라) 건전성

▣ 은행권의 부실여신 규모나 부실여신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저금리 기조에 의한 상환부담의 감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우호적 여신정책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

2)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M&A 등에 의한 시장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한편 업무기반은 2015년까지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위축되는 양상

○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외자산(off-balance activities)을 축소하거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축소

▣ 한편, 2016년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의 매출 및 수익, 총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평가

▣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투자은행의 시장지배력(60%)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유럽 및 일본계 투자은행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

▣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자산운용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증권업무 중심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중심으로 한 시장기반이 확대되면서 투자은행의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

▣ 글로벌 거래소의 법적지위 및 업무기반, 시장규모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 측면의 변화는 없으나 주식시장의 회복에 따른 시장가치 및 유동성이 크게 증가

<표 5> 글로벌 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유동성

	시가총액 (USD bn, 2018.04.30기준)	주식회사전환 (연도)	주요상품
New York Stock Exchange (미국)	24,220	2006	증권
NASDAQ (미국)	11,860	2001	증권
Japan Exchange Group (일본)	6,288	2001	증권 및 파생상품
Shanghai Stock Exchange (중국)	5,023	(국유)	증권
Euronext (유럽연합)	4,649	2000	증권 및 화폐, 상품 금리 파생상품
London Stock Exchange Group (영국, 이탈리아)	4,596	2000	증권
Hong Kong Stock Exchange (홍콩)	4,443	2000	증권 및 금리 파생상품
Shenzhen Stock Exchange (중국)	3,547	(국유)	증권
Korea Exchange (한국)	1,841	2005	증권 및 화폐, 금리 파생상품

자료 : Jung, Nu Ri, A Study on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2011) 및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3) 보험업

가)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업의 수입 보험료 규모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일본 및 유럽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시장이자율의 하락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상품 및 자산운용 부문에 있어서 위험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

○ 상품 측면에서는 기존의 금리보장 상품 위주에서 금리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투자연계형(unit-linked) 상품이나 보장성 상품 판매를 확대

▣ 생명보험업은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거나 자산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자본비용의 상승에 대응

○ Solvency Ⅱ 및 IFRS 17 회계기준 채택 등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부담 증가로 자본력 강화가 불가피

나)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업은 일반 기업성 상품에 비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손해보험업의 수익성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의 감소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손해율 개선 및 판매비용 효율화 등으로 합산비율(combined ratio)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다) 재보험업

▣ 재보험업계의 경우 자연재해 및 대재해 관련 손실에 따른 수입·수익 변동성은 커진 반면 대체자본의 증가로 자본력은 개선

4)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위축을 겪었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위험프리미엄의 감소와 세계경제의 개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수요의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

○ 글로벌 운용자산 규모(asset under management, 이하 AUM)는 2008년에 2007년 대비 약 23% 정도 감소하였으나 자산가격의 상승, 기업수익의 회복,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등으로 AUM은 증가

▣ 시장구조적 측면에서는 대형 자산운용기관(asset manager)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형 자산운용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및 한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시장의 비중이 다소 증가

▣ 운용상품은 전통적인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체투자형 상품 규모도 점차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대체투자형 상품의 규모는 2012년에 1.9조 달러에서 2016년 2.4조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상위 운용기관 중에서 은행계 운용기관에 비해 독립 운용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상위 20개 자산운용기관 중에서 은행계는 2007년에 9개사에 이르렀으나 2016년 7개사로 감소

○ 또한 소극적 운용펀드(passive fund)의 규모가 2012년 3.7조 달러에서 2016년 5.6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 향후 자산운용시장은 장기적으로 금융기술을 이용한 투자기법의 활용, 자산운용기관의 투명성 제고, 대체투자의 활성화, 수수료 경쟁에 따른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 핀테크 및 ICT 산업의 변화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 최근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술혁신이 경제·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을 계기로 주목받게 됨

▣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기업들은 핀테크를 더욱 심화·확산시켰고, 금융업의 디지털화 및 탈중개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됨

1) 지능화 & 융합

▣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AI, IoT, CPS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지능화)과 초연결성(융합)을 꼽을 수 있음

2) 플랫폼화

▣ 플랫폼화는 제품과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의미

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구조적 변화

가) 기능별 분화

▣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앞세운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화(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나) 온라인 채널

▣ 스마트폰 보급확대 등 모바일기기 확산으로 온라인채널로의 급격한 고객 대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기존 산업 내 경쟁구도를 변화

다) 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으로 최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2) 분야별 변화

가) 지급결제

▣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 영역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와 간편 결제 등이 빠르게 확대

▣ 특히 비금융회사들의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거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나) 송금 및 대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국제 송금은 일반 송금보다 거래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메기효과(Catfish effect) 발생

다) P2P대출

▣ 국내 P2P대출 사업 및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P2P대출 금액은 2016년 6월 1,526억 원에서 2018년 6월 현재 2조 3,469억 원으로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

라) 펀딩

▣ 국내 크라우드 펀딩 발행 실적 규모는 2017년에 총 183건(164개사)의 펀딩을 통해 278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전년 대비 펀딩건수 59.1% 및 조달금액 59.7%로 증가하는 추세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특징

마) 자산관리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자산관리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

바) 인증

▣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인증 시장의 높은 성장이 기대

사) 사물인터넷 IoT

▣ 사물인터넷(IoT)[2]은 사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통신·제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국내의 경우 아직 도입 단계이나 위치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금융상품 등 금융회사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아) 보험

▣ 최근 국내 한 보험사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보험금 지급관리와 보험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

2)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이며, 사물에 센서 및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기술을 의미함. 1999년 MIT의 Kevin Ashton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며, 최근 OECD(2016)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물질계에 접속하고 이를 감지하는 장치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들의 생태계’라고 함. (IoT refers to an ecosystem in which applications and services are driven by data collected from devices that sense and interface with the physical world.)

3) 금융시장 인프라 변화

가) 중계기관의 역할 변화

▣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회사 간 정보중계센터의 전통적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정보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가 불가피해짐

○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과 기능이 축소 될 것으로 예상

나) 금융기관 수익기반의 변화

▣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기존 은행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하기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공급 철학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반면,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서 중심적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다) 금융서비스의 변화

▣ 금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은행시스템과 분리될 것으로 예상

3. 해운업 동향 및 모멘텀

가. 동향

1) 세계 외항 해운의 현황

▣ 세계 주요 품목별 해상물동량

○ 2017년 세계 주요 품목별 해상물동량은 중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원유 및 석유 제품) 26.7%, 철광석, 석탄 및 곡물의 3개 품목이 27.5%

▣ 주요 항로의 수송 동향

○ 2017년 정기 컨테이너 선박의 움직임을 보면 북미향, 유럽시장향, 그리고 유럽발 물동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지만 북미발 물동량은 감소 중

○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는 세계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은 중국 항만이 상위의 대부분을 차지함

▣ 북미 항로

○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고용 환경의 개선과 개인 소비의 신장에 의한 견조한 경기 지속으로 2017년 북미 항로의 물동량은 동항(아시아 → 북미)이 15,294천 TEU(전년 대비 3.9% 증가), 서항(북미 → 아시아)이 6,046천 TEU(전년 대비 3.0% 감소)로, 동항은 과거 최고치를 경신

○ 동항·서항 모두 최근 동 항로에서 선사별 점유율의 구성에 큰 변화는 없으나 아시아 해운 기업의 점유율은 상승 추세에 있음

○ 북미 항로의 운임은 기록적인 최고치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부터 회복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 답보 상태

○ 미국 경제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운임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

▣ 구주 항로

○ 유럽에서는 영국의 경기둔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로존에서 기업 업황의 호조와 개인소비 증가에 힘입어 2017년 유럽 항로의 물동량은 서항(아시아 → 유럽)이 12,472천 TEU (전년 대비 3.6% 증가), 동항(유럽 → 아시아)이 6,566천 TEU (전년 대비 4.8% 증가)로 회복을 계속중

○ 동 항로의 컨테이너 취급 수의 합계는 19,038천 TEU로 그 중 약 6할은 중국발착임

○ 유럽 항로의 운임은 유럽 경제의 회복에 따른 물동량의 호조로 상승했지만 여름 이후부터는 하락세에 있고 답보상태임

▣ 항로 관련 현황과 과제

○ 북미 항로·유럽 항로에서 왕항(往航)과 복항(復航)의 화물량 차이가 거의 2대1의 비율로 차이가 존재. 이 왕항·복항의 불균형은 예를 들어, 북미에서 아시아 방면에 빈 컨테이너 운송이 발생하며 빈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북미 수출화물의 수송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사의 큰 부담이 됨

▣ 건화물 정기용선 시황

○ 2017년 건화물의 시황을 정기용선료로 보면 케이프사이즈(Capesize)의 경우, 호주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에 의한 배송의 영향이 길어진 것이나, 브라질 수출용 철광석 출하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하락했지만 중국의 왕성한 철광석 수요를 배경으로 연말에는 상승

○ 파나막스(Panamax)의 경우 남미 동해안 곡물 화물의 견조한 물량과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로 상승세를 유지

▣ 유조선 정기용선 시황

○ 2017년 유조선 시황을 정기적 용선료에서 보면, OPEC의 원유 감산에 따른 수송량의 저감, 여름철 수요 감소기에 의한 물동량 감소, 호황시에 발주 된 신조선 준공의 지속에 따른 선복 과잉으로 인해 계속 하락세에 있음

나. 모멘텀

1) 해운 자유화

▣ 해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야한다는 "해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 환경 실현을 위한 다자·양자의 자유화 협상이 활발함

○ 세계 무역기구(WTO)

○ 경제 협력 협정(EPA) / 자유 무역 협정(FTA)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해운 선진 18 개국 당국간 회의(CSG 회의)

2) 에너지 균형축의 이동 -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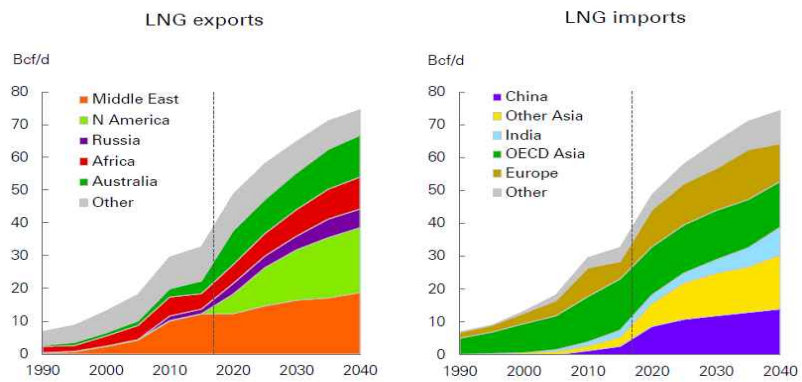
▣ British Petroleum 및 엑손모빌이 발표한 2018년도 에너지 전망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부터 본격적인 세일가스를 통한 에너지 수출국의 발걸음을 내딛을 전망. LNG수출은 미국과 카타르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세계 수출의 약 절반을 이 두 나라가 점유할 전망. LNG의 주요 아시아 수입국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이며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앞으로 LNG무역항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음. 아시아의 수요 자체는 존재하나 그 경제성에는 운송비용 등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

▣ 부산항 및 부산 인근의 저장 터미널을 활용하여 아시아에 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전반적인 아시아향 수송비용을 경제적으로 타당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시야에 넣는 에너지 허브로서의 부산을 북미 에너지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제공할 가능성 있음

▣ 물류의 최상위 밸류체인인 화주(Cargo Owner) 중 가장 장기적인 거시적 추세를 보이는 에너지 기업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해운/조선/물류/설비 등 각종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LNG수출/수입의 변동 예상



자료:: British Petroleum

3) ESG의 본격적인 대두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장기적인 시각이 사회에 침투함에 따라, 시장에 관한 폭넓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선박이 가져다주는 공해에서의 환경이슈 등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발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10월 국제 해사기구(IMO)의 결정에 따른 2020년부터 일반 해역에서의 SOx 규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료 공급 거점으로서의 LNG 벙커링 거점 유무가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 오고 있음

4) 해운 각사의 재무체제 개선 및 효율화 도모

▣ 7년 주기의 업계 사이클설로 대표되는 해운업계의 불황에서 회복기로 접어드는 사이클이 모두의 예측을 벗어나고 예측보다 더 장기적인 침체로 접어들면서, 선주, 해운회사, 조선업계, 그리고 각종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 혹은 피해에 직면해야 했음

▣ 이 시기에 흑자를 달성한 기업의 특징은 IT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요 무역항로의 운송효율을 위한 Cascading(대형선박으로 대륙간 이송을 한 후 중소형 선박으로 세부루트를 잇는 방식)의 활용 등이 있으며, 대형선박을 보유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회사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함

▣ 이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하며 해운업계에서 대형M&A가 이어지면서, 재무 체질의 강화 및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5) 아시아의 대형항만화

▣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컨테이너 전체 물량 중에서도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함

▣ 이 같은 아시아의 화물량 증가를 배경으로 상하이 항, 싱가포르 항, 선전항 등 아시아 주요 항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이 중 부산항 역시 상위에 포함되고 있음. 반면 컨테이너 취급 개수 기준으로 볼 때 1984년에 물동량 세계 4위였던 일본의 고베항이 2016년에는 30위 안에조차 랭크되지 않고, 일본 최고의 물동량을 가진 도쿄항마저 31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항만의 순위재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4. 4차산업혁명型 해운클러스터(해운클러스터2.0)의 대두와 현 선박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

가. 해운클러스터2.0의 등장배경

▣ 테크놀로지의 적용분야가 해운섹터는 물론 업계의 모든 섹터에 적용이 되면서, 해운과 관련한 밸류체인의 전분야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해운 클러스터의 균형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각 정부는 자국의 해운 클러스터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

나. 전통적인 해운클러스터의 발전추이

▣ 전통적으로 해운클러스터는 동종그룹 내 업계, 혹은 밸류체인으로 연결되는 회사(예: 공급사 등), 서비스 공급자, 파생되는 업계의 관련회사,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상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을 지역적으로 한곳에 집약한 결과물로 탄생하는 공동체를 의미함

▣ 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밀접하게 업체들이 위치함으로서 생기는 가장 큰 가치는 다음과 같음

○ 집단적인 지적재산의 형성과 공유의 촉진

○ 업계의 표준 및 암묵적/명시적 가이드라인이 형성됨으로서, 업계 전반의 퀄리티가 향상

○ 특정 방향에의 클러스터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결조율을 하기에 용이

▣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부가가치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도 항만, 해운, 수산, offshore 관련기업들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다수 등장했으며, 전략적인 성장 방향성에 따라 그 발전 형태 및 활동 내용은 나라별로 각각 차이가 있음(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노르웨이와 수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차이가 그 예)

다. 해운클러스터2.0의 전개성향 및 KSF (Key Success Factor)분석

▣ 그동안의 클러스터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클러스터의 성공은 다음의 3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에서 이루어짐

○ 기술적 혁신

○ 클러스터 내 경쟁과 상생

○ 환경에의 영향

▣ 클러스터의 성공에는 다음의 네가지 요소가 KSF(Key Success Factor)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리더십(Leadership) - 전략이 되는 업계를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

○ 실행력(Action) - 공공섹터, 규제당국, 민간업체, 금융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밸류체인 구도를 잘 이해하고 수립된 전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

○ 클러스터 환경(Cluster environment) -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적 경쟁성

○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 클러스터 멤버들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의 명확화 및 일관성

라. 시사점

▣ 산업혁명4.0이 구체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현실에 반영된 정책이 점점 진행되어 가면서, 각 클러스터의 현재 구도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재편되는, 해운클러스터2.0化의 움직임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테크놀로지 기업과 사업체의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이 경쟁력 확보 유지에 필수적으로 부각되면서, 테크놀로지 기업 혹은 솔루션을 클러스터에 연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기업형 엑셀러레이터 등 기존의 해운섹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업체들까지 클러스터에 편성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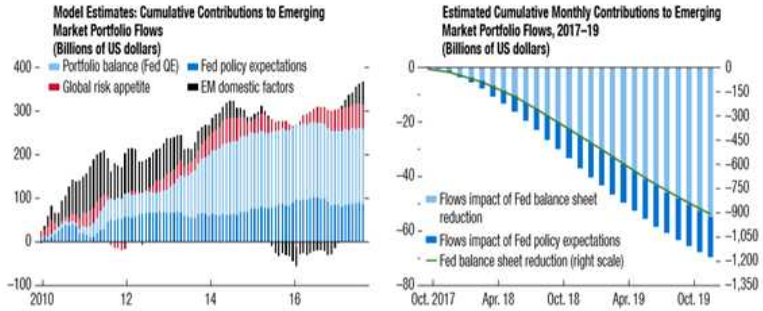
▣ 해운은 대표적인 대형안건으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장기용선에 의해 리스크를 관리하던 기존의 금융기법에 IoT 등의 기술이 접목

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기법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통한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5. 신흥시장의 자본유출입 현황

▣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년)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연준위(FRB)의 비전통적 정책추진(unconventional policies)으로 신흥시장에 약 2,600억 달러의 포트폴리오가 유입됐으나, 2017년~2019년 동안 연준위 정책이 정상화됨에 따라 연간 약 350 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흐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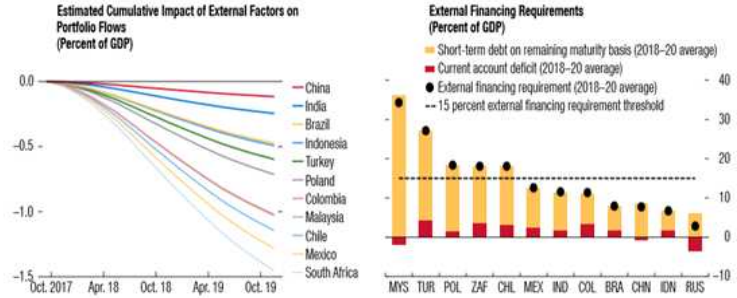
<그림 5> 신흥시장포트폴리오 유입



자료: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

▣ 투자자가 위험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포트폴리오 유입액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국가의 경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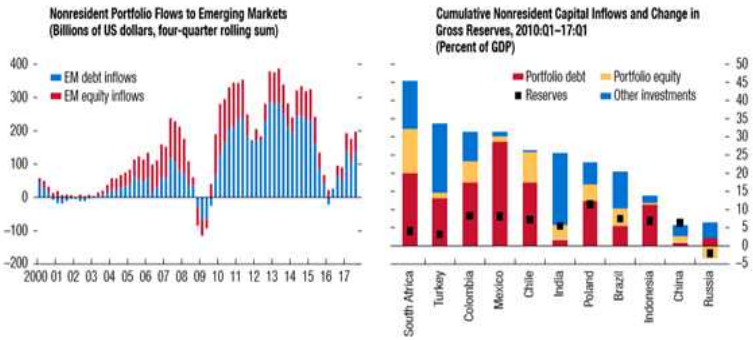
<그림 6>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유입예상액과 외부자금수요액



자료: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

▣ 신흥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 및 기업의 취약성 감소로 수익성이 높아져, 최근 포트폴리오 유입의 주목할 만한 회복세가 보이는데 포트폴리오 유입의 주요 수혜자는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신흥 시장 경제임

<그림 7> 신흥국 비거주자 포트폴리오 유입액과 누적액, Gross Reserves의 변화



자료: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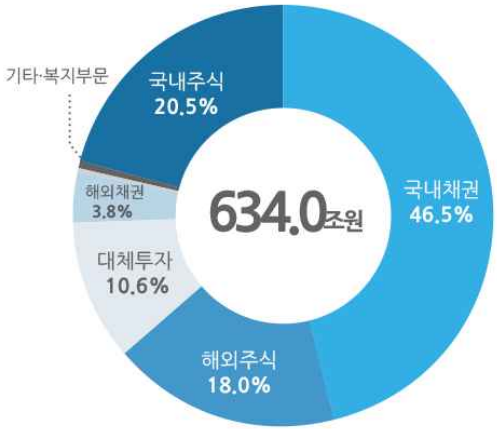
6. 국내외 자본축적에 따른 자산운용산업의 전망

가. 공적연금 현황

▣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투자규모는 632.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금융부문의 비중은 국내채권 235.1조 원(46.5%), 국내주식 130.1조 원(20.5%), 해외주식 114.3조 원(18.0%), 대체투자 67.3조 원(10.6%)순으로 나타남

<그림 8> 국민연금 투자부문

(단위: 조원, 2018년 5월말 기준)



2018. 5월 말 기준	단위 : 조원	
부문	금액	비중
금융부문	632.9	99.8%
국내주식	130.1	20.5%
국내채권	295.1	46.5%
해외주식	114.3	18.0%
해외채권	23.8	3.8%
대체투자	67.3	10.6%
단기자금	2.2	0.4%
기타·복지부문	1.1	0.2%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1988년부터 적립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8년 5월말 634조 원에 이르며, 2022년 1000조 원, 20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9>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단위: 조원, 2018년 5월말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나. 퇴직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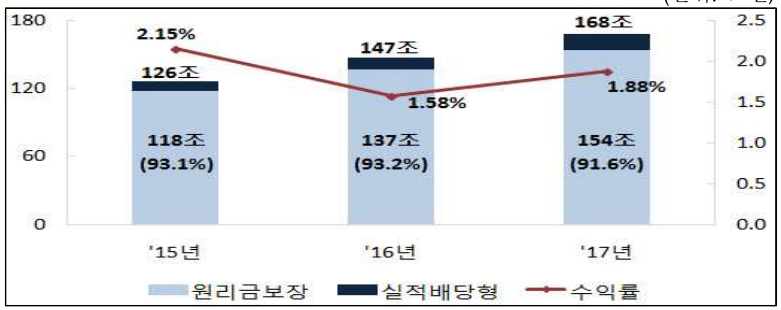
1) 적립금 및 가입현황

▣ 2017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4조 원으로 전년(147.0조 원) 대비 21.4조 원(14.6%) 증가함

○ 이중 88.1%가 원리금보장상품(148.3조 원)으로 운용되었고, 8.4%만이 실적배당형상품(14.2조 원)으로 운용됨

<그림 10> 최근 3년간 적립금 및 수익률

(단위: 조원, %)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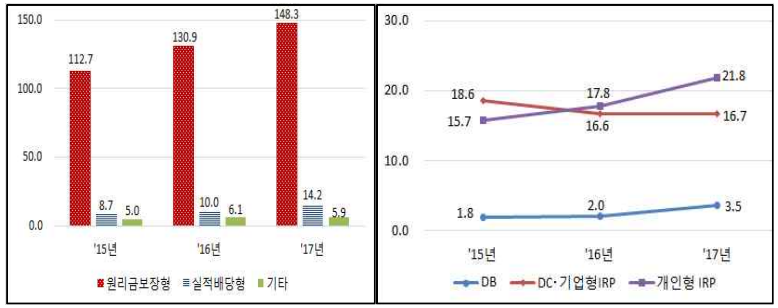
2) 제도별 권역별 운용현황

▣ 적립금 중 8.4%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어 원리금 보장상품 편중현상(88.1%, 대기성 자금 포함시 91.6%)이 지속됨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중은 DB(94.6%), DC·기업형 IRP(78.7%), 개인형IRP(66.3%)임. 모든 제도유형에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그림 11> 운용방법별 적립금 추이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추이

(단위 : 조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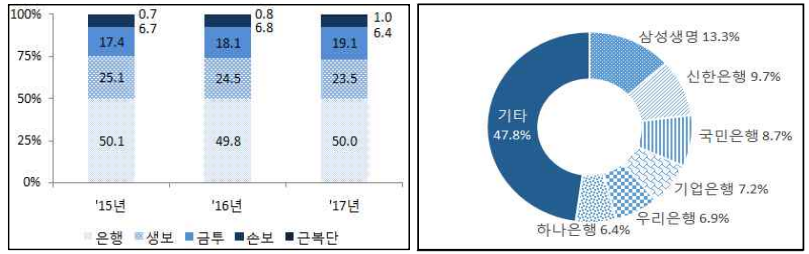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업권별로는 은행(50.0%)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3.5%), 금융투자(19.1%), 손해보험(6.4%), 근로복지공단(1.0%) 순임

○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상위 6개사의 적립금이 52.2%를 차지함

<그림 12> 권역별 점유율 추이 / 사업자별 점유율

(단위 : %) (2017년,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3) 퇴직연금 수익률현황

▣ 금융권역별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많은 금융투자(2.54%)가 가장 높고, 생보(1.99%), 손보(1.79%), 은행(1.60%), 근로복지공단(1.58%)순임

<표 6>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금투	생보	손보	은행	근복단	전체
'17년[A]	**2.54**	**1.99**	**1.79**	**1.60**	**1.58**	**1.88**
원리금보장형	1.67	1.73	1.72	1.29	1.49	1.49
실적배당형	7.02	7.63	8.20	5.86	9.63	6.58
'16년[B]	1.55	1.77	1.98	1.43	1.71	1.58
증감[A-B]	+0.99	+0.22	△0.19	+0.17	△0.13	+0.30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다. 공사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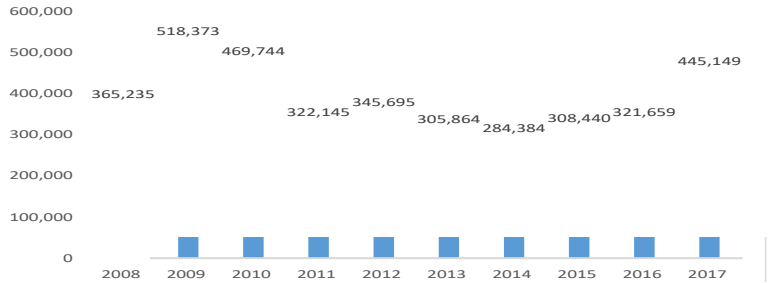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 자산이 급속히 축적되고 고령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가 증가세를 보임

▣ 해외투자펀드 순자산총액은 2017년 4.45조 원으로 2014년 2.84조 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국내의 자금흐름이 유입(inflow)에서 유출(outflow)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12> 해외투자펀드(공모펀드) 순자산총액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해외 직접투자도 2014년 이후 매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153.6억 달러, 북미 143.8억 달러, 중남미 89.9억 달러 순으로 확인됨

<그림 13> 해외직접투자 (신고기준)

(단위: 천만달러)

자료: 한국은행

Ⅳ. Benchmark 대상 글로벌 금융중심지 변화 및 시사점

▣ 2018년 3월 발표한 GFCI 23 기준으로, 2010년 3월(GFCI 7) 대비 순위가 상승한 도시 23개 중 9개를 Benchmark 대상으로 선정

○ 중국의 광저우·칭다오, 밴쿠버, 두바이, 멜버른, 오사카, 방콕, 함부르크, 텔아비브 총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

<표 7> Z/YEN 보고서에 의한 금융중심지(2010 vs. 2018, 순위 상승 기준)

나라 및 지역	도시
중국	**Guangzhou, Qingdao**, TianJin
캐나다	Montreal, **Vancouver**, Calgary
중동	**Dubai**, Abu dhabi, Doha
퍼시픽 아시아	**Melbourne, Osaka**, **Bangkok**, Kuala Lumper, Busan
기타(조세회피지역 포함)	**Hamburg, Tel Aviv**, Cyprus, Liechtenstein, Warsaw, Bermuda, Casablanca, Cayman Islands, Los Angeles

자료: GFCI(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7(2010), 23(2018)

1. 광저우 (Guangzhou)

▣ 광저우는 2017년부터 신흥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광저우는 2017년 3월 GFCI에서 650점으로 88개 도시중에서 37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 광저우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존의 지역중심, 제조업 중심 기반에서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연계한 제조업, 서비스,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강화

○ 2013년 이후 광저우는 기존의 상하이와 더불어 푸젠(Fujian) 및 톈진(Tianjin) 등과 더불어 핵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의 발전 모색

○ 2단계 핵심전략은 기존의 생산중심에서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무를 중심으로 한 난샤 자유무역지대(Nansha FTZ)와 광저우 금융 도시(Guangzhou Financial Town)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반 강화

▣ 2012년에 Guangzhou International Award for Urban Innovation을 마련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

▣ 2016년 12월 ~ 2017년 8월 중에 금융중심지, 산업중심지, 무역중심지로서의 글로벌 입지(internationl reach) 강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쇼(Roadshow) 및 홍보행사(promotion fairs)를 미국 및 유럽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

○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Silicon Valley, Boston, Tel Aviv 등에 지역사무소 설치

▣ 광저우는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세계 4위 거대연안지역(Great Bay Area)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충

○ 광저우 국제 금융 엑스포(Ghuangzhou International Financial Expo, GZIPE)를 개최

○ 광저우 금융중재법원(financial arbitration court) 및 금융재판소(trial division), 증권거래소, 탄소거래소, 청산기구, 실물거래소(financial assets exchange), 해운거래소 외 6개의 거래플랫폼을 설립

○ 금융클러스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 존(Financial Innovation Service Zone), 국경간 거래 중심의 난샤(Nansha) 금융서비스 존, 녹색금융개혁 및 혁신 실험 존 (Green Finance Reform and Innovation Pilot Zone)을 설치

▣ 녹색금융개혁 및 혁신 실험 존(Green Finance Reform and Innovation Pilot Zone) 도입

▣ 국경 간 거래 중심의 난샤(Nansha) 금융서비스 존 도입

▣ 광저우 정부는 2018년 6월에 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한 6억 RMB 규모의 Sino-Israel 생명공학 투자기금(Biotech Investment Fund)을 설립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인큐베이터 기반을 강화

▣ 광저우 제조업의 우월적 기반과 홍콩 등 지역적 연계성을 활용한 지역 및 산업, 무역벨트 등 포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보

▣ 광저우는 상하이 등 정치경제 중심지와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타 역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

○ 광둥성(Guangdong), 홍콩(Hong Kong), 마카오(Macao), 타이완(Taiwan) 등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한편 난샤 지구(Nansha Financial 15)를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 및 선박금융에 특화

▣ 또한 광저우는 에스크로우(escrow), P2P 온라인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인터넷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인터넷 중심의 금융 기반을 확충

2. 오사카(Osaka)

▣ 오사카는 GFCI에서 평균 25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중심지에 해당

▣ 2013년 1월에 도쿄 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와 오사카 증

권거래소를 통합해 지주회사 일본거래소(Japan Exchange Group)를 출범

▣ 오사카 증권거래소(Osaka Stock Exchange)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는 지난 10년 동안 네 배로 증가하였으며, 야간 시장의 활성화에 기인

○ 이러한 성장의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은 2006년에 거래를 시작한 니케이 225 미니 선물(Nikkei 225 mini contract)이 있었기 때문

* 전 세계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상품으로 성장

○ 2007년 야간시장거래를 시작한 이래 시장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 시간을 여러 차례 연장

▣ 오사카 거래소의 활성화는 현물시장의 회복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야간거래시장의 변화에 기인

○ 통합거래소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거래소에 의한 신시장 개척 혹은 정책적 기조 등에 의해 결정

3. 함부르크(Hambrug)

▣ 함부르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음

▣ 함부르크는 2008년 이후 해운업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위축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확장, 주거기반의 확충, 환경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개혁 또는 정책을 추진

▣ Hafencity 함부르크(Hafencity Hamburg) 전략을 추진하여 도심 내 항구 주변지역을 재활성화하고 공공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도시개발, 해변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 함부르크는 복합 클러스터(cluster) 전략을 통해 2000년대 이후 항공클러스터에서 출발하여 생명공학, 로지스틱스, 금융 및 의학, 재생에너지, 해양클러스터로 확대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달성

▣ 함부르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은 클러스터 정책의 연계성 및 다양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산업기반과 연계한 금융기반을 강화

○ 함부르크의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는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형성된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주택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또한 지속적인 정책적 유연성을 통한 혁신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선박 및 항공분야에 있어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혁신 중심의 정책이 기존 업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 주택공급 등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경쟁력이 타 금융중심지 또는 경쟁지역 대비 금융중심지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4. 칭다오(Qingdao)

가. 개요

▣ 칭다오는 산동반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북동쪽의 옌타이(Yantai)시, 서쪽의 웨이팡(Weifang)시, 남서쪽의 르자오(Rizhao)시의 3개 도시와 인접하고 인구는 2014년 현재 약 904만 명임

▣ 칭다오는 주요 항구, 해군 기지 및 산업 중심지로서 2018년 3월 GFCI에서 33위를 차지했으며 2007년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중국 도시 브랜드 가치 보고서 (Chinese Cities Brand Value Report)에서 중국의 상위 10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나. 경제

▣ 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칭다오 지역총생산(GRDP)은 1조1,037억 2,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

○ 이는 2017년 중국 전체 성장률인 6.9%를 크게 웃도는 성적으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전진)'을 제대로 실현했다는 평가임

▣ 1903년 독일-영국 합작으로 설립한 Tsingtao Brewery로 알려진 칭다오 맥주가 생산되고 대형 백색가전 제조업체인 하이얼(Haier)사와 주요 전자회사인 하이센스(Hisense)사가 있음

▣ 1984년에 중국 정부는 칭다오 특별구를 특별경제기술개발구 (SETDZ)라고 명명함

○ 칭다오시는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 외국 투자 및 국제 무역으로 번성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많았음

다. 해양경제 중심지로서 칭다오

▣ 칭다오시가 글로벌 '해양경제(海洋經濟)'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중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으며, 2018년도 13기 전인대에서도 재차 해양강국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 칭다오는 한국, 일본과 인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177개 항구 도시와 연결돼 해상 물류 허브로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칭다오에는 중국해양대학(中國海洋大學), 중과원해양소(中科院海洋所), 국가해양국제일해양소(國家海洋局第一海洋所) 등 26개에 달하는 유관 기관이 자리잡고 있음

▣ 칭다오는 적극적인 해양경제 육성 계획을 통해 해양산업 생태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신흥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임

○ 란구취(藍谷區)를 해양경제발전 시범구(海洋經濟發展示範區)로 지정, 해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

○ 칭다오는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서 핵심 거점 도시로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East Asia Marine Cooperation Platform)도 칭다오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앞으로 칭다오시는 세계적인 항만 기반시설을 발판으로 무역, 금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국제적인 해양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임

5. 밴쿠버(Vancouver)

가. 개요

▣ 캐나다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

○ 2018년 IMD[3]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캐나다는 평가대상 63개국

3)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중 종합 순위 10위를 차지했으며, 4대 평가분야인 경제성과(13위), 정부효율(9위), 기업효율*(7위), 인프라(7위) 부문에서 모두 상위권에 랭크됨

*** 금융경쟁력은 9위를 기록**

▣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지역의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의 대표도시로 조지아 해협의 버라드만(灣)과 프레이저강(江)의 삼각주 사이에 위치해 있어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기 좋은 지리적 장점 보유

▣ BC주는 지난 8년간 100개가 넘는 세금감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북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존재

나. 금융환경 및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 밴쿠버의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2010년(GFCI 7) 이후 꾸준히 10~20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밴쿠버는 은행업에서 판매금융, 결제, 모기지중개업, 신용조합(Credit Unions), 증권업에서는 대외무역 관련 결제·금융,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지원 등에 중점을 둠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1) 글로벌 금융플레이어로서의 역할

▣ 캐나다를 대표하는 Big Five(업계를 지배하는 5대 은행)은행이 BC주에서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우위를 보임

2) 국제금융센터(AdvantageBC)

▣ AdvantageBC는 밴쿠버의 국제금융센터로서 30년 전 설립된 Vancouver Board of Trade(1988)를 모태로 발전된 회원 중심의 협회임

○ British Columbia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는 1988년 동 협회가 결성됨과 동시에 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 Act를 제정함으로써 AdvantageBC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동 법의 제정은 BC주에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국제금융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편, 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 Act는 최근까지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Act로 존치하였으나, 2017년 9월 12일 현재 동 법에 포함된 주요 세제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의 효력 또한 소멸되었다고 판단

3) 인민폐 거래소

▣ 중국 인민폐 거래소는 전 세계 9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캐나다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인민폐 거래소로 지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캐나다 및 미주·중남미지역 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거래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Time Zone Advantage도 존재

○ 캐나다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로 위안화 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을 확보

6. 두바이(Dubai)

가. 개요

▣ 두바이는 페르시아만의 남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114㎢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번째로 크고, 인구는 301만명(2018년 3월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최대임

▣ 두바이는 중동의 글로벌 도시이자 비즈니스 허브이며, 또한 승객과 화물 운송허브로서 관광, 항공,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임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스포츠 행사,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Burj Khalifa)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음

○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22위(2012년 기준)에 올라 중동 지역 도시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2011년 기준)로 선정됨

나. 경제

▣ 2017년 두바이의 GDP는 410.5억 디르함(1,117.7억 달러)이며, 경제 성장률은 3.7%임

○ 두바이의 무역 인프라의 핵심요소는 석유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로부터의 수입은 토후국 전체 수입의 5% 미만을 차지함

○ 부동산 및 건설(22.6%), 무역(16%), 창업(15%) 및 금융 서비스(11%)가 두바이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두바이는 정보기술 및 금융과 같은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이며, 도시 전역에 산업별 자유 지역이 있음

▣ 1970년대에 건설된 두바이의 제벨 알리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 세계적으로 7위를 차지함

▣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둔화의 결과로 2008년과 2009년에 큰 하락을 경험했으며, 2009년 초까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가격, 건설 및 고용에 큰 타격을 입음

다. 금융센터 및 증권거래소

▣ 두바이 증권거래소(Dubai Financial Market: DFM)의 2018년 8월 시가총액은 1,040억 달러로 전세계 증권거래소 중 40번째로 큰 거래소 임

○ 나스닥 두바이(NASDAQ Dubai)는 중동의 지역 및 국제 주식을 열거한 두바이 기반 증권 거래소로서 금융 자유구역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두바이 금융 서비스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의해 규제됨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는 2004년 110헥타르 규모의 지구로,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MEASA) 시장을 위한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로 출범함

○ DIFC는 자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기관 및 사법 제도, 관습법 체계, 국제금융거래, 세제 친화적 정권, 대형 국제 경제계를 보유하고 있음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세 개의 독립기구로 운영됨

○ DIFC 당국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전략적 개발, 운영 관리 및 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관리기관임

○ 두바이 금융서비스국(DFSA)은 중앙 및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DIFC의 모든 금융 및 비금융기관의 활동을

감독 규제함

○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는 DIFC 법원, DFIC-LCIA 중재센터, DIFC 법학원을 통합하며 센터의 독립적인 관리 및 사법 집행을 담당함

▣ DIFC의 장점은 정치적 안정성, 확고한 치안, 국제 표준적 금융규범 체제, 조세적 인센티브, 우수한 사회 인프라, 영어사용, 독립적 법률 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있음

○ 세금 면제, 100% 외국인 소유 허용, 무제한 과실 송금 등 DIFC 내 입주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 통신, 전기 등 각종 사회 인프라가 주변국에 비해 우수하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주요국에 대한 비자면제 및 항공, 호텔 등 비즈니스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에 비해 우수

○ DIFC 구성원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 언어 소통이 100% 가능하며 각종 서류도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만 제출

○ DIFC 관청(Government Office)내에 보건소 등을 설치하여 입주 기업 직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관련 건강검진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자체적으로 제공

○ DIFC UAE는 국내법과 완전히 독립된 법률체계를 지니고 있어 DIFC UAE 입주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타르,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금융센터와 차별

▣ 반면 DIFC의 단점으로는 높은 사무실 임차료, 수수료 등 비용 측면과 최초설립 은행(Start-up)을 허용하지 않아 타 지역에서 기존에 설립 인가를 받은 은행이 아니면 DIFC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제약 존재

○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연간보고서 제출 상업등기 갱신, 비자 발급 및 취소 등 모든 행정절차에 과다한 수수료 징수

7. 멜버른(Melbourne)

가. 개요

▣ 호주의 2017년 말 명목 GDP는 1조 3,795억(전세계 GDP의 1.7%)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없이 27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한편, 호주 경제는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 등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건설 및 제조업은 취약한 형태

<표 8> 호주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0	6.3	7.9	6.3	76.5	9.4

주 : 2017년 6말 Gross Value Added 기준
자료: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8

▣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VIC)는 메디컬, 바이오, 정보통신 산업 및 교육의 중심지이며, 멜버른항은 호주 최대 규모의 수입통관 항구

○ 빅토리아주(VIC)에는 세계 탑10 바이오 및 메디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멜버른시는 바이오 메디칼의 중심지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공와우 전문회사 Cochlear사, 생체공학 안구 전문회사인 Bionic Eye사의 본사가 있음

▣ 또한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독자적인 상권 구축이 용이

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 호주의 금융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 멜버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2010년(GFCI 7) 26위(총점 617점)를 기록한 이후 20~30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2018년 3월 현재 12위(720점)를 기록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1)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

▣ 멜버른시는 호주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7~2021년 스타트업 액션 플랜을 계획

○ 지난 10년 간 멜버른 스타트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전체의 25%까지 증가(6만개 직업)했으며,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투자유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 담당

○ 'Start, grow and go global'이라는 비전 아래 400여 개의 현지 스타트업 및 관련 기관,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마련

▣ 또한 멜버른은 우수한 인재, 다양한 인종과 언어, 살기 좋은 거주환경 등의 장점을 보유

▣ 멜버른은 스타트업 유망업종으로 바이오·메디컬·디지털게임·스포츠·식품서비스·사이버보안 등 6가지 사업 분야를 'Startup Action Plan'에 포함

▣ 또한 멜버른에는 사무실과 멘토링 등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2)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 정책

▣ 호주는 다민족·다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유리

8. 텔아비브(Tel Aviv)

가. 개요

▣ 이스라엘은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지리적 특성상 방위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표 9>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규모

(단위: 억 달러,%)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규모	75	65	56	57	65	91
증가율	29.3	-13.3	-13.8	2	14	40%

자료: 이스라엘 국방부 최신자료

▣ 또한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국가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 스타트업 창업투자 및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이스라엘 전체 GDP(2017년 기준)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이상이며, 총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

○ 또한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이스라엘은 63개국 중 인구 및 GDP 대비 연구인력/R&D 투자부문 1위, ICT 서비스 수출 1위를 기록

○ 이스라엘의 나스닥 상장 기업수는 82개(2017년 2월 기준)로 해외기업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외국계) 나스닥 상장사의 20%를 차지

▣ 이스라엘의 우수한 IT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구글, IBM,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접근 역시 활발함

▣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

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 텔아비브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30위권 순위를 유지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이스라엘은 전 지역에 IT 기업이 산재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텔아비브의 Kiryat Weizmann Science Park와 Herzliya Industrial Zone, 북부 하이파 시의 Matam R&D Park, 예루살렘을 잇는 삼각지대는 이스라엘의 Hi-tech Technopolis로 불리는 지역

▣ 이스라엘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누파(TNUFA)'는 인큐베이팅 이전 단계의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초기 스타트업에게 최대 5만 달러, 승인비용의 최대 85%까지를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창업지원 서비스임

9. 방콕(Bangkok)

가. 개요

▣ 방콕은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태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부와 동북부 그리고 남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임

○ 방콕 및 그 주변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1,520만 명(2017년)을 기록

○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며 싱가포르, 홍콩과 맞먹을 지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고속 성장의 부작용으로 교통 혼잡, 수질 악화 등 중요 기반시설 문제, 사회 문제를 지님

나. 경제현황

▣ 도매 및 소매업은 도시 경제에서 가장 큰 부문으로 방콕 전체 총생산액의 24.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14.3%, 부동산 임대 및 사업 활동(12.4%) 운송 및 통신(11.6%), 금융 중개(11.1%) 등의 순임

▣ 방콕은 태국의 주요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의 본사가 소재하고 다수의 다국적 기업은 다른 주요 아시아 비즈니스 센터와 비교하여 인력 및 회사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방콕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음

▣ 소득 불평등은 방콕의 주요 쟁점이며, 특히 농촌지역 및 주변 국가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이민자 문제, 고소득층과 중산층과의 문제가 심함

다. 가계소득 및 지출 분석

▣ 2015년 태국의 연평균 가계소득은 32만 3,000바트(9,430달러), 가계지출은 25만 4,000바트(7,400달러)로 소득 대 지출 비중은 78.6% 수준이고 지역별 소득 수준은 방콕 및 주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음

라. 태국 증권거래소(SET)

▣ 1975년 설립된 태국 증권거래소(SET)는 방콕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시가총액은 17.92조 바트(미화 5,600억 달러)이며, 상장기업 수는 688개임

○ 2014년 9월 SET는 Sustainable Stock Exchanges 사업에 동참한 최초의 동남아 국가 및 아세안 회원국이 됨

Ⅴ. 부산 금융중심지의 향후 10년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

1. 향후 10년 비전

▣ 부산 금융중심지는 특화 금융지로서의 차별성과 연계성,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존 금융기반의 지역화 강화를 통한 역할 제고, 대외 경제여건 및 신금융기술 촉진에 대응한 기술금융 확충,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동북아 지역의 금융역할 확대 등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

▣ 또한 부산 금융중심지는 금융산업의 규제합리화 추세를 감안,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아가고, 서울 금융중심지 등 종합 금융중심지와 양립(pairing)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

▣ 특히 지역 내 금융산업 기반의 체계적 연계와 정책개발 등을 위한 조직기반의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부산 금융중심지의 지역리더십이 더욱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

▣ 향후 부산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10년 비전 및 목표는 동북아 해양, 파생, 기술금융 중심의 특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30위권(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순위 기준) 내 안착과 더불어 금융산업 및 관련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GRDP 기준 8%대 달성을 지향

2. 전략적 방향성

▣ 10년 후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은 다음의 4가지 방향성을 갖고서 추진

① 기존 해양선박, 파생금융 등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심화·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

* 동 방안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 전략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중심지 간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에 해당

② 혁신 경제에 대비한 클러스터 육성과 연계하여 기술금융 및 혁신금융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외연 및 범위를 확대

* 부산 금융중심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생금융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세를 감안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여 신금융기술을 활용한 기술금융 및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

③ 해양 클러스터 및 물류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기반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역연계성을 확대

* 특화형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지역경제나 인접 경제와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반 금융서비스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④ 남북 경협의 확대 가능성, 중국경제의 변화, 신남방정책 등과 같은 동북아 및 아시아경제 상황과 대외경제 기반의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개선

* 남북 경협 등 지정학적 여건의 변화를 통해 부산 경제의 핵심 산업에 해당되는 해운·수산·항만·물류·기술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남방정책 등에 힘입어 파생금융의 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기존 차별화 전략의 강화, 심화, 발전

▣ 선박 및 해양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관련 파급효과를 감안한 해양보험 및 재보험 등 금융서비스 확충을 장기적으로 모색

▣ 파생금융시장 및 백오피스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금융인프라 기반 및 신상품 개발 등을 계속 추진

▣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등을 촉진함으로써 부산 지역 내 금융기여도를 제고

2) 혁신경제에 대비한 혁신금융 확충 및 연계

▣ 신 금융기술 확대와 활용 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기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

▣ 신기술 기반의 확충은 해양금융이나 선박금융 등에 있어서 신기술과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이나 스마트시티 구축 등에 따른 ICT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

3) 지역경제 기반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확대

▣ 물류산업 육성, 해운클러스터 육성, 스마트 시티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금융서비스를 확대

○ MICE 산업과 같은 기존 시설기반을 활용하여 금융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벤처금융 등을 활용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4) 대외경제 기반 강화와 연계한 대외적 위상 제고

▣ 남북경협 등과 같은 동북아 지정학적 변화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등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북아 특화 금융중심지 입지를 강화

Ⅵ. 분야별 주요 전략 어젠다(agenda)

1. 해양금융

가. 연합형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전략 추진 및 클러스터 멤버에의 공급

▣ 국내외 우량 선주·화주로부터 받은 안건정보 및 우량 금융제공자로부터 받은 금융조건과 그밖의 해양금융과 관련된 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집행시점에 따른 투자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클러스터 조성

▣ 해외 해양클러스터와 대비하여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로서, 데이터 확보 및 모델링의 차원에서 다음 4대 자산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국내외 해운 클러스터에 가치를 공급하기위한 노력이 필요

知 (지적재산)	人 (인적재산)
- 국내외 해양금융 전문가들이 사내외 데이터베이스 및 이와 연계한 프로세스를 기계학습으로 구축,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계학습기반 금융플랫폼의 조기 구축 및 제공 - 또한 해당 플랫폼을 선박클러스터 전분야에 확산, 도입함으로써 정보/지식기반 의사결정프로세스를 확립	- 선박금융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기업을 조기발굴하여 부산에 유치하고 핵심인재의 조기확보 및 이를 통한 국내 전문가 양성과 해양클러스터 전분야의 경쟁력 강화
金 (금융자산)	物 (실물자산)
- 달러조달비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 No action letter 등의 도입을 통해 선박금융의 중요한 분야인 세제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해외투자기관이 onshore SPC를 경유해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 - JOLCO (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의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 있는 tax equity투자제도의 검토	- 한국 조선소의 프리미엄 이미지 유지를 위한 기존 노력을 지속 - IoT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혁신의 지속 - Fly-to-the-quality전략: 글로벌 핵심 선사, 선주 및 금융사를 연계하는 실적 구축을 통해 글로벌 선박금융플랫폼으로서의 부산의 이미지 확립

▣ 상기 4대 자산 중, 현존하는 가장 큰 이슈인 "브레인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반(Knowledge Base) 구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함

1) 지적재산

▣ 선박금융의 노하우라는 "브레인"기능이 육성되면 선박금융의 경험을 갖춘 기존의 지방상업은행에도 투자은행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짐

▣ 실물자산시장, 금융자산시장을 어우르는 글로벌 마켓의 동향을 포함한, 매크로이벤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 국내 투자가, 국내 선사를 정책적으로 우선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높은 수준(top profile)의 안건을 지속적으로 접하여 "지적재산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2) 인적자산

▣ 기존의 "전문가"의 정의를 보다 광의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한 안건실행"에서 "전문가가 구축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안건실행"이라는 패러다임 체제의 전환

▣ 지식기반구축 작업은 AI와 전문가의 협업(collaboration)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데이터들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인간과 AI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장점을 복합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임. 지식기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지역대학의 인력 등을 협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예상

3) 금융자산

▣ 그동안 한국의 기관투자가는 주로 두가지 이유로 선박투자의 검토를 꺼려왔음

○ 자체적인 달러 조달비용의 고비용 구조

○ 각 기관투자가에 요구되는 높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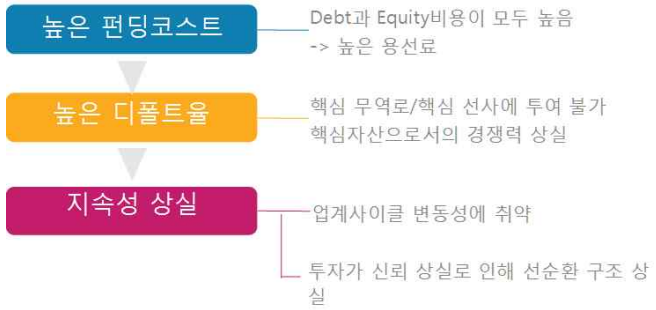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가가 제로금리로 접어들면서 선박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자체는 기관투자가가 검토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는 달러조달비용의 고비용구조가 구조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

○ 이에는 한국 원화 자체가 주요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함. 또한, 한국의 달러조달 창구가 대부분 산업은행의 산금채 등을 통하는 구조라는 점도 작용. 일본 지방은행의 경우, 엔화를 달러와 스왑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의 대부분 상업은행은 산금채 금리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비용을 조달한 것이 기준금리(Base Rate)로 작용

○ Libor, Tibor 등의 기준금리로는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는다며 Tax Equity[4)]등의 저렴한 에퀴티를 통해 총합비용(all-in rate)을 더욱 더 낮추려 노력하는 일본의 금융기관과 비교해 보면 넘을 수 없는 조달 비용의 차이가 존재

<그림 1> 조달비용의 차이로 인한 악순환 구조



▣ 달러의 조달비용으로 인해 한국의 선박금융은 출발선 자체가 글로벌 금융기관과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낮은 CAPEX 는 (1) 경쟁력 있는 용선료, (2) 높은 안건 퀄리티, (3) 탄탄한 수익성,

4) Tax Equity : 투자자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세액공제나 할인을 을 통한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의 자금조달 방식

(4) 낮은 디폴트율, (5) 높은 기업신용으로 이어지는 핵심요인임

○ 펀딩코스트는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로서 대출비용(Loan cost)과 자본비용(Equity cost)의 가중평균임. 대출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천함. 일본의 JOLCO (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가 대출비용보다 낮은 자본비용을 실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격경쟁력이 있는 WACC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임

▣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아이디어를 제안

○ 달러 조달코스트의 이슈가 없는 Overseas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조달을 Offshore SPC (Panama 등)을 통해 실현

○ 본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및 문제 해결방안의 탐구를 위한 관민 공동 간담회의 주최 - 실질적인 금융안건의 데이터에 기반한, 비용차이의 계량화 실시 및 대안방안 모색 등

4) 실물자산

▣ 조선업의 활황을 경험하지 못한 인력이 늘어나면서 한국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의 품질관련문제가 해외선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근의 선박 발주 등 선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물류혁신의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해운물류의 효율화를 테크놀로지로 해결하기 위한 IoT기술의 접목과 항만의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지원검토가 필요

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핀테크 기반 선박금융 투자은행 모델의 제시와 개발 (풀뿌리 기반, 민간형)

▣ 한국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등의 실력있는 기술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함. 실체를 들여다 보면, 마켓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 많으며, 특히 전문경영인이 현업과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상업화해 본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부족과 지식기반이 약한 상태로 기술만으로 결과를 도출하려는 프로세스가 많은 것이 원인임

▣ 선박금융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리더가 이끄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그 회사의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해운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함

▣ 지식기반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주체에 독자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는 등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투자은행 육성**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박금융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인공지능에 기반한 투자은행의 설립을 유도한다면 선박금융시장에서 그동안의 경험부족을 만회하고 민간영역에서 공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선박금융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임

○ 또한 선박금융 투자가 네트워크 및 금융 노하우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은행에 접목한 선진사례를 부산이 제시함으로써 금융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다. 아시아 해운클러스터 연합에서의 리더십 발휘

▣ 향후 지식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등 부산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외 클러스터 멤버를 확보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전략을 제안

▣ 싱가포르의 PIER71[5]의 성공사례와 같이, 해운 관련 IoT관련 스타트업 등의 기술회사 및 솔루션 육성을 검토. 또는 JIAM Tokyo와 같이 국내 사업관계자에 소개할 수 있는 데모센터를 설치하고, 이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큐레이터를 배치

▣ 부산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로드쇼 개최

2. 핀테크 및 기술금융

가. 규제자유지역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자유지역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부산지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경우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 비해 규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고, 통제에 용이

5) 싱가포르의 NUS Enterprise와 MPA가 2018년 설립한 PIER71(Port Innovation Ecosystem Re-imagined@ Block71)은 싱가포르의 해운산업 변혁지도(Sea Transport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 기반하여 혁신 생태계 구축과 해양기업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해상 기술 창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임

▣ 부산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겠으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펀드조성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것임

▣ 또한 부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협력(collaboration)이 가능하며, 관광서비스 및 금융 인프라 기반을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임에 따라 부산에 ICO 거래소 설립을 고려

○ 부산에 ICO 거래소 설립이 허용된다면, 금융서비스(결제서비스 등)를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부산금융중심지의 규제자유지역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1)지역특구법에 따른 선제적 특구지정, 2)혁신산업 등에 대한 추가적 재정·세제지원 방안 마련, 3)특구 입주 기업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도 마련, 4)특구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대응, 자본조달을 위한 컨설팅 제도 운영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모델 강화

▣ 기술보증기금은 부산금융중심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기술금융을 지역특화금융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부산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적합함

▣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이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기술보증기금은 공적 벤처캐피탈로서 지역특화산업이 되었든 다른 산업이 되었든 기술을 평가하여 보증과 투자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투자부문은 네트워킹이 가능한 집적시설이 필요

○ '기술기업 유치 → 핵심인력 집적 → 성공사례 확보 → 지속 확대'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활성화가 가능

▣ 향후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금융공사로 전환될 경우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부산시에 소재한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부산시와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지역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내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

○ 기술보증기금은 이스라엘 사례(요즈마펀드)를 준용하여 LP와 같은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시 지역 벤처캐피탈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내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조

▣ 그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지역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기술기업들에 대해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유치 추진

▣ 부산의 금융특구 지역 내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

○ 2018년 12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두 곳이 있는데,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에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를 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이 IT벤처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사소재지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부산시가 '기업금융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 앞서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부산에 설립될 경우 부산지역에 스타핀테크 기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위안화 허브 등 동북아금융허브 역할

가. 위안화 역외 허브 관련 추세

1) 런던

▣ 영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입지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안화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

○ 2011년 9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China-UK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통해 영국은 런던 금융 산업계의 역외 위안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역외 위안화 금융 비즈니스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2015년 10월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스와프를 3,500억 위안으로 확대하였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시작

○ 런던의 위안화 청산비율은 2016년 12월 6.51%에서 2017년 12월 5.59%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08년 4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북경사무소를 개소하고 2009년부터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를 시작하여 홍콩과의 차별화를 통한 위안화 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 중심지로서 기존의 금융인프라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역외 위안화 허브를 실현

3) 밴쿠버

▣ 캐나다는 정부 차원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위안화 허브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위안화 직거래를 통해 중국자본의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서의 선점을 모색

○ 2014년 캐나다 연방정부와 중국 정부는 위안화 허브 및 통화 스왑(Currency Swap) 협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정부는 위안화 허브의 밴쿠버 유치를 위해 토론토금융업협회(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와 협의를 개시

▣ 캐나다의 글로벌 위안화 청산비율은 2017년 기준 0.38%에 불과하나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정부와 밴쿠버 국제금융센터(AdvantageBC)를 중심으로 북미 역외 위안화허브 구축 노력을 지속

○ 2017년 캐나다의 대중국 무역 비중은 2%에 불과하나 위안화 결제비율은 40%에 이르는 등 위안화 결제의 허브 역할을 감당

4) 대만

▣ 대만은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경제 협력과 위안화 예금을 토대로 한 소매금융, 포모사(Formosa) 본드의 발행, 신 청산결제시스템 도입, 중국 내 특정지역과 국경간 거래(cross-border) 허용 등을 통해 역외 위안화 허브를 추진

<표 1>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시기	내용
2005년 10월	- Jinmen, Mazu 지역 금융기구의 위안화 환전업무 실시
2008년 7월	- 대만지역의 위안화 환전업무 확대 실시
2009년 4월	- '양안 금융협력에 관한 협의' 체결로, 홍콩을 통한 위안화 유통에 합의, '대만 위안화 현금 결제에 관한 협의'로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
2010년 6월	-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2011년 7월	- 역외금융은행(OBU)과 대만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위안화 비즈니스 허용
2012년 2월	- 개인이 위안화 표시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2012년 8월	- 대만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과 상호 결제은행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2013년 1월	- 중국은행(BOC) 대만지점, 대만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 RQFII 쿼터 1,000억 위안 획득
2013년 2월	- 대만 내 외환지정은행(DBU)의 위안화 비즈니스 개시
2013년 3월	- 대만 CTBC 은행,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첫 발행
2013년 4월	- 금융감독위원회(FSC), 외화자산투자 규제완화 방안 발표
2013년 7월	- 쿤산 양안산업 협력 시범구에서 각종 위안화 업무 가능
2013년 9월	- 대만 중앙은행, 중국 본토와 홍콩 및 기타 외환시장과의 위안화 송금 및 자금이체가 가능한 새로운 외환결제시스템 도입
2013년 10월	-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자격을 대만 내 중국 기업으로 확대
2014년 1월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관으로서 5억 위안 규모의 포모사본드 첫 발행
2014년 4월	- 대만 예탁결제원이 Euroclear와 대만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서비스 시작
2014년 6월	- 대만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산정 시 포모사본드에 대한 투자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2015)

▣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역할은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의 체결 지연 등 제약요인으로 싱가포르 대비 약화된 상황이나

역외펀드, 중국내 경제-금융특구 지정,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연계는 특징적

○ 무역결제가 위안화 중심으로 확대되고,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제고

○ 싱가포르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금융 위안화 특구지역 사례는 지역 간 협력을 토대로 한 위안화 허브의 장기적 구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위안화 허브(RMB Hub)

▣ 위안화 역외 금융 중심지들은 각국의 경제 및 지리적 상황을 감안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홍콩을 중심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긴밀한 실물경제 협력 및 지리적인 강점과 대규모 위안화 보유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

○ 전통적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과 유럽지역의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등은 위안화 중개기능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통화 국제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 중국과의 실물경제 협력 강화와 상하이 외환거래소를 통한 양국 간 통화 직거래 시장 형성에 초점

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동북아 허브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1) 기본 방향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 역외 위안화 허브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능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위안화 거래 규모 확보, ② 위안화 관련 서비스와 플랫폼의 다양성 및 효율성 확보, ③ 위안화 금융수요의 흡수 능력, ④ 중국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연결성 등이 필요

▣ 향후 위안화 허브 전략은 중국경제의 향후 추세 등을 감안하되 특화형태의 역외 위안화 허브를 목표로 단계적 전략을 추진

2) 세부 과제

가) 단계별 과제

[1 단계] 중국계 금융회사의 유치와 결제인프라 기반 확충

○ 초기에는 중국계 금융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

○ 서울 중심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지점을 부산에 유치하거나 지역은행의 위안화 거래 관련 중국계 은행과의 협업 확대, 위안화 관련 통화파생상품의 거래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

[2 단계] 혁신 중국계 기업의 유치 및 위안화 거래규제의 완화

○ 혁신 중국계 기업의 유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및 혁신에 따른 위안화 거래 수요를 창출

○ 광저우 등 중국 내 혁신 지역과의 부산 경제·금융계간 협력을 증진하고 투자 로드쇼 등의 공동개최 등을 모색

[3 단계] 역외 RMB허브 센터화 모색

○ 중국계 기업의 위안화 조달 및 위안화 거래 등이 가능한 위안화

허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안화 역외금융센터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장기적으로 검토(채권 발행 또는 중국 특정지역과 역외거래 허용, 세제 개편 등)

나) 중국계 기업유치 프로그램의 마련

▣ 중국계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 국제비즈니스 프로그램(예: Busan Global Business Opportunities Program)을 마련

○ 중국계 금융기관 및 중국계 기업을 포함한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유치 전략은 위안화 금융허브로서의 핵심전략에 해당

○ 또한 위안화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서 금융기관 유치 전략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출기업이나 일본 및 중국, 대만 등의 수출기업을 동시에 유치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향후 5년~10년 동안 부산시의 광역경제권의 활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동북아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위안화 허브 관련 특별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전략과 연계성을 제고*

*** 기존의 각종 인센티브를 재점검하고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적 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심인프라 개선과의 연계, 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4. 백오피스/백업 센터 구축

가. 중국 gateway로서의 부산금융중심지 역할 제고

▣ 부산시는 대 중국 gateway로서의 상업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첫째, 부산시 소재 핀테크업체들을 중국의 기업에 소개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둘째,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이 외부에 홍보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시에 소재하지 않은 핀테크업체들까지 부산시를 통해 대 중국 네트워크를 확보하려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이들 핀테크기업들을 부산시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대 중국 서비스를 주로 하는 핀테크업체들을 별도로 모아 벤처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중국 기업들은 부산시를 통해 연결된 국내 IT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이 경우 부산시)에 백오피스를 설립할 유인도 생길 수 있음

▣ 부산시의 대 중국 gateway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한·중 RDM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센터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

○ 한중 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부산을 R&D Hub로 활용하려는 중국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부산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부산시가 중국기업을 부산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회계 인프라, 콜센터 및 자금통합관리센터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

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對일본 백업센터 활성화 추진

▣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기업들에게 백업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안전한 데이터 운영 및 보관을 위해 한국에 백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잦은 전력 송출 중단은 일본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으며 백업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실제로 2011년 당시 일본 내에서 백업 데이터센터를 갖춘 기업은 17%에 불과**

○ 2011년 12월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KT와 손잡고 1천2백개 일본 기업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경남 김해에 설립했으며, 일본 NTT데이터 및 히타치제작소는 LG 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해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지진·해일 피해 걱정 없이 세계 최고 ICT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조건은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일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산은 지리적 장점과 면진설계 등 첨단설비를 통해 일본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세미나나 박람회 등을 통해 부산의 백업센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또한 일본 내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5. 파생금융상품 기반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가. 파생금융상품시장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부산금융중심지의 파생상품 기반 강화는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차별화와 글로벌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에 해당

▣ 한편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는 대외 거래소 간 경쟁심화와 규제강화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KRX의 파생상품거래량은 2001년~2011년 기간 중 4.5배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글로벌 선도거래소의 경우는 8.9배로 증가

○ 또한 동 기간 중 KRX의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개인투자자의 축소 및 기관투자자의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30.9%에서 15.7%로 크게 하락

▣ 파생상품시장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감안할 필요

○ 국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 강화 추세를 감안하고 파생상품거래의 안정화를 감안하여 파생거래에 대한 대내적 수요 충족에 초점

○ 국내 증권거래소는 중국 및 일본 등의 국제적 금융중심지 위상과 실물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협력 또는 역할분담을 고려

○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 국내 증권거래소의 해외합작 또는 플랫폼 공유 등 기존 협력을 토대로 증권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확대를 장기적으로 모색

○ 부산금융중심지 내 시장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증권파생금융 관련 시장, 제도, 감독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

1) 기본방향

▣ KRX는 증권투자업무의 지역집중을 통해 금융중심지 업무기반을 확충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대외적 관점에서 상품·서비스, 역량을 단

계적으로 확충

2) 세부과제

가) TR기능의 활성화 및 감독기능 확충

○ TR 관리자로서의 거래소 역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부산 내 감독기능 확충이나 데이터서비스 업무 등으로 확대

나) 아시아 시장 관련 거래소 역할 강화

○ 아시아 국채지수(ASEAN 국가) 또는 신성장국가(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장지수증권(Equity Linked Notes) 거래기반 확충을 모색

○ 지수개발 관련 전문가 육성이나 연구 등을 강화하여 지수연계 투자(index 또는 passive asset management)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

다) 상품파생시장 관련 연계 및 교차기반 모색

○ 오사카, CBOT, 상하이 등의 특화상품의 교차상장을 확대함으로써 상품파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해운 관련 파생상품 및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수출입 규모 또는 양국 간 산업연계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한 중국 등과 연계거래 활성화 모색

라) 외화표시 증권의 거래 활성화를 모색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 교차상장이나 유치 등을 통해 외화표시 증권거래를 모색함으로써 거래소의 글로벌 주식시장 또는 자산운용시장과의 연계성을 제고

○ 표준화 및 펀드패스포트도입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채권

거래 플랫폼 및 국제 펀드거래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예탁결제 기능(ICSD: 가칭 Asia Clear)의 확충 방안을 적극 추진**

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파생시장 인지도 제고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장기적 활성화에 따른 장외시장거래 확대 및 파생시장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중개기관 또는 플랫폼의 유치를 적극 모색

*** 탄소배출권 관련 중개기관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시장조성 관련 부서 등 관련 업무의 지역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바) 증권 유관기관의 지식공유프로그램 지역 내 활용 확대

○ 증권거래소 등을 통한 파생상품 및 아시아 국채시장 통합, 해운금융, ADB와 연구협력 등 다양한 지식공유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주관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지역 학계 및 전문 인력, 지역 공공금융기관 등을 적극 활용

6. 자산운용업 활성화

가. 자산운용업 환경 분석

▣ 전국 모든 자산운용 대상 여유 자금의 서울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모든 주요 자산운용사가 서울에 본부 및 관련 업무조직을 집중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대표적 부산지역 금융회사인 BNK그룹도 자산운용사를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한편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도시 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 자산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 된 사례임

▣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은 전반적인 시장통합, passive 운용 활성화, 비용 효율화 등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투자자보호가 가속화되고 있음

○ 다양한 글로벌 index의 구축, 지역 내 fund passport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 통합 및 미국 등 주요 선진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passive운용 상품인 ETF(Exchange Traded Fund)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passive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기반한 다양한 트레이딩 플랫폼이 출현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경쟁 강화

나. 전략적 방향성

▣ 자산운용 시장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감안하여 부산의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우선적인 자산운용업의 부산 지역시장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 부산지역의 역내 자금부터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지역 소재 자산운용사가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산 지역시장 확보가 필요함

▣ 결론적으로 부산지역 내 본점을 두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요 시장 참가자(key market player)로서 존재하는지 여부가 관건임

▣ 일단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의한 지역적 자산운용업이 확산된 이후 궁극적으로 부산지역 내 글로벌수준의 시장 참가자(market player) 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자산운용 허브화를 지향할 수 있음

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자산운용업 지역시장 공략의 개념

▣ 우선적으로 "부산지역 소재 자금은 부산소재 자산운용사(market player)에 의한 운용"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소재 자산운용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더라도 궁극적 투자대상 운용처는 글로벌 자산시장 상품 (국내외 주식, 채권, ETF, 파생상품, 부동산 등)임

○ 대부분의 자산시장이 비대면 전산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자산운용사의 부산지역 소재 여부가 투자실행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불리할 이유는 없음

▣ 부산소재 자산운용사가 출현하고 이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산운용의 실력을 쌓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평판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라. 부산소재 금융회사의 부산지역 자금운용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 우선적으로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금리경쟁력 유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임

○ 만기장기화, 구조화상품(기업연금 유동화 상품 등), 만기매칭형 펀드, target date fund 등 저금리 하에서 상대적 금리경쟁력을 보유한 상품 등

▣ 고객 요구에 맞는 상품구조 및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부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퇴직연금, 지역민의 여유자산 운용 상품 등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구조 및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예1) 영세사업자 및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위주 퇴직

연금가입 공략을 위한 투자기간 장기화, 투자상품 다변화, 위험성향을 감안한 자산배분 위주 마케팅

○ (예2) 글로벌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한 일임형 랩(wrap) 운용

*** 동적 모델포트폴리오 조정 (Dynamic Model Portfolio Adjustment)**

*** 무료 수준의 저렴한 랩(wrap)수수료율을 통한 운용자산(AUM) 확대**

***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

○ (예3) 안정적 대체투자자산 편입(해외 인프라, 부동산 등)을 통한 현금흐름 안정화

*** 투자자산 만기 장기화(5년 이상)를 통한 장기계약 유도**

*** 위험성향에 따른 고수익추구 고객 군 확보**

*** 자산운용 집중화를 통한 저비용 사업구조 유지**

▣ 자산운용과 관련된 전산(digitalization) 투자 및 관련 플랫폼 구축

○ 예를 들어 퇴직연금/IRP고객을 위한 전용 플랫폼, 자산운용과 관련된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구축

▣ 한편 금융그룹의 경우 자산운용계열사 간 협업체계구축

○ 위험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 구성 및 동적 포트폴리오 조정(Dynamic Adjustment)의 공유

○ 글로벌투자, 대체자산 등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 자산운용 관리에 용이한 영업 플랫폼 확보

▣ 부산지역의 “star market player”가 탄생할 수 있는 투자자 문화 배양(“Investment culture make a difference”)

▣ 새로운 자산운용 사업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 선점 차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적자금 운용에 적합한 OCIO(outsourced CIO) 사업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OCIO는 투자자(Asset owner)가 자산운용 업무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외부의 투자 관리 전문회사에 일임 형태로 위탁함으로써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 서비스 업자가 투자자의 CIO 역할, 즉 자산운용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맡아 수행하는 사업모델임

마. 자산운용사의 육성 및 부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1)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직접적 비용 지원, 2)부산시 운용 자산(예: 시 운용 기금 등) 및 지역 소재 기업의 운용 자산을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직접적 비용 지원 방안은 부산 지역에 신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에게 미들오피스/백오피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둘째, 부산시 운용 자산(예: 시 운용 기금 등) 및 지역 소재 기업의 운용 자산을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방안

○ 직접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지만 부산지역 자산운용사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소재 기업의 자금을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에게 우선적으로 위탁운용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캠페인 등의 노력

바. 자산운용사의 육성을 위한 민관조직체계 설립

▣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경우 정책시행 과정에서 중층적 의사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의사결정 조직(가칭 ‘부산자산운용센터’)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 도쿄는 자산운용업 강화 및 도쿄의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일본국제자산운용센터(The Consortium for Japan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Center Promotion: JIAM -TOKYO-)를 설립함

▣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를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 산하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하부의사 결정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자산운용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부산금융중심지와 관련된 궁극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될 경우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와 기능 중복이 불가피함

○ 따라서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는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산하 자산운용업관련 하부 위원회(asset management sector sub-committee)로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7. 남북경협과 연계한 금융 등 비즈니스 강화

▣ 정부는 1988년 7월 '7·7선언' 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 액은 2018년 9월말 기준 1,391억 원으로 정부출연금 501억 원, 정부외출연금 1천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784억 원, 운용수익 등으로 106억 원으로 조성

가. 남북 경협과 부산금융중심지의 역할

▣ 문재인 정부는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을 발표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 향후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남북철도망의 시발지로서 파급효과, 부산지역 기업의 새로운 생산 및 수출거점 마련, 물류 및 금융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역내 금융기관의 협력 유도와 중앙정부-부산시 간 협력 모델 개발, 물류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금융모델의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나.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추진과제

1) 기본 방향

▣ 태평양(일본) 및 동해안, 러시아를 연계한 경협모델의 차별성을 부각한 동해안 중심의 남북경협 모델로서 수산, 해운 및 항만, 인프라, 물류 등을 연계

○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확대,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IT· 물류 운송 장비의 첨단화 등을 통해 글로벌 1일 물류권을 기대

▣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남북경협 연계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금융기관의 협력 유도와 중앙정부-부산시 간 협력 모델 개발, 물류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금융모델의 구축 등을 고려

2) 세부 과제

가)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신기술 기반 물류중심지 육성과 금융기반 확충

○ 블록체인, 5G, ICT 등 4차산업 혁명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물류중심지 육성

○ 블록체인 및 혁신 기술기업 지원 등에 있어서 물류 중심지 입주기업이나 관련 인프라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보증 또는 대출프로그램 마련

나) 남동권역의 산업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아시아지역 물류센터 역할을 검토하고, 광역권 형태로 추진

○ 남동권 물류산업 육성을 광역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 공동협의체 또는 포럼 등을 추진

○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중간 아시아 물류기지 유치를 위한 기획단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 유인 프로그램을 마련

다) 해상보험 및 대재해보험, 무역보험 등과 관련된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

○ 해상보험, 대재해보험, 재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보험수요를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방안 고려

○ 우선 국내 손해보험사 또는 신설 재보험사 또는 외국계 재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유치 노력을 추진

○ 해양 및 항만시설 등 장기금융 활성화를 위해 향후 동북아개발은행 또는 정책금융기관, 대형금융기관 등과 장기 협업 방안을 모색

라)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한 러시아 및 북한개발 관련 금융기반 확충

○ 북한 및 러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지역경제단체 등을 통한 경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 수산금융 관련 국내 선도금융기관의 유치

○ 자체적으로 대북 경협 관련 기금을 마련하거나 중앙정부와 매칭

(matching) 방식을 통해 "부산 동북아협력기금(가칭)" 마련 등을 검토

8.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및 관련 인프라

가. 금융특구 설정

▣ 현행 금융중심지법으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양한 파격적 인센티브(규제샌드 박스(regulatory sandbox), 위안화 허브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금융특구법을 제정하여 금융특구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반여건을 마련

○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금융중심지추진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 금융중심지추진체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는 금융위원장, 기재부장관, 해당 금융특구 지자체장 등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여 의사결정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특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2)금융특구법 제정을 통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금융특구법 제정을 통한 특구지역 내 차별성을 감안한 정책 집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특구 설정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컨설팅, 신용조사 등 다양한 금융인프라에 대한 관련 법률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및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금융중심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과 관련되어 규제 샌드박스 4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과 함께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되어 이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지역특구법은 2019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특구와 연계된 외국인 및 금융종사자의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

▣ 관련 법률에 의거한 금융특구가 지정될 경우 금융중심지 제반 조건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외국인 및 금융종사자의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 형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집적이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의 공통점은 외국인들이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임

○ 특히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정주하는데 영어 공용국가 대비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가급적 해소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외국인 정주 클러스터(가칭 'Busan Foreigners' Village')를 조성하여 외국인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적절한 가격에 임대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

▣ 가족단위의 정주를 위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가 중요한 정주 의사결

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해외 우수대학 Busan Campus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

▣ 또한 영어 사용 주민센터 운영 등 부산이 실질적인 외국인 베드타운(bed town)이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 소재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논의가 시작된 바 유치 대상 금융공공기관이 부산 이전 시 임직원에 대한 거주지 우선 공급 등 다양한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

다. 금융포럼 및 행사 유치

▣ 현재는 부산국제금융포럼이 운영되지 않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향후 부산시,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부산금융포럼을 창립하여 금융관련 연구 심포지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함

○ 부산금융포럼을 진행하는 기간을 '금융중심지 주간(week)'으로 지정하고 동 기간 중 관련 금융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함

○ 예를 들어 1개 기관 당 1개 이상 세미나/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주간'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함

▣ 부산 소재 금융관련 공공기관/학회/협회 등의 행사를 확대 유치하여 부산을 금융관련 Research Hub로 육성

○ 부산 소재 금융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는 BIFC 유치를 의무화하여 BIFC의 가시성 확대할 필요

○ 입주 공공기관, 협회, 학회 등과 행사 유치를 위해서 부산국제금

융도시추진센터가 해당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도록 추진함. 예를 들어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해양금융관련 학회의 설립 및 행사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언론기관, FATF TREI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등의 글로벌 행사 유치

9. BIFC 확대발전

가. BIFC 입주기관과의 협업생태계 확대 발전

▣ 기존 BIFC 입주기관과의 협업 생태계는 이미 일정 단계 이상으로 구축되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BIFC입주 기관이 금융중심지 협업생태계 조성 차원의 추진 중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동 기관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거래정보거래소(Trade Repository)를 설립 2020년까지 설립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학술용 KRX Data Library 설치, 선물산업협회(FIA)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시와 공동출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 valley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까지 증권박물관을 건립하고 2020년까지 부산전산센터를 신설할 예정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조개선기업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공공 유휴자산 관리 및 개발 등 적극적 민간/공공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중임

나. 금융공기업 유치단 T/F구성

▣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이전 대상 금융공기업의 부산시 선점 유치를 위해서 금융공기업 유치단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전 가능한 수도권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음

○ 유치단 T/F는 지자체/지역구 의원/민간단체 중심으로 민관 협동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

▣ 이들 금융공기업은 규모 및 인력, 이전시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존 BIFC입주 금융공공기관 대비 우월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 금융공기업으로 평가되는 기관임

▣ 만약 이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정무적으로 가시화된다면 기타 지방도시 대비 부산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주 여건 및 기존 BIFC의 집적 효과 등으로 인해 타 지방도시 대비 부산의 강점은 인정되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강조할 필요

▣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가 가시화 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T/F의 1:1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부산이전에 대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타 도시대비 우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0.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 회원제 도입 추진

▣ 부산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나 현재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은 추진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부산금융중심지는 부산시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민간중심의 정책포럼[6]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사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조직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융위),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감원) 등 중앙정부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추진력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임

▣ 금융중심지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런던, 토론토,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등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조직(PPP)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영국의 더씨티유케이(TheCityUK)는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중심기구로서 금융산업경쟁력 제고와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런던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9월 이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토론토 금융연합(TFSA)는 정부·금융업·학계 회원(64개사)로 구성된 민관협력조직으로, 투자유치·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줄곧 10~15위권에 머물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2017년 이후 7위로 상승함

▣ 우리나라도 회원제(Membership)제도 도입을 통해 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중심지 조직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6) (사)금융중심지혁신포럼, (사)국제금융포럼

○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회원제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기능 강화와 회원에 대한 혜택 확대

○ 회원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개선이나 정책방안의 결정 시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정부와 금융회사들 간 정보 교류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의사결정시 중앙정부와 중심지 추진조직 간 협업체계가 강화될 수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금융회사·학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조직(PPP) 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필요

○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부산시장으로 구성되고, 소수의 민간전문위원들을 선출직으로 포함

○ 하부위원은 부산시·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되며,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 예산 및 기획, 자산운용업, 금융중심지 인프라, 금융회사 유치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 강화된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은 부산형 금융발전모델 개발, 대북금융시스템 구축지원 등을 통해 부산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 실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무엇보다도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위임받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Ⅶ. 결론 및 시사점

▣ 2010년에 설정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은 "국제적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 특화금융중심지"이며, 동 비전 달성을 위해 4개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상의 비전 및 전략적 방향성은 적정했다고 판단되며, 지난 10여 년간 관련 정책 및 액션플랜의 성취도를 분야별로 평가해보면 가시적 성과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은 상당히 개선되어 2014년 3월 발표한 GFCI에서 처음 27위로 진입하였고 2016년 이후 40~70위권을 유지하면서 평판 확립을 통한 금융중심지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임

▣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주요 부분은 금융공기업의 이전 등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보유한 공공부분이며 실질적인 금융시장 형성 및 민간금융회사의 활동에 의한 금융중심지 조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연관된 기술혁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탈중앙화, 혁신 및 효율성 추구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 간 산업 및 금융패권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편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이는 도시는 광저우, 칭다오, 톈진(이상 중국),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이상 캐나다), 두바이, 아부다비(이상 중동국가), 멜버른, 오사카, 방콕, 함부르크, 텔아비브 등임

▣ 이들 도시들이 추구하는 금융중심지 전략의 특징을 요약하면 살기 좋은 도시, 주변 사업과의 연계 클러스터 형성, 혁신산업과 연계성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역내 금융허브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독자적 위상 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부산이 향후 추진해야할 금융중심지 전략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의 차별성을 강화한 기존 특화금융중심지로서 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고 특히 혁신 경제와 연관된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에 기반하여 10개 부분의 전략 어젠다(agenda)와 전략 추진 시계(time horizon)를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함

○ 해양금융(단)
○ 핀테크 및 기술금융(단)
○ 위안화 허브 등 동북아금융허브 역할(중장)
○ 백오피스/백업 센터 구축(단)
○ 파생금융상품 기반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중장)
○ 자산운용업 활성화(중장)
○ 남북경협과 연계한 금융 등 비즈니스 강화(단)
○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및 관련 인프라(중장)
○ BIFC 확대발전(단)
○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단)

▣ 10개 분야별 전략 어젠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의 구체성을 보유한 액션 과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있는 반면, 이보다 상위개

념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음

▣ 단기/중장기 시계의 구분은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추진 기간 구분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특히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는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도시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프로세스상의 전제조건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논의된 10개 부분의 전략적 어젠다와 관련하여 저인망식으로 상정 가능한 다수의 과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제도 포괄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중심지 정책의 본질은 실현 가능성이 비록 낮다고 판단되어도 단기간에 실망할 필요없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10년을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 하에서 꾸준히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바람직함

○ 수백 년에 걸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10년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일관적 정진이 필요함

Ⅰ. 서론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후 과거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금융중심지 조성 차원의 상당한 진전이 있는 측면도 있는 반면 아직 부산이 손색없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임

□ 금융산업 자체가 생물처럼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융중심지의 생태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융의 규제 체계가 강화되고 주요 국가별로 금융산업은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조만간 영국의 브렉시트가 가시화되면 금융중심지간의 경쟁 구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 과거 10년간의 금융환경 및 금융중심지 경쟁구도 변화 속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점검하고 향후의 전략 방향을 재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간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적 어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10년 전 설정한 액션플랜별로 달성 여부를 점검함

○ 3장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향후 금융중심지 전략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점검함

○ 4장에서는 지난 10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었던 글로벌 금융중심지 중에서 부산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이들 도시들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미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5장과 6장에서는 향후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 및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10여개의 분야별 주요 전략 어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함

Ⅱ.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평가

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정책 및 액션플랜의 성취도 평가

가. 부문별 목표

1) 선박 및 수산금융

가)목표

① 선박금융 목표

□ 선박금융은 해운산업 및 글로벌 경기에 따라 매우 변동성이 큰 경기 싸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점유율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세적인 선박금융의 증가율을 상정하여 절대 선박금융의 목표치를 산정

□ 2009년 선박자금조달 기준으로 아시아, 한국, 부산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5%(332억불), 4.2%(54억불), 0.12%(1억 6000만불)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2018년까지 부산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3%, 아시아시장 점유율을 12% 내외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

○ 2009년 선박자금조달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3%(30억불)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부산 목표치는 당시의 싱가포르 선박금융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임

○ 2009~2018년간 글로벌 선박금융의 수요를 2,200억불 내외로 추정할 때(선박금융 부문 참조) 동 기간에 부산은 약 66억불 내외의 선박금융 규모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

나) 달성여부 및 성과

<표 Ⅱ-1> 기존 목표 (선박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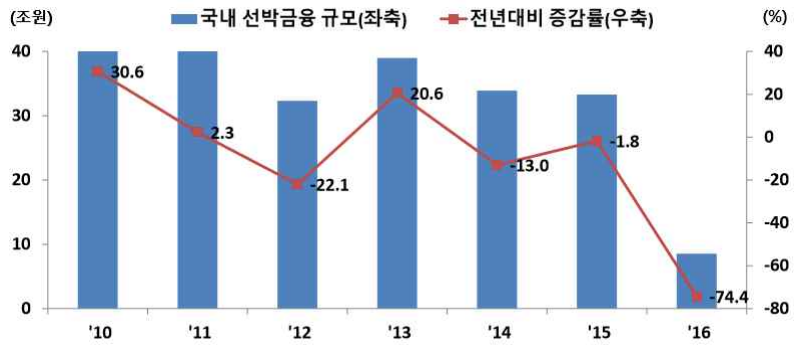
	기준	시점: 2009년(as-is)	2018년 예상
선박 금융	선박자금조달 기준 부산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부산: 0.12% (1억 6천만불) 한국;4.2% (54억불)	글로벌시장점유율: 3.0% 아시아시장점유율: 12%

□ 2016년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8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시장규모는 74% 감소함

○ 해운업 부진에 따른 수주 절벽 등으로 국내 선박금융은 급감함

* 해운사에 대한 선주금융 + 조선사에 대한 RG, 제작금융, 보증/보험을 포함한 광의의 선박금융으로 분석

<그림 Ⅱ-1> 국내 선박금융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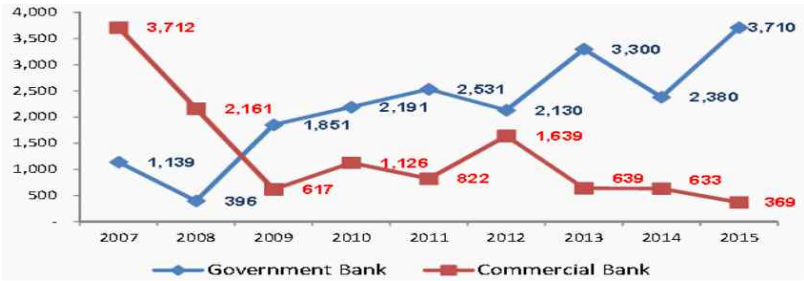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

□ 2015년 기준 국내 선박금융규모는 4.08조 원 가량이며, 공적은행 비중은 2007년 23.5%에서 2015년 91.0%로 증가함

○ 국내 상업은행들의 선박금융규모는 공적은행 대비 10%로 축소된 것으로 해운 및 조선시황이 악화되면서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기피 현상 심화됨

<그림 Ⅱ-2> 국내 선박금융 투자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Marine Money 재인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해운불황에 따른 민간 해운금융 위축되었으며, 2009~2013년 동안 민간금융은 전체 해운금융의 31.2%에 불과함

<그림 Ⅱ-3> 해운금융 지원실적

2009~2013 해운금융 실적			지원실적 (억원)
정책금융	대출	산업은행	80,367
		수출입은행	12,350
		정책금융공사	12,196
		캠코선박펀드	4,701
		소 계	109,614
	보증	무역보험공사	6,190
		신용보증기금	3,451
		수출입은행	1,220
		소 계	10,861
	합계(대출+보증)		120,475
민간금융	대출	상업은행	15,592
		민간펀드	38,541
		소 계	54,133
	보 증		495
	합계(대출+보증)		54,628
총계(정책+민간)			175,103

자료: 해양수산부

□ 선박금융대출 잔액이 지난 2012년 14조 9,105억 원에서 2017년 6월 21조 700억 원으로 6조 1,595억 원, 41.3% 증가하였음

○ 수출입은행은 2012년 7조 5,543억 원이던 선박금융 대출규모가 올 6월 13조 1,701억 원으로 74.3% 증가했고, 산업은행도 2012년 3조 8,090억 원에서 2017년 6월 5조 5,204억 원으로 44.9% 늘어남

○ 반면 다른 시중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제외)들의 선박금융 대출규모는 2012년 3조 5,472억 원에서 2017년 6월 2조 3,795억 원으로 32.9%로 감소. 시중은행들이 전체 선박금융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012년 23.8%에서 2017년 6월 11.3%로 낮아짐

<그림 Ⅱ-4> 은행별 선박금융대출 현황

(단위 : 조원)

자료: 김한표 의원 국정감사

□ 선박금융 안건의 평가 대상을 다음으로 구분하여 정리

○ 선박의 건조 이전 과정 금융인 Pre-delivery

○ 선박의 건조 이후, 조선소로부터 해운회사로 선박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Post-delivery

① Pre-delivery

□ 선박 건조 이전의 Pre-delivery의 경우, 조선소에 대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의 선박 수주 현황에 크게 영향을 받음. 선박 수주는 글로벌 물류 수요에 좌우되므로 글로벌 거시환경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경기전망, 경제성 등에 좌우되는 측면이 큼

□ 제조업의 성격을 가진 조선소의 선박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성격상, 1-2년 정도의 단기금융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은행의 역량 부족이 문제라기보다는 상기 기술한 글로벌 선박건조 수요의 축소 및 중국 조선업계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의 안건수주 규모가 축소한 측면이 더 큼

□ 인프라 설비의 측면을 가지면서도 감가상각의 성격을 지닌 선박자산의 성격상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선박수요의 회복 이외에도 해운회사의 고령화/고비용 선박자산의 교체를 위한 발주 등의 수요는 잠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조선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부분적으로 필요. 특히 최근에는 조선소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선박건조 경험이 전무한 엔지니어들만이 현장에 투입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made-in-Korea선박에 존재했던 프리미엄 브랜드(중국산 선박 대비)마저 위협받은 상황

□ 그러나 한국의 조선소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잃은 최대 요인은 다른 이유에서 기인함

○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체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은 해양구조물(Offshore Platform) 수주 경쟁에 잇달아 뛰어들고, 제조업체로서 충분한 법적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결여된 채로 계약서를 검토 하고 수주에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액의 우발채무를 업게 되었다는 점임

○ Offshore Platform의 건설은 Project Finance로서 일반적인 상선 건조보다도 훨씬 복잡한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며,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역시 큼. 또한 건설자산의 담보가치가 상선 대비 중고자산시장에서 자산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않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Legal IQ를 각 조선사가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계 조선소의 경우 Offshore Platform에서 본인들은 해외업체가 가져온 부품들의 조립만 가능할 뿐 원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시적으로 펀더멘탈이 견고한 상선시장에만 수년간 집중하였음. 이 결정에는 해운클러스터의 일원으로서 선박금융의 노하우를 보유한 상업은행의 역할 및 정책적인 판단 및 유도가 크게 작용함. 해운클러스터가 한국에서 순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외형성장에 치우친 결정을 모두가 지지한 결과가 국내 조선업 현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② Post-delivery

□ 제조업의 성격을 가진 조선소의 선박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을 지원하는 Pre-delivery와는 달리, Post-delivery의 경우 조선소는 금융의 주체보다는 선박자산 제공자로서의 위치만을 가짐. 금융의 주체는 선박을 보유하는 선주, 혹은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회사가 되며, 용선계약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주된 금융의 원천이 됨

□ 따라서 해운회사가 국적사 인지의 여부가 금융기관에 중요하지 않음. 오히려 국내 해운회사를 재무적으로 평가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 우량한 안건은 국내해운회사의 안건이 아닌 해외해운회사의 안건이 많음

□ 선박금융에는 최상위 화주와의 장기적인 용선계약에 근거한 안정적인 무역흐름에의 금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자국편중에 입각해 한국 국적 해운사에의 금융에 포커스가 맞추어졌음. 이 효과는 다음의 결과를 가져옴

○ 고급 선박안건일수록 안건보유자인 해운회사의 협상력이 높으며, 선박금융을 하는 금융제공자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이는 선박자산으로부터 오는 현금흐름의 확실성이 그만큼 담보가 되며 채무불이행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재무적 여건을 기업으로서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반면, 선박안건의 퀄리티가 낮은 안건일수록 해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적인 여건 역시 좋지 않고, 이러한 안건에서는 해운회사의 협상력이 높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가 주장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고 보다 높은 금융비용 및 불리한 담보비율 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불리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높은 디폴트(default)율로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멈춤으로 인해 선박금융을 집행한 회사에 원금회수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됨. 일부 국책은행의 경우 "소젖을 너무 쥐어 짜면 우유가 아닌 피가 나온다"는 불만이 관계자로부터 나오는 등 한쪽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은행의 입장과, 여기에 대해 대안이 없는 국내 사업자의 불균형이 문제시됨

○ 안건의 개요가 좋을수록 선박금융 참여자 간에는 첨예한 조건협상이 이어지고, 이는 전체적으로 안건의 퀄리티를 높이는 효

과가 있음. 좋은 개요의 안건을 선박금융 담당자가 경험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조건협상에 대한 노하우 및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해운 클러스터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큼

○ 따라서 Post-delivery분야에서는 국내 선박금융안건이라는 기존의 잣대에서 탈피하여, 선박금융전문가 양성이라는 핵심가치에 근간한 최고품질(Top-quality) 안건에의 접근 및 실행경험과 같은 무형적인 성과지표를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데 내부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고급 선박금융안건일수록, RFP (request for proposal)와 같은 형태로 마켓에 나오기보다는 몇몇 소수 관계자들에만 연락을 취해 성사되는 Club deal로 진행됨. 전문가의 존재는 이러한 안건에서 구체적인 상담으로 이어지는 절대적인 역할을 함

2) 파생 및 신성장 금융

가) 목표

□ 파생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장내거래소 파생상품거래량의 세계 최고 위상 유지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동북아시아 3대 파생상품시장으로 발돋움

○ '08년 기준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량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홍콩, 상하이, 도쿄 등을 넘어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계속 유지

* '08년 기준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내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다롄상품거래소(DCE)가 두 번째 위치를 차지

○ 장외시장의 경우 청산소(CCP), 상품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 유치시 이자율스왑(IRS) 거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거래 활성화로 동북아시아 3대 파생상품도시를 지향

○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의 경우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거래량 규모를 가진 거래소를 목표로 설정

<표 Ⅱ-2>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증감률 및 거래비중

(단위: %)

거래소명	'04	'05	'06	'07	'08	순위
KRX	-11.2(29.2)	0.2(26.0)	-4.6(20.9)	12.2(17.9)	3.3(16.2)	1
EUREX	5.0(12.0)	17.2(12.5)	22.3(12.9)	24.4(12.3)	14.0(12.3)	2
CME	25.8(9.1)	35.4(10.9)	28.6(11.8)	26.5(11.5)	6.6(10.7)	3
CBOE	27.2(4.1)	29.7(4.7)	44.1(5.7)	40.0(6.1)	26.4(6.8)	4
EURONEXT	13.8(8.9)	-4.2(7.6)	-3.6(6.2)	29.9(6.1)	10.6(5.9)	5
ISE	47.3(4.1)	24.3(4.5)	31.9(5.0)	35.9(5.2)	25.3(5.7)	6
CBOT	32.1(6.8)	12.4(6.8)	19.5(6.8)	27.8(6.6)	-6.7(5.4)	7
NSE	74.3(0.8)	75.3(1.3)	47.7(1.6)	95.3(2.5)	55.4(3.3)	8
PHLX	18.4(1.5)	21.9(1.6)	67.9(2.3)	49.4(2.6)	34.2(3.1)	9
JSE	16.3(0.4)	33.8(0.5)	104.7(0.9)	213.8(2.1)	55.8(2.9)	10
NYMEX	19.0(1.8)	25.3(2.1)	35.1(2.3)	27.8(2.3)	19.8(2.4)	11
PCX	19.9(1.2)	40.2(1.5)	35.8(1.7)	70.8(2.2)	24.1(2.4)	12
BM&F	51.9(2.1)	8.7(2.0)	42.2(2.4)	50.4(2.8)	-8.2(2.2)	13
BOVESPA	32.8(2.7)	14.1(2.7)	7.0(2.4)	27.9(2.4)	-4.7(2.0)	14
DCE	17.4(1.0)	12.7(1.0)	21.4(1.0)	54.2(1.2)	68.7(1.8)	15
전 체	9.3	12.5	18.9	30.5	14.0	

주 : 1) 전년대비
2) ( )는 각 연도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2010)

<표 Ⅱ-3>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 (파생금융)

부문	부분별 목표
파생금융	▷ 장내파생상품거래소 거래량 기준 세계 최고 수준 유지 ▷ 장외파생상품거래 동북아시아 3대 시장으로 진입 * CCP, 상품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 유치시 IRS 거래, CDS 등 거래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 거래소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장내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IRS, CDS 등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동북아시아 3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으로 진입과 동시에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을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확장

□ 장내파생상품거래소의 거래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 '17년 현재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16년도 대비 약 46.5%의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1위를 기록하며 목표치에 비교하여 많이 미흡한 수준

<표 Ⅱ-4>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및 증감률

거래소명	'17	'16	증감률	순위
CME Group	4,088,910,011	3,942,194,737	3.7%	1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2,465,333,505	2,119,462,820	16.3	2
Intercontinental Exchange	2,125,404,062	2,038,129,470	4.3	3
CBOE Holdings	1,810,195,197	1,632,996,526	10.9	4
B3	1,809,358,955	1,487,305,788	21.6	5
Nasdaq	1,676,626,292	1,575,700,250	6.4	6
Eurex	1,675,898,310	1,727,460,135	-3.0	7
Moscow Exchange	1,584,632,965	1,950,145,218	-18.7	8
Shanghai Futures Exchange	1,364,243,528	1,680,711,841	-18.8	9
Dalian Commodity Exchange	1,101,280,152	1,537,479,768	-28.4	10
Korea Exchange	1,015,335,674	692,990,540	46.5	11
BSE	609,215,973	543,058,508	12.2	12
Zhengzhou Commodity Exchange	586,070,148	901,297,047	-35.0	13
JSE Securities Exchange	382,944,302	479,202,245	-20.1	14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372,186,941	344,642,173	8.0	15

주 : 1) 거래 및 청산된 계약 수
2) 선물과 옵션의 양은 개별 거래소 분류에 따름.
자료 : FIA 2018

□ 중앙청산소(CCP), 상품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 유치 이후 이자율스왑(IRS), 신용부도스왑(CDS)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를 추진

하고 동북아시아 3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으로 진입을 목표

○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09.9월 G20 합의사항) 관련 법령개정 및 청산업무개시

* 자본시장법 개정('13.7.6 시행) 및 KRX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사(CCP) 인가 취득('13.9.11)

* KRX, 원화IRS(이자율스왑)에 대한 자율청산('14.3.3) 및 의무청산('14.6.30) 개시

○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인프라가 유치되었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며 동북아시아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액 기준 2위에서 3위로 하락

<표 Ⅱ-5> 동북아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명	'07	'10	'13	'16	순위
일본	80,782.2(1)	106,570.2(1)	159,931.1(1)	168,030.3(1)	1
중국	9,097.5(4)	17,130.6(4)	49,617.3(2)	64,404.3(2)	2
한국	24,489.9(2)	36,243.9(2)	35,836.1(3)	34,601.7(3)	3
러시아	22,392.0(3)	20,380.4(3)	25,427.8(4)	29,898.4(4)	4

주 : 1) 장외파생상품은 금리파생상품(Interest rate)과 외환파생상품(Foreign exchange)을 포괄
2) ( )는 각 연도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위임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을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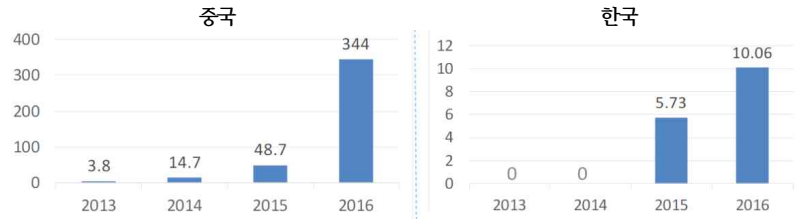
○ 2012년 5월 관련 법률을 제정, 2014년 1월 배출권 거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등과의 합의 하에 201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장

○ 2015년 1월 한국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탄소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이 미미한 시장으로 변화

○ 2016년 중국의 연간 탄소배출권시장 거래량 규모는 약 344 메가톤에 이르며 한국의 연간 탄소배출권시장 거래량 규모인 약 10 메가톤을 크게 상회

<그림 Ⅱ-5> 중국과 한국의 연간 탄소배출권시장 거래량 규모

(단위 : MT)



자료 : ISAP 2017 report

<표 Ⅱ-6>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 달성현황 (파생금융)

부문	부분별 목표	달성여부
파생금융	▷ 장내파생상품거래소 거래량 기준 세계 최고 수준 유지	×
	▷ 장외파생상품거래 동북아시아 3대 시장으로 진입 * CCP, 상품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 유치시 IRS 거래, CDS 등 거래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 탄소금융 등 신성장금융 국내 및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 거래소	×

3)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가) 목표

□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경우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양적 통계가 알려져 있지 않아 양적 목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질적인 목표를 우선 설정하기로 함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에 맞추어 부산금융중심지에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정부는 부산이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하며, 국내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를 각 1개 이상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7년까지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을 추진

○ 2020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 확보한다는 계획

○ 2020년까지 해외전문 기업의 유치 및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아웃소싱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추진

○ 2022년까지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지 기능 확보를 지향

<표 Ⅱ-7>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백오피스/백업센터)

부문	부분별 목표
백오피스/백업센터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에 맞추어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
	▷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를 각 1개 이상 유치
	▷ 2017년까지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
	▷ 2020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 확보
	▷ 해외전문 기업의 유치 및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아웃소싱 클러스터 기반 조성
	▷ 2022년까지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지 기능 확보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과 '17년, '20년 그리고 '22년에 맞추어 단계별로 부산금융중심지가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 및 주요 금융기관 유치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에 맞추어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정부는 부산에 대한 해양·파생금융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법('08.3월 시행)에 따라 부산을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

○ 정부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창업 또는 신설 금융기관에 한해 3년간 면제·2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제공

○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

○ '11년 7월 라이나생명보험이 부산광역시와 콜센터 신설 및 행정지원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12년 3월 컨택센터를 부산에 두는 투자양해각서를 부산시와 체결

○ 가장 최근에는 한국카카오은행이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전산센터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LG CNS 부산 글로벌데이터센터에 구축

○ 그러나 유치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 유치를 이뤄내는 것에는 미흡

□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를 각 1개 이상 유치

○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의 유치는 현재 유치되지 않고 있음

□ 2017년까지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

○ 2017년 기준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을 포함하여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20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 2020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구축을 위한 성과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 확보

○ 정부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창업 또는 신설 금융기관에 한해 3년간 면제·2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제공 등의 세제 혜택은 현재 시행되고 있고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

○ 라이나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콜센터 유치 및 한국카카오은행의 백업전산센터를 유치하였으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 유치를 이뤄내는 것에는 미흡한 부분 존재

○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되지 않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해외전문 기업의 유치 및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아웃소싱 클러스터 기반 조성

○ 2020년까지 해외전문 기업의 유치 및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아웃소싱 클러스터 기반 조성 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구축을 위한 성과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

□ 2022년까지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지 기능 확보

○ '20년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의 확보를 위해 많은 목표들이 선제적으로 달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2년까지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지 기능을 확보 하는 것이 다소 불투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Ⅱ-8> 부산 금융중심지의 목표 달성현황(백오피스/백업센터)

부문	부분별 목표	달성여부
백오피스/백업센터	▷ 문현금융단지 입주 시점에 맞추어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	△
	▷ 일반사무 수탁회사와 백업 대행처리회사, 연기금풀 운용사를 각 1개 이상 유치	×
	▷ 2017년까지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	×
	▷ 2020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
	▷ 국내 백오피스/백업센터 국내 중심지 기능 확보	△
	▷ 해외전문 기업의 유치 및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기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아웃소싱 클러스터 기반 조성	×
	▷ 2022년까지 글로벌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지 기능 확보	△

4)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가) 목표

□ 5가지 도구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영업환경>인력>인프라> 일반경쟁력>시장접근 등의 순서로 나타남.

(자료: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7, 2010. 3. Z/Yen)

□ 현행 5가지 도구변수별 글로벌 금융중심지 비교에서 부산은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 목표치를 100위 이내로 설정

(자료: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7, 2010. 3. Z/Yen)

<표 Ⅱ-9>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도구변수 목표치

	인력 (people)	영업환경 (business environments)	시장접근성 (market access)	인프라 (infrastructure)	일반경쟁력 (general competitiveness)
서울(현행)	54위	55위	42위	50위	56위
부산(현행)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부산(10년내 목표치)	100위 이내	100위 이내	100위 이내	100위 이내	100위 이내

주 : 부산의 현재 Data는 구득이 불가능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2018년 3월 현재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7](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총점 618점으로 전체 100개 도시 중 46위를 기록

○ 부산은 2014년 3월 GFCI 순위에 27위로 처음 진입하였으며, 2016년 3월 38위, 2017년 3월 50위, 2017년 9월 70위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 3월 46위로 상승함

7)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지엔(Z/Yen)사가 세계 주요금융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순위로 '07년을 시작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하고 있음.

나. 분야별 액션플랜

1) 선박 및 수산금융

사업 1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국내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에서 선박금융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으나, 해운업 및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능동적 대응에 의문이 있음. 따라서 선박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은행의 설립은 해운업의 발전과 조선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해운업 및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극복에 대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한국해운의 재건과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을 기대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 2015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선주협회, 조선협회, 해운선사 등

○ 소요예산 : 3,028.5억 원

□ 사업내용

○ 특별법에 의한 특수은행 설립,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출발하여 일정규모가 되었을 경우, 선박금융을 전담하는 전국은행 또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모색

*** 2012년말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 및 유치를 통하여 자본금 확충, 선박금융 노하우 축적**

*** 2013년이후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전문은행으로의 전환 시도**

□ 추진방향

○ 국내에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전국단위의 영업을 할 경우는 1,000억 원이 필요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250억 원이 필요함

○ 부산이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부산이 지향하는 선박금융특화를 위해서는 부산에 이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 및 금융중심지 지정 후 지방정부가 금융중심지에 입지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자, 출연, 출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가능하게 되면, 부산시가 은행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것임

□ 기대효과

○ 부산이 선박금융중심지로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의 수요자인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자금 확보에도 기여하여 해운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결국 부산이 해운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달성여부

○ 선박전문 공사 형태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18년 7월 공식 출범함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연혁

날 짜	주요 내용
2017년 5월 31일	「바다의날」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공사 설립 공식화
2017년 7월 20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국정과제 발표
2017년 8월 24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발의(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18년 1월 16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
2018년 2월 5일 ~ 2018년 7월 2일	공사 설립위원회 구성·운영(총 10차례 개최)
2018년 7월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18년 7월 5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 개최 및 공식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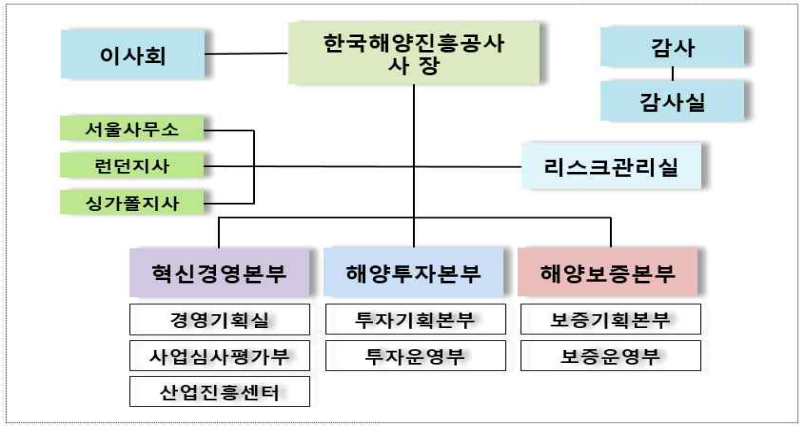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

○ 정부가 이미 2018년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천 5백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 5천 5백억 원으로 평가됨

□ 공사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3개로 구성되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됨

○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은 81명)이며, 향후 공사 업무가 안정·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할 계획임

<그림 Ⅱ-6> 한국해양진흥공사 조직도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표 Ⅱ-10>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 업무

해운금융지원	해운정책지원
· 선박투자 보증(선박 매입 등 보증) · 자산투자 참여(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 선박 인수·용선(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	· 해운거래 지원(운임지수, 시황예측, 운임공표 관리) · 선사경영 지원(노후선박 대체, 경영상황 모니터링) · 국가필수해운제도(비상시 화물운송, 필수업체 지원) · 산업 간 협력(화물적취율 제고, 선박수요 공유)

□ 특히, 출범 초기에는 2018년 4월 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을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임

○ 해양수산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으며, 신설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체 선사를 대상으로 신조선박 발주 수요조사와 S&LB(선박매입 후 재용선) 공모를 통해, 전체 19개 선사 56척의 신조수요와 11개 선사 18척의 S&LB 수요를 제출받은 바 있음

□ 공사(舊(주)해양보증보험, 舊(주)한국선박해양 소속 직원 중심)는 출범 전에 이미 제출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사와의 금융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제 금융지원도 곧 이뤄질 예정임

○ 공사는 현재 제출된 수요 외에 지속적으로 선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대응을 통해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큼

○ 특히,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운산업 특성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보다 폭넓고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해운선사의 경쟁력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함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하여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임

사업 2	선박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 지역의 조선업과 해운업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선박금융은 취약한 수준이므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선박금융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요

○ 향후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선박금융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해양대(해양금융전문대학원), 부산대(파생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은 해운, 조선 및 금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선박금융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산업 부흥을 기대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2016년

○ 추진주체 :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 소요예산 : 88.1억 원

○ 위　　치 : 한국해양대학교

○ 규　　모 : 정원 30명(전일제 기준)

□ 추진상황(부산시)

○ '09. 08. :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관련 협의(부산지역 각 대학)

○ '09. 10. : 한국해양대학교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계획 제출(시)

○ '09. 10. : 설립 필요성 및 국비지원 건의(금융위)

○ '10. 04. :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

*** 부산시, 한국해양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은행**

○ '10. 05. : 국비신청

○ ‘10. 06. :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신청

□ 기대효과

○ 해양·선박특화 금융산업 발전을 주도할 국제적 고급인력의 양성

○ 선박금융 전문인력의 확보는 국내 및 해외 선박금융기관의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선박금융 노하우 축적으로 해운 및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가능

나) 달성여부 및 성과

①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개요

□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할 고등교육기관을 선정하고 2017년~2020년까지 지원 예정

□ 지원대상은 해양·파생금융 등에 특화된 국제적 수준의 석사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특별법상 고등교육기관임

□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선정기관에 대해 4년간(‘17~’20) 예산 지원 예정임

○ 2017년 국비 10억원, 부산광역시비 10억원 지원

○ 매년 해양·파생금융 강좌 개설에 따른 학생장학금, 과정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

②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 선정결과

□ 금융위원회는 부산 지역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추진하여 왔음

○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 공고(2017.7.4) 후 사업설명회(2017.7.11)를 개최하였고

○ 2018년 8월 14일 마감된 공모 결과 총 3개 대학(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공동학위과정), 울산과학기술원)이 응모

□ 금융업계 종사자, 금융분야 전문가 및 학계인사 등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응모 대학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한 결과(2017.8.17) 부산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가 최고 득점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 심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통해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부산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를 선정하기로 함

○ 부산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2018년 개설함

사업 3	선박운용회사 유치 및 설립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박펀드의 조성과 판매 등 운영경험이 있는 선박운용회사의 유치는 부산의 선박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성공적으로 선박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의 선박운용회사의 유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선박해양이 설립됨에 따라 해운선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양산업 발전을 기대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 2013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선박운용회사, 부산상공회의소

○ 소요예산 :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활용 등

□ 기대 효과

○ 선박운용회사의 유치 및 설립은 선박펀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해운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도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이 목표로 하는 선박금융특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2017년 1월 24일 한국선박해양은 초기자본금 1조원 (산은 50%, 수은 40%, 캠코 10% 출자)으로 출범함

○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선박해양을 흡수하여 출범함

□ 선주사업

○ 국내에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선박취득 목적의 해외 SPC를 설립한 후 중고선을 시장가로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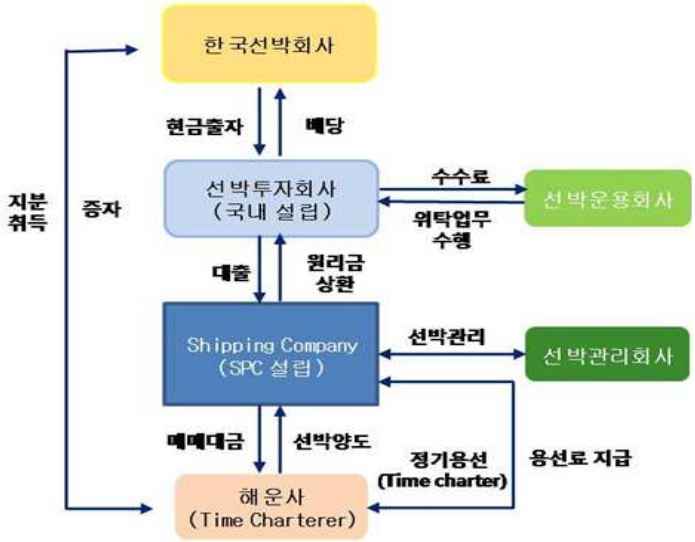
○ 매입한 선박을 BBC 형태로 해운사에 재용선 (Sales & Lease Back)

○ 해운사의 용선료 부담을 경감

□ 투자사업

○ 해운사 선박 매입 후 재용선 시 발생한 해운사의 처분손실에 대해 보통주 유상증자 혹은 영구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해운사 자본확충

<그림 Ⅱ-7>　　한국선박해양 주식회사 구조도(안)



□ 2017년 기준 선박투자회사는 총 6개사가 운영 중이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Ⅱ-11> 선박운용회사 현황 (총 6개사)

운용회사	설립일	자본금	주요 주주
한국선박금융(주)	'03. 3	85억 원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산업은행 등
KSF선박금융(주)	'04. 2	84.7억 원	수출입은행, 에스씨케이, 제이원, 리홈 등
세계로선박금융(주)	'05. 3	80억 원	창명해운,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우리은행 등
국제선박투자운용(주)	'05. 4	50억 원	개인(홍준경), 수협, 극동티엘에스, 동진산업 등
캠코선박운용(주)	'09. 6	7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선박해양(주)	'17. 1	1조 원	산은 50%, 수은 40%, 캠코 10% 출자

자료: 해양수산부

<표 Ⅱ-12> 운용사별 운용중 선박투자회사(총 90개 펀드, 선박 157척, 6조 382억원)

(16년 12월 기준)

운용회사명	선박투자회사			주요 용선주
	펀드명	소계	척수	
한국선박금융	동북아(13개) 거북선 5,6,7호(3개)	14	23	현대(7), 해경(3), 글로비스(1), Gandari(1), 장금마리(1), 대인(1)
KSF선박금융	아시아퍼시픽(27개) 코리아퍼시픽(6개) 거북선 2,3,4호(3개) 하이골드오션(1개)	37	74	현대(6), 한진(6), 글로비스(4), 대한(3), 해경(3), SK(3), 장금(2), 시노코(2.5), IS(1), 대림(1), 폴라(1), 장금마리(2.5), Pacific King(2), H-line(1), 동아(1), OSIL(1),
세계로선박금융	바다로(16개)	16	18	현대(3), 창명(9), Cargill(2), 팬오션(1), 대우(1)
국제선박금융	하이골드오션(8개) 국제마리타임(1개) 국제(1개)	10	29	현대(2), SK(1), 한진(1), Cargill(2.5), BP(1), 글로비스(1), Olam(1), Clearlake(0.5)
캠코선박운용	한국 토니지(7개)	13	13	SW해운(2), 삼목(2), 지앤에스(1), 우양(2), 화이브오션(1), STX(2), 중앙(2), 삼선(1)
합 계		90	157	

자료: 해양수산부

<표 Ⅱ-13>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총 183개 펀드)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합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펀드수 (척수)	183 (284)	17 (17)	18 (18)	15 (21)	13 (20)	9 (22)	22 (32)	16 (21)	13 (17)	10 (22)	17 (33)	9 (32)	17 (22)	7 (7)
민 간 (척수)	132 (204)	17 (17)	18 (18)	14 (14)	11 (11)	8 (13)	2 (9)	6 (8)	7 (11)	10 (22)	17 (33)	9 (32)	10 (15)	-
펀드규모 (선가기준)	116,489	11,577	11,645	6,061	9,038	8,445	10,911	6,665	6,354	15,142	11,993	6,090	11,104	1,464
민 간	93,869	11,577	11,645	4,672	6,783	6,117	3,132	3,235	4,394	15,142	11,993	6,090	9,089	-

주: 민간 펀드(132개) : 해경(7개, 34척, 8,933억원)과 캠코(46개, 46척, 13,884억) 펀드, 현대화 펀드(1개, 1척 102억원)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 4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신항 개발, 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운거래 기반을 갖춘 부산 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선박금융의 수요 창출 및 아시아권 해운정보·거래 중심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봄

○ 또한 부산에서의 선박금융 수요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므로 선박거래와 관련한 선박금융의 수요 및 공급 창출 가능성과 특히 최근 해운운임의 급변 등으로 해운파생상품 거래 등 해운기업의 위험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본 사업을 통해 해운기업 및 선박브로커 등 관련 업체의 유치 활성화에도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추진주체 : 정부와 민간합동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 정부 :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항만개발과)**

*** 민간 : 해운중개업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등**

○ 소요예산 : 200억 원

○ 위　　치 : 강서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부지내

○ 규　　모 : 정규직 100명 ▷ 초기 30명 구성

□ 기대효과

○ 해운파생상품, 선박금융 등 해운 및 선박금융시장의 육성에 촉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시 부산의 금융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부산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에 대한 서비스 강화 계기 마련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강서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부지 내 정부와 민간합동의 국제해운거래소를 2015년 설립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진행 중

○ 추진 당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까지였으며 정부와 민간합동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자 하였음

*** 정부 : 국토부, 부산시, 민간 : 해운중개업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등**

○ 세부적으로 선박, 항만장비 등 현물거래, 파생상품거래, 정보분석센터 기능 등을 활용하고자 하였음

□ 추진배경은 부산신항 개발, 금융중심도시 지정 등 해운거래 기반을 갖춘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통해 아시아권 해운 정보·거래 중심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5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조선업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선박금융시장은 매우 미약한 현 실정에서 유럽 등 선박금융업이 발달한 국가의 선박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선진 선박금융 기법의 습득과 선박금융 결제통화인 달러자금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이러한 해외선박 금융기관의 부산으로의 유치는 부산이 선박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수요자인 해운기업의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 2020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 소요예산 : 10억 원

□ 기대효과

○ 해외 선박금융 전문기관으로부터 선박금융에 대한 선진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부산의 선박금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 해외금융기관이 다수 부산에 입지할 때 부산이 선박금융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명성을 얻는 데도 기여할 것임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세계의 유수 선박금융전문기관 중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에

진출해 있는 경우는 많으나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들 은행의 부산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하였음

○ 세계 주요선박금융 취급기관 중 아직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은 은행을 유치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DVB은행은 우리나라 해운기업에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한국에 진출하지 않고 있어, 부산에서 이 은행을 유치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DnB Nord Bank도 우리 해운사에 자금제공 건수가 상당함에도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고 있어 동 은행의 유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 6	국내 주요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부산 유치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이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의 선박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취해져야 할 것임

○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선박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3개 기관이 협업한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선박금융 발전에 기여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20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소요예산 : 1억 원

□ 사업내용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선박금융부의 부산유치

○ 수협은행의 해양투자금융부의 부산유치

○ 여신전문기관(캐피탈), 상호저축 등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 유치

○ (가칭)선박금융보증기금 또는 선박금융보증공사의 부산유치
(정부 : 국토해양부의 기금설치 추진동향 파악, '10.3 용역발주)

□ 기대효과

○ 선박금융기관의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 부산이 선박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니즈(needs) 충족을 위한 포괄적 해양금융(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기자재) 제공을 위하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3개 기관이 협업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11월 개소함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 및 해운산업 세계 1대 강국 유지 및 진입을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자(Total Solution Provider)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부산 해양금융 Cluster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 관련 네트워크의 부산 동반 이전 필요함

○ 예를 들어 해양금융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3개 선박금융기관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Marine Money 세미나 등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함

□ 중소 조선소·납품업체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협약 조선소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 조선·해양기자재 납품업체 지원전담팀 신설 및 히든챔피언(강소중소기업) 육성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 추진

○ (지역 내 유관기관 공조) 한국선급, 기자재조합, 한국해양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동반성장 추진

○ (지역 내 산학 협력체제 강화) 한국해양대학 등과 산학협력 및 인재채용, 관련 연구원 등과 공동과제 발굴 추진

<그림 Ⅱ-8> 해양금융종합센터 조직도

자료: 해양금융종합센터

① 한국수출입은행

□ 국내외 해운사, 국내 조선사 대상 토탈 금융 서비스, 선주금융, 건조금융을 제공

○ 선주금융으로 국내 해운사가 선박을 구매(신조 또는 중고)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공급,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소로부터 신규 선박 및 해양설비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국내 조선사가 선박 및 해양설비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각종 이행성 보증

* 수출이행자금대출(舊제작금융) : 국내 조선사가 상품을 제작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수출이행성보증 : 국내 조선사가 해외 선주들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보증

<표 Ⅱ-14>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국내 조선사)

구분		내용	대상
국내 조선사 지원제도	수출이행 자금대출 등*	• 선박 및 해양설비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조선사 앞 대출하는 제도 - [수출이행자금대출(舊제작금융) 제도개선] 시리즈 선박을 단일 수출 계약으로 금융 지원 ('13. 12월 기도입) → 원자재 일괄구매 등을 위한 건조자금 수요 충족 - [수출이행자금대출(상생협력) 제도개선] 일괄 대출방식 신규 도입 ('13. 11월 기도입) → 최근 1개월 이내 중소중견협력사 앞 현금결제 금액 지원	국내 조선사
	수출기반자금대출 ** (수입결제자금)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 및 해양설비를 수입하는 해외선주 앞 선박 구매자금을 장기(통상 10~12년)로 대출하는 제도	수출목적물을 수입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수출이행성보증	• 국내 조선사의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	국내 조선사
	채무보증 (수출금융보증)	• 국내외 상업은행의 선박금융대출에 대하여 수은이 보증을 제공하는제도	국내외 상업은행

<표 Ⅱ-15> 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금융상품(국내해운사)

구분		정의	대상
국내 해운사 지원제도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	•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 앞 신조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국내 해운사 (선박투자회사 포함) 또는 SPC
	중고선박 구매자금 대출	•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가 국내외 건조 중고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 또는 SPC
	외항선박 운항자금 대출	• 국내 해운사의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 용선 계약 운임채권을 담보로 운항자금 지원	국내 해운사
	수출성장자금대출	•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운임 수입 실적 등을 근거로 단기 운영자금 지원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
	외항선박 리파이낸싱 자금 대출	•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의 선박구매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 자금지원	국내 중소중견 해운사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표 II-16> 해양금융 프로그램 종류

구 분	Program		목적	*선박구분
선주금융	중장기수출보험	대출(Loan)	차주(Ship-owner)의 선박 취득자금조달지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채권(Bond) (Capital Market Program)		
	수출기반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 조선소의 해외법인에서 건조
건조금융	수출보증보험(R/G)		국내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발행지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은 해외선주 대상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함

○ 국내외 금융기관이 해외 선주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해외 선주 대상 선박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잠재적 선박발주 수요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조선소의 수주 경쟁력을 증진

□ 수출기반보험은 국내선주 대상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함

○ 국내외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외화가득 효과가 큰 국적외항선사 및 원양사업자의 선박구매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선사의 외화획득용 선대 확충을 도모하고 국내 조선사의 수주물량을 증대시킴

□ 수출보증보험은 해외 선주 대상 발행한 수출보증서에 따른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

○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 (계약이행, 선수급환급, 하자보수 등)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 Calling)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해외 선주가 조선사의 선박 미인도 또는 선수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사측에 은행의 수출보증서를 요구했을때, 공사는 조선사의 원활한 보증서 발급과 수주를 위해 수출보증보험을 통한 복보증 제공

③ 한국산업은행

<표 II-17> 수출입금융

수입 신용장 개설	▪ 수입물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개설
무신용장방식 수입금융	▪ 선적 후 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외화결제자금 대출 지원 - 은행이 수출상 앞 직접 송금 후, 만기 (1년 이내)시 수입상이 상환
무신용장방식 수입금융	▪ 선적 후 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외화결제자금 대출 지원 - 은행이 수출상 앞 직접 송금 후, 만기 (1년 이내)시 수입상이 상환
수출환어음 매입	▪ 신용장, 수출계약서 (D/P, D/A조건 등)에 따라 선적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및 내도 수출신용장 관련 서비스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 환어음 매입 (추심) - 수출신용장의 통지, 양도, 확인
포페이팅 (Forfaiting)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 시, 무소구조건으로 수출환어음매입 취급 - 수출기업의 채무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및 한도관리시 유리
무역어음대출 무역어음할인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D/P, D/A조건 등)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께 선적전 금융 지원
위안화(RMB) 무역결제 서비스	▪ 무역거래가 증명되는 중국지정기업 및 PBOC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승인 받은 중국기업과의 송금 및 수출입 거래 ▪ RMB 통화 예금 취급
KDB 장점	▪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개설은행임 -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를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지원 ▪ 저리의 Nego 재원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맞춤서비스와 함께 고객위주의 다양한 Merit System 제공 - 거액 및 우수고객에 대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고객은 거래실적(약정물량 포함) 1백만불 이상시 우대) -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연계 또는 환율우대서비스 제공 - 수출입통합한도 운용을 통해 수입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출거래 및 수출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입거래 가능 - 당일 접수된 신용장 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표 II-18> 선박금융

국내 해운사 대상 최대 선박금융 House	▪ 2013년 중소선사를 포함한 국내 우량 해운사 및 외국계 선사/리스사 앞 선박금융을 주선하여 국내 최대 시장 지위 유지 (주선실적 : U$1,750백만)
개 요	▪ 국내외 선사의 선박 도입을 위하여 선박 자체의 자산가치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주요 금융조건	▪ 구조 : 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앞 선박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 지원형태 : 대출 또는 선박펀드를 통한 후순위 금융 ▪ 금융금액 : 선박 가치의 60 – 80% 수준 (차주와 협의) ▪ 여신기간 : 10년 내외 (차주사와 협의에 따라 상이) ▪ 주요담보조건 - 선박 저당권 설정, 제반 보험권리 양수, SPC 임차료 수취계좌 질권설정 등
취급 절차	▪ 마케팅 → 제안요청서 접수 → 지원검토 → 제안서 제출 → 기채의뢰서 획득 → 여신 승인 → 계약서 작성 → 신디케이션 → 서명 → 인출 → 사후관리

<표 II-19> 프로젝트 금융(항만, 인프라)

Project Finance Market Leader	▪ 국내 최고의 프로젝트파이낸스 Market Leader - 국내 최초 PF방식을 도입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95)등 총 222건 사업에 대해 55.7조원의 금융주선 성공적으로 완료 ▪ Global Top 수준의 PF House - Global PF Loan 세계 9위, Global PPP*부문 세계 1위 (Dealogic社 발표 2013년 PF주선실적 League Table) *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 해양관련 PF 실적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2006) : 1,100억원 - 인천신항 1-1 B터미널 (2014) : 1,500억원 (주선금액)
개 요	▪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보고,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SPC)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대상사업	▪ 사회기반시설 (항만 등) 민간투자사업 ▪ PF방식에 의한 해외프로젝트 (해양인프라 등)
금융자문	▪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금융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며, 사업주의 對정부 협상 등을 지원함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사업위험분석 및 위험완화방안 제시 - 對정부 협상지원 및 실시협약 자문 -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자문
금융주선	▪ 사업주에게 계획사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사업주로부터 기채의뢰서를 받아 금융주선 수행 - 금융구조 및 주요 금융조건 협의 - 확정 금융조건의 제안 - 기채의뢰서 접수 - 신디케이션 및 약정체결

사업 7	부산 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제고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부산은행이 선박금융을 취급함으로써 선박금융기능이 제고되었으나, 부산지역의 나머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취급 규모가 축소됨

○ 향후 이들 금융기관도 선박금융을 주요 대출 포트폴리오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20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내용

○ 지역대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의 선박금융기능 강화

*** 부산은행은 프랑스 선박금융전문은행인 Calyon과 상호협조 MOU 체결(2009)**

○ 부산소재 우량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중소형 조선소 및 해운기업에 대한 자료 제공)

□ 기대효과

○ 선박금융중심지를 지향하는 부산의 대표 금융기관인 부산은행의 선박금융기능 제고로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 해외 선박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도모

○ 우량 저축은행의 중소형 해운·조선사 지원으로 해운·조선산업 활성화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지난 2016년 8월 9일 부산은행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은 '해양·선박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2017년 6월 말기준 부산은행의 선박금융대출은 2013년 말보다 1,130%가량 증가함

○ 2013년말 기준 66억5100만 원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818억 2,900만 원으로 1,130.32% 증가함

○ 특히 2013년 대비 3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급증세를 보인 이유는 2016년 한국해양보증보험과 맺은 해양·선박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임

<표 Ⅱ-20>　　2012-2017년 부산은행 선박금융대출현황

(단위: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부산은행		66.5	118.2	488.3	536	818.3

출처: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한편 선박금융대출 잔액은 지난 2012년 14조9,105억 원에서 2017년 6월 21조700억 원으로 4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대부분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박금융대출 규모를 늘린데 따른 영향으로, 산업은행은 2012년 3조8,090억 원에서 5조5,20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입 은행도 7조5,543억 원에서 13조1,701억 원으로 74.3% 증가함

□ 반면 시중은행들의 선박금융 대출규모는 3조5,472억 원에서 2조 3,795억 원으로 32.9% 줄었으며, 국민·우리·신한은행의 선박금융 대출은 각각 2012년 7,039억 원, 8,774억 원, 5,147억 원에서 올 6월 대출잔액이 3,316억 원, 4,895억 원, 2,158억 원을 기록하며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됨

□ 민간은행의 선박금융 실적은 해운시황 및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이 불가피함

사업 8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의 조성 및 해운기업의 설립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운 비즈니스 관련기업의 상호연계 및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해운선사 및 화주의 유치를 통해 동종의 기업 집적화 및 통합서비스체제 구축으로 저비용·고효율 효과 창출

○ 부산해양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써 해운선사, 해사법률, 해운중개, 선박보험, 포워딩 등의 관련업체가 집적화 및 선박금융업의 발전에 기여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 2020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항만개발과), 국토해양부

○ 소요예산 : 4,200억 원

□ 사업내용

○ 해운 비즈니스의 핵심인 해운선사의 부산유치

○ 고부가가치 해운 서비스 산업의 유치

○ 해운 비즈니스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

○ 법률 및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 예) (가칭)집적화 단지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 기대 효과

○ 선박금융의 수요를 유발하여 선박금융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선박금융과 연계될 수 있는 해운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선박금융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달성여부 및 성과

① 부산 동삼동 혁신지구 부산해양클러스터

□ 부산 동삼혁신지구는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에 616천㎡ 규모로 해양·수산관련 4개기관을 이전함

○ 4개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며, 유관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개발교육원,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사고교, 국제크루즈터미널, 부산항만소방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제2캠퍼스), 부산항만공사로 9개 기관임

□ 추진상황

○ 2006. 3 : 해양 · 수산 4개기관 동삼혁신지구내 입지 확정(국토부)

○ 2006. 6 : 기본구상용역 착수(삼영ENG) ⇒ '06.12완료

○ 2006.10 : 이전기관 부지면적 조정결과 통보(국토부 → 부산시)

○ 2007. 4 : 부산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 · 실시설계착수
○ 2007. 5 : 개발계획 승인 신청(도시공사 → 국토부)
○ 2007. 9 :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2007.12 : 실시계획 승인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 2008. 1 :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 2008. 4 : 혁신도시 착공식
○ 2009. 1 : 진입도로 착공
○ 2009.10 : 호안공사 협약체결(부산시 ↔ 부산지방해양청)
○ 2010. 1 : 해양 · 수산 4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0. 3 : 친수호안공사 착공
○ 2012.12 : 국립해양조사원 준공 및 이전완료
○ 2013. 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건립공사 착공
○ 2013. 9 : 동삼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 2013. 9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건축허가
○ 2014. 2 : 친수호안 조성공사 준공
○ 2014. 6 : 혁신도시 진입도로 연결구간 공사 준공
○ 2014. 1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건립공사 완공
○ 2015. 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전완료
○ 2015. 9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건립공사 착공
○ 2017. 12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완료

□ 해양과학기술원 이전으로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공동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물론 부산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 및 수산가공회사, 대학과 연계된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과 수산식품 연구·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부산 이전은 부산이 국내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연구와 동 분야 정책개발 및 수립 기능의 중심지가 된 것을 시사함

○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새 청사가 세워지는 동삼혁신도시 해양클러스터는 우리나라가 해양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자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에 새롭게 자리잡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하는 해양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국립해양조사원의 이전은 해양조사 부분의 첨단기술 이전 및 국가기관의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으로 해양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해양수산 혁신지구 특성을 살린 지역대학 공동 프로젝트 참여 및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 등 우수인력의 유입으로 경제파급효과가 1,148억 원에 달하고 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은 본원 및 13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부산지원은 가장 큰 규모의 지원으로, 본원-부산지원 간 업무공조가 쉽게 이루어져 각종 민원 사항, 특히 수출관련 민원에 적극적 해결이 이루어져 부산지역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②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함

□ 그 간 정부는 2016년 5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고, 2017년 4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한 것임

○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됨

□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임

□ 대상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 · 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부산항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 · 해양플랜트 등 관련 기업을,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Ⅱ-9>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지 도면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그림 Ⅱ-10>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931	100.0	
산업시설용지		100,214	56.9	마리나비즈니 (25,553㎡
지원시설용지		6,663	3.8	
기반시설용지		69,054	39.3	
공 원		9,016	5.1	
주차장		5,399	3.1	
항만시설		7,502	4.3	공용부두
도 로		47,137	26.8	

토지이용계획표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사업 9	수협은행 본사 유치를 통한 수산금융산업 활성화

가) 사업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협은행은 일류 해양수산은행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산금융산업과 해양투자금융사업이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수협은행의 본사의 부산국제금융센터 내에 설립은 부산이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수협은행은 부산지역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표적 금융기관으로서 부산이 냉동수산물의 동결능력 및 냉장보관능력이 전국최고 수준이라는 점, 즉 냉동수산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확립된다면, 일반금융기관도 이와 같은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금보다 수산금융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금융중심지기획단, 수산정책과), 수협은행

○ 소요예산 : 국내 선박금융기관(회사) 유치 IR과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수협은행이 부산에 유치되고, 수산금융에 특화된 지역금융기관이 육성된다면 수산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임

○ 현재 일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수의 금융기관이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공급과 함께 활어 및 양식 수산물에 대한 담보대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수산금융의 활성화 및 나아가 수산금융의 규모 확대 기대

○ 수협 등이 수산펀드(수산업투자조합) 조성 후, 정부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은 재원 등으로 어선의 신조 및 첨단해양수산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산펀드의 조성 및 결성 활성화로 수산금융의 활성화 제고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수협은행은 과거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안 및 부산금융중심지(문현지구) 활성화를 추진하던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 등으로부터 수협은행 본점 부산이전에 대해 요청받은 바 있지만, 당시 부산이전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에서 종결처리 된 사안이라고 밝혔음

○ 또한, 거액의 이전비용발생(2,000억 원 예상) 등으로 공적자금 상환차질, 특정지역 이전에 따른 타지역 어업인과 정치권 등 이해관계인 반발, 선박·해운 영역에서의 정책금융 역할 기회 소멸, 지방 이전에 따른 영업력 훼손 등 여러가지 사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임

<표 Ⅱ-21> 선박 및 수산금융분야 액션플랜 달성여부

구분	사 업 명	추진기간 (년)	사업비 (억원)	실현 가능성	달성여부
단기 핵심	1.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2010~2015	3,028.5	중	○ 해양진흥공사 설립 (2018년 7월 5일)
	2.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2010~2016	88.1	상	○ 한국해양대(해양금융전문대학원)개원, 부산대(파생금융대학원)개원 (2018년 9월)
	3. 선박운용회사의 유치 및 설립	2010~2013	-	상	○ 한국선박해양 설립(2017년 1월)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흡수
	4. 부산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2010~2016	200	상	△ 진행중 (2017년 3월 거래소 설립을 위한 해운업법 국회통과)
	5.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2010~2020	10	중	× 미달성
단 기	6.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부산유치	2010~2020	1	중	○ 현재 대부분의 선박금융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부문을 포함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BIFC에 개소 (2014년)
	7. 부산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제고	2010~2020	비예산	중	○ 부산은행, 한국해양보증보험과 업무협약으로 선박금융대출 증가 (2016년)
중장기	8.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의 조성 및 해운기업의 설립	2011~2020	4,200	상	○ 부산 동삼동 혁신지구 부산해양클러스트 완료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트 지정(2018년 1월)
	9. 수협은행 본사 유치를 통한 수산금융산업 활성화	2013~2020	-	중	× 수협은행은 전산비용 등의 문제로 이전의 무리라는 입장(2016년 12월)

2) 파생 및 신성장 금융

사업 1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가) 사업내용

□ KRX 부산본사 내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을 목표

○ 탄소배출권은 파생금융의 핵심으로 KRX와 연계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는 부산이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으로 인식

○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배출지역으로 부산금융중심지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치 시, 한국거래소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14. 1. 14 KRX 부산본사 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을 공고하고 ‘15. 1. 12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 평가

○ 1차 계획기간 3년간(‘15. 8.10 상장폐지) 배출권 시장은 미흡한 거래량과 가격의 급등락 등 다양한 한계를 경험

*** 2018년부터 3년간의 2차 계획기간이 시작**

○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단기적 관점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참여 유인은 유효해 보이나 시장조성에 대한 증권사 등의 참여도가 아직까지 낮은 편

*** 최근 일부 증권사의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가 기대**

<그림 Ⅱ-11>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량 추이

	할당배출권 (KAU15)	상쇄배출권 (KCU15)	할당배출권 (KAU16)	상쇄배출권 (KCU16)	할당배출권 (KAU17)	상쇄배출권 (KCU17)*
거래기간	'15.01~'16.06		'16.07~'17.06		'17.07~'18.06	
거래량(천톤)	1,620	2,645	8,993	481	19,683	-
거래금액(십억원)	26.4	41.2	183.9	9.5	435.5	-

자료 : 삼정 KPMG

<그림 Ⅱ-12> 국내 탄소 배출권 일일 가격, 평균가격 추이

구분	할당 배출권 (KAU15)	상쇄 배출권 (KCU15)	할당 배출권 (KAU16)	상쇄 배출권 (KCU16)	할당 배출권 (KAU17)	상쇄 배출권* (KCU17)*
평균 거래가 (원)	12,538	13,223	19,611	18,951	21,779	-

자료 : 삼정 KPMG

사업 2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가) 사업내용

□ 파생상품 개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파생상품 R&D 센터 설립 추진을 모색

○ KRX 파생상품시장은 거래규모 기준으로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시장 규모에 걸맞는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를 인식

○ 세계 최고 수준의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파생상품 R&D부문의 역량 강화 지향

○ 파생상품 R&D센터를 국제적인 파생상품 개발 센터로 육성하여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부산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

○ KRX,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상품 개발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기대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부산시와 KRX, 부산은행,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2012년 2월 파생상품 연구센터를 개설

□ 평가

○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는 자본시장 전문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외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자본시장 정책수립 지원을 목적

○ 또한, 증권·파생시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금융인력 양성 사업 등을 모색

○ 논문 및 간행물, 파생상품시장 브리프(Derivatives Briefs) 등의 연구 활동과 투자자교육 및 강연 등을 진행해오고 있음

* 파생상품시장 브리프 2012년~2016년 까지 분기별 또는 연 2회 자료를 발간

* 한국파생금융포럼 개최, 우수논문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학계 등 연구 협력을 강화

* 2017년 이후 간행물 발간 등 연구활동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

사업 3	상품거래소 유치

가) 사업내용

□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상품거래소의 부산 유치 추진

○ 현물과 파생상품간의 연계를 고려할 때 상품거래소의 유치가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의 입지조건과 KRX의 현·선물 연계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상품거래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

○ 상품거래소와 한국거래소의 연계는 거래비용 절감, 관련 회사의 집중 등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소 및 상품거래소 부산 유치 추진

○ 전북, 광주 등과 함께 독립된 상품거래소 설립을 위해 경합 했으나, 부산 한국거래소 내에 금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2010년 6월 정부의 방침을 발표

○ 독립된 상품거래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고비용과 거래소 비활성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거래소를 단계별로 한국거래소 내에 설립키로 함

○ 2012년 3월 KRX 내에 석유전자상거래시장 개설 및 2014년 3월 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1월에는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

***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0.3%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18년 10월 기준 경유는 약 2억 5천 리터가 평균 1,397원 그리고 휘발유는 약 1억 2천 리터가 1,560원, 등유는 약 7천 리터가 877원에 거래 되고 있음**

*** '18년 10월 금시장 누적거래량은 429.6kg으로 전월(248.9kg) 대비 7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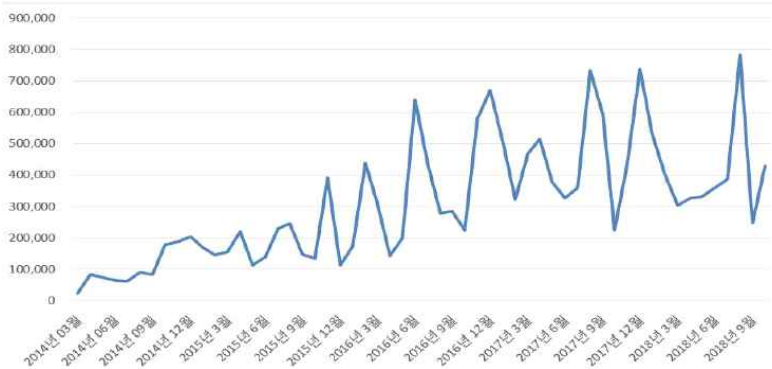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시장은 KAU17 기준 약 2억 톤 가량 거래가 되었으며 거래금액은 약 4천 5백억을 기록**

<표 Ⅱ-22> KRX 일반상품시장 개설경과

일자	주관	주요 내용
'10. 6월	정부(위기관리대책회의)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 발표 (금 거래 양성화)
'11. 4월	정부(경제정책조정회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 발표(유가인하)
'12. 3월	KRX	석유시장 개설 - 정부의 석유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에 기여
'13. 7월	금융위원회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발표
'14. 1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로 KRX 지정 - 저탄소녹색성장
'14. 3월	KRX	금시장 개설 -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금산업 활성화 지원
'15. 1월	KRX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 국제 기후변화 이슈 선점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그림 Ⅱ-13>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월별 거래량 추이

(단위: g)



자료 : KRX

□ 상품(Commodity)파생상품은 돈육 및 금 선물 시장이 개설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

○ 2008년 7월 돈육선물시장 개설을 시작하였으며 돈육 선물 거래실적은 2013년 68계약 거래 이후로 현재까지 거래가 전무한 상황

○ 2010년 9월 미니금선물시장 개설하였으나 금 가격의 하락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사업 4	중앙청산소 유치

가) 사업내용

□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중앙청산소(CCP) 부산 유치

○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핵심기구이며,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청산소(CCP)를 유치하여 국제적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 CCP와 관련된 금융회사, 기업 등을 유치하여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지역고용 창출효과 기대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자본시장법 개정('13. 7. 6 시행) 및 KRX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사(CCP) 인가 취득('13. 9. 11)

□ 추진성과

○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09. 9월 G20 합의사항) 관련 법령 개정 및 청산업무 개시

* 자본시장법 개정('13. 7. 6 시행) 및 KRX 장외파생상품 청산회사(CCP) 인가 취득('13. 9. 11)

* KRX, 원화IRS(이자율스왑)에 대한 자율청산('14. 3. 3) 및 의무청산('14.6.30) 개시

□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프라 개선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

○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제도 도입 및 글로벌 규제강화 영향 등으로 원화이자율스왑의 CCP(Central Counter Party) 청산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

○ '17.9월부터 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변동증거금 제도를 본격 시행(개시증거금 제도는 '20.9월부터 시행 예정)

○ '17년말 증거금 예탁규모는 7조 7,32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4% 증가

<표 Ⅱ-23> 종류별 청산소(CCP) 거래증거금 예탁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14년12월	'15년12월	'16년12월	'17년12월	증감률
주식등	11,782	8,877	10,831	10,541	-2.7%
채권	46,701	47,357	45,493	46,181	+1.5%
외화	8,284	6,860	8,381	5,158	-38.5%
원화	5,116	5,815	10,077	15,445	+53.3%
외화증권	167	-	-	-	-
합 계	72,050	68,909	74,782	77,325	+3.4%

주 :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 : KRX

사업 5	국제회의 유치

가) 사업내용

□ WFE 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 WFE(세계거래소연맹) 총회 등 금융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통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도모

○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홍보 및 부산의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14년도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회원총회는 유치하지 못했으나 국제행사 유치에 노력을 기울임

□ 추진 성과

○ '10년 :「부산국제금융포럼」,「부산국제금융박람회」,「아·태탄소금융포럼」 개최

○ '14년도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회원총회 및 연차회의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

○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총회 유치는 하지 못했으나 한국거래소와 세계거래소연맹(WFE) 공동주관으로 '13년 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2013 IOMA The WFE Derivatives Conference)를 개최

○ 2015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IDB-IIC(미주개발은행) 총회 개최, 2017년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국제회의'를 개최, 부산 벡스코에서 2018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최 등 국제금융회의 개최

<표 Ⅱ-24> 파생 및 신성장 금융 액션플랜 달성여부

구분	사 업 명	추진기간	사업비 (억원)	실 현 가능성	달성여부
단기 핵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2010~2020	19	중상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치 가능)	○
단기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2009~2020	120	상 (현재 추진중)	○
	상품거래소 유치	2010~2013	비예산	중상 (지리적 이점은 있으나 경쟁도시가 많음)	○
	CCP(중앙청산소) 유치	2010~2012	〃	중하 (서울 유치 가능성)	○
	WFE 총회 등 국제회의 유치	2013~2020	43.2	중상 (거래소와 협력 가능)	△

3)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사업 1	백업센터 및 전산센터 구축

가) 사업내용

□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

○ 부산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백업센터 및 전산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의 필요성 인식

○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 백업센터 구축 및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 설립을 통해 우선적으로 핵(core)을 형성한다는 계획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공동백업센터(제3백업센터) 유치는 '15년 결정, '16년 착공을 시작하려는 계획 있었으나 무산되어 현재 중단된 상황

○ 금융권 공동백업센터는 미음산단 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원에, 주요 기관의 데이터센터는 BIFC 일원에 유치

○ 중금융권 공동백업센터(제3백업센터) 유치는 '15년 결정, '16년 착공

* 부산 유치 추진(경북 경산, 경남 김해, 충북 보은 경합)

* 중·소형 금융기관 백업센터, LG CNS, BNK금융 통합전산센터 등의 집적화 추진

○ 공동백업센터(제3백업센터) 유치 계획 있었으나 중단된 상황

사업 2	백오피스 업무 중심의 글로벌 아웃소싱센터 기반조성 사업

가) 사업내용

□ 동북아의 글로벌 센터로 발전하기 위하여, 금융특구 내에서 초기에 국내 대형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기능이 분화되어 집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글로벌 아웃소싱 센터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의 지역특화금융과 금융인프라가 조성될 뿐 아니라 서울의 프론트 오피스기능을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부산에 금융 백오피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자산운용업과 자산운용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동북아의 글로벌 아웃소싱 센터로서 차별화된 틈새시장의 금융서비스를 공략할 수 있는 국제금융산업의 육성을 기대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금융중심지 내 또는 역내 국내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기능은 아직까지 제한적

○ 룩셈부르크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언어장벽이나 규제체계의 차이 등으로 진출유인이 낮은 편

○ 거래소 등의 관련 기관에 의한 추진력 확보도 아직까지 미성숙

<표 II-25>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액션플랜 달성여부

구분	사 업 명	추진기간	사업비 (억원)	실 현 가능성	달성 여부
중장기	백업센터 및 전산센터 구축	2011~2020	304.2	중 (지방은행 및 중소형 금융회사 공동백업센터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
	백오피스 업무중심의 글로벌 아웃소싱센터 기반조성사업	2013~2020	44.8	중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계추진 가능)	×

4)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1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가) 사업내용

□ 부산의 국제적인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육성과 이를 위한 부산시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함

○ 부산 금융중심지의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인력양성, 선박금융 영업손실 보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금 조성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중앙정부·부산시를 포함해 부산 금융클러스터 주체로써 참여하는 금융기관들도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

사업 2	금융특구 조성

가) 사업내용

□ 해양금융중심지 발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선박금융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필요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금융특구가 조성되어야만 해양·파생금융지로 발전할 수 있음.

○ 사업분야별 차별화된 조세인센티브제도도입, PCC제도 도입, IBF제도 도입, 이를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실현 활동 등

○ 세제관련 제도정비 및 선박금융을 위한 SPC 설립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부산시는 금융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금융특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 3	부산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부산지역의 금융전문 인력양성은 주로 지역대학의 학부수준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

○ 부산대 금융선물보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속사업으로 지원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부산현지 교육 확대 운영

○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정부인정 금융 MBA유치, 외국MBA 분교유치 및 공동프로그램 추진

○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해외 우수 대학과 교수 교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 교육의 수준 향상

○ 부산지역의 특화금융 운용인력 수급을 위해서 금융분야 전공자 또는 상경계열 출신자 인턴쉽 제도 등 OJT(On the Job Training) 활성화

○ 100% 영어강의 실시 등 금융 관련학과 교과과정 보완을 통해

국제적 금융인력 양성 도모

○ 국제금융연수원 및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2018년 12월말 현재 국제금융연수원 및 금융전문대학원은 설립되었으나 외국 MBA 분교 유치 등 다른 목표는 미달성

사업 4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가) 사업내용

□ 부산지역 공공금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파생금융 전문인력을 양성

○ KRX와 연계하여 파생금융 전문 MBA 과정을 개설하여 KRX의 금융전문대학원 부지 제공 및 지원을 받는 방안 모색

○ 외국의 금융전문대학원과 협조로 공동학위제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교수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으로 외국의 금융계 변화에 순응

○ 모든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며, 초기에는 장학금의 혜택을 많이 부여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도록 함

○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며, 교육 수료후 일정기간을 부산소재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교육운영 형태로는 3학기제(3월~6월/7~10월/11월~익년 2월)로 운영하며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영어강의 100% 원칙), 현장실무교육 1학기는 관련업계 근무필수, 근무 후 근무기관 부서장 평가시스템 운영

○ 학부정원 및 증원 등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법적·제도적 지원 마련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부산 금융전문대학원은 부산대-한국해양대 공동학위 과정으로 2018년 9월 개설

○ 부산 금융전문대학원은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파생 금융 실무 특강, 핀테크, 금융 빅데이터 등 해양·파생금융 관련 강좌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최초 모집 정원은 부산대 25명, 한국해양대 30명(전일+비전일) 수준이며, 해양·파생금융 관련 강좌를 9학점 이상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석사학위 교육과정으로 운영

○ 부산시와 금융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모두 80억원을 들여 금융전문대학원 시설비와 학생장학금, 과정운영비 등을 지원

사업 5	해외 금융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글로벌 아웃소싱 센터의 기반조성, 해외 증권금융결제와 관련된 업무(CCP 관리), 국제해운거래소와 선박금융 관련 서비스를 위한 국제인력 확보, 은행금융기관의 업무에서 IBF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외인력 등 필요

○ 해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 등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해외금융인력들을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조세혜택 등)의 적용상의 한계로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하기에 여전히 미흡

사업 6	기보의 녹색금융 활성화 사업 지원

가) 사업내용

□ 기보가 과거에 시행하였던 Primary CBO의 경험을 살려 녹색채권 유동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녹색채권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산시가 후순위채권의 인수자로서의 역할 필요

○ 물론 이때 유동화자산의 풀(pool)은 부산 지역 우수 녹색기업들로 한정할 수 있고 그 풀에의 진입여부는 기보가 판정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녹색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인증기준이 높고 혜택에 대한 제한이 많아 활성화에는 실패했으며, 이후 녹색금융에 대한 논의가 다소 약해짐

사업 7	한국예탁결제원의 ICSD 추진

가) 사업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역내 ICSD[8]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가 꼭 필요한 선제 조건

○ 은행으로서의 법적지위는 예탁결제원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킴

* 외국사례 : 미국 DTC가 처음 출범시 상업은행과의 거래를 위해 trust라는 법적 지위를 선택, 유럽의 ICSD인 Euroclear, Clearstream 등도 같은 이유에서 은행으로 출발하였음.

○ 따라서, 예탁결제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금융서비스(limited banking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기능 부여 필요

* 제한된 금융서비스 : 예금 및 대출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 결제위험 감소에 필요한 초단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ICSD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간의 이해관계, 규제완화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

8) 특정한 국가나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화된 역외시장에서 국제증권투자자를 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함

사업 8	캡티브 보험사 유치 및 설립

가) 사업내용

□ 주요국 기업을 대상으로 캡티브 보험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법 규제를 제·개정하거나 캡티브 보험 관련 특별법을 제정

○ 캡티브 보험 관련 전문가 그룹 양성, 캡티브 보험 관련 설립지원 서비스체제 구축, 캡티브 보험사 유치 및 홍보 활동 전개 등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열악한 국내 금융환경과 경쟁력, 인프라 부족(설립지원 서비스체계, 외국인력의 근무 환경 등)의 문제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사업 9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 지원

가) 사업내용

□ 부산권역 수출입업자들의 해상보험(적하, 선박 등) 가입을 위한 상호보험회사 설립, 적하보험가입센터 설치, 해상보험기관 유치 등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상호회사 설립을 위한 법 개정, 관련 규제 마련의 미흡으로 달성되기 어려움

사업 10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가) 사업내용

□ 부산시에서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글로벌 금융연수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우선사항으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단계 : 금융아카데미 운영으로 2010년부터 연수원 설립 전까지 독립법인 설립 또는 기존 연수원 및 관련기관, 대학 등에 위탁 운영 등 실시

○ 2단계 : 2011년부터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인력양성의 필요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또는 금융 MBA과정 개설 운영이 필수이므로 해양파생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기존 금융연수원 분원 설치, 해외 금융 MBA과정 유치

○ 3단계 : 2016년부터 동북아 최고의 금융연수원 설립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 완공 이후 금융전문 인력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2014년 9월 개원한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연간 7,000여명의 금융회사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파생금융 및 선박·해양플랜트 financing 특화 교육을 실시

○ 해양·선박금융실무를 비롯한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실무, 파생금융상품 실무 과정 등 부산·경남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재작자 교육 등 170여개 과정 8,000여명의 연수인원을 기록

<표 Ⅱ-26>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액션플랜 달성여부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비 (억원)	실 현 가능성	달성여부
단기 핵심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2011~2020	1,000	중	×
	금융특구 조성	2010~2020	2	중	×
	부산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2010~2020	50	중상	○ 부산대-한국해양대 선정 (2018년 9월개설)
					× 외국MBA분교 유치 등 다른 분야 미정
단 기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2011~2016	100	상	○ (2018년 9월)
중장기	해외 금융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외국인편의 시설, 세제혜택 등)	2012~2020	50	중	×
	기보의 녹색금융 활성화사업 지원	2012~2020	-	중	△ (2010년 전후로 녹색금융사업 하였으나 현재는 주춤)
	한국예탁결제원의 ICSD 추진	2013~2020	0.8	중하	×
	캡티브 보험사 유치 및 설립	2013~2020	100	〃	×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방안	2013~2020	300	중상	×
	부산 국제 금융연수원 설립	2016~2020	203	중	○ (2014년 9월 개원)

5)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사업 1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조달

가) 사업내용

□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와 자본 유인 여건 등 검토하여 이슬람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적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

○ 이슬람 금융 활성화시 선박금융의 자금 조달처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산시를 동북아 이슬람금융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동의 오일달러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반영할 계획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와 자본유인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슬람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관련 법적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수쿠크(이자대신 다른 수익배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슬람형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2011년)

○ 이슬람 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법적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미흡한 실정

사업 2	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유치

가) 사업내용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한다는 계획

○ 동북아 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유치는 국내외 민간금융기관을 부산지역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국제금융기구의 지역 내 유치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인식

○ 국제금융기구의 유치는 직접적으로 고용창출과 함께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북아 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사용 할 금융 소프트웨어를 부산 지역에서 개발하는 등의 부산지역 금융 소프트웨어 육성을 목표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국제 정세 및 대북 관계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 유치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국제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산하기관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16년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첫 국제기구로 개원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을 유치하는데는 성공

○ 한편 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없는 상황

사업 3	부산금융공사 설립

가) 사업내용

□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지역내 분산된 역량의 결집을 위한 구심점과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을 추진할 추진체 필요성에 의한 부산금융공사 설립을 계획

○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체로서의 임무

* 현재 부산시, 경제진흥원 및 금융감독원 등에 산재해 있는 금융중심지 추진기구를 부산금융공사로 통합하여 전문적, 영속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판단

○ 금융특구설치시 부산금융공사는 특구 관리기관으로 역할

* 제한적 기능하에서 금융특구 설치시 금융공사는 금융특구 관리기관으로 역할 (예: 부산항만공사 등)

○ 국내외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파트너 역할 수행

* 국내외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로 이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촉진제 역할 수행

○ 국내외 자금조달기능 및 투자기능

* 부산금융공사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로 지역내 자금조달수행을 통해 지역내 대형사업에 대한 금융수요 충족 및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인력양성기능 수행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부산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민간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므로 공공금융기관 주도하여 설립 필요

○ 2020년까지 부산금융공사 설립하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축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중앙정부 및 부산시 그리고 국회 등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서울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요구

○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감독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싱가포르의 GIC, 테마섹 등 해외사례 벤치마크가 필요(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2010 참고)

○ 지역 개발 펀드 또는 지방정부와 대형금융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한 장기적인 자금조달 기반 마련을 고려할 필요

사업 4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

가) 사업내용

□ 문현금융혁신지구는 부동산 면적 등으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상 제약이 많으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항재개발지역 및 해운대 센텀지역을 문현금융지역과 연계한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을 계획

○ 문현금융중심지의 지리적 및 공간적 제약 극복으로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부산의 전략산업인 항만, 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및 영상IT 등과의 금융산업 연계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 가능

○ 동남권의 거점도시로 부산의 금융산업 활성화가 동남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달성여부 및 성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항재개발지역 및 해운대 센텀지역은 문현금융지역과 연계하여 금융자유지대로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20년까지 연계형 금융자유지대의 구축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

○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역외 금융 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 물류 산업 등 신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경제적·법률적·제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유효할 전망

□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추진을 통한 부산신항의 완공(2020년 목표), 국제업무지구의 추진(명지지역), 여가 및 휴양시설 추진 등은 각종 산업기반 확충에 따른 금융기반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금융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차별화적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경우 글로벌 기술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의 국내 자금조달이나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산금융중심지가 있는 문현금융지구와 북항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 되어 해양물류와 금융을 연계한 국제 업무지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1월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확정하며 문현금융지구와 북항을 아우르는 지역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초점을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에 둠에 따라 부산금융중심지의 혁신금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표 Ⅱ-27>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액션플랜 달성여부

구분	사 업 명	추진기간	사업비 (억원)	실 현 가능성	달성여부
중장기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조달	2011~2017	-	중	× (정부의 정책지원 필수, 현재 법 개정 중)
	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유치	2013~2020	25	중하	△ (국제 정치 역할에 의존)
	부산금융공사 설립	2013~2020	10,000	중	× (금융중심지 추진체로서 금융특구 설치시 가능)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	2013~2020	10	중하	× (북항, 해운대 센텀지구를 연계하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2. 부산의 경제 및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가. 부산 경제 및 금융 동향

□ 부산시 경제는 2008년 이후 조선 및 해운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동산 등의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9년간 평균 1.9%(2008~2016년 기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 부산시의 산업기반은 주로 제조업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91%, 자동차산업의 38% 및 기계산업의 36%가 집적되어 있으며 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다소 정체되는 경향

○ 부산 경제는 조선·해운산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전체 국가경제 성장률 대비 평균 기준 낮은 성장률을 보임

<표 Ⅱ-28> 부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GRDP) 추이 등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국가 경제성장률(실질)	2.8	0.7	6.5	3.7	2.3	2.9	3.3	2.8	2.9	3.1
부산시 경제성장률	1.7	-3.6	4.5	2.0	3.0	1.8	3.3	2.9	1.5	1.9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농림어업	11.4	25.9	9.5	26.4	-12.6	-14.6	-5.7	-7.3	8.0	4.6
광·제조업	17.2	-4.2	29.8	7.8	-2.8	0.4	2.2	9.5	1.9	6.9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6.8	11.8	16.5	-19.3	0.3	36.2	43.4	32.5	10.0	9.6
건설업	-0.4	-9.4	-15.7	8.0	14.2	0.5	5.0	8.2	12.7	2.6
서비스업	7.1	-1.0	15.3	3.2	3.3	3.0	4.4	4.3	3.5	4.8

자료 : 부산시 구군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

□ 부산 금융산업의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은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초기에 증가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6.5%까지 다시 하락

○ 부산시의 전체 산업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2008년 6.5%에서 2011년 7.4%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6.5%로 하락

○ 동 비중은 울산 및 경남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서울과는 아직까지 큰 격차를 보임

<표 Ⅱ-29>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비중 추이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부산	6.5	6.5	7.3	7.4	7.1	6.7	6.8	6.7	6.5	6.8
부·울·경	3.9	4.0	4.5	4.6	4.3	4.1	4.2	4.2	4.1	4.2
서울	11.3	11.2	12.5	13.1	12.5	11.4	11.4	11.8	11.8	11.9
전국	5.8	5.6	5.6	5.8	5.5	5.0	5.1	5.0	4.9	5.4

주 : GRDP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및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통계 자료

□ 업종별 금융기관 분포를 보면 2016년 기준 보험(44%), 은행(36%), 증권(8%), 기타(12%) 순으로 형성

○ 부산 지역 내 금융기관은 점포 수 기준 주로 은행, 증권, 상호금

융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 시기와 비교하면 금융기관의 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2008년 3,144개에서 2016년 말 3,264개로 증가

<표 Ⅱ-30> 부산시 금융기관 분포

(단위 : 점포 수)

구분		2008	2016
은행 및 저축기관		1184	1,174
	중앙은행	1	1
	일반은행	606	599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577	574
투자기관		6	8
보험 및 연금업		707	640
금융시장 관리업		6	4
증권 및 선물 중개업		134	79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105	174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584	801
기타 금융업		418	384
합계		3144	3,26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에 따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부산 금융산업의 양적기반 확충과 특화가 진행 중

○ 기존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08년 이후 해양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 전문 금융공공기관의 이전(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센터가 확충

○ 금융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BNK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의 형성 등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산의 금융리더십 및 위상이 제고

<표 Ⅱ-31> 부산 내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이전/신설 년도	총자산(백만원)	임직원 수(명)
한국거래소	2014년 12월 (이전)	5,076,449	842 (2017년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	2014년 12월 (이전)	3,567,608	1,647 (2018년 3/4분기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2014년 11월 (이전)	3,011,769	628 (2018년 3/4분기 기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년 9월 (이전)	502,987	518 (2018년 3/4분기 기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년 3월 (이전)	25,117	218 (2018년 3/4분기 기준)
기술보증기금	2005년 09월 (이전)	3,145,758	1,393 (2018년 3/4분기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	2018년 7월 (신설)	약 3,100,000 (설립자본금)	약 81명 (설립 시점)
BNK금융지주	2011년 3월 (설립)	5,868,329	150 (2018년 3/4분기 기준)

주 : 총자산은 2017년 말 결산 기준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료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8. 5. 15.) 참고

자료 : 개별 기관 경영공시 참조

나.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 Z/Yen의 조사를 통해 6개월마다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23. 2018.3월)에 따르면 런던·뉴욕·홍콩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서울은 27위, 부산은 46위를 기록함

○ 부산은 2014년 3월에 발표한 GFCI 15에 27위로 처음 진입하였으며 이후 20위권을 유지했으나 2016년 이후 40~70위권으로 하락

○ 2018년 3월(GFCI 23) 현재 총점 618점으로 46위를 기록

○ 서울은 2007년 3월(GFCI 1) 평가시 43위에서 출발하여 2012년 9월에는 6위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3월 현재 총점 679점으로 27위를 기록함

<표 Ⅱ-32>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및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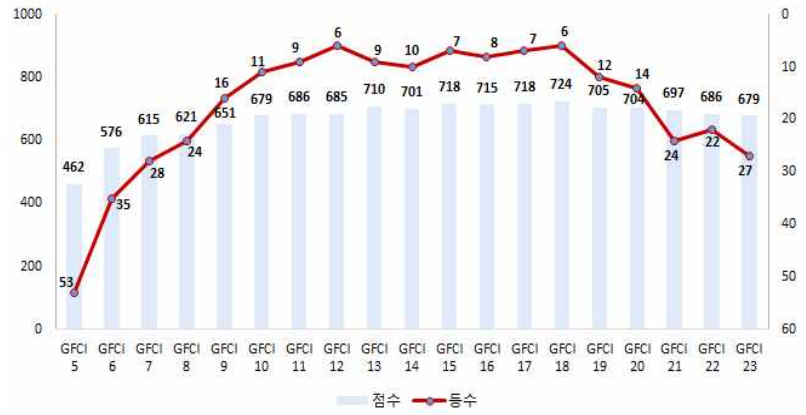
도시	GFCI 23		GFCI 22		변화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런던	1	794	1	780	-	▲14
뉴욕	2	793	2	756	-	▲37
홍콩	3	781	3	744	-	▲37
멜버른	12	720	13	696	▲1	▲24
밴쿠버	15	717	18	692	▲3	▲25
두바이	19	709	18	691	▼1	▲18
오사카	23	692	21	688	▼2	▲4
서울	27	679	22	686	▼5	▼7
광저우	28	678	32	668	▲4	▲10
함부르크	29	676	67	628	▲38	▲48
칭다오	33	662	47	649	▲14	▲13
텔아비브	34	661	34	666	-	▼5
방콕	37	643	61	634	▲24	▲9
부산	46	618	70	625	▲24	▼7

자료 : GFCI 23

<그림 Ⅱ-14> 부산의 GFCI 지수 추이

자료 :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각호)

<그림 Ⅱ-15> 서울의 GFCI 지수 추이



자료 :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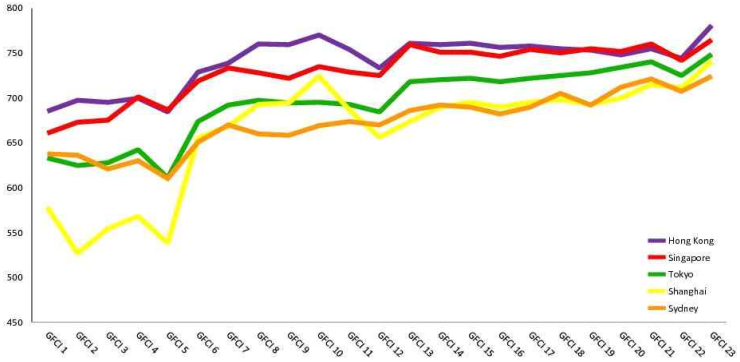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기준 홍콩·싱가포르·도쿄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서울은 10위, 부산은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16위를 차지함

○ 2015년 9월(GFCI 18)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순위는 서울 4위, 부산은 9위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 이후 순위가 하락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표 Ⅱ-33> 아시아·태평양지역 top15개 국가의 GFCI 지수

Centre	GFCI 23		GFCI 22		Change in	Change in
	Rank	Rating	Rank	Rating	Rating	Rating
Hong Kong	3	781	3	744	0	▲37
Singapore	4	765	4	742	0	▲23
Tokyo	5	749	5	725	0	▲24
Shanghai	6	741	6	711	0	▲30
Sydney	9	724	8	707	▼1	▲17
Beijing	11	721	10	703	▼1	▲18
Melbourne	12	720	13	696	▼1	▲24
Shenzhen	18	710	20	689	▲2	▲21
Osaka	23	692	21	688	▼2	▲4
Seoul	27	679	22	686	▼5	▼7
Guangzhou	28	678	32	668	▲4	▲10
Taipei	30	673	27	677	▼3	▼4
Qingdao	33	662	47	649	▲14	▲31
Bangkok	37	643	61	634	▲24	▲9
Kuala Lumpur	40	632	55	640	▲15	▼8

<그림 Ⅱ-16> 아시아·태평양지역 top5개 국가의 GFCI 지수



□ 금융중심지의 업무별/지역별 위상측면을 살펴보면, 부산은 '지역적 기존주자(Established Players GFCI 15~16)' → '국제적 기존주자(Established International: GFCI 17) → 국제적 다업무 범위(International Diversified; GFCI 18,22,23)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음

<표 Ⅱ-34> 부산의 분류상 위상 변화 GFCI 15~23 (2014.3~2018.3)

업무적 분류 지역적 분류	광범위 업무 (Broad& Deep)	상대적 광범위 업무 (Relatively Broad)	상대적 특화업무 (Relatively Deep)	신흥 중심지 (Emerging)
글로벌 중심지 (Global)	글로벌 선두주자 (Global Leaders)	글로벌 다업무 범위 (Global Divesified)	글로벌 특화중심 (Global Specialists)	글로벌 경쟁자 (Global Contenders)
국제적 중심지 (International)	국제적 기존주자 (Established International)	국제적 다업무 범위 (International Diversified)	국제적 특화중심 (International Specialists)	국제적 경쟁자 (International Contenders)
	부산 (2015.3 GFCI I7)	부산 (2015.9 2017.9 2018.3 GFCI 18,22,23)		
지역 중심지 (Local)	지역적 기존주자 (Established Players)	지역적 다업무 범위 (Local Diversified)	지역적 특화중심 (Local Specialists)	지역적 센터 (Evolving Centres)
	부산 (2014.3월,9월 GFCI 15,16)	부산 (2016.9 2017.3 GFCI 20,21)		

자료 : GFCI 15~23(보고서 부재로 GFCI 19는 제외)

□ GFCI의 5개의 평가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부산과 서울 모두 15위 권이내에 들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표 II-35> GFCI 평가분야별 Top 15

Rank	Business Environment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Reputational & General
1	London	Hong Kong	London	New York	London
2	New York	London	New York	London	New York
3	Hong Kong	New York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4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Washington DC	Singapore
5	Chicago	Tokyo	Shanghai	San Francisco	San Francisco
6	Los Angeles	Los Angeles	Tokyo	Boston	Boston
7	Washington DC	Washington DC	Sydney	Singapore	Chicago
8	San Francisco	Chicago	Washington DC	Chicago	Washington DC
9	Boston	San Francisco	San Francisco	Tokyo	Los Angeles
10	Zurich	Boston	Toronto	Frankfurt	Tokyo
11	Toronto	Dubai	Frankfurt	Shanghai	Qingdao
12	Frankfurt	Montreal	Boston	Los Angeles	Toronto
13	Montreal	Shanghai	Beijing	Beijing	Shanghai
14	Sydney	Osaka	Montreal	Edinburgh	Sydney
15	Geneva	Shenzhen	Zurich	Toronto	Montreal

3. 10년간 부산시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선박금융 분야

□ 선박금융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호황이 있었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조선업 및 해운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주 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장기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화금융 중심지로서 세계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선박금융은 2014년 이후 유가하락에 따른 기존 수주의 취소나 신규 수주물량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조선업이 위축

○ 또한 교역량의 증가세 둔화 및 선박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운임지수의 하락에 따라 신규 수주의 감소는 조선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자금공급을 위축

<그림 II-17> 전 세계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단위 : 백만CGT)

주: 상선은 탱커선, 가스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기준

자료 : 한국기업평가, 2018년 산업전망(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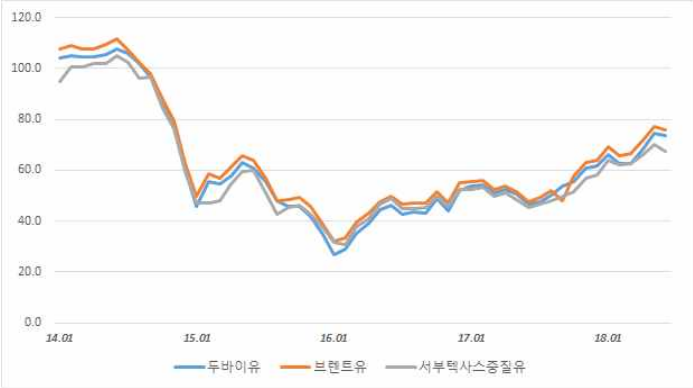
<표 Ⅱ-36> 주요국 선박금융의 특징

국가	주요 특징
독일(KG펀드)	- 파격적인 세제혜택(소득공제, 고속상각, 손실과 소득 상계처리 등) - 컨테이너선 신조 시장에 집중, 2007년 세계 선박금융 시장의 60.2% 차지
노르웨이(KS펀드)	- 파격적인 세제혜택(연 25% 정률상각법, 자본이득 8년간 유예 등) - '80년대 확대, '92년 위축(세제 혜택 축소), '00년대 확대(해운 호황) '08년 이후 축소(글로벌 금융위기)
일본	- 국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선박금융, 금융기관의 전문성이 높음 - 지방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국	- 정책금융(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국 조선소에 선박 건조 발주한 국·내외 선주들에 선박금융 지원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그림 Ⅱ-18> 국제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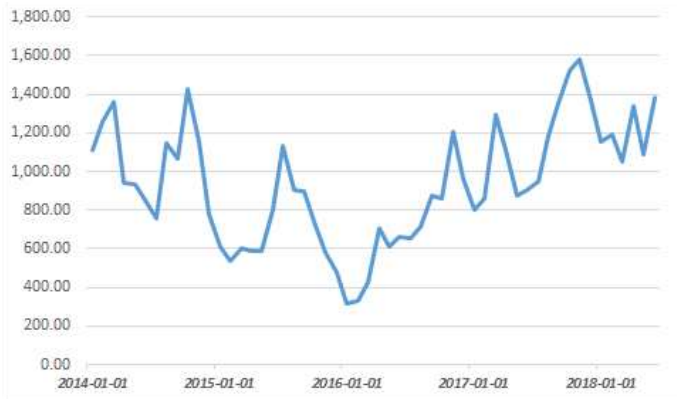
(단위 : $/bbl)



자료 : 통계청

<그림 Ⅱ-19> 벌크선 운임 지수(BDI) 추이

(단위 : 1985.01.04.=1000)



자료 : quan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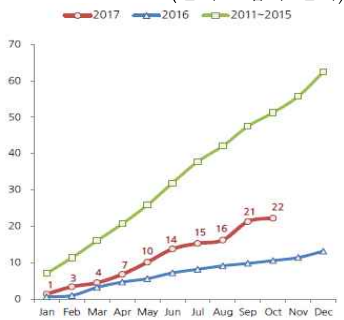
□ 국내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건조 수요의 축소에 따라 기존 주문의 완성 이후 위축 국면이 나타나면서 조선업 관련 업종의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 부문의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정책금융의 역할이 확대

○ 세계 선박수요의 축소와 기존 주문의 연기 등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2006년 이후 신규물량의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따라 중견 조선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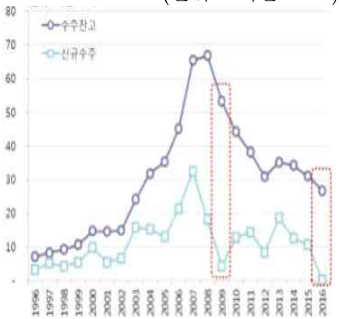
*** 2017년 이후 신규 수주물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그림 Ⅱ-20> 2017년 상선 신규수주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단위 : 백만 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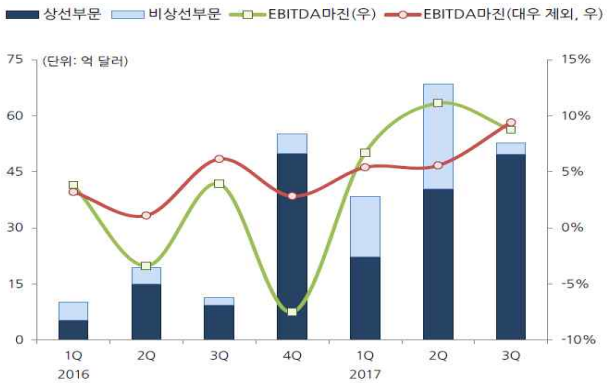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기업평가

○ 국내 조선업계는 중견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중국 조선업계의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민간 상업은행의 자금지원은 전반적으로 축소

○ 국내 선박금융은 민간 자금의 위축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선별적 지원 추세로 전환

<그림 Ⅱ-21> 회사별 수주잔고 및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달러(좌), %(우))



자료 : 한국기업평가, 2018년 산업전망(2018)

<표 Ⅱ-37> 조선3사 자구안 및 해운사 구조조정 현황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규모	3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5조 3,000억 원
회차별 규모	1차 : 1조 5,338억 2차 : 8,530억 3차 : 1조 1,160억	1차 : 5,461억 2차 : 9,090억	1차 : 1조 8,500억 2차 : 3조 4,500억
세부내용	- 보유주식,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 매각 - 임금 반납, 연장근로 폐지, 인원감축 등 경영합리화 - 하이투자증권, 비조선 부문 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	- 거제도 삼성호텔과 판교 연구개발(R&D)센터 등 비업무용자산 매각 - 인력 구조조정과 설비 축소	- 자회사 14개 매각, 독(duck) 5개로 축소 - 인력 감축, 임직원 임금 반납 - 기타

자료 : 연합뉴스(2016. 6. 8)

□ 한편 선박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인프라, 금융지원, 금융기관의 유치, 지역금융기관의 협업 등은 나름대로의 토대를 마련

○ 선박 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육성이나 선박금융 전문 교육기관의 육성, 선박운용회사의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 중심지 역할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

* 해양진흥공사(2018), 선박금융전문대학원(2018), 한국선박해양(2017) 설립

○ 일부 선박운용기관은 지점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선박금융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BIFC에 입주하여 선박금융 업무의 지역화를 도모

* KSF선박운용, 한국금융선박금융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종합센터

○ 부산은행의 경우 한국해양보증보험과 업무협약(2016년) 등을 통해 선박금융의 확대를 지원

□ 해운비지니스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한 해양기업의 유치는 기대되고 있으나,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은행의 본사 유치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동삼동 혁신지구 및 부산항 우암부두에 대한 해양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해운비지니스 관련 민간부문의 활성화 기반은 마련

○ 아직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 본사의 유치 등과 같은 민간 선박금융이나 수산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파생 및 신성장 금융 분야

1) 파생상품

□ 국내 장내 파생상품거래는 파생거래의 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위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중심지 지정 이전에 비해 위축되는 양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내 개인투자자의 거래 및 한도 제한 등 국내 장내 파생상품 거래는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안정화되는 추세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제4차 산업에 대한 논의 확대, 기술기업의 시가총액 증대, 아베노믹스에 의한 일본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된 반면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이전에 비해 약화

<표 II-38> 거래소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계약 수)

거래소명	'17	'16	증감률(%)	순위
CME Group	4,088,910,011	3,942,194,737	3.7	1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2,465,333,505	2,119,462,820	16.3	2
Intercontinental Exchange	2,125,404,062	2,038,129,470	4.3	3
CBOE Holdings	1,810,195,197	1,632,996,526	10.9	4
B3	1,809,358,955	1,487,305,788	21.6	5
Nasdaq	1,676,626,292	1,575,700,250	6.4	6
Eurex	1,675,898,310	1,727,460,135	-3.0	7
Moscow Exchange	1,584,632,965	1,950,145,218	-18.7	8
Shanghai Futures Exchange	1,364,243,528	1,680,711,841	-18.8	9
Dalian Commodity Exchange	1,101,280,152	1,537,479,768	-28.4	10
Korea Exchange	1,015,335,674	692,990,540	46.5	11
BSE	609,215,973	543,058,508	12.2	12
Zhengzhou Commodity Exchange	586,070,148	901,297,047	-35.0	13
JSE Securities Exchange	382,944,302	479,202,245	-20.1	14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372,186,941	344,642,173	8.0	15

주 : 1) 거래 및 청산된 계약 수
2) 선물과 옵션의 양은 개별 거래소 분류에 따름.

자료 : FIA 2018

<표 II-39>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년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한국	24,489.9	36,243.9	35,836.1	34,601.7

주 : 장외파생상품은 금리파생상품(Interest rate)과 외환파생상품(Foreign exchange)을 포괄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 파생상품 R&D센터의 설립이나 CCP 유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 한국거래소와 연계한 세부 실행계획은 달성

○ 파생상품 중심의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를 위한 R&D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은 기존 계획 대비 조기에 달성

○ 중앙청산소(CCP) 유치 및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은 한국거래소 본사의 부산 이전에 따른 업무 연계성 및 시너지, 시장적 위상 등을 활용하여 계획대로 달성

□ 한국거래소의 업무기반 강화와 연계한 상품거래소의 유치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노력은 부분적인 성과를 창출

○ 선박 및 해운, 무역 업무 등과 연계하여 상품거래와 관련된 금융중심지 역할 제고는 인접 시장 대비 거래규모나 상품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이나 연계업무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지연

○ 한편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포럼이나 홍보 활동 등은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관계 기관 및 금융회사의 참여 등에 힘입어 확대*

* 지역적 특성 및 글로벌 인지도, 금융기관의 규모 및 분포 등에서 서울 대비 금융중심지 역할은 아직까지 상당한 수준 차이가 존재

<표 II-40> 서울 및 부산 금융 관련 국제회의 개최 성과

부산시	서울시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 부산시, 한국거래소, 세계거래소연맹(WFE) 공동주관 - 2013년 5월 5~7일	- 세계거래소연맹(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회원총회 및 연차회의 - 한국거래소 주관 - 2014년 10월 28~29일
- IDB-IIC(미주개발은행) 총회 - 미주개발은행, 기획재정부 주관 - 2015년 3월 26~29일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이사회(Board)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관 - 2015년 3월 11~13일
-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국제회의 - FATF TREIN, APG, 부산시 공동주관 - 2017년 11월 13~16일	- 자본·지급여력·영향 평가 작업반(CSFWG) 회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관 - 2017년 5월 8~12일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주관 - 2018년 5월 21~25일	

다.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분야

□ BIFC 등 문현금융단지 입주를 기점으로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콜센터 및 전산백업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업종, 해외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문현 금융단지 입주를 계기로 백오피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조치를 도입

○ 현재까지 외국계 생명보험사 및 인터넷 은행 등 콜센터 또는 백업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또는 이전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표 II-41> 콜센터 및 백업센터 유치기관 현황

	회사명	유치 지역
콜센터	BNK캐피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7층
	AIA생명보험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3 대림빌딩 5층
	교보AXA자동차보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아이즈비전빌딩 9층
	그린화재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7 우리투자증권별관 3층
	농협	-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53번지 농협부산지역본부 9층
	동양생명보험㈜	-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91-5 동아빌딩 11층
	롯데카드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국제문화센터 6층
	미래에셋생명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6-4번지 1층
	부산은행	-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59-4
	삼성생명STS	-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3 삼성생명빌딩 11층
	삼성카드	- 부산 동구 초량1동 1205-22 삼성화재빌딩 15층
	신한카드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 우리투자증권빌딩 5층
	우리아비바생명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오피스텔 4층
	한화생명	- 부산 동구 초량동 1152-4 한화생명 10층
백업센터	카카오뱅크 전산센터	- 부산 강서구 구랑동 1175-4
	한국예탁결제원 IT센터	-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백업센터	-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자료 : 부산광역시 컨택센터 협의회

□ 백업오피스 이외에 수탁회사, 대행처리회사, 운용사 등 전문형 금융기관의 유치나 공동 전산센터 유치, 해외 전문기업의 글로벌 백오피스 업무 유치 등은 타 세부계획에 비해 아직까지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자산운용업무와 관련 수탁회사나 백업 대행 처리회사, 연기금운용풀 운용사 등의 유치를 통한 금융중심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음

○ 지방은행 공동 전산센터의 유치 또는 제 3 공동백업센터의 유치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전산센터를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위치한 'BNK금융그룹 IT센터'로 이전

○ 해외 및 인접 국가의 전문기업 백업 자회사 또는 콜센터 등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유치를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백업센터 중심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나 보완 등이 요구됨

□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한 백업센터 기능은 금융중심지로서의 차별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백업센터 또는 콜센터의 유치는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과창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 국한된 유치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

○ 금융권 백업센터는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적 측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다양한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 해외 전문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규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백업센터의 유치를 통한 고용 효과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금융중심지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체 유치

□ 부산 금융중심지는 중장기 목표로 이슬람금융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자체 금융공사 설립, 금융자유지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가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선박금융 및 파생금융, 백업센터 등을 활용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슬람금융, 동북아개발금융 뿐만 아니라 자체 금융공사 설립, 금융자유지대 추진과 같은 외연 및 심화 단계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

○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조달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개선됨에 따라 이슬람금융의 활용에 대한 유인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상황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북한 제재나 중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북관계 또는 북미관계의 진행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산금융공사 설립이나 금융자유지대 구축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강화 등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 부산 금융중심지의 장기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내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Ⅱ-42>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요 활동

시기	활동내용
2008년 8월	- 한국 중앙은행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이슬람금융 감독 위원회)의 observer(관찰자)회원이 됨
2009년 1월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와 함께 이슬람 금융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2009년 3월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들 주관으로 이슬람 금융 활성화 TF가 운영되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논의됨
2009년 5월	- 싱가포르가 주최한 제6회 이슬람 금융 서비스 회담에서 한국 설명회(Korea showcase) 개최
2009년 9월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2009년 11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무산됨
2010년 12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소위원회 통과
2011년 2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로 회부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함
2013년 6월	- 한국은행연합회, 카타르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이슬람 금융 워크숍에 참여
2014년 3월	- 한국 중앙은행, IFSB의 준회원 자격 획득

자료 : 김지연, 이슬람 금융분야 심층 연구(2018)

<표 Ⅱ-43>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도입 노력 활동

1990년	- 남덕우 전 국무총리에 의해 주창
1991년	- 동북아개발은행(NEADB) 구상은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에서 보다 구체화
1993년	- 한국의 용평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경제포럼에서 NEADB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1997년	- 1997년에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행해진 NEAEF에서 전 ADB 부총재인 S. Stanley Katz 박사가 NEADB 설립에 관한 구상과 연구결과를 발표
1998년	- 매년 NEAEF 개발금융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NEADB에 관해 검토
2000년	- 5월에 중국 톈진 회의에서는 NEADB 설립을 목표로 특별위원회 설치 결정
2000년 이후	- 종합적인 설립 구상이 추가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NEADB 설립이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투자공사나 개발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다른 협력방안이 제시됨
2014년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주변국 국제기구와 함께 NEADB을 추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안

자료 : 이형근, 동북아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김유리,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2014)

□ 한편 캡티브 보험사 설립은 법적 기반의 미비와 해운 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 그 유인이 약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 과제에 해당

○ 캡티브 보험사는 대형 선사 또는 해운그룹에 의한 설립 유인이 전반적인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과 경쟁심화로 위축될 전망

○ 글로벌 해운시장의 회복이 장기화될 경우 캡티브 보험사의 설립은 장기화될 전망

□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수출입업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이해관계 및 위험분담 이슈 등을 감

안하여 해운산업의 회복시기와 연동하여 재점검

○ 상호형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입 규모나 유인이 다양해질수록 회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 비해 사후적으로 손실분담 문제의 해결에도 불리할 소지

○ 또한 해상보험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위험관리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보험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점검

마. 시사점

□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조선업 등 관련 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외연 확대와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금융공기업의 이전 등에 따른 성과를 창출

○ 해양금융 및 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화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금융산업의 규제강화 등 안정화, 합리화 기조에 직면해 온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거래소의 본사 이전과 더불어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한 운용사, 지원기관, 공공 금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 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집적화 노력, 항만 기반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서울과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선박 금융 및 해양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은 조선업의 경기위축 및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 기관의 확대와 역내 유치를 지속함으로써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동 성과는 대내외 금융여건 및 산업여건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정부 간의 협력 및 관심에 기인

□ 그동안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공공기관의 유치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의한 효과가 큰 반면 민간 금융사의 참여나 유인, 성과 등은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 금융중심지 전략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유관 기관의 역할을 통해 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특화전략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

○ 선박금융의 경우에도 조선 및 해양업의 위축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민간 부문을 통한 활성화 기반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유인책이나 개선이 요구될 전망

○ 백업센터 및 콜센터의 유치 등과 같은 금융인프라 부문의 경우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여도가 아직까지 낮은 편임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1단계의 보완 등을 통해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공공부문에 의한 실질적인 업무기반 강화, 역내 추진력의 재강화, 역외수요의 충족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1단계는 공공기관의 유치,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온 것이 특징

○ 2단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정착 및 업무기반 강화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 금융부문

의 재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 제고, 그리고 역외 수요의 충족이나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위상 및 글로벌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갈 필요

○ 2단계 활성화는 1단계의 정부 주도, 공공부문 주도, 산업정책에 의한 보완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참여,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존 기관의 업무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점진적,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

Ⅲ.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전망

1. 주요 선진국의 금융산업 현황, 경제기여도 및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근거한 금융개혁을 지속함에 따라 세계 금융산업은 회복국면으로 전환

○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G20 주도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개혁을 추진하고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등을 통한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도모

* 이전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금융시장의 연계성 및 시스템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개혁과 제도 개선을 병행

○ 금융산업 개혁은 EU 재정위기와 맞물려 위기극복이 지연된 측면도 있으나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와 금융시장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 개입, 영업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른 금융산업의 합리화 기조가 확대

○ 금융산업은 기존의 자율, 개방, 규제완화에 의한 성장국면이 지속되었으나, 금융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사전규제 등으로 안정화 기조가 확대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과 자본력 개선 등은 금융산업의 레버리지를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한 강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로 경영합리화 기조가 강화

□ 이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거시적 및 산업적 관점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향후 환경 및 여건을 점검

○ 글로벌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변화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을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별 주요 경영지표*를 점검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상황 및 금융중심지 정책 등을 평가

*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시장가치 등

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주요 환경과 전망

□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환경은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효과에 힘입어 위기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회복 기반을 마련

○ 글로벌 위기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부실확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추진

○ 자산매입 또는 채권매입 등을 통한 금리인하 외에 직접적으로 은행권 또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시장금리의 안정화를 위해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

○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회복과 수익성 개선, 시장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의 극복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

<그림 Ⅲ-1> Fed, ECB, BOJ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자료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통계

<그림 Ⅲ-2>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추이(Fed, ECB, BoJ)

(단위 : 1조 달러)

자료 : Yardeni Research, Inc., Global Economic Briefing(2018)

□ 글로벌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 등은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을 일시적으로 초래하였으나, 거시금융 여건의 개선과 금융서비스의 회복에 힘입어 성장기조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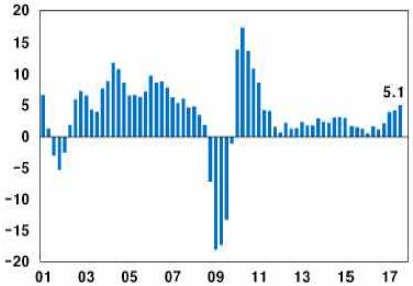
○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공조체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 회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도 촉진

○ 적극적인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과 더불어 유가하락 등에 따른 물가 안정, 선진국 간 정책적 공조 등 거시금융 여건 개선은 글로벌 무역의 확대 및 소비 증가를 유도

○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신흥시장 및 수출경제를 중심으로 한 소비 확대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신흥경제의 경기회복에 기여

<그림 Ⅲ-3> 글로벌 상품교역[1]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주 : 1) 물량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Ⅲ-4> 권역별 상품교역[1]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주 : 1) 수입물량기준

자료 : 한국은행

<표 Ⅲ-1> 경제성장률 추이(세계 경제, 선진국, 신흥국)

		'11	'12	'13	'14	'15	'16	'17e)		'18e)	
								IMF ('17.10)	OECD ('17.11)	IMF ('17.10)	OECD ('17.11)
경제 성장률 (%)	전세계	4.3	3.5	3.5	3.6	3.4	3.2	3.7	3.6	3.9	3.7
	선진국1)	1.7	1.2	1.3	2.1	2.2	1.7	2.3.	-	2.3	-
	유로지역	1.6	△0.9	△0.2	1.3	2.0	1.8	2.4	2.4	2.2	2.1
	신흥국2)	6.4	5.4	5.1	4.7	4.3	4.3	4.7	-	4.9	-

주 : '11년~'16년 통계는 IMF 기준

1) G-7국가, EU 및 Euro 지역국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산업국 등 총 34개국

2) Emerging and Develping Economies로 동유럽,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150개국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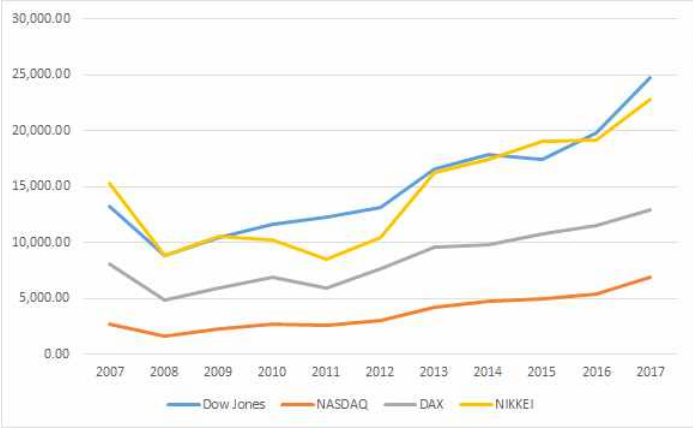
□ 저금리 정책 기조는 조달비용의 하락과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등으로 자산가격의 반등으로 이어져 2011년 이후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회복국면이 지속

○ 저금리에 따른 조달비용의 하락으로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리스크 선호가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이익의 회복으로 주식시장의 급속한 회복이 진행*

* EU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변동성의 증대되었으나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지속

○ 또한 장기금리의 인하에 따른 주택수요의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확대,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

<그림 Ⅲ-5> 주요 주가지수 추이(Dow Jones, Nasdaq, DAX, Nikkei)



자료 : 한국은행 통계

<그림 Ⅲ-6> 주요 선진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 추이

주 : 2010=100

자료 : OECD 통계

□ 한편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적정화 및 합리화 기조를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초기에는 안정화를 위한 거시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강화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

○ 금융산업 규율체계 강화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고 완충력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투명성 제고와 소비자보호의 강화, 대형기관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감독기구의 개편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규제 체계를 정비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G20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이 이전 대비 제고된 것이 특징적*

* 한편 트럼프 정부는 볼커룰(Volcker rule) 등 업무 측면에 비해 소비자보호 및 금융접근성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통해 금융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

<표 Ⅲ-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규제의 특징

	변화된 규제	변화가 없는 규제
은행	- 건전성(시스템리스크) - 업무범위(시스템리스크, 도덕적해이)	- 진입
증권	- 건전성(대형사, 시스템리스크) - 업무범위(은행계열 증권사, 위험전이, 도덕적해이)	- 진입 - 건전성(대형사 제외) - 업무범위(순수증권사)
자산운용	- 진입(사모, 시스템리스크) - 건전성(영/EU 사모, 운영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 진입(공모, 미: 중소형 사모) - 건전성(미: 공사모 공통, 영/EU: 공모) - 자산운용(공사모 공통)
겸업	-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 규제 강화(도덕적해이, 시스템리스크) - 은행계열 증권사 업무규제 강화(도덕적해이, 위험전이)	- 계열사 간 임원겸직 - 계열사 간 고객정보공유
파생상품	- (장외) 장외파생상품 시장인프라 규제 강화 - (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자 규제 강화(시스템리스크)	- (장내) 진입, 건정성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2015)

나.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 금융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산업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여도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한 파생효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중개기능을 통한 이익기여도로 평가

○ 금융산업은 대출이나 투자, IPO, M&A 등 다양한 중개기능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동 과정에서 이자 또는 투자이익, 수수료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 여기에서는 금융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지표로서 명목 GDP 대비 금융권의 부가가치 또는 수익 비중 등을 활용하여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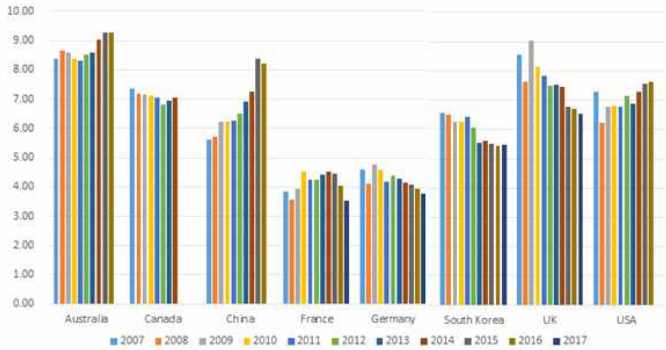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부실비용의 증가, 규제강화에 따른 레버리지의 축소, 구조조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까지 위축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

○ 2007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던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및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추세

○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기여도가 하락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수익성 하락 및 성장성 둔화,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2007년 대비 하락하는 추세

<그림 Ⅲ-7> 주요국의 금융산업의 기여도 추이



자료 : OECD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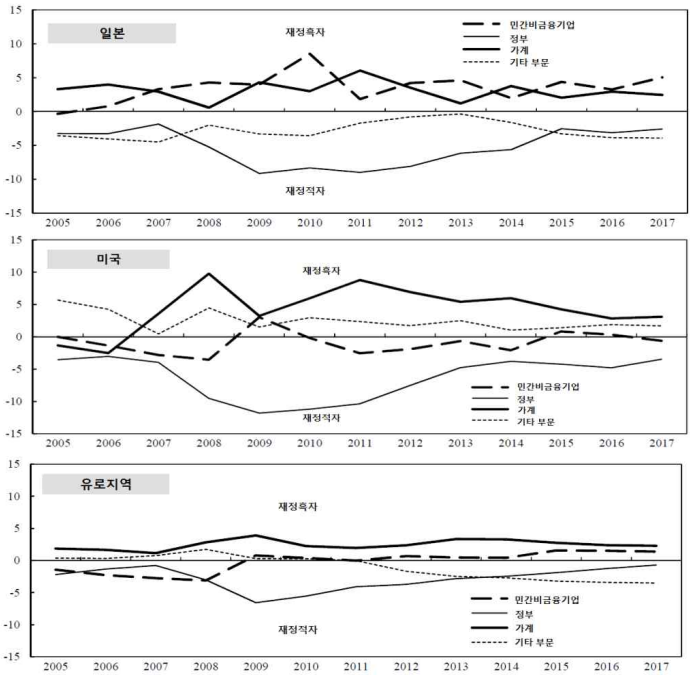
□ 민간부문의 금융자산은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자산가격의 상승, 부채규모의 축소(de-leveraging)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민간부문의 금융자산은 저금리에 따른 이자자산의 수익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회복에 따라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축소 노력에 힘입어 가계부문의 금융순자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림 Ⅲ-8>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금융흑자 및 적자 추이

단위 : %



자료 : 일본은행, Flow of Funds(2018)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위기해소 과정에서 위축되었으나, 우호적인 거시금융 여건에 의해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 및 미국 주도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과 외국인투자의 확대,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확대 등에 힘입어 금융산업의 거시경제 기여도가 개선

○ 유럽 국가의 경우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그룹의 리더십 약화, 소비자 보호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증대 등으로 합리화 국면이 지속

○ 미국의 경우 초대형은행의 수익성 회복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의 상승세 지속,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화 등에 힘입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여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 금융산업별 동향 및 전망

1) 은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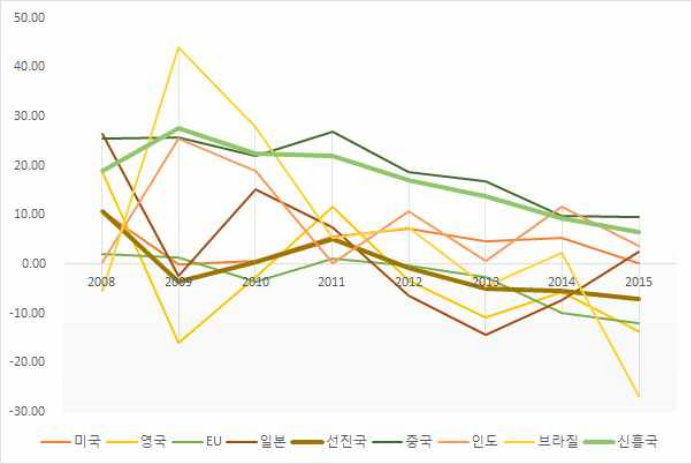
가) 총자산 및 GDP 대비 비중

□ 은행권의 경우 총자산 증가율은 글로벌 위기 이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자산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

○ 선진국 은행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자기자본 규제의 강화에 따른 레버리지의 축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축소, 부외거래의 축소 등으로 경영합리화 기조를 유지

○ 신흥국의 경우 경제성장 기조의 지속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 지속, 부동산시장의 활황 등에 따라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자산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그림 Ⅲ-9> 국가별 은행권의 총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 FSB 통계

□ 은행권의 거시경제 기여도를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 비중을 통해 추정해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 대비 안정화로 약화되는 측면도 있으나, 유럽 및 홍콩, 싱가포르 등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등 은행권의 역할이 위기 이후에도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구노력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규모 비중은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축소되는 경향

○ 중국 및 일본, 멕시코 등 양적완화에 따른 신용 확대나 실물경제 확대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

○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규모 비중은 독일 및 네덜란드,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표 Ⅲ-3> GDP 대비 은행권의 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8	2011	2016
프랑스	238	384	402	261
독일	292	311	301	388
스페인	170	275	298	220
영국	327	531	466	392
미국	74	94	87	91
호주	127	216	199	246
캐나다	88	112	134	134
일본	144	159	187	204
브라질	60	67	94	110
중국	177	195	243	304
인도	63	83	89	86
한국	19	55	33	39
싱가포르	-	643	541	586

자료 : BIS, Structural changes in banking after the crisis(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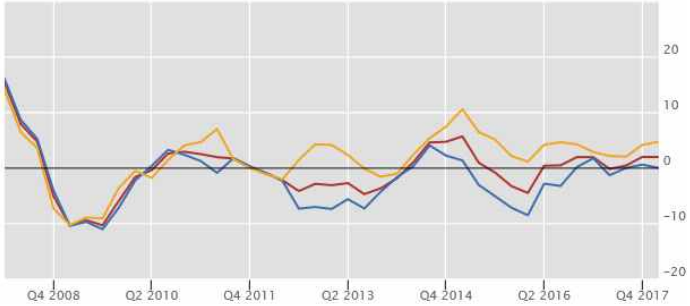
□ 글로벌 은행업무는 대형은행의 사업 구조조정, 본국 감독기구에 의한 규제 강화,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역외조달이 확대된 것이 특징적

○ 글로벌 은행서비스는 주로 초대형 은행을 통한 은행간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주요은행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 노력을 확대하면서 위축

○ 반면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와 중동자금의 신흥국에 대한 자금공여 확대 등으로 인해 역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

<그림 Ⅲ-10> 국경 간 거래의 연간 변화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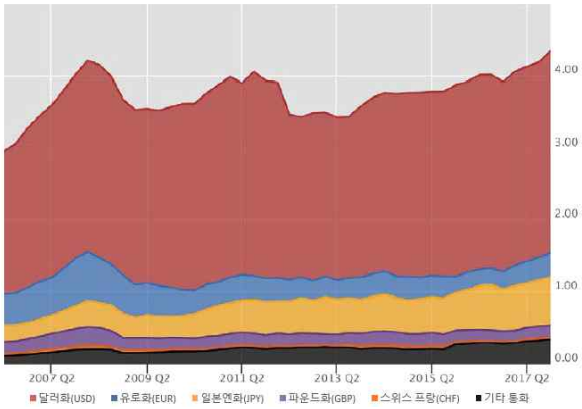


주 : 은행의 국경 간 청구액의 연간 변화율

자료 : BIS, Statistical release(2017)

<그림 Ⅲ-11> 통화별 역외조달 규모

(단위 : 1조 달러)



자료 : BIS, Statistical release(2017)

나) 자본적정성

□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은 글로벌 금융개혁에 따른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완충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자기자본 규모의 양적 확충과 자기자본의 구성(quality)를 개선하는 데 초점

○ 또한 글로벌 시장 또는 국가별 은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위권 은행(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을 중심으로 한 추가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은행권의 자본비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개선

○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의 축소와 더불어 비은행 자회사와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위험도를 완화하는 경영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위험기준 자본비율도 개선

○ EU재정위기 이후에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내부이익 유보의 확대에 따라 보통주 자본비율 또는 레버리지 비율도 개선되는 추세

<표 Ⅲ-4> 국가별 은행권의 BIS Tier Ⅰ 자기자본비율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프랑스	13.2	11.7	12.5	13.1
독일	-	14.9	15.3	15.7
스페인	-	11.8	12.7	12.8
영국	10.0	11.4	12.6	13.4
미국	11.6	12.5	12.2	12.5
호주	8.6	9.0	10.1	9.8
캐나다	9.3	9.8	10.0	11.1
일본	11.4	11.7	12.1	12.1
브라질	11.5	12.3	11.8	12.7
중국	9.9	10.8	10.9	10.8
인도	-	9.9	10.0	10.5
한국	11.2	10.8	10.8	12.1
싱가포르	13.8	13.6	13.7	13.9

자료 : BIS, Structural changes in banking after the crisis(2018)

다) 순이자마진

□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저금리 하에서 예대마진 축소와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운용,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수익기조는 안정화 또는 회복국면으로 평가

○ 선진국 은행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위기로 인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순이자마진은 위기 이전 대비 크게 축소되는 경향

○ 그러나 부실자산의 처리와 경영개선 노력이 성과를 시현함에 따라 최근 들어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비율의 축소로 은행권의 수익기반은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

<표 Ⅲ-5> 국가별 은행 순이자마진율 추이

(단위 : %)

	2001~02년	2007~08년	2009~10년	2013~14년	2015~16년
프랑스	-	0.7	1.3	1.1	1.1
독일	1.1	0.9	1.1	1.2	1.3
영국	-	2.2	2.2	2.1	2.3
미국	3.9	3.3	3.6	3.2	3.1
호주	-	2.1	2.2	2.1	2.0
일본	1.5	1.2	1.3	1.0	0.9
브라질	8.6	8.7	8.3	6.1	5.9
중국	-	-	-	2.7	2.4
인도	3.6	3.3	3.1	3.3	3.2
한국	7.4	6.8	5.5	4.3	3.3
싱가포르	3.6	4.5	2.9	2.5	2.6

자료 : BIS, Structural changes in banking after the crisis(2018)

라) 건전성

□ 은행권의 부실여신 규모나 부실여신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저금리 기조에 의한 상환부담의 감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우호적 여신정책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 확대로 인해 부실여신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바 있으나 부실자산의 적극적인 상각 등으로 인해 2015년 이후 미국계 은행의 경우도 크게 개선

* 글로벌 초대형 은행지주회사는 2008년 이후 증권 또는 자산운용 등 비은행업무를 분사하거나 매각하면서 은행 중심의 핵심업무 위주 또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합리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부분적으로 개선

○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과 관련이 없었던 신흥국의 경우 자산건전성은 저금리에 따른 조달비용의 감소,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이익의 개선,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다만, 2016년 말 기준 유럽계 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부실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

<표 Ⅲ-6> 국가별 은행 고정이하 부실여신비율 추이

(단위 : %)

	2002년	2006년	2008년	2012년	2016년
프랑스	5.0	3.0	2.8	3.6	3.5
독일	-	-	-	2.8	1.7
스페인	0.9	0.6	3.3	10.6	9.2
영국	-	1.1	2.2	4.3	1.5
미국	1.4	0.8	3.0	3.6	1.4
호주	1.1	0.6	1.6	1.6	0.9
캐나다	1.5	0.4	0.7	0.6	0.6
일본	7.4	2.5	2.4	2.3	1.3
브라질	4.3	3.2	2.7	3.4	3.7
중국	23.8	7.1	2.4	1.0	1.7
인도	11.0	3.5	2.4	2.9	7.8
한국	2.3	0.8	1.2	1.3	1.4
싱가포르	-	0.8	1.0	0.8	1.5

자료 : BIS, Structural changes in banking after the crisis(2018)

2)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M&A 등에 의한 시장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는 한편 업무기반은 2015년까지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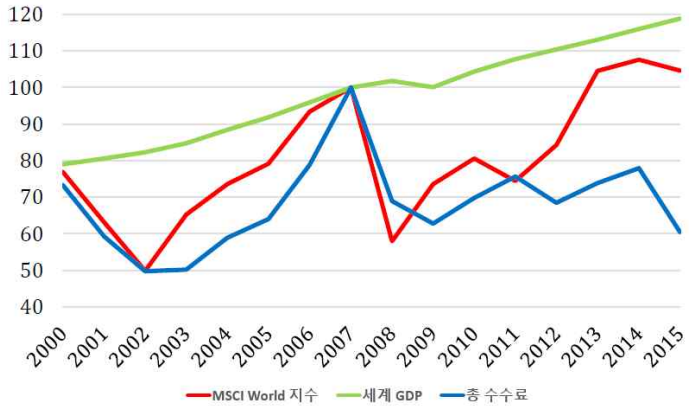
○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외자산(off-balance activities)을 축소하거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축소

○ 저금리로 인한 채권시장의 위축 및 ECB 등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기조 등으로 인해 채권업무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축소

○ 일부 투자은행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위 획득 등은 자기자본 규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위험인수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추세

<그림 Ⅲ-12> 투자은행 업무의 규모 및 국제화 추이

(단위 :)



주 : 세계 GDP(단위 : 10 억원) 및 MSCI 세계 주식 시장 지수(2007 = 100)와 관련된 투자 은행의 총 수수료 비중(%)

자료 : Dariusz Wójcik, et al, Investment Banking since 2008(2017)

□ 2016년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의 매출 및 수익, 총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평가

○ 글로벌 위기 이전까지 투자은행 업무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차익매매나 파생상품 거래, ECM 및 DCM 매매업무, M&A 등이 주요 수익원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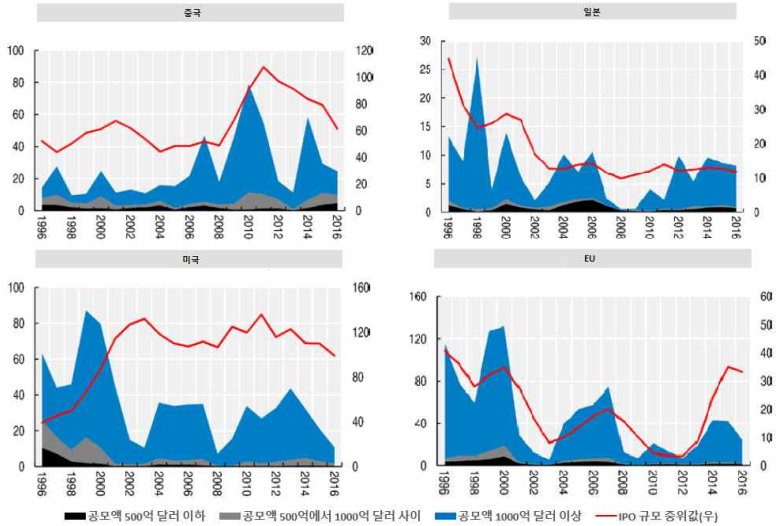
○ 반면 채권시장의 위축이나 자기자본규제의 강화 등에 따라 매매 및 인수업무 등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들어 초대형 M&A 및 기술기업의 IPO 등에 따라 수익기반이 소폭 개선

<그림 Ⅲ-13> 투자은행의 수익 및 자산, 자기자본 비교

자료 : Financial Times, Top investment bank profits at pre-crisis levels(6월 11일 기사, 2018년)

<그림 Ⅲ-14> 지역별 기술기업의 IPO 추이

단위 : 10억 달러(2016년 기준) 단위 : 100만 달러(2016년 기준)



자료 : OECD Equity Markets Review Asi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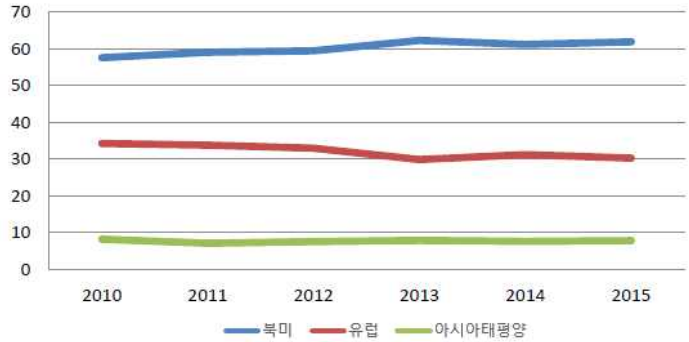
□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투자은행의 시장지배력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유럽 및 일본계 투자은행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

○ 투자은행 업무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 추이를 보면 미국계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약 60% 내외를 유지

○ 유럽계 및 일본계 투자은행 기반은 2010년 이후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로 각각 30%, 10% 내외로 하락

<그림 Ⅲ-15> 지역별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단위 : %)



주 : 이 수치는 상위 20개 투자은행들이 세계투자은행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점유한 시장점유율을 북미(미국 및 캐나다), 유럽(EU 및 스위스) 및 아시아 태평양(일본)으로 분류한 것임

자료 : Charles Goodhart and Dirk Schoenmaker, The United States dominates global investment banking(2016)

□ 한편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자산운용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증권업무 중심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중심으로 한 시장기반이 확대되면서 투자은행의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는 측면

○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업무의 자본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사모펀드 또는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확대, 인덱스 또는 ETF 중심의 투자수요 확대로 투자은행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9]

○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나 모바일 시장의 확대, 핀테크(Fintech)에 의한 신규 진입 확대 등에 따라 고유업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글로벌 거래소의 법적지위 및 업무기반, 시장규모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 측면의 변화는 없으나 주식시장의 회복에 따른 시장가치 및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9) 자산운용업계를 참조

<표 III-7> 글로벌 거래소의 법적 지위 및 유동성

	시가총액 (USD bn, 2018.04.30기준)	주식회사전환 (연도)	주요상품
New York Stock Exchange (미국)	24,220	2006	증권
NASDAQ (미국)	11,860	2001	증권
Japan Exchange Group (일본)	6,288	2001	증권 및 파생상품
Shanghai Stock Exchange (중국)	5,023	(국유)	증권
Euronext (유럽연합)	4,649	2000	증권 및 화폐, 상품 금리 파생상품
London Stock Exchange Group (영국, 이탈리아)	4,596	2000	증권
Hong Kong Stock Exchange (홍콩)	4,443	2000	증권 및 금리 파생상품
Shenzhen Stock Exchange (중국)	3,547	(국유)	증권
Korea Exchange (한국)	1,841	2005	증권 및 화폐, 금리 파생상품

자료 : Jung, Nu Ri, A Study on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2011) 및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3) 보험업

가) 생명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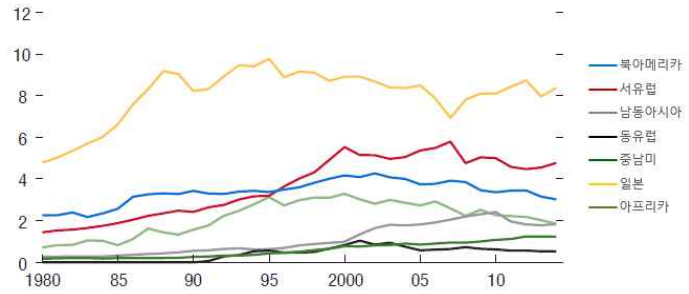
□ 생명보험업의 수입 보험료 규모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일본 및 유럽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시현

○ 글로벌 위기 이전 세계 생명보험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은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장기성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는 다소 정체

○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국의 생명보험 수요는 장기 저축 수요의 확대에 힘입어 선진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

<그림 III-16> 세계 지역별 GDP 대비 생명보험료 추이

(단위 : %)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lity Report(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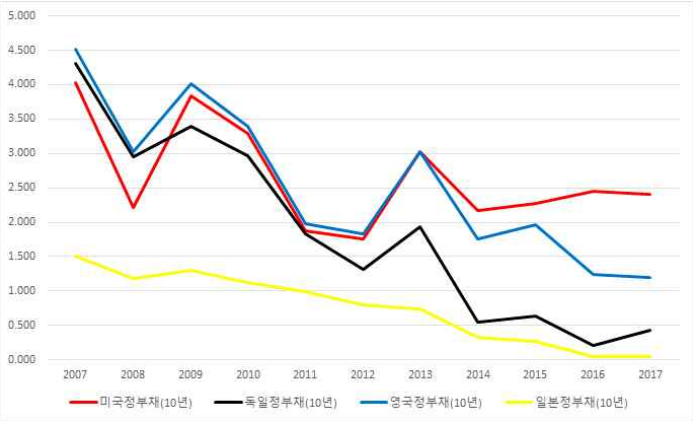
□ 시장이자율의 하락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상품 및 자산운용 부문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

○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과 투자수익의 감소는 장기부채를 보유한 생명보험의 특성상 자산부채 간 미스매치(mismatch) 위험을 증대

○ 낮은 이자율로 인해 기존의 장기국채 중심의 운용에서 탈피하여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

<그림 Ⅲ-17> 주요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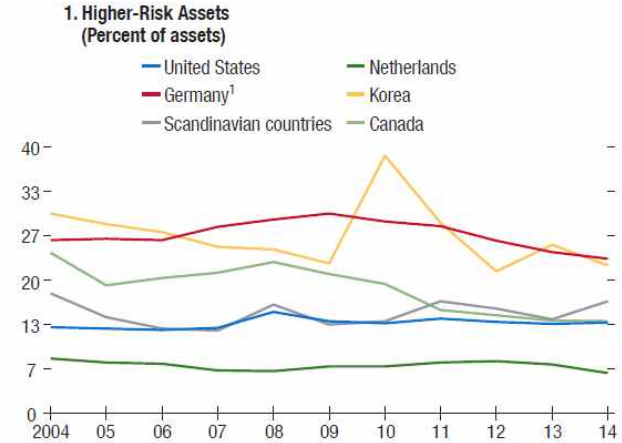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IAIS,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2016)

<그림 Ⅲ-18> 주요국 생명보험사 위험자산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lity Report(2016)

□ 상품 측면에서는 기존의 금리보장 상품 위주에서 금리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투자연계형(unit-linked) 상품이나 보장성 상품 판매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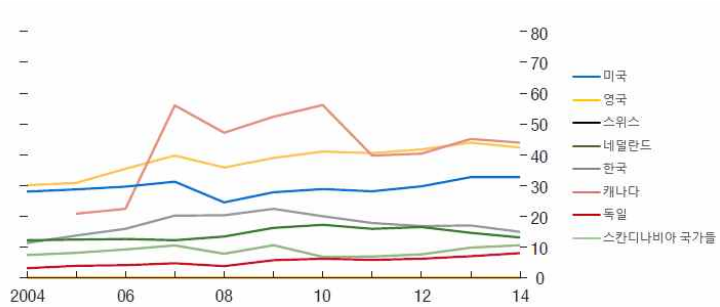
○ 양적완화 등에 따른 금리하락은 기존의 저축성 상품에 대한 금리보장이나 최저수익 보장에 따른 자본비용이 크게 증가

○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장금리를 인하하거나 보장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보험상품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성과에 연동된 보험상품 판매를 확대

○ 보장성 상품의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품의 금리위험을 완화시키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품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조정

<그림 Ⅲ-19> 국가별 생명보험사의 투자성과 연동형 상품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lity Report(2016)

□ 생명보험업은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거나 자산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자본비용의 상승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유럽 보험시장의 경우 Solvency Ⅱ 및 IFRS 17 회계기준 채택 등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부담 증가로 자본력 강화가 불가피

○ 다만, 규제당국의 우호적인 조치와 단계적인 도입 등에 따라 단기적인 자본적정성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부채가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력이 증대될 전망

□ 수익성은 국채 금리의 하락에 따른 영향과 장기 고정금리 부채의 준비금 적립 부담, 타 금융상품 대비 상품매력도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 및 시장가치는 소폭 개선되는 경향

○ 생명보험사의 ROE는 2007년의 경우 10%대를 상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미국 및 아시아 지역의 생명보험사 ROE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PBR은 2016년 이후 소폭 개선되는 추세

<그림 III-20> 세계 지역별 생명보험사 ROE 및 PBR 추이

(단위 : %)

자료: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7 and outlook 2018/19(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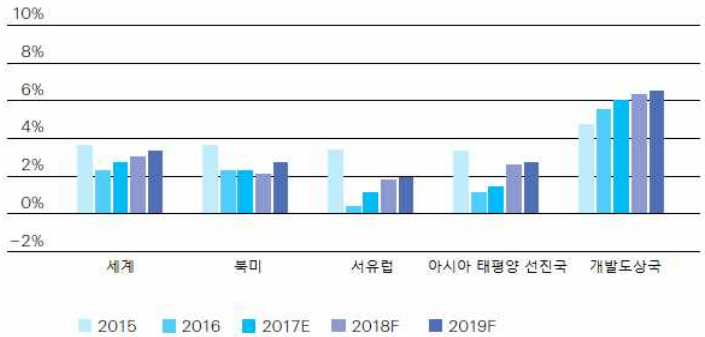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업은 일반 기업성 상품에 비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보험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신흥국은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보유의 확대 등으로 개인 손해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 스위스 리(Swiss Re)(2017)에 의하면 신흥시장은 약 6%대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타 시장은 약 3%대의 안정적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 III-21> 2015~2019년 중 지역별 손해보험료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7 and outlook 2018/19(2017)

□ 손해보험업의 수익성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의 감소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손해율 개선 및 판매비용 효율화 등으로 합산비율(combined ratio)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장기 이자율 하락에 따라 부채구조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손해보험사의 경우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위험인수 및 요율산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유럽계 보험사의 경우 위험관리 강화에 따른 손실 안정화로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손해보험사의 결합비율은 2013~2016년 중 일시적인 수익성 회복에도 불구 최근 지진 및 홍수 관련 손실 증가로 재상승

<그림 Ⅲ-22> 미국 및 유럽 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7 and outlook 2018/19(2017)

<그림 Ⅲ-23> 세계 손해보험사의 ROE 및 수익기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 %)

자료 :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7 and outlook 2018/19(2017)

다) 재보험업

□ 재보험업계의 경우 자연재해 및 대재해 관련 손실에 따른 수입·수익 변동성은 커진 반면 대체자본의 증가로 자본력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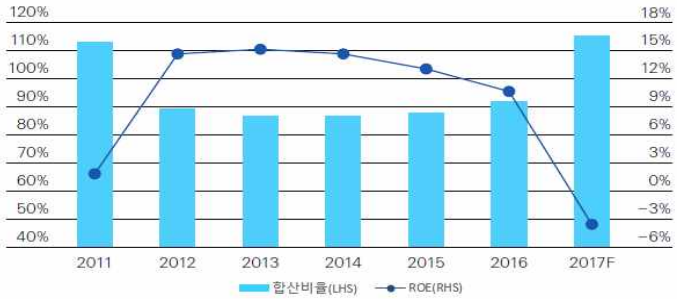
○ 합산비율은 2011년 100%를 초과하였으나 그 이후 대형손실의 감소로 인해 80%대까지 하락

○ 수익성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보유채권의 이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형손실과 ROE 간 연계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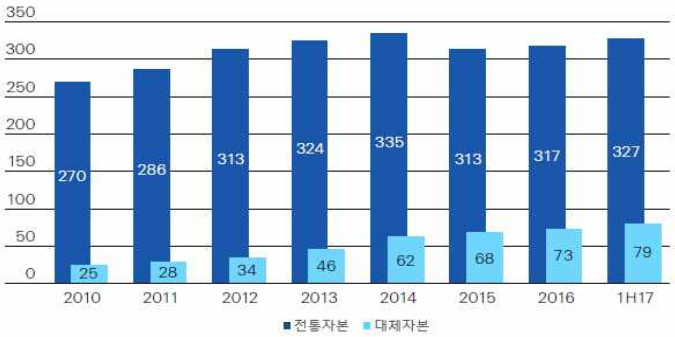
○ 주로 보유채권의 가치 상승 외에 대체자본을 활용한 자본력 개선도 병행

<그림 Ⅲ-24> 재보험사의 합산비율 및 ROE, 자본구조 추이

(단위 : %)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Swiss Re, Global insurance review 2017 and outlook 2018/19(2017)

4)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위축을 겪었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위험프리미엄의 감소와 세계경제의 개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수요의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

○ 글로벌 운용자산 규모(asset under management, 이하 AUM)는 2008년에 2007년 대비 약 23% 정도 감소하였으나 저금리에 의한 자산가격의 상승,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기업수익의 회복,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등으로 AUM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시장 및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선진시장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표 Ⅲ-8> 세계 자산운용규모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유럽 (영국 포함)	일본	북미	기타 국가	합계
2007	30,288	4,421	31,567	3,144	69,420
2008	22,745	4,290	23,895	2,426	53,356
2009	24,075	4,300	30,557	3,032	61,964
2010	22,935	4,963	33,520	3,292	64,710
2011	21,361	5,278	33,143	3,308	63,090
2012	23,987	4,820	35,905	3,583	68,295
2013	26,340	4,560	42,020	3,508	76,428
2014	25,950	3,902	44,458	3,759	78,069
2015	25,095	4,023	43,990	3,608	76,716
2016	25,806	3,748	47,399	4,210	81,163

자료 : Willis Towers Watson, The World's 500 Largest Asset Managers(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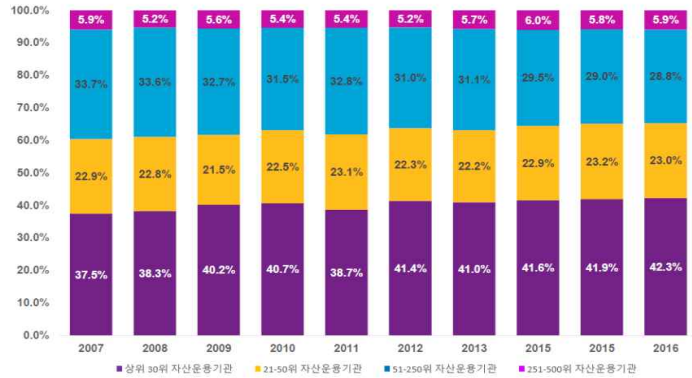
□ 시장구조적 측면에서는 대형 자산운용기관(asset manager)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형 자산운용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형 자산운용기관에 의한 M&A 등이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대형 자산운용기관의 시장지배력이 전반적으로 확대

○ 반면 중형 이하 자산운용기관은 EFT 또는 인덱스펀드 등 소극적 운용펀드(passive fund)의 확대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문화 경향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은 약화되는 추세

<그림 Ⅲ-25> 세계 규모별 자산운용기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Willis Towers Watson, The World's 500 Largest Asset Managers(2017)

□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및 한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시장의 비중이 증가

○ 미국 자산운용시장은 2007년에 약 42%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 약 48%, 2016년에 54%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2007년 경우 영국 및 일본 등의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의 경우 13%대로 하락

○ 2007~2016년 중 브라질, 중국, 한국 등 신흥경제의 자산운용시장 비중은 자본시장의 개방 및 수출경제의 매력도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0.25%p, 0.94%p, 0.6%p가 증가

<표 Ⅲ-9> 국가별 자산운용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2007년	2011년	2016년
호주	1.00	1.59	1.39
벨기에	1.76	0.31	0.25
브라질	0.65	1.11	0.90
캐나다	3.89	4.72	4.93
중국	0.35	0.27	1.31
프랑스	7.99	6.90	7.21
독일	7.75	7.03	6.04
이탈리아	2.63	2.25	1.74
일본	6.37	8.37	4.62
한국	0.79	0.71	0.84
네덜란드	3.46	3.27	2.37
남아프리카	1.32	1.23	0.42
스페인	1.40	1.20	0.71
스웨덴	0.53	0.57	0.54
스위스	5.36	3.84	3.96
영국	11.32	7.23	7.81
미국	41.59	47.81	53.47
기타	1.85	1.57	1.51

자료 : Willis Towers Watson, The World's 500 Largest Asset Managers(2017)

□ 운용상품은 전통적인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체투자형 상품 규모도 점차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주식형 및 채권형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운용상품이 전체의 약 79%(2016년 기준)를 차지

○ 대체투자형 상품의 규모는 2012년에 1.9 조 달러에서 2016년 2.4 조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

<표 Ⅲ-10> 2012-2016년 운용상품별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주식투자 (REITS 포함)	채권투자	대체투자	현금	기타	합계
2012	13,529	13,240	1,947	2,827	2,908	34,451
2013	16,986	13,352	2,038	2,882	3,013	38,271
2014	17,969	14,377	2,226	2,947	3,479	40,998
2015	17,749	14,131	2,335	2,989	3,491	40,695
2016	18,479	14,369	2,454	3,002	3,452	41,756

자료 : Willis Towers Watson, The World's 500 Largest Asset Managers(2017)

□ 자산운용기관의 특성을 보면, 상위 운용기관 중에서 은행계 운용기관에 비해 독립 운용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상위 20개 자산운용기관 중에서 은행계는 2007년에 9개사에 이르렀으나 2016년 7개사로 감소

○ 반면 전문 자산운용기관은 2007년 7개사에서 2016년 10개사로 증가

<표 Ⅲ-11> 상위 20개 자산운용기관의 회사소유구조

(단위 : 개)

	은행계	보험계	독립 운용기관	합계
2007	9	4	7	20
2008	11	3	6	20
2009	10	3	7	20
2010	9	3	8	20
2011	8	4	8	20
2012	8	3	9	20
2013	8	3	9	20
2014	8	3	9	20
2015	8	3	9	20
2016	7	3	10	20

자료 : Willis Towers Watson, The World's 500 Largest Asset Managers(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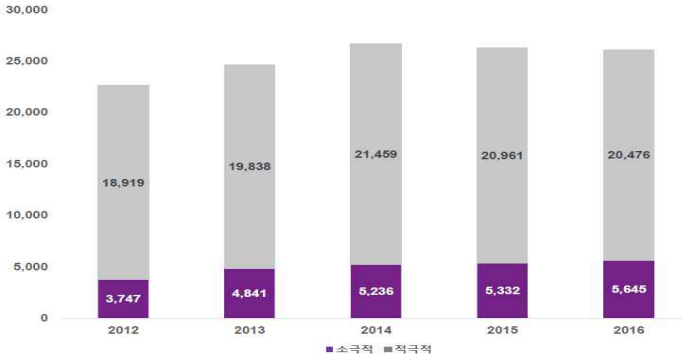
□ 운용방식 측면에서 분류하면 적극적 운용 펀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극적 운용펀드의 비중이 크게 증가

○ 2012년 기준 소극적 운용펀드(passive fund)의 규모는 약 3.7 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약 5.6 조 달러로 크게 증가

○ 절대적으로 적극적 운용펀드(active fund)의 비중이 높지만, 소극적 운용펀드(passive fund)는 2007~2016년 중 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9.2%를 보임

<그림 III-26> 2012-2016년 적극적 및 소극적 운용펀드의 운용규모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lity Report(2016)

□ 향후 자산운용시장은 장기적으로 금융기술을 이용한 투자기법의 활용, 자산운용기관의 투명성 제고, 대체투자의 활성화, 수수료 경쟁에 따른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빅데이터 또는 AI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투자상품의 개발이나 제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극적(passive style) 펀드에 대한 수요 확대와 맞물려 전통적인 판매방식이나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자산운용기관의 규모 확대와 자산운용시장의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기관투자자의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펀드의 회계 및 공시, 유동성 및 수탁기능 등의 신뢰도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보호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Mnuchin, S. and C. Phillips (2017), 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US Treasury

○ 소극적 운용펀드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적극적 운용펀드의 실적 차별화 노력이 어려워지는 한편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운용방식의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2. 글로벌 선박금융 동향 및 전망

가. 동향

□ 전 분야의 선박자산부문에서 과잉공급과 수요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위기 및 과도한 레버리지차입에 의한 금융의 역효과를 입은 선사가 증가했으며, 생존과 회복의 사이클에 안착한 것으로 보임

○ 선박자산가치의 하락, 업계 전반의 현금흐름 유동성의 약화, 자금조달환경의 악화가 대표적인 현황. 1980년대, 산코[10]에서 100여척의 과잉발주로 인해 건화물시장이 붕괴되었을 때와 오버랩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다수 존재

○ 현 약세시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금융참여자가 거의 모두 예외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함. 선박시장에 정통하면서 기존의 주식, 채권, 사모펀드 투자로

10) 산코기선은 아시아3개국간 외항운송업에 특화한 기업으로 중국경제의 확대에 의한 철광석확대에 힙입어 2008년 매출이 2293억엔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해운3사를 뒤잇는 중견기업으로 재상장까지 검토되고 있던 상황이었음. 이후 리먼사태가 발생하면서 화물취급량, 단가 양쪽이 급감하면서 경영위기에 봉착함. 정책지원을 받아 회사의 존재 자체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발주한 대량의 선박이 준공되어 인도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짐. 산코기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박량이 증가하였고, 리먼사태 이후 시장점유율을 늘리고자 추가발주를 한 머스크해운(덴마크) 등은 저가격경쟁을 유도하였음. 이러한 치킨게임의 양상은 해운업계의 얼라이언스 및 공동운항과 같은 새로운 업계재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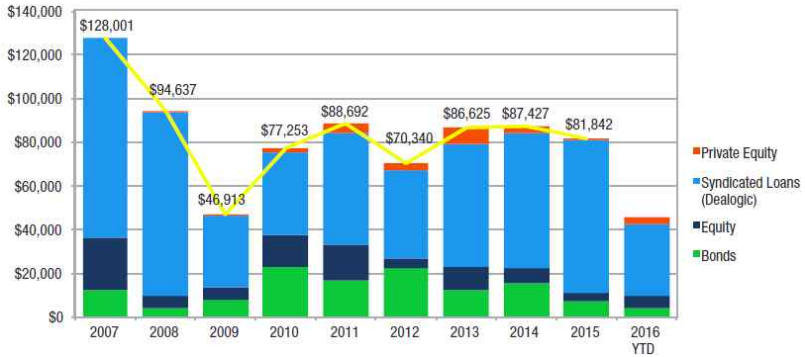
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투자가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시장의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요소가 실종

○ 반대로 이를 전형적인 경기회복의 사이클로 보고 선제 대응하는 선사도 등장(Seaspan이 가장 대표적)

○ 최근 선박금융의 투자가의 성향은 금융시장의 기관투자가의 성향 변동에도 영향을 받음. 다소 기대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리스크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가 층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의 안건에서도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성향의 안건설계가 요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

<그림 III-27>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Marine Money, 2018)
주: 2016년도 Syndicated Loan은 9개월분만 집계

<표 III-12>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년도	주요 내용
2007년	선박시장의 활황기. 에퀴티(Equity)시장의 활황도 존재했으나 대출(Loan)의 형태로 최대금액인 920억달러가 집행. 전체 자금공급의 72%가 은행의 대출에서 발생. 에퀴티는 240억달러, 채권은 120억달러로 선박금융의 공급을 동반주도
2008년	금융시장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에는 840억달러라는 거액이 대출의 형태로 은행으로부터 집행. 에퀴티는 58억달러로 거의 고갈(전년대비 76%감소) 은행이 전체금융의 88%를 담당
2009년	은행대출이 330억달러로 급감. 에퀴티 및 채권시장은 각각 76억달러 및 57억달러로 반등
2010년	은행대출은 340억달러로 반등하긴 하였으나 업계전체의 49%의 비중으로 선박금융 대비 은행대출로는 역대 최저 비율을 보임. 에퀴티투자는 140억달러로 급증. 채권은 230억달러로 역시 증가. 내부를 보면 A.P. Moller, Mearsk 또는 COSCO 등 대형선사의 업계 주도권 확장을 노리는 대형안건이 주도한 성격이 크고 선박금융시장에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관측
2011년	선박금융은 890억 달러로 회복을 지속. 은행대출은 520억달러로 전년대비 36%증가. 사모펀드가 160억달러 채권이 170억달러로 동반증가했으나 대부분이 중국발 안건(항만, 조선소 등)이었음
2012년	회복이 다시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인 해로 전체적으로 720억달러가 조달됨. 전체적으로 볼 때 채권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는 해임 은행의 자금보유 관련한 규제가 확산되면서 대출이 410억달러로 21%감소하였고, 에퀴티도 66억달러로 감소. 하지만 채권은 노르웨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회복에 힘입어 220억달러로 증가하였는데 대형선사의 안건이 없음에도 전체적인 양적성장을 채권시장에서 달성한 점이 주목할 점임

2013년	에퀴티시장이 주도한 해로 정리할 수 있음 - 110억달러로 전년대비 3배 성장. 사모펀드의 투자가 역대 최고인 63억달러로 집계되었으나 대부분이 비공개안건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규모의 안건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 위험선호적 성향의 자금이 증가하면서 대출도 560억달러로 증가. 채권은 120억달러에 머뭄
2014년	MLP와 같이 기존에 없던 신규자금조달구도가 등장하면서 자금의 risk의 요구를 충족 은행대출은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액인 610억달러를 집행하였고 이는 업계 전체금액의 71%에 해당 노르웨이의 채권시장이 안착하면서 150억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였고 반면 에퀴티는 42억달러로 소폭 감소
2015년	유럽 해운사의 IPO안건이 이어진 해임 은행대출이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전체 85%규모의 700억달러를 은행에서 집행
2016년	총 480억달러 규모로 아직 전체 집계가 완료되지 않음

나. 전망

1) 고도화된 상품설계능력의 요구

□ MLP, Business Trust 등 기존에 없던 구조를 원점에서 설계, 구축하고 투자가의 복잡한 위험선호성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기여하는 효과가 검증되면서, 상품설계능력을 갖춘 핵심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관투자가의 시장참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2) ECA의 역할 비중의 지속

□ 구매자차관(Buyer's Credit)으로 대표되는 ECA는 2008년 이후, 시장수요의 급감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옴. 현재는 은행대출의 20%정도가 ECA기반으로 집행되고 있음. ECA의 주요 공급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독일이 있음

□ 단순히 시장의 불확실성 뿐만아니라 은행의 기존대출과의 비율 충족을 위한 BIS등의 규제 충족의 이유로부터 ECA없이는 선박금융안건에 참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점에서, 앞으로도 ECA 안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전망

□ 같은 방식의 ECA부문으로 볼 수 있는 항공기금융시장에서 US EXIM이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대성공을 보임에 따라, 같은 방식이 선박금융 시장에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III-28> 선박금융에 있어서 ECA비중의 연간추이

자료: Marine Money

3)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 이동

□ 중국의 경우, 아래 구조를 전형적인 구조로 한 금융리스(Financial Lease)를 중심으로 전개

○ 사회주의적 성향 및, 중국의 해운업계에서 존재하는 상호신용의 부재 등은 운용리스(Operating Lease)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은 신용의 부재로 인한 운용리스시장의 성장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신용을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leverage)극대화를 할 수 있는 금융리스중심의 시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유럽선사조차 중국 내 사업에서는 중국 국내규제를 충족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적응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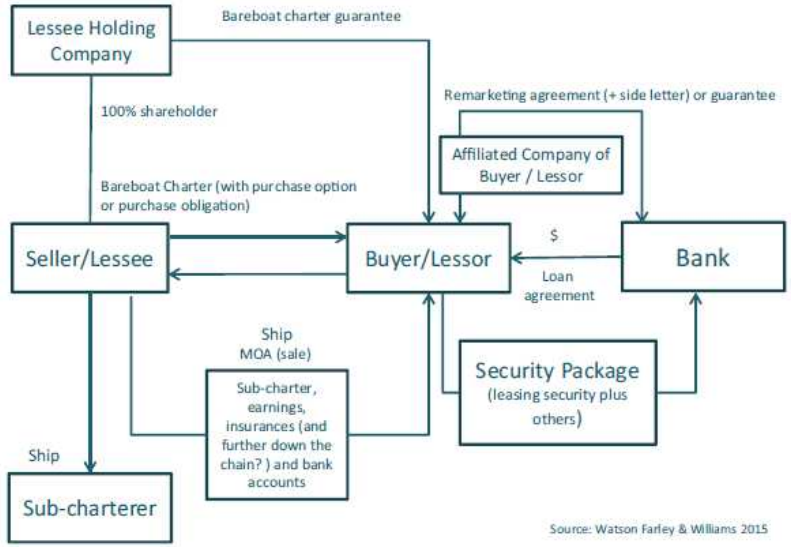
□ 이 결과 중국은 해운사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의 대형해운사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

○ 안건참여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부재, 안건승인까지의 긴 소요기간(약 6개월), 상호신뢰의 부재 등을 애로사항으로 손꼽는 현실이나 경험의 축적과 더블어 점진적으로 개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화주, 해운사, 선주 뿐 아니라 연료공급사, 선박관리회사, 기타 벤더까지 수직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해운클러스터의 자율형성보다는 정책적인 단일집중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최대강점은 기존의 유럽시장의 선박금융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익스포저(exposure)의 이슈가 전혀 없다는 점임. 그리고 상업은행과 리스회사가 서로를 경쟁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공동안건을 주도하는 등 중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국내경제를 주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형안건에서의 자금확보도 가능하게 함

<그림 III-29> 중국의 전형적인 financial lease안건구조



자료: WFM

3. 해운업 동향 및 모멘텀

가. 동향

1) 세계 외항 해운의 현황

□ 세계 주요 품목별 해상물동량

○ 2017년 세계 주요 품목별 해상물동량은 중량 기준으로 115억 87백만 톤(전년 대비 3.9% 증가)

○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원유 및 석유 제품) 26.7%, 철광석, 석탄 및 곡물의 3 개 품목이 27.5%

<표 III-13> 세계주요품목별 해상물동량

品目 / 年	石油			鉄鉱石	石炭	穀物	その他	合計
	原油	石油製品	計					
2007年	1,913	799	2,711	773	761	306	3,928	8,479
対前年比	1.1	3.5	1.8	9.0	6.9	4.8	4.5	4.2
2008年	1,903	825	2,729	837	790	319	4,009	8,684
対前年比	▲ 0.5	3.3	0.7	8.3	3.8	4.2	2.1	2.4
2009年	1,820	833	2,653	897	804	321	3,668	8,343
対前年比	▲ 4.4	1.0	▲ 2.8	7.2	1.8	0.6	▲ 8.5	▲ 3.9
2010年	1,872	882	2,753	990	926	343	4,108	9,120
対前年比	2.9	5.9	3.8	10.4	15.2	6.9	12.0	9.3
2011年	1,852	914	2,766	1,050	998	344	4,359	9,517
対前年比	▲ 1.1	3.6	0.5	6.1	7.8	0.3	6.1	4.4
2012年	1,906	916	2,823	1,107	1,111	376	4,500	9,917
対前年比	2.9	0.2	2.1	5.4	11.3	9.3	3.2	4.2
2013年	1,836	956	2,792	1,188	1,183	391	4,703	10,257
対前年比	▲ 3.7	4.4	▲ 1.1	7.3	6.5	4.0	4.5	3.4
2014年	1,803	957	2,760	1,340	1,216	432	4,859	10,607
対前年比	▲ 1.8	0.1	▲ 1.1	12.8	2.8	10.5	3.3	3.4
2015年	1,872	1,022	2,894	1,364	1,137	460	4,968	10,823
対前年比	3.8	6.8	4.9	1.8	▲ 6.5	6.5	2.2	2.0
2016年	1,949	1,067	3,016	1,418	1,142	481	5,093	11,150
対前年比	4.1	4.4	4.2	4.0	0.4	4.6	2.5	3.0
2017年	1,999	1,096	3,095	1,474	1,201	513	5,304	11,587
対前年比	2.6	2.7	2.6	3.9	5.2	6.7	4.1	3.9

자료: 클락슨 Shipping Review Database

□ 주요 항로의 수송 동향

○ 2017년 정기 컨테이너 선박의 움직임을 보면 북미향, 유럽시장향 그리고 유럽발 물동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지만 북미발 물동량은 감소 중

○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는 세계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은 중국 항만이 상위의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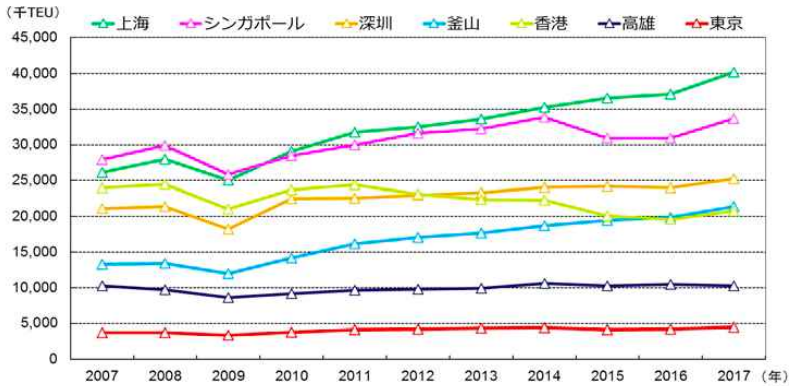
<그림 III-30> 세계컨테이너의 물동량

(단위: 백만TEU)

자료: Clarksons Shipping Review Database

<그림 III-31> 아시아 주요항만의 컨테이너취급량 추이

(단위: 1,000TEU)



자료: Lloyd's List Top 100 Ports

□ 북미 항로

○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고용 환경의 개선과 개인 소비의 신장에 의한 견조한 경기 지속으로 2017년 북미 항로의 물동량은 동항

(아시아 → 북미)이 15,294 천 TEU(전년 비 3.9% 증가), 서항(북미 → 아시아)이 6,046 천 TEU(전년 대비 3.0% 감소)로, 동항은 과거 최고치를 경신

○ 2017년 북미 항로의 선사 별 점유율은 동항에서는 아시아의 해운 기업이 수송량 전체의 65.2%, 구미의 해운 기업이 30.1%를 담당. 한편, 서항에서는 아시아 해운 기업이 수송량 전체의 66.2%, 구미의 해운 기업이 31.3%의 점유율을 보임

○ 동항·서항 모두 최근 동 항로에서 선사별 점유율의 구성에 큰 변화는 없으나 아시아 해운 기업의 점유율은 상승 추세에 있음

○ 북미 항로의 운임은 기록적인 최고치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부터 회복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 답보 상태

○ 미국 경제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운임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

<그림 III-32> 북미항로운임추이

자료: Calculated using CCFI (China (Export)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주: 1998 년 1 월 1 일 = 1,000point

□ 구주 항로

○ 유럽에서는 영국의 경기에 둔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로존에서 기업 업황의 호조와 개인소비에 힘입어 2017년 유럽 항로의 물동량은 서항(아시아 → 유럽)이 12,472천 TEU(전년 대비 3.6% 증가), 동항(유럽 → 아시아)이 6,566천 TEU(전년 대비 4.8% 증가)로 회복을 계속중

○ 동 항로의 컨테이너 취급 수의 합계는 19,038천 TEU로 그 중 약 6할은 중국발착임

○ 유럽 항로의 운임은 유럽 경제의 회복에 따른 물동량의 호조로 상승했지만 여름 이후부터는 하락세에 있고, 답보상태임

<그림 III-33> 구주항로운임추이

자료: Calculated using CCFI (China (Export)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주: 1998 년 1 월 1 일 = 1,000point

□ 항로 관련 현황과 과제

○ 2017년 물동량은 북미 항로가 왕항(往航) 15,294천 TEU, 복항(復航) 6,046천 TEU로 그 차이가 9,248천 TEU

○ 또한 유럽 항로는 왕항(往航) 12,472천 TEU, 복항(復航) 6,566천 TEU로 그 차이는 5,906천 TEU

○ 이처럼 북미 항로·유럽 항로도, 화물량은 거의 왕항(往航)과 복항(復航)이 2대1의 비율임. 이 왕항·복항의 불균형은 예를 들어, 북미에서 아시아 방면에 빈 컨테이너 운송이 발생하며 빈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북미 수출화물의 수송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사의 큰 부담이 됨

□ 건화물 정기용선 시황

○ 2017년 건화물의 시황을 정기용선료로 보면 케이프사이즈(Capesize)의 경우, 호주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에 의한 배송의 영향이 길어진 것이나, 브라질 수출용 철광석 출하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하락했지만 중국의 왕성한 철광석 수요를 배경으로 연말에는 상승

○ 파나막스(Panamax)의 경우 남미 동해안 곡물 화물의 견조한 물량과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로 상승세를 유지

□ 유조선 정기용선 시황

○ 2017년 유조선 시황을 정기적 용선료에서 보면, OPEC의 원유 감산에 따른 수송량의 저감, 여름철 수요 감소기에 의한 물동량 감소, 호황시에 발주 된 신조선 준공의 지속에 따른 선복 과잉으로 인해 계속 하락세에 있음

나. 모멘텀

1) 해운 자유화

□ 해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야한다는 "해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 환경의 실현을 위한 다자·양자의 자유화 협상이 활발함

□ 세계 무역기구(WTO)

○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인 WTO 서비스 무역 협정(GATS)이 발효. 그러나 해운 서비스는 해운 주요국 사이에서 자유화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되지 않아 GATS의 범위 밖으로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아직 국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시대에 맞는 국제 규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2년 이후 WTO에 가입하는 자발적인 국가·지역에 따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새로운 협정(TiSA :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 옴. 2016년 말 이후 미국의 소극적 자세에 의해 전체의 논의는 정지한 상황

○ 일본의 경우 외항 해운에서 TiSA 교섭의 조기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국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TiSA 참가국/지역은 총 23 개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모리셔스, 멕시코,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자, 스위스, 터키 및 미국으로 이루어짐**

□ 경제 협력 협정(EPA) / 자유 무역 협정(FTA)

○ 각국이 WTO에 의한 다각적인 자유 무역 체제를 보완하는 노력으로 EPA(경제 협력 협정) / FTA(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추진 중

○ EPA / FTA의 경우15 개국·지역(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및 몽골) 사이에 협정이 발효 중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 APEC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

제·사회의 공통 이익의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지역 협력의 틀이며, 현재는 21 개국이 참여하고 교통 등 여러 워킹 그룹이 설치되어 있음

○ "항만·해양 전문가 회의"에서 해운 분야에서 보고 루 목표(주: 보고 루 목표 - "선진국은 늦어도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늦어도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1994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보고 루 궁전에서 열린 APEC 정상 회의에서 채택됨)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해상 물류의 효율화, 환경 보호·에너지 절약, 선원 양성을 포함한 해상 안전 등 해양 분야 전반을 취급

○ 2017년 4월 제44회 교통 워킹 그룹 항만·해양 전문가 회의가 대만 타이페이 에서 개최됨

□ 해운 선진 18 개국 당국간 회의(CSG 회의)

○ CSG(Consultative Shipping Group) 회의란 해운 자유의 원칙을 목적으로 한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공통 운송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의 정책 대화를 위한 그룹으로 1962년에 발족 된 해운 주요국 간 회의체임

○ CSG 회원국은 다음의 18개국 해운 당국과 EU - 한국, 덴마크(의장, 사무국),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바겐, 영국, 일본 및 EU

○ 출범 당시부터 주로 미국의 해운 정책의 규제 문제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제 운송에 관한 규제 정책에 관한 신청이나 대화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또한 2년에 1번씩 미국 교통부 해사국과 CSG 참가국 사이에서의 정책 대화(US-CSG 회의)를 개최

○ 2017년 9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해운 선진국 당국간 회의가 개최되어 해운 회사가 공정한 경쟁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해운 시장의 자유 액세스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일부 국가의 조치, 국제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유럽의 CO2 지역 규제, 미국의 밸러스트 지역 규제에 관한 국제 합의에 근거하지 않는 지역 규제 등의 해소를 위해 해운 선진국 당국이 협력하여 해결 촉구를 실시

2) 에너지 균형축의 이동 -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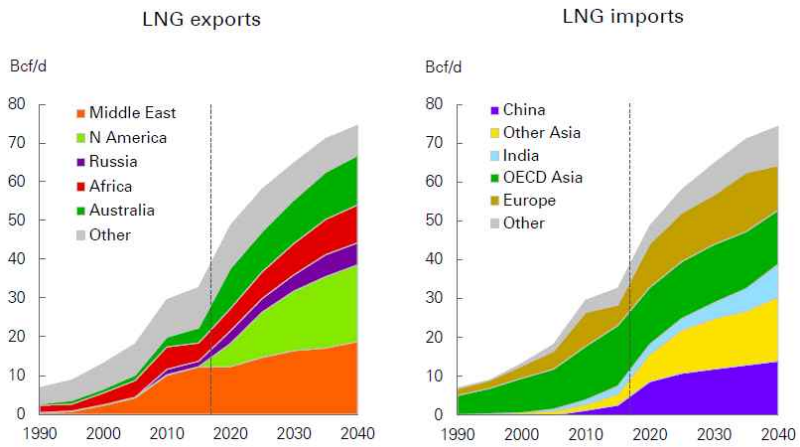
□ British Petroleum 및 엑손모빌이 발표한 2018년도 에너지 전망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부터 본격적인 세일가스를 통한 에너지 수출국의 발걸음을 내딛을 전망. LNG수출은 미국과 카타르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세계 수출의 약 절반을 이 두 나라가 점유할 전망. LNG의 주요 아시아 수입국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이며,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앞으로 LNG무역항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음. 아시아의 수요 자체는 존재하나 그 경제성에는 운송비용 등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

□ 부산항 및 부산 인근의 저장 터미널을 활용하여 아시아에 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전반적인 아시아향 수송비용을 경제적으로 타당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시야에 넣는 에너지 허브로서의 부산을 북미 에너지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제공**할 가능성 있음

□ 물류의 최상위 밸류체인인 화주(Cargo Owner) 중 가장 장기적인 거시적 추세를 보이는 에너지 기업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해

운/조선/물류/설비 등 각종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34> LNG수출/수입의 변동 예상



자료:: British Petroleum

3) ESG의 본격적인 대두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장기적인 시각이 사회에 침투함에 따라, 시장에 관한 폭넓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특히 선박이 야기하는 공해에서의 환경이슈 등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발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10월에 국제 해사기구(IMO)의 결정에 따른 2020년부터 일반 해역에서의 SOx 규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LNG를 연료로 하는 선

박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료 공급 거점으로서의 LNG 벙커링 거점 유무가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 오고 있음

○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인 일본은 LNG 기지가 항만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요코하마 항을 모델 케이스로 한 LNG 벙커링 거점의 정비 방안에 관한 검토회를 2016년 6월에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에 검토를 완결

○ 국제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중유 벙커링 거점인 싱가포르와 함께 LNG 벙커링 거점의 세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 중. 이어 아시아 지역 최초로 LNG 벙커링 거점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태평양 등을 항한 기항 증가 및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일본의 경우, 철도 운수기구에서 SES(Super Eco Ship)과 이산화탄소 저감화선박(선진 이산화탄소 저감화 선박, 고급 이산화탄소 저감화 선박) 등, 내항 해운에서 시작해서 환경피해의 최소화에 이바지 하는 선박의 건조 촉진을 실시 중임. SES는 저항이 적은 선형 및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용하여 뛰어난 경제성이나 환경부하의 저감, 선내 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4) 해운 각사의 재무체제 개선 및 효율화 도모

□ 7년 주기의 업계 사이클설로 대표되는, 해운업계의 불황에서 회복기로 접어드는 사이클이 모두의 예측을 벗어나고 예측보다 더 장기적인 침체로 접어들면서 선주, 해운회사, 조선업계, 그리고 각종 관련업체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 혹은 피해에 직면해야 했음

□ 이 시기에 흑자를 달성한 기업의 특징은 IT의 적극적인 활용, 주요 무역항로의 운송효율을 위한 Cascading (대형선박으로 대륙간 이송을 한 후, 중소형 선박으로 세부루트를 잇는 방식)의 활용 등이 있

으며, 대형선박을 보유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회사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함

□ 이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하며 해운업계에서 대형M&A가 이어지면서, 재무 체질의 강화 및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7월 17일 일본 Top 3 회사인 카와사키 기선, 상선 미쯔이 및 일본유선의 3개 정기 컨테이너선 사업을 통합한 "Ocean Network Express"(ONE)가 발족되어 지주 회사를 일본에 두고 사업 운영 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함

○ 3개 사업 통합을 통해 세계 최대의 20,000TEU형 선박으로 대표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31척을 포함한 약 240척의 선대를 운항하고 세계 90개국 이상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관리 부문 등의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함. 특히 아시아 지역 등의 광역 집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AI, IoT를 활용한 터미널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생산성과 좋은 노동 환경에 의한 "AI 터미널"의 실현에 의한 글로벌 기간 항로의 유지·확대를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

○ 유류비 상승 등 마이너스 요인은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전체적으로는 해상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사업 환경에 있어 개선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컨테이너선 운임 시황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비롯해 운임 시황이 회복된 영향을 받아 2017년 해운 대기업 3개사의 영업 수익은 3조 2,310억 엔으로 4,317억 엔(전년 대비 15.4% 증가)의 증가를 보임

○ 효율적인 배선에 의한 운항 효율의 개선과 컨테이너 통합회사인 ONE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수익성 개선으로 2018년도 전년도 대비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 일본 외항해운회사의 수익에서도, 한국이 외항해운회사와 마찬가지로 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음

○ 2017년 해운 대기업 3개사의 영업 수익 및 영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금액의 비율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달러화 비율의 괴리 폭은 11.7%임. 또한 동 년도의 환율 변동의 영향액은 해운 대기업 3개사의 실적 평균 환율이 111.15엔으로 전년도보다 2.45엔 하락함에 따라 3개사 전체로서는 79억 엔의 환차익에 의한 흑자를 기록함

<표 III-14> 영업 수익, 영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금액 비율

구분	2015 년	2016 년도	2017 년도
영업 수익 (%)	83.5	86.2	86.8
영업 비용 (%)	75.0	72.8	75.1
괴리 폭 (%)	8.5	13.4	11.7

자료: 일본 외항 Top3사 결산 자료 (합산)

<표 III-15> 달러 환율 변동이 영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

구분	실적 액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 액	달러당 1엔화 변동에 의한 영향 액	실적 액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 액	달러당 1 엔화 변동에 의한 영향 액
영업 수익	27,993	▲ 2,668	221	32,310	6,193	252
영업 비용	29,398	▲ 2,368	196	32,571	5,400	219
영업 손익	▲ 1,405	▲ 300	24	▲ 260	79	32

자료: 해운 대기업 3 개사의 결산 자료

주1: 3 개사 평균 환율은 2016 년도 1 달러 = 108.70 엔 2017 년도 1 달러 = 111.15 엔

주2: 환율 변동에 의한 영향 액은 실적 액 중 달러화 수익 · 비용에 대해 계산

5) 아시아의 대형항만화

□ 2015년 세계 국제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1억8,465만 TEU이며, 북미-유럽 간 물동량이 710만 TEU(세계 물동금액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 북미-아시아 간 물동량이 2,455만 TEU(동 비율은 13.3%), 유럽-동아시아 간의 물동량이 2,128만 TEU(동 비율은 11.6%)로 되어있는 반면 동아시아 역내에서 물동량은 6,157만 TEU (동 비율은 33.3%)이 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컨테이너 전체 물량 중에서도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함

□ 이 같은 아시아 화물량의 증가를 배경으로 실질적으로 상하이 항, 싱가포르 항, 선전항 등 아시아 주요 항구가 상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이 중 부산항 역시 상위에 포함되고 있음. 반면 컨테이너 취급 개수 기준으로 볼 때 1984년에 물동량 세계 4위였던 일본의 고베항이 2016년에는 30위 안에조차 랭크되지 않고, 일본 최고의 물동량을 가진 도쿄항마저 31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항만의 순위재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III-16> 세계항만 컨테이너 취급항 To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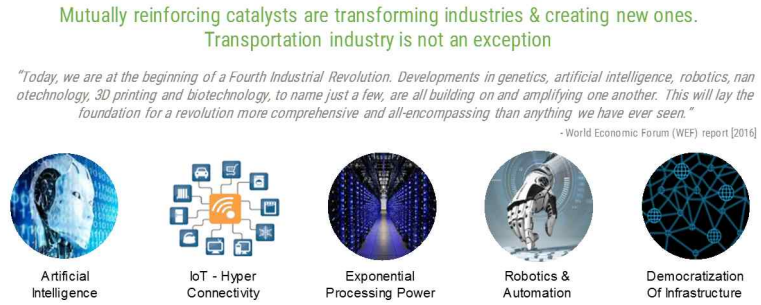
2017 순위	2016 순위	항만명	국가	취급량'17 (1,000TEU)	취급량'16 (1,000TEU)	전년비
1	1	상하이	중국	40,230	37,133	8.4%
2	2	싱가포르	싱가포르	33,670	30,904	9.0%
3	3	Shenzhen	중국	25,210	23,979	5.2%
4	4	Ningbo-Zhoushan	중국	24,610	21,560	14.2%
5	5	부산	한국	21,400	19,850	7.9%
6	6	홍콩	중국	20,760	19,813	4.8%
7	7	광저우	중국	20,370	18,858	8.1%
8	8	Qīngdǎo	중국	18,260	18,010	1.4%
9	9	두바이	UAE	15,440	14,772	4.6%
10	10	Tianjin	중국	15,210	14,490	5.0%
11	12	로테르담	네델란드	13,600	12,385	9.9%
12	11	Port Kelang	말레이시아	12,060	13,170	▲8.5%
13	14	Antwerp	벨기에	10,450	10,037	4.2%
14	16	Xiamen	중국	10,380	9,614	8.0%
15	13	Kaohsiung	Taiwan	10,240	10,465	▲2.2%
16	15	대련	중국	9,710	9,614	1.0%
17	18	로스엔젤러스	미국	9,340	8,857	5.5%
18	17	함부르크	독일	9,000	8,910	1.1%
19	19	Tanjung Pelepas	말레이시아	8,330	8,029	3.8%
20	21	Laem Chabang	태국	7,760	7,227	7.4%

표 145 세계항만컨테이너취급향Top20 (2017년) - 출처: Lloyd's List Top 100 Ports

4. 4차산업혁명型 해운클러스터(해운클러스터2.0)의 대두와 현 선박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

가. 해운클러스터2.0의 등장배경

<그림 Ⅲ-35> 산업혁명4.0의 5가지 촉매기술



자료: World Economic Forum

□ 테크놀로지의 적용분야가 해운섹터는 물론 업계의 모든 섹터에 적용 되면서, 해운과 관련한 밸류체인의 전분야에 영향을 미침

○ 그중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IoT, 초연결성, 로보틱스/자동화, 인프라의 민주화 이렇게 5가지로 간추릴 수 있으며, 이 기술이 촉매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바꾸고 있음

<그림 Ⅲ-36> 산업혁명의 변천 1, 2, 3, 4차

<그림 Ⅲ-37> 향후 해운섹터의 가치창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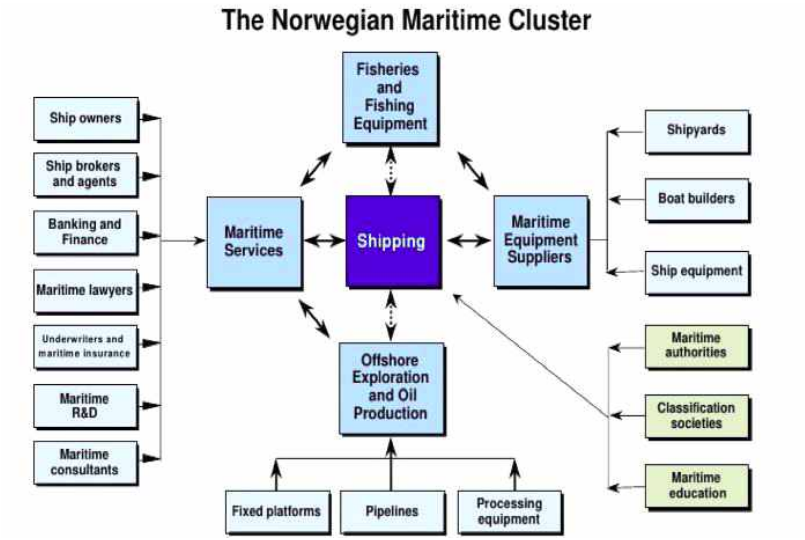
주: 자동화, 인공지능의 도입 등으로 인해, 향후 해운섹터에서 밸류를 창출하는 작업의 종류, 그리고 그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해운 클러스터의 균형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각 정부는 자국의 해운 클러스터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

나. 전통적인 해운클러스터의 발전추이

□ 전통적으로 해운클러스터는 동종그룹 내 업계, 혹은 밸류체인으로 연결되는 회사(예: 공급사 등), 서비스 공급자, 파생되는 업계의 관련회사,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상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을 지역적으로 한곳에 집약한 결과물로 탄생하는 공동체를 의미함

<그림 Ⅲ-38> 노르웨이 해운클러스터



자료: MIT

□ 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밀접하게 업체들이 위치함으로서 생기는 가장 큰 가치는 다음과 같음

○ 집단적인 지적재산의 형성과 공유의 촉진

○ 업계의 표준 및 암묵적/명시적 가이드라인이 형성됨으로서, 업계 전반의 퀄리티가 향상

○ 특정 방향에의 클러스터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결조율을 하기에 용이

□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부가가치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도 항만, 해운, 수산, 해양(offshore) 관련기업들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다수 등장했으며, 전략적인 성장 방향성에 따라 그 발전 형태 및 활동 내용은 나라별로 각각 차이가 있음(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노르웨이와 수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뉴질랜드의 차이가 그 예)

□ 일본은 그리스와 더불어 세계최대급의 해운 클러스터를 구축. 해운회사를 중심으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업체의 상생구도를 구현한 점이 특징. 해사클러스터 전체 부가가치액(2011년 기준)은 3조7,149억엔으로 일본GDP의 약1%, 매출액으로는 11조2,737억엔, 종사자34만명 규모의 클러스터를 통해 해상운송이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Ⅲ-17> 노르웨이 해운클러스터

	핵심 해양 산업	핵심 해양 산업 이외	관련 산업	인접 산업 등	해양 클러스터 전체
부가가치액 (억엔)	26,106	7,963	2,199	882	37,149
매출액 (억엔)	86,219	15,935	8,902	1,680	112,737
종사자 수 (명)	220,264	82,643	17,483	19,832	340,223

□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항만청(MPA)가 주도하여 2011년에 the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MSGI)를 발족

○ 선박자산, 항만, 테크놀러지 세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선두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CO2, SOx 삭감 달성을 위해 IMO기준의 에너지효율성디자인인덱스를 충족하는 싱가포르국적의 선박에 대해 등록비의 75%인하, 연간 tonnage tax의 50%인하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

○ 2016년 6월 기준으로 선박자산의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50%이상의 선박이 에너지효율성디자인인덱스기준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

○ 테크놀러지 분야에서 CO2, SOx, NOx 삭감 달성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에 싱가포르 항만청이 프로젝트당 300만달러의

지원금을 제공. 2015년까지 60척 선박(프로젝트 수로는 20개 이상의 프로젝트임)에 대해 5천만달러를 지원함. 본 프로젝트의 수혜는 해운업체, 항만업체, 항만제조사 등의 21개 업체에 이르며, 연간28만5천톤 정도의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효과를 가져옴

□ 아이슬란드의 경우, 수산 클러스터의 형성 이후, 수산업계 출신이 아닌 IT엔지니어들이 업계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아이슬란드의 주요수출품인 수산물의 효율적인 수출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10년 내 수산물 수출규모가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또한 수산물뿐 아닌 섬유업계 등에도 파급효과를 가져다 줌(아이슬란드 섬유업계의 절반 정도의 매출이 그물망 제조에서 발생)

□ 노르웨이 북서부의 첨단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NCE Maritime Cluster의 경우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린테크의 선두위치에 자리잡고자 함. 그 상징적인 실적으로 세계최초의 배터리동력기반의 페리인 Ampere호 등이 있음. 2015년 운항 이후, 데이터를 활용한 IT를 도입함으로서 기존 대비 연료비 60-70%의 절감 효과를 보임

□ 네델란드의 경우 1997년에 새로운 해운 정책이 발표되고, 해운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 Maritime by Holland 클러스터를 발족. 1만2천사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237억 유로의 산업을 아우르는 클러스터로, 12개의 해운/해사 섹터를 망라하고 커뮤니티의 이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조선, 해운, 수산, 해양군사 관련한 폭넓은 분야를 망라함으로서 2015년에는 네델란드의 GDP성장율인 2.0%성장을 상회하는 3.9%성장을 달성

<그림 Ⅲ-39> Maritime by Holland의 커버섹터

자료: Maritime by Holland, 2015

다. 해운클러스터2.0의 전개성향 및 KSF(Key Success Factor)분석

□ MSGI의 성공적인 성과에 고무된 싱가포르항만청은 싱가포르를 글로벌 해운 중심센터로 확립하여 글로벌 해운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Sea Transport Industry Transformation Map 계획을 발표

○ 2036년까지 업계에 45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5,000여명의 일자리 신규창출을 목표로 함

○ 핵심전략으로는 글로벌 해운업체인 CMA-CGM, COSCO, ONE과 같은 업체의 싱가포르에서의 지위 확대, PSA와의 조인트벤처 형식의 컨테이너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있음. 이 성과의 일환으로 일본의 ONE의 경우 컨테이너사업의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결정을 함. 이러한 이동에 연쇄효과로 보험, 선박브러커리지, 금융서비스, 선박관리, 법률서비스, 중재업체 들이 싱가포르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성과를 가져옴

○ 산업혁명4.0시대에 맞는 항만기능 구축을 위한 역량확보, 기술개발 등에 싱가포르항만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운행차량의 시범도입과 같은 다소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의 시행을 망설이지 않고 추진하고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고 있음. 싱가포르 관계 업계에서는 이러한 선진도입효과로 인해 추후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에 앞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업계에 대한 영향의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

○ 싱가포르 유수의 인큐베이터 기관인 NUS Enterprise와 해운업계 관련 스타트업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도입. Smart Port Challenge라는 일련의 과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성만을 평가하여 투자 및 인큐베이션을 실시함으로서, 관련기업을 싱가포르의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흡수,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특히, 유럽에서 보기에 아사아권 지역에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면서 영어에 지장이 없다는 장점에 더해, 스피디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하여 점차로 다른 해운도시의 클러스터들과 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평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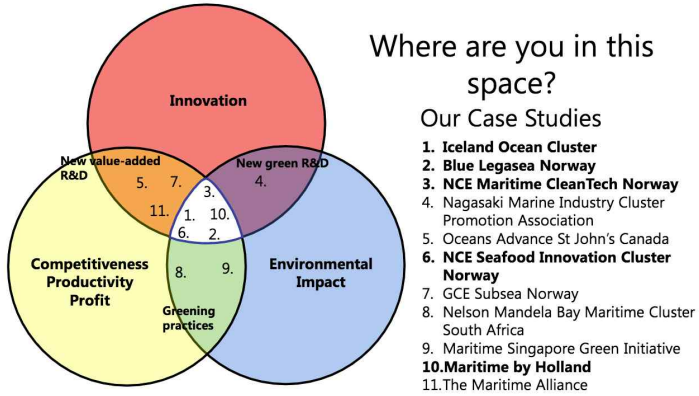
□ 그동안의 클러스터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클러스터의 성공은 다음의 3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에서 이루어짐

○ 기술적 혁신

○ 클러스터 내 경쟁과 상생

○ 환경에의 영향

<그림 Ⅲ-40>현존 주요 해운클러스터의 전략적인 위치에 관한 이해



자료: 현존 주요 해운클러스터의 전략적인 위치에 관한 이해 -
각 해운 클러스터와의 히어링을 기반으로 World Ocean Council가 작성

□ 그동안 클러스터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단일위치에 집약하는 것으로 주로 효과를 발생시켜 왔으며, 그동안은 단일회사가 이루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약체의 구성에 집중해 왔음. 그러나 태생적으로 글로벌의 성격을 가진 해운의 성격상 단일지역기반의 클러스터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문제(예: 환경이슈)가 존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함.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함

○ European Network of Maritime Clusters (ENMC): 2005년에 발족된 유럽18개국 클러스터를 회원으로 가진 연합체로, 유럽 전체의 해운섹터, 해운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Blue Tech Cluster Alliance (BCTA): 해양테크놀러지에 특화한 7개 해양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조직. 친환경기술의 프로모션과 네트워킹, 정보교환을 주요목적으로 함

○ World Ocean Council (WOC): 지속발전가능하기 위한 해양업계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발족. 글로벌 클러스터 기관의 분석 및

상호교류에 특화

□ 각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부분적인 성과를 보임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더 많은 문제해결을 지정학적인 집중에 의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verywhere Can be a Global Maritime Hub"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지리적 종속성에 대한 의존성이 이전보다 많이 약해진 측면이 있음. 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클러스터의 성공에는 다음의 네가지 요소가 KSF(Key Success Factor)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리더십(Leadership) - 전략이 되는 업계를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

○ 실행력(Action) - 공공섹터, 규제당국, 민간업체, 금융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밸류체인 구도를 잘 이해하고 수립된 전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

○ 클러스터 환경(Cluster environment) -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적 경쟁성

○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 클러스터 멤버들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의 명확화 및 일관성

라. 시사점

□ 산업혁명4.0이 구체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현실에 반영된 정책이 점점 진행되어 가면서, 각 클러스터의 현재 구도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재편되는 해운클러스터2.0化의 움직임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테크놀로지 기업과 사업체의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이 경쟁력 확보

유지에 필수적으로 부각되면서, 테크놀로지 기업 혹은 솔루션을 클러스터에 연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기업형 엑셀러레이터 등 기존의 해운섹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업체들까지 클러스터에 편성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해운은 대표적인 대형안건으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장기용선에 의해 리스크를 관리하던 기존의 금융기법에 IoT 등의 기술이 접목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기법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5. 핀테크 및 ICT 산업의 변화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 최근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술혁신이 경제·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또는 자동화를 넘어 사람들의 삶과 금융산업의 구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확보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이전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을 계기로 주목받게 됨

○ 당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교수는 3차 산업혁

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과 물리학, 생물학 등이 상호 융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설명

○ WEF 이후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이미 이전부터 '디지털화(Digitalization)'[11]란 용어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음

○ 미국 기업 Cisco의 전 CEO인 존 챔버스(John Chambers)는 모든 분야를 디지털화된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0년에는 기업의 75%가 디지털화가 되며 그 중에서도 30%만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

○ 또한 디지털화하지 않는 기업은 19조 달러에 해당하는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업은 조직 운영·제품 생산·고객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에 맞춰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12]

○ 이처럼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전에는 한 세대에 걸쳐 발생했던 변화가 몇 년 또는 수개월 만에 일어나고 있음

□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기업들은 핀테크를 더욱 심화·확산시켰고, 금융업의 디지털화 및 탈중개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됨

○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비금융 IT회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선도

11) "디지털화란 비즈니스의 여러 측면에서 대규모의 혁신적인 변화에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서, 가치 창출 및 발견을 위한 비교 불가능한 기회이면서 주요 위험의 원천이 되기도 함"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1.

12) 2015년 6월 8일, Cisco Live 강연 내용에 해당, 이대기「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변화 및 대응방향」재인용

1) 지능화 & 융합

□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AI, IoT, CPS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지능화)과 초연결성(융합)을 꼽을 수 있음

○ 빅데이터(Big Data)[13]는 정치·경제·사회·과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업에서는 고객의 소비성향과 경제활동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음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14]은 빅데이터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은 고객 대응 서비스, 부정거래 사전방지, 거래오류 실시간 처리, 신용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함

○ 기존의 스마트폰을 포함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여러 기기·사물·사람 간 연결이 확대되면서 정보를 기반으로 지능화되고 상호 연결되며 생산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15]

13) 기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수집, 관리, 처리되었던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크기의 데이터를 의미(Wikipedia 참고)

14)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며, 머신러닝, 딥러닝,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등 세부적인 기술을 포함, 이대기「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변화 및 대응방향」재인용

15) BMWi, Digital Strategy 2025, 2016.4. 이대기「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변화 및 대응방향」재인용

<표 Ⅲ-18> 인공지능의 세부 기술

구 분	내 용
인지컴퓨팅	▪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델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 프로그램된 논리나 규칙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수학적 알고리즘
딥러닝	▪ 인간 신경망을 모델화해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예측하는 기술
자연어 처리	▪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처럼 말하고 쓸 수 있는 기술
이미지 인식	▪ 사람들이 보고 있는 특정 피사체의 정체를 확인하는 기술
음성 인식	▪ 인간의 음성을 이해하고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문자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

자료: '인공지능의 기술은 로보틱스 산업에 얼마큼 기여하는가?' (Kambria 컬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7) 재인용

2) 플랫폼화

□ 플랫폼화는 제품과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의미

○ 플랫폼은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에어비앤비 등 사용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기존의 경쟁이 공급자 측 자원을 토대로 진행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태계와 연관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소비자, 생산자, 개발자 간 구분이 없는 다면적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협업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즉, 기존의 수직적 분업(linear value chain) 구조가 플랫폼화를 통해 네트워크형 협업(complex value chain) 구조로 전환**

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구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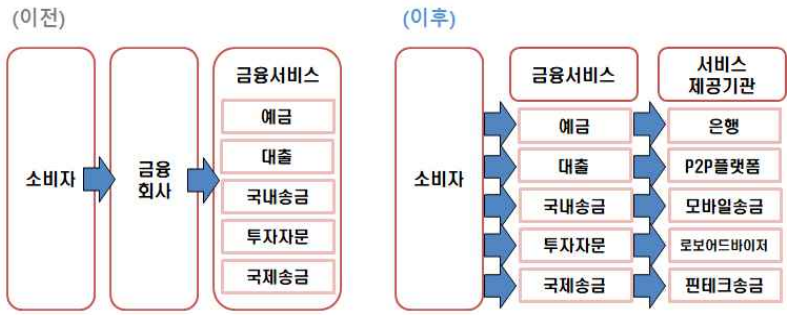
가) 기능별 분화

□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앞세운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화(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기존 금융회사들은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IT 기술 개발에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등장으로 금융서비스의 구조가 세분화되고, 활용 범위도 확대됨

○ 특히 모바일기기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와의 경쟁과 협력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Ⅲ-41> 디지털혁신에 의한 금융업의 변화



자료 : 한국은행「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2017)

나) 온라인 채널

□ 스마트폰 보급확대 등 모바일기기 확산으로 온라인채널로의 급격한 고객 대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기존 산업 내 경쟁구도를 변화시킴

○ 온라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커머스(E-Commerce) 업체 아마존, 페이팔, 스마트러닝앱 등은 꾸준하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 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한 시장 내 기존 강자들은 지위를 상실하고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

다) 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으로 최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IT를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디지털화 비전(vision)제시·내부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모델 전환과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를 기반으로 사업구조 개편 및 신사업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스페인의 금융회사인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는 디지털화 전략수립을 통해 내부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고, 외부핀테크 기업의 기술 활용과 기술 내재화를 목적으로 유명 핀테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외부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2) 분야별 변화

가) 지급결제

□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 영역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와 간편 결제 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간편결제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4분기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309만 건, 1,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1%, 10.4%가 증가함

○ 이는 최근 정보·통신회사·유통·제조업 기반 기업이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실적이 확대된 것에 기인

<그림 Ⅲ-42> 국내 간편결제 시장추이

(단위: 백만원) (단위: 천건)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8.1/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 특히 비금융회사들의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모바일 앱(app)카드를 이용한 간편 결제, 국내외 기업들의 모바

일 페이(pay) 출시, 인터넷전문은행 등 고객 유치를 위한 각 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전략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황이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금융업의 위기라는 의견이 있으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할 경우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기대

○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디지털금융 및 IT 기술개발과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거나 비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표 Ⅲ-19> 국내 주요 카드사 경영전략 및 활동계획

카드사	전 략	활 동
KB국민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	빅데이터 컨설팅 업체인 GDS와 협업해 빅데이터 중개·거래
롯데	고객생애 단계별 가치를 부여하는 플랫폼 구축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 등 디지털, 모바일 기술 개발
삼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BMP(Big-data Marketing Partnership)대상확대,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진행
신한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기업 전환 가속화	Deep Dream 카드 성공모델 전 사업영역으로 확대
우리	디지털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역량 및 해외진출 확대
하나	비대면 중심의 영업채널 강화, 디지털 기반의 고객관리	모집, 심사, 콜센터 영역의 디지털화, 스타트업 발굴·육성
현대	디지털고도화	챗봇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진행
BC	다양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	업무 범위를 인접영역으로 확장, 차세대시스템 추진

자료 : 이대기「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2018.4)

□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거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체결된 곳에서 직접 매매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완료됨

○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 결제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통화시스템 '세틀코인(SETLcoin)'을 개발하여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

* 주식, 채권 등 실시간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 내역도 블록체인에 바로 입력되므로 이력 확인 편리

* 위· 변조 불가능한 첨단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했다는 데 큰 의미

○ 국내에서도 한국거래소(KRX)와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Blocko)'가 협력하여 장외주식 거래를 위한 KSM(KRX Startup Market) 시스템 개발

* KSM 개설로 스타트업 마켓 형성으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장외주식시장 본격화 기대

나) 송금 및 대출

□ 모바일을 활용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비금융회사가 증가하고 있음

○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2018년 1/4분기 기준으로 106만 건, 76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이용건수 23.1%, 이용금액 38.2% 증가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국제 송금은 일반 송금보다 거래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기업 Align Commerce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6월 기준 서비스 가능한 나라 60개국, 그 중 23개국에서 송금 및 수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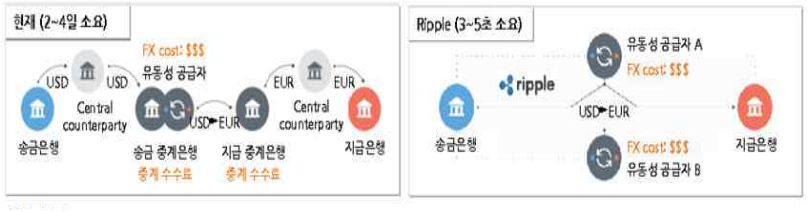
* 2015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100만 US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 완료

* 송금 수수료는 2016년 6월 기준 총액의 약 1.9%로 기존 은행 간 국제 송금보다 저렴

○ 미국 기업 리플(Ripple)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

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통해 현재 2~4일이 소요되는 거래시간을 3~5초로 크게 단축시킴

<그림 Ⅲ-43> 리플(Ripple)사의 송금서비스



자료 : Ripple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메기효과(Catfish effect) 발생

○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은행산업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

○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을 계기로 핀테크를 비롯한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고객 방어에 나섬

다) P2P대출

□ 국내외 핀테크 기업들의 P2P대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P2P대출 시장 규모는 2013년 34억 달러에서 2025년에 약 1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임

○ 또한 2017년 6월 기준으로 벤처 자금을 지원 받아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확보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기업 수는 약 13개 업체이며, 그 중 P2P대출 기업이 절반을 차지함

<표 Ⅲ-20> 기업가치 10억$ 이상의 P2P대출 분야 기업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가치	주요제품 및 서비스
Lufax (2011)	185억$	• 중국2위 P2P 대출사업자 • 대여자와 매칭수수료 건당4% • 설립이래로 20만여건 대출 성사
Social Finance (2011)	40억$	• Non-bank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낮은 이율제공 • 졸업생기금(alumni-funded)을 통한 학생 전용대출서비스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지향하는 '착한금융' 실현
Avant (2012)	20억$	•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마이닝으로 금융권보다 더 싼 이자로 대출 제공 • 신용등급 낮은(Lendingclub기준대비)고객 대상
Prosper Marketplace (2005)	19억$	• 금융권없이 자금을 자체 조성하는 P2P 온라인 대출업계의 선두업체
Funding Circle (2009)	10억$	• P2P, 비금융권 대출, 데이터분석으로 신용심사 • 개인, 기업, 기관의 자금으로 운용 • 대출수수료로 수익 창출
Kabbage (2008)	10억$	• "Karrot"개인대출, 빅데이터(big data) 분석으로 빠르고 쉬운 대출서비스 제공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and Down Jones VentureSource

□ 국내 P2P대출 사업 및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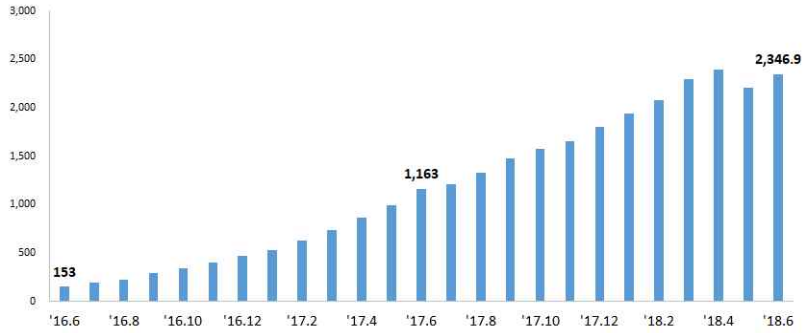
○ P2P대출의 핵심은 자금의 공여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P2P대출의 확산은 중앙 집중 시스템인 국내의 전통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킴

○ 국내 P2P대출 금액은 2016년 6월 1,526억 원에서 2018년 6월 현재 2조 3,469억 원으로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음

○ 현재 은행산업에서의 P2P 대출 영역은 미미하나 향후 기술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Ⅲ-44> 한국 P2P대출취급액 현황

(단위: 십억원)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P2P대출취급액 현황'

라) 펀딩

□ 최근 크라우드 펀딩[16](Crowd Funding)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과 '직접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크라우드 펀딩은 웹2.0,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기반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기간·규모·대상 제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임

○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출자자들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이전에 사업 아이디어를 미리 검증할 수 있으며, 투자자 역시 소액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내 크라우드 펀딩 발행 실적 규모는 2017년에 총 183건(164개사)

16)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제공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27항, 117조 참조)

의 펀딩을 통해 278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전년 대비 펀딩건수 59.1% 및 조달금액 59.7%로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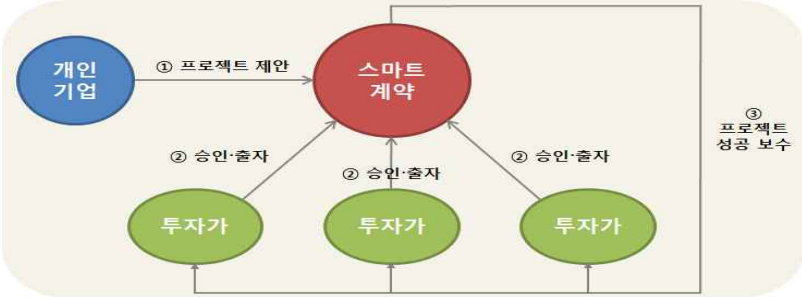
<그림 Ⅲ-45> 국내 크라우드 펀딩 발행 실적 규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The DAO'는 독일 스타트업 Slock.it사가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이더리움(Ethereum)을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펀드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는 비집권적 및 자율적 시스템 지향

<그림 Ⅲ-46> 블록체인을 응용한 크라우드 펀딩



자료 : 아카하네 요시하루 외「블록체인구조와 이론」(2017)

마) 자산관리

□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에 따라 과거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컨설팅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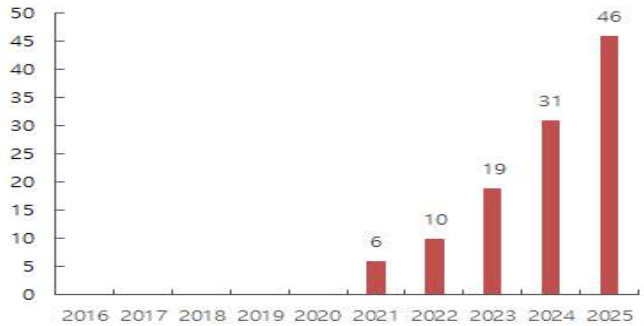
○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17]란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금융에 적용하여 PB(Private Banking) 대신 컴퓨터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임

○ 로보어드바이저는 높은 수수료와 평균 자산 3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낮은 수수료와 자산규모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홈페이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알고리즘 기반 분석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

<그림 Ⅲ-47>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단위: 조원)



자료: 유진투자증권「로보-어드바이저가 이끌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2016)

17) 로봇과 투자자문가의 합성어(Robot + Advisor)로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객의 정보(재정상태, 투자성향 등)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002년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며, 2010년 미국 스타트업 Betterment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점차 확산됨.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자산관리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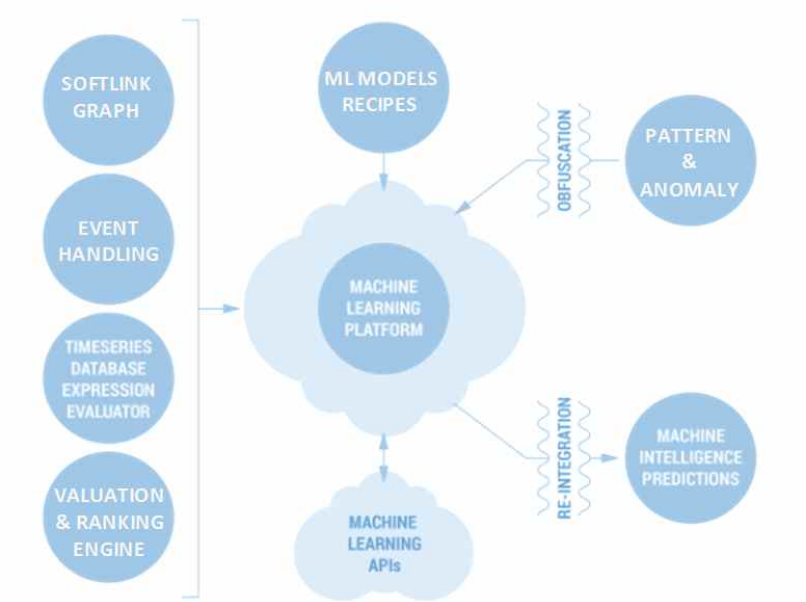
<표 Ⅲ-21> 국내 주요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현황

은행명	활동
우리	파운트(Fount)와 제휴하여 로보어드알파 출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에 접목 가능
KB국민	은행권 최초 쿼터백투자자문과 MOU체결하여 쿼터백R-1 출시
KEB 하나	2016.2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서비스 Cyber PB 출시, 국내 은행 최초 자체 개발, ISA에 접목 예정
신한	2016.4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펀드추천서비스 S로보플러스 출시
NH농협	2016.8월 은퇴설계와 퇴직연금 자산운용기능 연계한 NH로보-프로(NH Robo-Pro) 출시

자료 : 금융보안원

□ 현존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진정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기보다는 기존의 Quants알고리즘 및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활용하여 효율화를 도모한 측면이 있었음. 하지만 최근 Show&Tell주식회사로부터 인공지능만으로 구성된 B2B형 헤지펀드 운용알고리즘을 발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방법론 자체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등 인공지능활용면에 있어서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그림 Ⅲ-48> B2B형 헤지펀드 운용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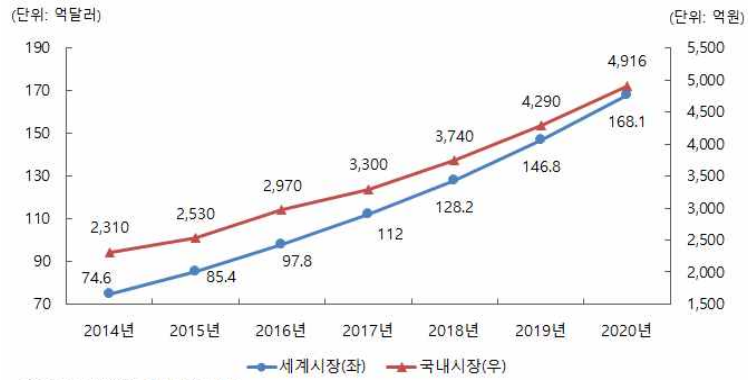
자료: Show&Tell Inc.에 의한 AI플랫폼의 예. 효율적 데이터 구축과 애널리틱스에 의해 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절대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 구성 알고리즘을 개발, 발표 (2018)

바) 인증

□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인증 시장의 높은 성장이 기대됨

○ 2015년 5월 비대면(Non face to face)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방식이 허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문 및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공급 증가와 금융업 내 바이오인증 기술 도입이 확산됨

<그림 Ⅲ-49> 바이오인증 기술의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이대기「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2018.4)

사) 사물인터넷 IoT

□ 사물인터넷(IoT)[18]은 사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통신·제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으며, 기업 및 클러스터(Cluster)의 생산 프로세스에 가장 많이 활용됨

○ 최근 사물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소형기기에 컴퓨터가 내장되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등 지능형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구글, 애플, 아마존 GE, IBM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사물인터넷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의 경우 아직 도입 단계이나 위치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담

18)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이며, 사물에 센서 및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기술을 의미함. 1999년 MIT의 Kevin Ashton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며, 최근 OECD(2016)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물질계에 접속하고 이를 감지하는 장치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들의 생태계' 라고 함. (IoT refers to an ecosystem in which applications and services are driven by data collected from devices that sense and interface with the physical world.)

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금융 상품 등 금융회사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표 Ⅲ-22> 국내 금융권 IoT 적용사례

기관	사 례	내 용
우리은행	비콘(Beacon) (2015.6월)	▪ 비콘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상품, 이벤트 안내, 쿠폰 등 은행거래에 필요한 컨텐츠 전달
동부화재	smarT-UBI[1] 안전운전 특약 (2016년 4월)	▪ 네비게이션 앱(T map)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500km 이상 주행 및 속도준수, 여유가속, 안전감속 등 일정한 조건 이상의 안전운전 시 보험료 추가 할인 ▪ T map 제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OBD[2]장치 설치 불필요
국민은행	리브통(Liiv Tong) (2017.2월)	▪ 가족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디지털 저금통에 입금할 경우 자녀의 실물 리브통 액정에 입금내역과 메시지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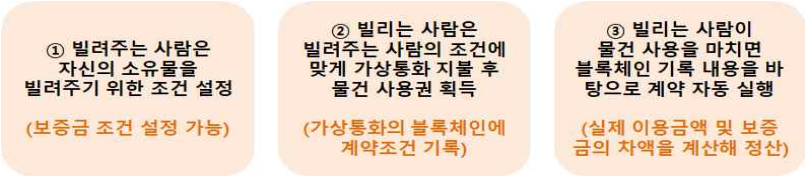
주: 1) UBI(Usage-Based Insurance)란 운전습관연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운전거리나 운전형태 등을 활용해 위험을 차별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 상품
2) OBD(On-Board Diagnostics)란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장치를 의미함.
자료: 황종모(2016), 언론자료 참조하여 재작성, 이대기「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2018.4) 재인용

□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장비 관리 및 스마트 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개발함

○ 일본 나유타(Nayuta)사는 2015.12월 블록체인을 활용해 제3자의 중개 없이 사용권을 관리할 수 있는 전원 소켓 프로토 타입을 공개함.

○ 독일 Slock.it사는 블록체인을 사용해 제3자의 중개 없이 주택의 임대, 판매,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하고 있음

<그림 Ⅲ-50> 독일 Slock.it 블록체인



아) 보험

□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재정립되고 있음

○ 상품개발, 유통·판매,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보험금 지급관리,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 보험시장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현재의 고비용 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저비용채널로 전환될 전망

<표 Ⅲ-23> 보험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디지털화 가능 영역

영 역	내 용
상품개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특성과 니즈에 맞게 다양하고 차별화 된 상품개발
유통·판매	• 옴니채널(웹,온라인,소셜,전화상담,지점) 환경에서 서비스 고객의 참여 확대
언더라이팅 (Underwriting)	• 자동차심사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 • 보험료와 보험금 책정
보험금 지급관리	•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해 보험사기 방지
마케팅 및 고객관리	• 온라인,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통해 고객 확보 •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개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SAMJONG Insight」Issues45 (2016)

□ 최근 국내 한 보험사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보험금 지급관리와 보험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함[19]

19) 이대기「블록체인의 활용과 금융의 미래」(2018.5)

(참고)

□ 교보생명은 2017년 1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지급 시범서비스 시작

○ 100만원 미만의 소액보험금은 고객이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인증과정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함

○ 보험금 청구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하루 안에 끝남

○ 현재 수도권 내 3개의 병원 및 교보생명 가입자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수도권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본 서비스는 블록체인 통합인증을 통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보험사로 자동 전달하고, 관련 모든 절차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함

□ 또한 2018년 2월 핀테크기업 디레몬(d.Lemon)사의 보험보장분석 솔루션인 '레몬브릿지'를 활용한 '스마트 가족보장 분석시스템'을 시작

○ 핀테크 기업 디레몬이 만든 '레몬브릿지' 앱이 이를 활용해 모든 보험사가 갖고 있는 이용자의 보험 가입 정보를 모음

○ 교보생명은 디레몬과 제휴해 고객이 해당 앱에서 본인의 보험 가입 정보를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다고 동의만 하면 설계사의 보장분석 시스템에 고객의 보장 내용이 반영됨

○ 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이동은 모두 블록체인 내에서만 이뤄지므로 위·변조 불가능

○ 서비스 개시 후 2주 만에 고객 7만 명이 앱을 다운받고, 4만 명이 보장분석을 받음

*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보험 컨설팅 서비스이며, 고객 동의 시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한번에 조회해 보장 분석에 반영하되 정보유출을 차단한 것이 특징

* 스크래핑은 원하는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

* 설계사는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가입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여 보장을 분석하므로 별도의 중복 없이 설계할 수 있음

3) 금융시장 인프라 변화

가) 중계기관의 역할 변화

□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회사 간 정보중계센터의 전통적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정보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재가 불가피해짐

□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금융 중개 및 거래정보의 분산 저장과 처리 등의 업무에 분산원장 기술 적용이 확대될 전망

○ 따라서 거래, 청산, 결제, 기록보관 등과 관련하여 중앙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 분산원장 기술은 향후 금융시장 인프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나) 금융기관 수익기반의 변화

□ 최근 들어 혁신적인 거래방법과 모델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 서비스 전략이 분화됨으로써 은행이 더 이상 규모·범위의 경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역시 존재

○ 기존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에 비금융회사의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예대 마진,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 등 전통적인 수익원이 약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반면,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서 중심적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기존 은행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하기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공급 철학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다) 금융서비스의 변화

□ 금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은행시스템과 분리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이 중에서 각 업체별 경쟁력 있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음

□ 혁신적인 기술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갖춘 비금융회사들이 송금, 결제, 투자,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장 내 경쟁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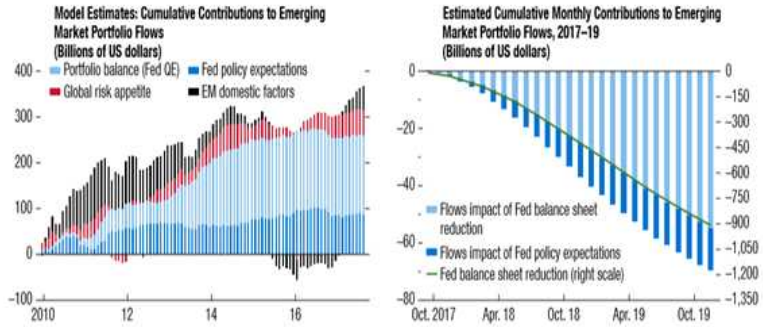
6. 신흥시장의 자본유출입 현황

□ 미국 중앙은행의 지원축소로 신흥시장 경제 포트폴리오 흐름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침

□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년)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연준위(FRB)의 비전통적 정책추진(unconventional policies)으로 신흥시장에 약 2,600 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유입이 가능했다고 예측함

○ 2017년~2019년동안 연준위 정책이 정상화됨에 따라 연간 약 350 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흐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Ⅲ-51> 신흥시장포트폴리오 유입



자료: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

□ 자금유입기(호황기간)동안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국가의 경우, 유입이 큰 조정을 볼 수 있음

○ 칠레, 멕시코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입액이 다른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향후 2년간 연간 GDP 대비 누적 1.0 ~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전에 대규모 유입이 있었던 신흥시장 경제의 경우, 유출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보통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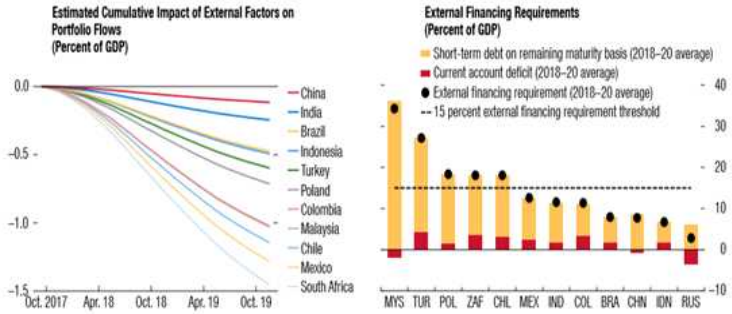
○ 자본유입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국가는 경제성장, 국가위상 개선, 기업 취약성 감소 등 혜택을 받았음. 이러한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는 한,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같은 다른 유형의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불리한 외부환경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신흥시장 경제가 회복력과 성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자본유입 감소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포트폴리오 유입액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국가의 경우 자본유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는 2020년까지 외부 자금조달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타격은 국내 투자자 및 은행이 대규모 외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음

<그림 Ⅲ-52>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유입예상액과 외부자금수요액



자료: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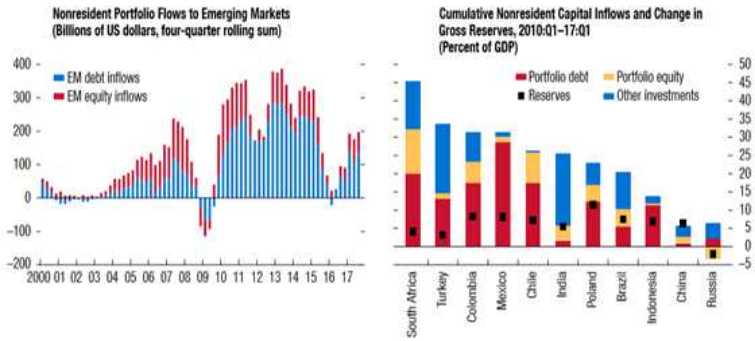
□ 신흥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 및 기업의 취약성 감소로 수익성이 높아져, 최근 포트폴리오 유입의 주목할 만한 회복세가 보임

○ 비거주자의 포트폴리오 자본유입은 2017년 8월까지 2,0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7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5~16년 동안 유입액 총량의 2배 이상이며, 2010~14년 동안 강한 유입의 상승률과 유사함

□ 포트폴리오 유입의 주요 수혜자는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신흥 시장 경제임

○ 이들 국가는 2010-2017년 동안 더 많은 국제 준비금(international reserves)의 형태로 정책적 완충력(policy buffers)을 강화함

<그림 Ⅲ-53> 신흥국 비거주자 포트폴리오 유입액과 누적액, Gross Reserves의 변화



자료: IMF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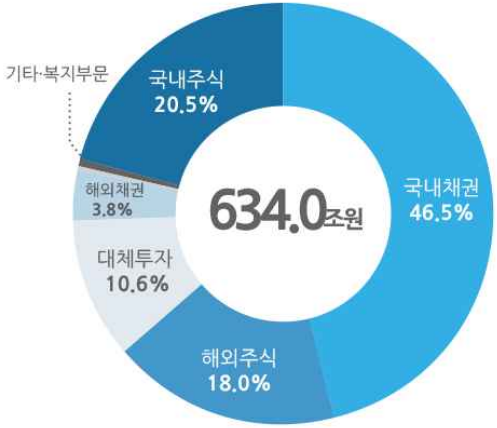
7. 국내외 자본축적에 따른 자산운용산업의 전망

가. 공적연금 현황

□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투자규모는 632.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금융부문의 비중은 국내채권 235.1조 원(46.5%), 국내주식 130.1조 원(20.5%), 해외주식 114.3조 원(18.0%), 대체투자 67.3조 원(10.6%)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54> 국민연금 투자부문

(단위: 조원, 2018년 5월말 기준)



2018. 5월 말 기준 | 단위 : 조원

부문	금액	비중
금융부문	632.9	99.8%
국내주식	130.1	20.5%
국내채권	295.1	46.5%
해외주식	114.3	18.0%
해외채권	23.8	3.8%
대체투자	67.3	10.6%
단기자금	2.2	0.4%
기타·복지부문	1.1	0.2%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연 수익금은 3.1조 원임. 1988~2018년 누적 수익금은 303조 원으로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1%임

<그림 Ⅲ-55> 연도별 수익금현황

(단위: 억 원. 2018.5월 말 기준)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수익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월말 기준 국내주식 2.4%, 대체투자 1.88%, 해외주식 0.8%, 국내채권 0.11% 순으로 나타남

<표 Ⅲ-24> 국민연금 부문별 수익현황

(단위: %, 십억 원, 2018년 4월말 기준)

구분	2018년 현재		2017년(잠정치)		2015~2017년 (3개년)		1988~2017년 (설정후)	
	기간	연환산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전체	0.89	1.66	7.26	41,194	5.61	87,479	6.02	299,920
복지부문	0.41	0.51	-1.65	-2	-1.69	-7	6.45	612
금융부문	0.89	1.66	7.28	41,190	5.62	87,466	5.92	280,038
국내주식	2.40	2.40	25.88	26,995	11.58	33,537	8.37	65,083
해외주식	0.80	0.80	10.62	9,844	9.21	20,949	8.42	33,191
국내채권	0.11	1.72	0.51	1,401	2.17	17,202	4.84	143,558
해외채권	-0.32	0.22	0.14	34	1.87	1,256	4.39	9,635
대체투자	1.88	1.88	4.53	2,963	8.50	14,555	8.14	27,507
단기자금	0.63	0.63	0.35	10	1.33	115	4.21	1,463
기타부문	0.14	0.42	0.61	7	0.65	20	1.77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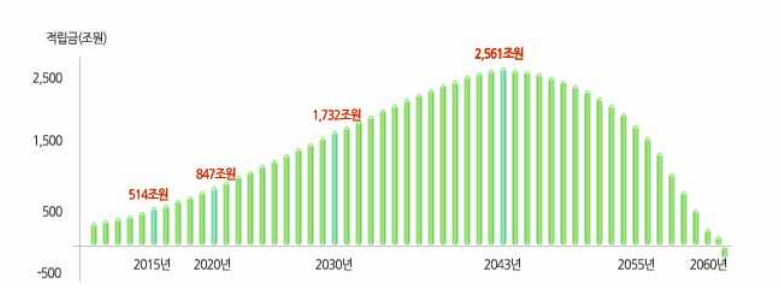
주 1)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이며, 당해 연도 연중 수익률은 잠정치임
2) 대체투자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 반영 전 수익률임
3) 수익금은 반올림으로 세부내역 및 합계의 단수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4) 수익률 산출시 반영한 운용보수는 성과보수를 포함한 실제 발생한 보수임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1988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2018년 5월말 634조 원에 이르며, 2022년 1,000조 원, 2043년 2,561조 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Ⅲ-56>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단위: 조원, 2018년 5월말 기준)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3차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발생 시기는 2044년, 기금소진 시기는 2060년으로 예상됨

<표 Ⅲ-25>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시기	적자발생	기금소진	필요 보험료율*	당시 소득대체율
2003년 1차	2036년	2047년	19.85%	60%
2008년 2차	2044년	2060년	12.49%	50%
2013년 3차	2044년	2060년	12.91%	47.5%
2018년 4차	?	?	?	45%

*기금을 총지출의 2배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추계치

나. 퇴직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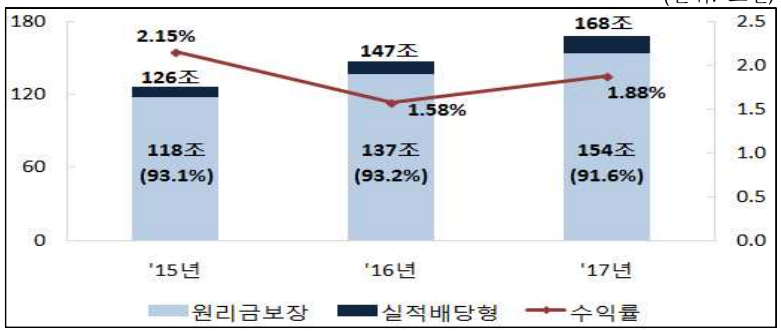
1) 적립금 및 가입현황

□ 2017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4조 원으로 전년(147.0조 원) 대비 21.4조 원(14.6%) 증가함

○ 이중 88.1%가 원리금보장상품(148.3조 원)으로 운용되었고, 8.4%만이 실적배당형상품(14.2조 원)으로 운용됨

<그림 Ⅲ-57> 최근 3년간 적립금 및 수익률

(단위: 조원, %)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2017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2016년 말에 비해 9천 개소가 늘어난 349천 개소임

○ 제도유형별로 확정기여형(DC)이 54.9%, 확정급여형(DB)이 30.9%, IRP 특례형이 7.4%, 병행형이 6.8%를 차지하였고, 확정기여형(DC)구성비만 '16년 12월 말 대비 1.3%p 증가함

○ 2016년 말 대비 도입기간 1~3년 미만 사업장은 859개소 감소, 3~5년미만은 7,105개소가 감소한 반면, 그 외 사업장은 증가함

○ 도입기간 1년 미만 사업장 48,195개소 중 확정기여형(DC) 비율은 70.6%로 최근에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확정기여형(DC) 비율이 높음

□ 2017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2016년 말에 비해 24천명이 늘어난 5,834천명이며, 남성은 61.6%, 여성은 38.4%를 차지함

○ 제도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이 55.1%, 확정기여형(DC)이 42.1%, IRP특례형이 1.2%, 병행형이 1.6%를 차지하였고, 확정기여형(DC) 구성비는 '16년 말 대비 1.8%p 증가, 확정급여형(DB)은 1.9%p 감소함

○ 연령대별로 30대가 31.0%로 가장 많고, 40대가 29.3%, 50대가 20.0%, 20대가 13.2%, 60세 이상이 6.3%, 20세 미만이 0.2%를 차지함

○ 2016년 12월 말 대비 가입기간 1~3년 미만 근로자는 31천 명 감소, 3~5년 미만 근로자는 238천명이 감소한 반면, 그 외 근로자는 증가함

<그림 III-58>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 및 가입 근로자 수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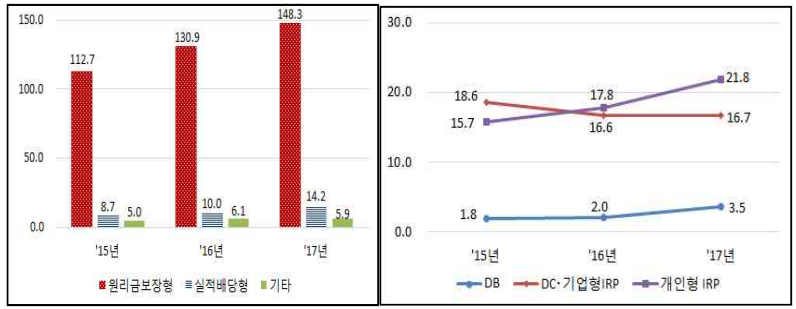
2) 제도별 권역별 운용현황

□ 적립금 중 8.4%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어 원리금 보장상품 편중현상(88.1%, 대기성 자금 포함시 91.6%)이 지속됨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중은 DB(94.6%), DC·기업형 IRP(78.7%), 개인형IRP(66.3%)임. 모든 제도유형에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그림 III-59> 운용방법별 적립금 추이 /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추이

(단위 : 조원) (단위 : %)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표 III-26> 제도유형별 운용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10.9	100.0	42.3	100.0	15.3	100.0	168.4	100.0
원리금보장형	104.9	94.6	33.3	78.7	10.1	66.3	148.3	88.1
실적배당형	3.8	3.5	7.1	16.7	3.3	21.8	14.2	8.4
기타(대기성자금)	2.2	2.0	1.9	4.6	1.8	11.9	5.9	3.5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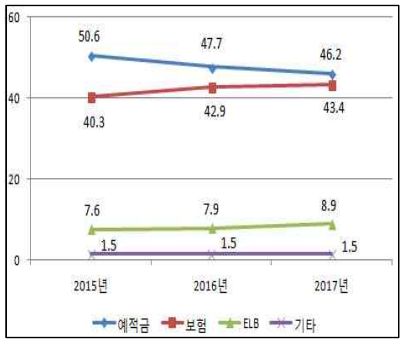
□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대비 17.4조 원 증가한 148.3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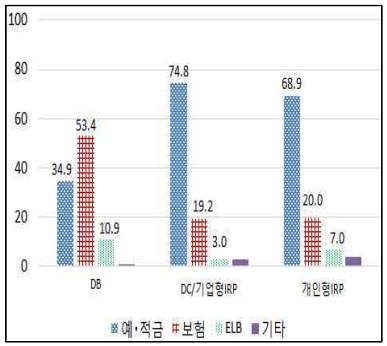
○ 예·적금 비중이 전년(47.7%)보다 1.5%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68.5조 원, 46.2%)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보험상품(64.4조 원, 43.4%), ELB(13.2조 원, 8.9%) 순임

*** DB에서는 예·적금 비중(34.9%)이 보험상품(53.4%)보다 낮음**

<그림 III-60>연도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추이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형 점유율

(단위 : %) (단위 : %)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표 III-27>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예·적금		보험상품[1]		ELB[2]		기타(국공채 등)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7년말[A]	**68.5**	**46.2**	**64.4**	**43.4**	**13.2**	**8.9**	**2.2**	**1.5**	**148.3**	**100.0**
DB	36.6	34.9	56.0	53.4	11.5	10.9	0.8	0.8	104.9	100.0
DC·기업형IRP	24.9	74.8	6.4	19.2	1.0	3.0	1.0	2.9	33.3	100.0
개인형IRP	7.0	68.9	2.0	20.0	0.7	7.0	0.4	4.1	10.1	100.0
'16년말[B]	62.5	47.7	56.2	42.9	10.3	7.9	1.9	1.5	130.9	100.0
증감[A-B]	+6.0	△1.5	+8.2	+0.5	+2.9	+1.0	+0.3	△0.02	+17.4	-

주 : 1) 금리연동형보험(최저이율 보증)과 금리확정형보험

2)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자료: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2조 원으로 전년대비 4.2조 원 증가하였으며, 집합투자증권이 97.4%(13.8조 원)*을 차지함

*** 실적배당형 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0.4조원) 합산**

○ 집합투자증권 중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이 68.2%(9.4조 원)를 차지하여, 실적배당형 내에서도 보수적인 운용행태를 보임.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운용금액은 전년대비 1.8조 원 증가함

<표 Ⅲ-28>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집합투자[A]		보험상품		집합투자[B][1)]		직접투자 등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7년말[A]	13.4	94.3	0.5	3.4	0.4	3.1	0.3	2.3	14.2	100.0
DB	3.6	93.0	0.1	1.9	0.03	0.9	0.2	5.1	3.8	100.0
DC·기업형IRP	6.7	95.0	0.3	4.4	0.3	4.3	0.04	0.6	7.1	100.0
개인형IRP	3.1	94.4	0.1	3.0	0.1	3.0	0.1	2.7	3.3	100.0
'16년말[B]	9.5	94.7	0.3	3.3	0.3	3.0	0.2	2.0	10.0	100.0
증감[A-B]	+3.9	△0.4	+0.2	+0.1	+0.1	+0.1	+0.1	+0.3	+4.2	-

주 : 1) 실적배당형 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A+B] 세부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기타[1)]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7년말[A]	2.1	14.8	0.6	4.2	7.1	51.5	2.3	16.7	1.8	12.8	13.8	100.0
DB	0.3	8.4	0.1	1.7	1.0	27.1	0.6	17.3	1.6	45.6	3.6	100.0
DC·기업형IRP	1.1	15.0	0.3	4.1	4.6	64.9	1.1	15.3	0.1	0.8	7.0	100.0
개인형IRP	0.7	21.5	0.2	7.2	1.6	49.8	0.6	19.4	0.1	2.2	3.2	100.0
'16년말[B]	0.8	8.1	0.1	1.1	6.6	67.5	1.7	17.2	0.6	6.1	9.8	100.0
증감[A-B]	+1.3	+6.7	+0.5	+3.1	+0.5	△16.0	+0.6	△0.5	+1.2	+6.6	+4.0	-

주 : 1) 부동산/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 등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주식형 :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표 Ⅲ-29> 제도유형별 세부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 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365,468	33.0	239,590	57.9	7,127	82.4	68,113	44.6	680,298	40.4
	예·적금(우체국)	651	0.1	2,380	0.6	2	0.0	1,718	1.1	4,752	0.3
	금리확정형 보험	477,778	43.1	41,528	10.0	213	2.5	9,820	6.4	529,339	31.4
	금리연동형 보험	82,006	7.4	22,239	5.4	104	1.2	10,465	6.8	114,813	6.8
	국채	74	0.0	545	0.1	-	-	910	0.6	1,530	0.1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형ELB	114,667	10.3	10,038	2.4	3	0.0	7,116	4.7	131,823	7.8
	RP	5,290	0.5	9,074	2.2	11	0.1	3,212	2.1	17,589	1.0
	발행어음및표지어음	2,641	0.2	117	-	-	-	42	0.03	2,800	0.2
	합 계	1,048,575	94.6	325,512	78.6	7,459	86.2	101,396	66.3	1,482,942	88.1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726	0.1	3,061	0.7	23	0.3	990	0.6	4,800	0.3
	집합투자증권	35,668	3.2	66,319	16.0	795	9.2	31,365	20.5	134,148	8.0
	직접투자	1,946	0.2	417	0.1	-	-	888	0.6	3,250	0.2
	합 계	38,340	3.5	69,797	16.9	818	9.5	33,243	21.8	142,198	8.4
대기성자금		21,987	2.0	18,661	4.5	375	4.3	18,183	11.9	59,208	3.5
합 계		1,108,903	100.0	413,970	100.0	8,653	100.0	152,822	100.0	1,684,3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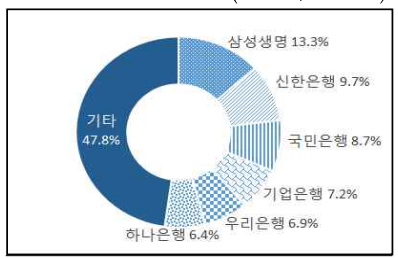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업권별로는 은행(50.0%)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3.5%), 금융투자(19.1%), 손해보험(6.4%), 근로복지공단(1.0%) 순임

○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상위 6개사의 적립금이 52.2%를 차지함

<그림 Ⅲ-61> 권역별 점유율 추이 / 사업자별 점유율

(단위 : %) (2017년,단위: %)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표 III-30> 권역별 제도유형별 비중

(단위 : 억원, %)

권역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 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16.12월	422,073	42.4	223,622	65.4	7,783	95.5	79,124	63.8	732,603	49.8
	'17.12월	468,266	42.2	267,143	64.5	8,210	94.9	99,317	65.0	842,936	50.0
생보	'16.12월	297,247	29.8	46,171	13.5	253	3.1	16,369	13.2	360,041	24.5
	'17.12월	321,459	29.0	55,926	13.5	306	3.5	18,143	11.9	395,834	23.5
손보	'16.12월	86,337	8.7	9,851	2.9	21	0.3	3,488	2.8	99,696	6.8
	'17.12월	91,986	8.3	11,961	2.9	24	0.3	3,735	2.4	107,707	6.4
금융투자	'16.12월	190,547	19.1	49,995	14.6	61	0.7	25,038	20.2	265,641	18.1
	'17.12월	227,191	20.5	62,231	15.0	76	0.9	31,598	20.7	321,097	19.1
근로복지공단	'16.12월	-	-	12,258	3.6	32	0.4	26	0.02	12,316	0.8
	'17.12월	-	-	16,708	4.0	37	0.4	29	0.02	16,774	1.0
계	'16.12월	996,205	100.0	341,898	100.0	8,149	100.0	124,046	100.0	1,470,297	100.0
	'17.12월	1,108,903	100.0	413,970	100.0	8,653	100.0	152,822	100.0	1,684,348	100.0

주 1) 권역간 비중 운용관리계약 기준(잔액기준)
2)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3) 근로복지공단은 DB 미취급

자료 :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표 III-31> 권역별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은행	비중	생보	비중	금투	비중	손보	비중	근복단	비중	합계	비중
'17년말[A]	**84.3**	**50.0**	**39.6**	**23.5**	**32.1**	**19.1**	**10.8**	**6.4**	**1.7**	**1.0**	**168.4**	**100.0**
'16년말[B]	73.3	49.8	36.0	24.5	26.6	18.1	9.9	6.8	1.2	0.8	147.0	100.0
'17년중 증감[A-B]	+11.0	+0.2	+3.6	△1.0	+5.5	+1.0	+0.8	△0.4	+0.5	+0.2	+21.4	-
(증가율, (A-B)/B)	(15.1)		(9.9)		(20.9)		(8.0)		(36.2)		(14.6)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2017년 말, 권역별 운용현황은 금융투자 권역(17.1%)을 제외한 전 권역의 실적배당형 비중이 1.1%~7.9%로 소극적 운용관행이 지속됨

<표 III-32> 권역별 운용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은행	비중	생보	비중	금투	비중	손보	비중	근복단	비중	합계	비중
합 계	84.3	100.0	39.6	100.0	32.1	100.0	10.8	100.0	1.7	100.0	168.4	100.0
원리금 보장형	73.6	87.3	37.5	94.7	25.0	77.8	10.6	98.8	1.6	96.9	148.3	88.0
실적 배당형	**6.6**	**7.9**	**2.0**	**4.9**	**5.5**	**17.1**	**0.1**	**1.2**	**0.02**	**1.1**	**14.2**	**8.4**
기타 (대기성자금)	4.1	4.9	0.1	0.3	1.6	5.1	0.002	0.02	0.03	2.0	5.9	3.5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표 Ⅲ-33> 권역별 운용세부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기타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612,976	72.7	11,438	2.9	540	0.5	44,773	13.9	10,571	63.0	680,298	40.4
	예·적금(우체국)	-	-	48	0.01	-	-	4,703	1.5	-	-	4,752	0.3
	금리확정형 보험	92,416	11.0	246,699	62.3	92,671	86.0	91,878	28.6	5,675	33.8	529,339	31.4
	금리연동형 보험	6	0.001	101,642	25.7	11,502	10.7	1,664	0.5	-	-	114,813	6.8
	국채	-	-	-	-	-	-	1,530	0.5	-	-	1,530	0.1
	통안증권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	-
	원리금보장형 ELB	30,157	3.6	15,160	3.8	1,662	1.5	84,844	26.4	-	-	131,823	7.8
	RP	-	-	-	-	-	-	17,589	5.5	-	-	17,589	1.0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	-	-	-	-	2,800	0.9	-	-	2,800	0.2
	합 계	735,555	87.3	374,987	94.7	106,375	98.8	249,780	77.8	16,246	96.9	1,482,942	88.0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	-	3,896	1.0	862	0.8	5	0.0	36	0.2	4,800	0.3
	집합투자증권	66,176	7.9	15,190	3.8	445	0.4	52,180	16.3	156	0.9	134,148	8.0
	직접투자	27	0.003	462	0.1	-	-	2,761	0.9	-	-	3,250	0.2
	합 계	66,203	7.9	19,549	4.9	1,308	1.2	54,946	17.1	192	1.1	142,198	8.4
대기성자금		41,179	4.9	1,299	0.3	24	0.02	16,370	5.1	336	2.0	59,208	3.5
합 계		842,936	100.0	395,834	100.0	107,707	100.0	321,097	100.0	16,774	100.0	1,684,348	100.0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3) 퇴직연금 수익률현황

□ 2017년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년(1.58%)대비 0.30%p 상승한 1.88%임

<표 Ⅲ-34>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전 체	DB	DC·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16년	1.58	1.68	1.45	1.09
	'17년	**1.88**	**1.59**	**2.54**	**2.21**
	증감	0.30	△0.09	1.09	1.12
원리금 보장형	'16년	1.72	1.69	1.90	1.46
	'17년	**1.49**	1.48	1.63	1.19
	증감	△0.23	△0.21	△0.27	△0.27
실적 배당형	'16년	△0.13	1.43	△0.52	△0.56
	'17년	**6.58**	5.54	7.11	6.64
	증감	6.71	4.11	7.63	7.20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전년대비 0.23%p 하락한 1.49%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1.65%)보다 0.16%p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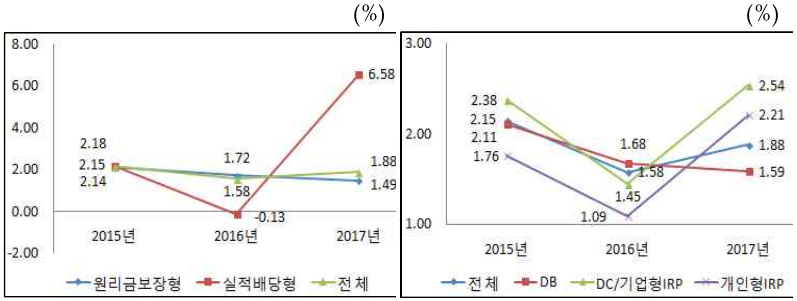
○ 금리추세가 상승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수익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

□ 실적배당형은 KOSPI 지수가 2017년중 21.76% 상승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6.71%p 상승한 6.58%임

○ 이는 집합투자증권(13.8조 원) 중 혼합형(7.7조 원, 55.7%)의 비중이 높고, 주식형(2.1조 원, 14.8%)의 비중이 낮은데 기인

□ 제도유형별 수익률은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많은 DC · 기업형IRP(2.54%), 개인형IRP(2.21%)가 DB(1.59%)보다 높음

<그림 Ⅲ-62>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추이 /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 금융권역별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많은 금융투자**(2.54%)가 가장 높고, 생보(1.99%), 손보(1.79%), 은행(1.60%), 근로복지공단(1.58%)순임

<표 Ⅲ-35>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금투	생보	손보	은행	근복단	전체
'17년[A]	**2.54**	**1.99**	**1.79**	**1.60**	**1.58**	**1.88**
원리금보장형	1.67	1.73	1.72	1.29	1.49	1.49
실적배당형	7.02	7.63	8.20	5.86	9.63	6.58
'16년[B]	1.55	1.77	1.98	1.43	1.71	1.58
증감[A-B]	+0.99	+0.22	△0.19	+0.17	△0.13	+0.30

주)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이며, 원리금보장형에는 대기성자금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2018. 3)

다. 공사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해외투자의 증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 자산이 급속히 축적되면서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가 증가세를 보임

□ 국내의 고령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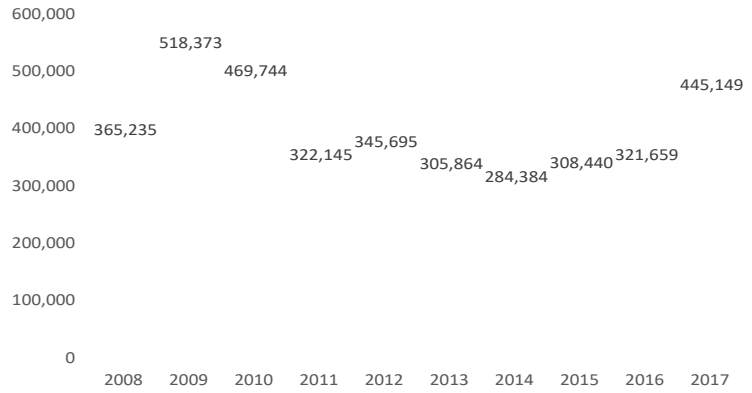
○ 연기금 등의 대형자금이 축적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투자가 가속화됨

□ 해외투자펀드 순자산총액은 2017년 4.45조 원으로 2014년 2.84조 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국내의 자금흐름이 유입(inflow)에서 유출(outflow)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Ⅲ-63> 해외투자펀드(공모펀드) 순자산총액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해외투자펀드 투자부문별로 자산가치를 살펴보면 주식 17.3조 원, 재간접투자 9.94조 원, 채권 5.53조 원 순으로 나타남

<표 Ⅲ-36> 해외투자펀드(공모펀드) 자산별 순자산가치

(단위: 백억원)

연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08	2,781	308	34	88	244	117	43	2	35		3,652
‘09	4,111	454	37	59	329	104	54	2	34		5,184
‘10	3,476	388	39	137	438	128	56	2	33	-	4,697
‘11	2,154	230	37	188	330	203	52	-	26	-	3,221
‘12	2,034	191	38	335	499	229	75	-	57	-	3,457
‘13	1,574	213	56	286	503	264	79	-	83	-	3,059
‘14	1,245	184	82	300	489	351	86	-	106	-	2,844
‘15	1,306	147	120	357	517	448	77	-	112	-	3,084
‘16	1,255	123	110	478	504	475	110	-	162	-	3,217
‘17	1,731	175	136	553	994	543	161	-	144	14	4,451

자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17년 1월 기준, 해외주식/혼합형펀드 유형별 설정잔액을 보면 중국 주식에 8조 원 가량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설정액을 보이고 그 뒤로 글로벌(혼합형펀드) 3조 원 순으로 확인됨

<그림 Ⅲ-64> 해외주식/혼합형펀드 유형별 설정잔액

(단위: 조원)

주: 공격적자산배분, 글로벌은 혼합형펀드임.

자료: 제로인 펀드평가, 국제금융센터(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현황 점검, 2018. 1)

□ 해외직접투자 기준으로는 2017년 아시아 153.6억 달러, 북미 143.8억 달러, 중남미 89.9억 달러 순으로 확인됨

○ 직접투자 역시 2014년 이후 매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과 2017년은 투자규모가 유사)하고 있음

<그림 Ⅲ-65> 해외직접투자 (신고기준)

(단위: 천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Ⅳ. Benchmark 대상 글로벌 금융중심지 변화 및 시사점

□ 2018년 3월 발표한 GFCI 23 기준으로, 2010년 3월(GFCI 7) 대비 순위가 상승한 도시 23개 중 9개를 Benchmark 대상으로 선정

○ 중국의 광저우·칭다오, 밴쿠버, 두바이, 멜버른, 오사카, 방콕, 함부르크, 텔아비브 총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는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지엔(Z/Yen)사가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순위임

<표 Ⅳ-1> Z/YEN 보고서에 의한 금융중심지(2010 vs. 2018, 순위 상승 기준)

나라 및 지역	도시
중국	**Guangzhou, Qingdao**, TianJin
캐나다	Montreal, **Vancouver**, Calgary
중동	**Dubai**, Abu dhabi, Doha
퍼시픽 아시아	**Melbourne, Osaka**, **Bangkok**, Kuala Lumper, Busan
기타(조세회피지역 포함)	**Hamburg, Tel Aviv**, Cyprus, Liechtenstein, Warsaw, Bermuda, Casablanca, Cayman Islands, Los Angeles

자료: GFCI(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7(2010), 23(2018)

1. 광저우 (Guangzhou)

가. 순위(ranking) 및 총점(rating) 트렌드 점검

<그림 Ⅳ-1> 광저우 GFCI 추이

자료 :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광저우는 2017년부터 신흥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으며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음

○ 광저우는 2017년 3월 GFCI에서 650점으로 88개 도시중에서 37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 2018년 3월 GFCI에서 전체 96개 도시 중에서 27위에 기록되고 있어 신흥 금융 중심지로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광저우의 발전에 대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나. 정책적 이슈

□ 광저우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접 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존의 지역중심, 제조업 중심 기반에서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 또는 펄 델타 지역(Pearl Delta)을 연계한 제조업, 서비스,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

○ 2013년 이후 광저우는 기존의 상하이와 더불어 푸젠(Fujian) 및

톈진(Tianjin) 등과 더불어 핵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의 발전을 모색

○ 광저우는 기존 지역금융중심지(regional financial center) 역할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2단계 FTZ를 추진

○ 2단계 핵심전략은 기존의 생산중심에서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무를 중심으로 한 난샤 자유무역지대(Nansha FTZ)와 광저우 금융 도시(Guangzhou Financial Town)*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반을 강화

*Guangzhou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동 전략은 홍콩 중심의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장하여 광저우를 통해 국경간 거래(cross-border) 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홍콩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형태 등 지역적 확장을 모색

□ 한편 광저우는 베이징(Beijing), 상하이(Shanghai), 선전(Shenzhen) 등에 비해 금융회사의 집적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톈진(Tiangjin), 지안(Jian) 등 북부 지역의 금융중심지 확대에 따른 경쟁에도 직면

○ 광저우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수 또는 주요 기업의 본점, 금융거래 규모 등에 있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과 대응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

다. 최근 동향 및 기사

□ 2012년에 도시 혁신을 위한 광저우 국제 어워드(Guangzhou International Award for Urban Innovation)을 마련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지도를 제고

○ 2017년의 경우 59개국 171개 도시로부터 301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 2016년 12월 ~ 2017년 8월 중에 금융중심지, 산업중심지, 무역중심지로서의 글로벌 입지(internationl reach) 강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쇼(Roadshow) 및 홍보행사(promotion fairs)를 미국 및 유럽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파리, 뉴욕, 도쿄, 런던,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에서 글로벌 로드쇼 및 홍보행사를 개최

○ 동 행사 중에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Silicon Valley, Boston, Tel Aviv 등에 지역사무소를 설치

○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으로는 광저우에 투자하는 자본(registered capital)과 연계하여 2천5백만 RMB 지원, 은행 및 증권, 보험사 등의 지역 본사에 대해서 2백만 RMB 지원, 상위 경영진 또는 최고전문가 등에 대해 정착자금으로 최대 1백만 RMB까지 지원

□ 광저우는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세계 4위 거대연안지역(Great Bay Area)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충

○ 광저우 국제 금융 엑스포(Ghuangzhou International Financial Expo, GZIPE)를 개최

* 300여개의 기관, 78만여명의 방문객, 1만 8천여명의 전문가, 1만 여개의 고용기회, 약 550억 RMB에 이르는 중소기업여신을 창출

○ 광저우 금융중재법원(financial arbitration court) 및 금융재판소(trial division), 증권거래소, 탄소거래소, 청산기구, 실물거래소(financial assets exchange), 해운거래소 외 6개의 거래플랫폼을 설립

□ 또한 광저우는 금융클러스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 존(Financial Innovation Service Zone), 국경간 거래 중심의 난샤

(Nansha) 금융서비스 존, 녹색금융개혁 및 혁신 실험 존 (Green Finance Reform and Innovation Pilot Zone)을 설치

□ 녹색금융개혁 및 혁신 실험 존 (Green Finance Reform and Innovation Pilot Zone)

○ 광동성 광저우시 화두구에서 녹색금융 개혁 및 혁신 파일럿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고 5년간 시범지역 내 녹색 금융규모의 빠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시범지역 내 녹색신용대출의 채무불이행비율을 영세소상공인 대출 평균 채무불이행비율 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식의 녹색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식거래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녹색 보험 개발의 가속화" 등 9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

○ 또한, 이 계획은 홍콩과 마카오의 기관투자자가 시범 지역 내에서 녹색사모펀드투자 및 녹색벤처자금투자를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적격 외국유한파트너(QFLP) 사업을 지원함

○ 광저우 지역 증권거래소 시장에도 환경보호위원회(gree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oard) 상장기업·채권 발행사가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 국경 간 거래 중심의 난샤(Nansha) 금융서비스 존

○ 광저우 난샤 보세항구지역(Guangzhou Nansha Bonded Port Area)의 본거지이며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있는 광저우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광저우 난샤 자유무역지대(Nansha Free-Trade Zone)의 정책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양방향대출, 채권, 보험, 국제 결제 및 자본 통합 등의 국경 간 금융 사업을 현실화 할 수 있음

○ 한편, 광저우 난샤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비거주 계정(NRA +)으로 국내 통화 및 외화 거래를 하는 새로운 방법이 광저우 난샤

자유무역지대의 특별한 상징으로 내륙뿐만 아니라 연안의 광동, 홍콩, 마카오의 화폐거래소까지도 홍보될 수 있음

□ 광저우는 2017년에는 Fortune Global Forum을 개최한 바 있고, 2018년에 World Routes, 2019년에는 World Ports Conference, 2020년에는 13th Metropolis World Congress를 개최하는 등 국제컨퍼런스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

○ 역사적으로 자유무역과 혁신투자의 역동적인 허브도시이자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17 Fortune Global Forum의 개최지로 선정

○ 광저우는 포럼에서 2020년까지 국제 운송, 국제 항공, 국제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위한 허브를 설립할 5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

○ 전 세계 최대 규모이자 영향력 있는 민간 항공사들의 연례행사인 World Routes 2018이 2018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됨

□ 광저우 정부는 2018년 6월에 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한 6억 RMB 규모의 Sino-Israel 생명공학 투자기금(Biotech Investment Fund)을 설립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인큐베이터 기반을 강화

○ 광저우에 위치한 광저우 국제 바이오텍 섬은(Ghuangzhou International Biotech Island)은 해외 벤처펀드와 공동 투자 및 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생명공학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벤처펀드를 설립

○ 주로 이스라엘 생명공학 기업의 중국 자회사 설립 시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성공 시에만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

○ 이미 2017년에 광저우 혁신 사무소(Ghuangzhou Innovation Office)를 이스라엘에 설립하여 양국 간 기술 및 혁신 협력을 강화

라. 시사점

□ 광저우 제조업의 우월적 기반과 홍콩 등 지역적 연계성을 활용한 지역 및 산업, 무역벨트 등 포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보

○ 광저우의 제조업 기반과 홍콩의 금융기반, 마카오의 무역기반 등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경제를 포괄하는 금융중심지 모델을 마련

○ 홍콩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홍콩 지역의 주요 금융기관에 의한 업무 분할을 촉진함으로써 역할분담을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을 강화

□ 광저우는 베이징 및 상하이, 선진 등 글로벌 금융센터 또는 정치경제 중심지와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 외에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타 역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

○ 광저우는 광동성(Guangdong), 홍콩(Hong Kong), 마카오(Macao), 타이완(Taiwan) 등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난샤 지구(Nansha Financial 15)를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 및 선박금융에 특화하는 전략을 추진

<표 Ⅳ-2> 난샤(Nansha) 금융 및 유사 금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해당사항	최고장려금
난샤(Nansha)에 정착시	최대 1,800만 위안
경제적인 공헌을 할 경우	Nansha 지구에서 최초 3년 동안 경제기여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경제기여액의 최대 70%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에너지 수준 측면의 향상을 가져올 경우	최대 2,000만 위안
사무실 사용에 대한 보조금	최대 1,000만 위안
상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최대 500만 위안

자료 : Guangzhou Nansha New Zone and Free Trade Zone(2017)

□ 광저우는 인터넷 등 신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유치 전략을 병행

○ 광저우는 에스크로우(escrow), P2P 온라인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인터넷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인터넷 중심의 금융 기반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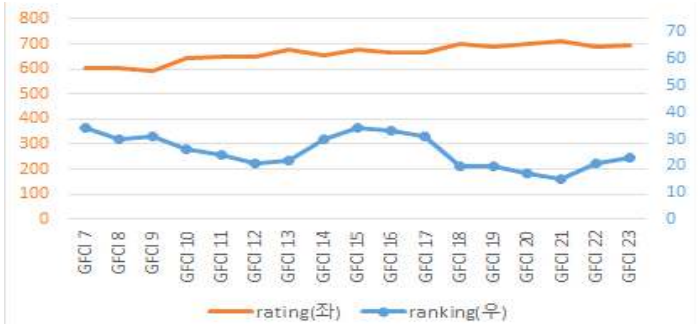
○ 투자 및 이주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혁신 분야 및 전문가 유치를 위한 정부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의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 등 구조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을 제고

2. 오사카(Osaka)

가. 순위(ranking) 및 총점(rating) 트렌드 점검

<그림 Ⅳ-2> 오사카 GFCI 추이



자료 :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오사카는 GFCI에서 평균 25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중심지

○ 오사카는 GFCI에서 2013년과 2015년 사이 지수하락에 따른 순위하락을 경험하였으며 2014년에는 34위까지 하락하였음

○ 2015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

나. 정책적 이슈

□ 2013년 1월에 도쿄 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와 오사카 증권거래소를 통합해 지주회사 일본거래소(Japan Exchange Group)를 출범

○ 2013년 7월 12일부터 현물 주식의 거래를 종료하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는 파생금융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거래소로 변모

○ 2014년 3월 24일에 도쿄증권거래소의 국채 선물 거래 등 파생상품 부문을 흡수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오사카 증권거래소(Osaka Exchange, Inc.)로 변경

□ 오사카 증권거래소(Osaka Stock Exchange)는 지수선물, 지수옵션, 국채선물/옵션, 개별주식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에 해당

○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수선물과 지수옵션은 국내 및 해외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파생상품으로 Nikkei 225 선물, Nikkei 225 mini, Nikkei 225 옵션 그리고 TOPIX 선물 등이 있음

○ 또한 10년 만기 일본국채(JGB) 선물의 경우 높은 유동성 때문에 일본에서 장기 금리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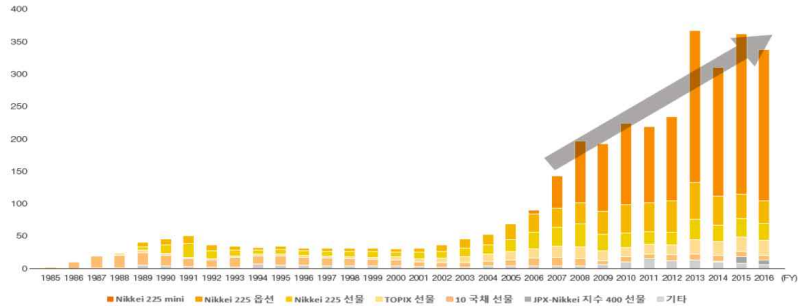
□ 오사카 증권거래소(Osaka Stock Exchange)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는 지난 10년 동안 네 배로 증가

○ 이러한 성장의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은 2006년에 거래를 시작한 니케이 225 미니 선물(Nikkei 225 mini contract)이 있었기 때문

*** 전 세계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상품으로 성장**

<그림 Ⅳ-3> 오사카 증권거래소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추이

(단위 : 백만 계약)



자료 : JPX Repor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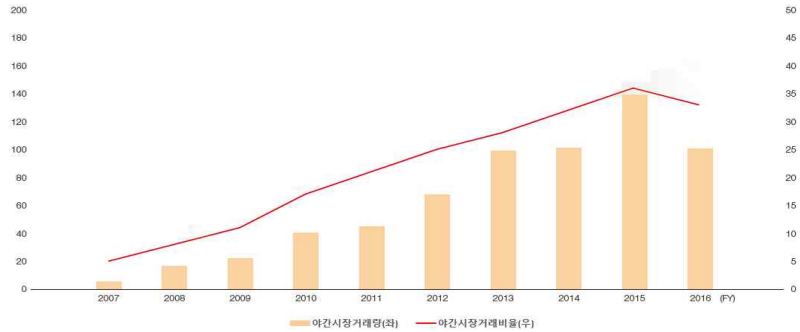
□ 오사카 증권거래소(Osaka Stock Exchange)의 지난 10년동안 이어져 온 발전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야간시장거래(nighttime trading)의 극도로 빠른 확장에 있음

○ 2007년 야간시장거래를 시작한 이래 시장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 시간을 여러 차례 연장

*** 2016년 7월 야간시장거래를 오전 5시 30분까지로 연장하고 주가지수선물 거래의 시작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 45분으로 변경**

<그림 Ⅳ-4> 오사카 증권거래소 야간시장 파생상품 거래량 및 비율 추이

(단위 : 백만 계약) (단위 : %)



자료 : JPX Report 2017

다. 시사점

□ 오사카 거래소의 활성화는 현물시장의 회복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야간거래시장의 변화에 기인

○ 파생상품 거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침체기를 겪었으나, 아베노믹스(Abenomics) 및 추가 양적완화 등에 따른 일본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주식시장이 이전 수준을 회복

○ 주식거래의 확대와 외국인의 참여 확대, 야간시장 개장, 시장친화적 제도 개편 등이 파생상품시장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는 현물시장의 추세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통합거래소 체제 내에서 거래소의 시장리더십과도 밀접히 관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는 활성화되는 추세

○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경우 주식시장의 활황과 장기금리의 변화 가능성에 따른 헤지수요 확대 등 시장적 요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 통합거래소의 경우 거래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거래소에 의한 신시장 개척 혹은 정책적 기조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3. 함부르크(Hambrug)

가. 순위(ranking) 및 총점(rating) 트렌드 점검

<그림 Ⅳ-5> 함부르크 GFCI 추이

자료 :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함부르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음

○ 함부르크는 2017년 9월 GFCI에서 처음 순위에 기록되어 소개되었고 628점을 받아 92개 도시 중에서 67위를 기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킴

○ 이후 6개월 후인 2018년 3월 GFCI에서 728점으로 전체에서 28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함부르크의 금융중심지로의 도약과 고속 성장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나. 정책적 이슈

□ 함부르크는 2008년 이후 해운업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위축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확장, 주거기반의 확충, 환경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개혁 또는 정책을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해운기업이나 해양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지는 한편 주거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도 존재

* 지방정부는 2008~2010년 중에 위기극복을 위해 은행 및 해운업에 유동성을 지원(2014년 말 기준 함부르크 시의 부채는 약 250억 유로로 증가)

○ 2011년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포용적 정책, 성장 및 투자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여 장기성장 전략을 추진

* 2012년 기준 약 6억 유로 적자규모가 2016년에는 약 1.1억 유로의 흑자로 전환

○ 주택공급, 육아, 교육 및 취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

* 약 75%이상이 임대 주거시설, 그 중 약 25% 정도를 조합주택기관에 의해 보유

* 청소년 직업소개소(Youth Job Agency)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약 39%가 기초기술직(apprenticeship)을 취득

* 교육비 및 육아비용 등을 폐지

□ Hafencity 함부르크(Hafencity Hamburg) 전략을 추진하여 도심 내 항구 주변지역을 재활성화하고 공공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도시개발, 해변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 Hafencity 함부르크(Hafencity Hamburg) 전략은 항구 주변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공공소유 토지의 통합 관리와 도시개발기관과의 협업, 토지매각을 통한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 도심인프라 및 주거환경을 개선

○ 도심개발 및 상업 활성화 등을 위한 2030전략을 마련하여 컨퍼런스 시설이나 생산시설을 제공할 계획

○ 사업진흥지구(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제도를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토지소유주가 개발에 공동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금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

□ 함부르크는 복합 클러스터(cluster) 전략을 통해 2000년 대 이후 항공 클러스터에서 출발하여 생명공학, 로지스틱스, 금융 및 의학, 재생에너지, 해양클러스터로 확대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달성

○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 연구, 정치 및 공공분야 등의 협력체계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고용창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서 함부르크는 1997년 Hamburg@work를 통해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

○ 2001년 항공클러스터(Aviation Cluster) 추진 이후 2002년에는 "메트로폴리스 함부르크 성장하는 도시"(Metropolis Hamburg Growing City)를 목표로 생명과학클러스터(Life Science Nord, 2004), 물류 클러스터(Logistics Initiatives, 2008), 금융센터(Finanzplaz, 2008), 보건경제(Gesundheitswirtschaft, 2008)를 추진

○ 또한 2010년에는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전략(Overall Strategy for Clusters)를 마련하고 이후 창조적 사회(Kreativegesellshaft, 2010), 재생에너지(Renewal Energy, 2010)분야의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

○ 2010년 이후에는 지역혁신 2020 전략(Regional Innovation Strategy 2020, RISs)를 마련하여 지역클러스터의 연계(Bridges) 전략(2015)과 더불어 연방정부와 함께 해양 클러스터(Maritime Cluster, 2017)를 추진 중

○ 함부르크의 클러스터를 통한 성장모델은 북부 독일 지역의 전반적인 지역발전 모델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합의와 중앙-지방정부 간 정치적 협업을 통한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로 평가

<표 Ⅳ-3> 함부르크 클러스터 전문가 양성 교육

클러스터 / 활동영역	항공	물류	IT/Media	재생에너지	해양
차세대를 위한 장기적 학습	어린이를 위한 과학적/기술적 직업 소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유망 직업; 기술적 제품 디자이너, 프랑스 교환 학습 프로그램	시험과 훈련을 목적으로 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함부르크 애니메이션 스쿨	자격요건 연구	독일 북부 항해훈련 확대
지속적 교육	국가 공인 항공 기술자(현직 교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IT 전문가 및 IT 운영 전문가 자격 프로그램	자격요건 연구	선박 자격증(Certified Ship Planner)
학술훈련	항공 연구센터, 해외 대학과의 협력 등	RFID 기능을 갖춘 포장 기술, 실험실 운영	모션 추적 시스템	자격요건 연구	독일 북부의 연구 기회 확대
채용	독일 및 해외에서의 취업 박람회	직업 및 경력 박람회	핸드북(Media and IT 직업)	재생에너지 직업 관련 책자	박람회

자료 : Enhancing Expertise, The Ministry of the Economy and Labour's Qualification Offensives of Hamburg (2009)

□ 항공클러스터

○ 2001년 함부르크 항공클러스터(Luftfahrtsandprot Hamburg)를 추진

○ 항공기 제조 및 보수, 공항 운영 등에 대한 대표기업을 유치 (Airbus, Lufthansa Technik, Hamburg Airport)

○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

○ 항공 관련 훈련기관(Hamburg Center of Aviation Training, 2011)을 설립

○ ZAL 항공 운용 연구센터(ZAL Center of Applied Aeronautical Research)는 항공 기술 및 통신 관련 연구를 주도

□ 생명공학(Life Science Nord)

○ 1996년 생명공학 분야의 기반 확대를 모색한 이후 2013년에 생명공학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심화전략을 마련

○ 2016년에는 EU의 클러스터 분야 gold label을 달성

○ Life Science Nord Management GmBH가 담당

○ 독일 전역의 약 500여개 제약회사, 생명공학, 의료기술, 임상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간 파트너로서 역할

○ 스칸디나비아 및 아랍 국가 등과의 협업

□ 로지스틱스

○ 북유럽의 로지스틱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물류 이니셔티브 함부르크(Logistik-Initiative Hamburge)를 추진

○ 50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

○ 7개 아시아의 주요 해운기업을 유치

□ 크리에이티브 협회

○ 2010년 창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Hamburg Kreativ Gesellshaft를 설립

○ 11개 세부분야(건축, 미술, 행위예술, 디자인, 필름, 문학, 음악, 언론, 라디오, 소프트웨어/게임, 광고 등)별로 역량개발 및 행정개혁 등 정책적 지원 또는 가교 역할을 담당

□ 재생에너지

○ 함부르크의 5개 대학과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네트워크를 형성

○ 국제 클린테크 네트워크(International Cleantech Network)를 지원

○ 'Strategy 2020' 전략을 통해 풍력발전 이외에 에너지 저장 등과 관련 기반을 확대할 예정

□ 의료 분야

○ 2009년 함부르크는 의료 분야 클러스터 마련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GWHH를 자회사로 설립

○ 의료분야의 기술혁신 외에 고용 확대, 지역 내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포함

○ 약 6,100여개 기업, 약 16여만명을 고용

○ 2012~2104년 중 GWHH는 3개 기업 및 함부르크 대학과 공동으로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고도화(smart assistance for senior citizen)를 추진한 바 있음

□ 해양 클러스터

○ 2017년에 해안지역 5개 지역정부인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메클렌부르크 포메라니아(Mecklenburg-West Pomerania), 니더작센(Lower Saxony),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이 공동으로 해양클러스터(Maritimes Cluster Norddeutschland, MCN)를 추진

○ 선박건조, 선박건조 관련 기업, 해양기술, 해운업무, 해양 연구, 역외 풍력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협업체계 마련,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반 전문기술 확보 등에 초점

다. 최근 동향 및 기사

□ 2015년 OECD Leadership 모범 사례로서 사회·경제적 합의, 성장전략, 도시개발 등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

□ 함부르크는 최근에는 디지털 및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기존의 디지털 컨설팅 민간회사인 Hamburg@Work, 함부르크 사회정신 의학회(Hamburgische Gesellschaft fűr Wirtshaftsfőrderung), 상원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 중

라. 시사점

□ 함부르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은 클러스터 정책의 연계성 및 다양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산업기반과 연계한 금융기반 강화에 있음

○ 함부르크의 금융중심지 기반은 선박금융 등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의료, 재생에너지 등 복합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

○ 함부르크의 금융중심지 역할 강화는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형성된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주택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지속적인 정책적 유연성을 통한 혁신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선박 및 항공분야에 있어서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혁신 중심의 정책이 기존 업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 항공 및 해운업무 등은 기존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및 리더십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항공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인접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분야의 기업 및 학계 등의 협업을 통해 혁신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경쟁우위를 유지

□ 주택공급 등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경쟁력이 타 금융중심지 또는 경쟁지역 대비 금융중심지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지역산업 확장 등에 따른 주택수요 증대에 직면하여 적극적인 공공택지 개발과 저비용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주거지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환경친화적 또는 지속가능성 중심 정책 등이 함부르크의 중심지 역할 강화에 기여

○ 함부르크는 핀테크 분야에서 베를린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관련 기업의 창업 또는 자금조달에서 우위를 차지

4. 칭다오(Qingdao)

가. 개요

□ 칭다오는 산동반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북동쪽의 옌타이(Yantai)시, 서쪽의 웨이팡(Weifang)시, 남서쪽의 르자오(Rizhao)시의 3개 도시와 인접해 있음

○ 도시의 총 관할 구역은 10,654 평방 킬로미터(4,114 sq mi)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정도의 크기임

□ 칭다오의 인구는 2014년 현재 약 904만 명이고, 그 중 도시거주 인구는 약620만 명임

○ 38개의 중국 소수 민족이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0.14%를 차지함. 2009년까지 칭다오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약 10만 명에 달하며 베이징에 이어 2위임

□ 칭다오는 주요 항구, 해군 기지 및 산업 중심지임

○ 세계에서 가장 긴 해교 교량인 자오저우 베이 다리는 칭다오 주요 도시 지역과 황다오지구를 연결하며 자오저우만 해역을 사이에 두고 있음.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양조장인 칭다오 양조장의 부지이기도 함

□ 2018년 3월 칭다오시는 GFCI 에서 33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상하이, 선전, 베이징, 다롄 등 기타 중국 도시가 목록에 올랐음

○ 2007년에 칭다오는 2007년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중국 도시 브랜드 가치 보고서 (Chinese Cities Brand Value Report)에서 중국의 상위 10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됨

나. 경제

□ 중국 동부의 중요한 지역인 산둥성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으며 발전의 대부분은 칭다오에 집중되었음

□ 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칭다오 지역총생산(GRDP)은 1조1,037억 2,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함

○ 이는 2017년 중국 전체 성장률인 6.9%를 크게 웃도는 성적으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전진)'을 제대로 실현했다는 평가임

○ 1차 산업 생산규모는 3.2% 늘어난 380억9,700만 위안, 2차 산업은 6.8% 증가한 4,546억 위안, 3차산업은 8.4% 급증한 6,110억 1,000만 위안으로 산업구조도 계속 선진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특히 서비스업의 칭다오 경제성장 기여도는 59%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음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주목되는데 2018년 1~3분기 칭다오 신경제 법인은 12만9,000개로 전체 법인의 43.4%에 육박함. 2017년 하이테크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579억5,000만 위안으로 10.9% 급증했으며 전체 GRDP의 2.6%를 차지함. 전략적 신흥 산업 부가가치 생산도 11.7% 급증한 806억 5,000만 위안으로 집계됨

<그림 Ⅳ-6>　2017년 중국 31개 지역 GDP 및 성장률

자료 : 澎湃新聞, KOTRA

□ 국제적으로 칭다오는 1903년 독일-영국 합작으로 설립한 Tsingtao Brewery로 알려진 칭다오 맥주는 가장 유명한 중국 수출 맥주인 '칭다오 맥주'를 생산함. 또한 대형 백색가전 제조업체인 하이얼(Haier)사와 주요 전자회사인 하이센스(Hisense)사가 있음

□ 1984년에 중국 정부는 칭다오 특별구를 특별경제기술개발구(SETDZ)라고 명명함

○ 칭다오시는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 외국 투자 및 국제 무역으로 번성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많았음

다. 해양경제 중심지로서 칭다오

□ 최근 동향

○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가 글로벌 '해양경제(海洋經濟)'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 기간 중 중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으며, 2018년도 13기 전인대를 맞아 시주석은 3월 8일 산둥성 전인대 대표단 심의회에 참석, 재차 해양강국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 칭다오의 해양경제 경쟁력 강화

○ 칭다오는 지리적으로 한국, 일본과 인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177개 항구 도시와 연결돼 해상 물류허브로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다수의 해양 관련 대학 및 기관도 칭다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데, 칭다오에는 중국해양대학(中國海洋大學), 중과원해양소(中科院海洋所), 국가해양국제일해양소(國家海洋局第一海洋所) 등 26개에 달하는 유관 기관이 자리잡고 있음

□ 향후 중점 추진전망

○ 칭다오는 적극적인 해양경제 육성 계획을 통해 해양산업 생태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칭다오시는 신흥 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임

○ 해양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칭다오시는 란구취(藍谷區)를 해양경제발전 시범구(海洋經濟發展示範區)로 지정, 해양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칭다오시는 이 시범구에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신흥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이 지역을 중국 해양경제의 '메카'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임

○ 칭다오시는 해양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특화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동시에 핵심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해 해양산업의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임

○ 해양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 강화가 칭다오시의 역점 사안임. 특히 칭다오는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에서 핵심 거점 도시로서 국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East Asia Marine Cooperation Platform)도 칭다오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시사점

○ 앞으로 칭다오시는 세계적인 항만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무역, 금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국제적인 해양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임

5. 밴쿠버(Vancouver)

가. 개요

□ 캐나다는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2018년 IMD[20]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캐나다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종합 순위 10위를 차지했으며, 4대 평가분야인 경제성과(13위), 정부효율(9위), 기업효율*(7위), 인프라(7위) 부문에서 모두 상위권에 랭크됨

*** 금융경쟁력은 9위를 기록**

○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2017-2018)[21]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체 순위 14위를 차지했으며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항목에서는 7위를 기록함

□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지역의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의 대표도시로 조지아 해협의 버라드만(灣)과 프레이저강(江)의 삼각주 사이에 위치해 있어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기 좋은 지리적 장점이 있음

○ 항구는 대규모의 부두와 곡물 엘리베이터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LA, 롱비치 등 기존의 미 서부 항구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밴쿠버와 프린스루퍼트항이 대체 항구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캐나다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BC주의 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미의 상권이 교차하는 요충지로 캐나다-중국 무역의 핵심 허브이며, 미국과 아시아 시장 간의 연결 고리임

□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는 전체 캐나다 GDP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 BC주의 2017년 GDP는 0.23조 CAD로 전체 캐나다 GDP(2.14조 CAD)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캐나다 인구의 약 13%가 살고 있음

□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지역의 소매부문 중심지로 BC주는 전체 소매시장의 14.3%를 차지하고 있음

○ BC주의 소매매출은 2017년 기준 699억 CAD로 전체 캐나다 소매시장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대비 9.6% 증가하며 최고 판매성장률을 기록

20)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21) 2017-201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표 Ⅳ-4> 캐나다의 지역별 소매판매 현황

	매출규모 (백만 CAD)	매출비중 (%)	연간증감률 (%)
온타리오	179,051	36.7	6.9
퀘벡	103,909	21.3	5.8
브리티시컬럼비아	69,929	14.3	9.6
앨버타	67,316	13.8	8.0
사스카츄원	16,597	3.4	4.1
마니토바	16,519	3.4	4.0
노바스코샤	12,977	2.7	6.5
뉴브런즈윅	10,613	2.2	6.8
뉴펀드랜드 래브라도	7,699	1.6	2.9
P.E.아일랜드	1,993	0.4	7.8
유콘	651	0.1	4.2
노스웨스트 준주	641	0.1	3.7
누나부트	373	0.1	5.1
합계	488,268	100.0	

주: 2017년 기준
자료: Kotra「2018년 캐나다 소매시장 변화 및 우리 기업 진출 시사점」(2018.1)

□ 또한 BC주는 지난 8년간 100개가 넘는 세금감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북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음

나. 금융환경 및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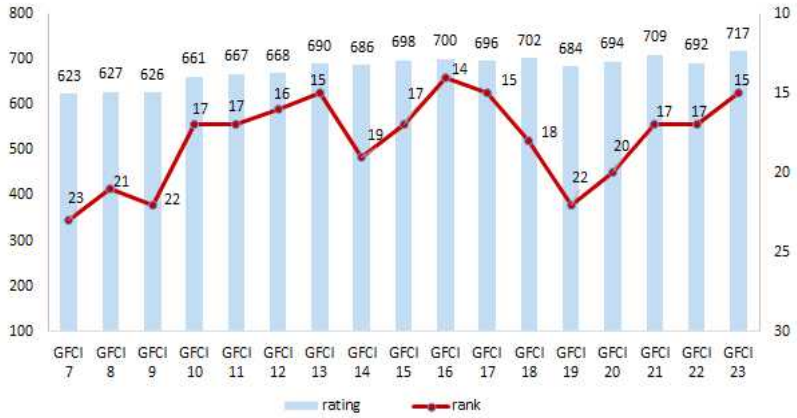
□ 캐나다는 넓은 국토 전역에 걸친 지점망으로 인해 금융중심지에서 취급하는 소매금융 비중은 낮은 반면,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전산처리, 리스크 관리와 같은 후선업무에 대한 비중이 높음

○ 특히 밴쿠버는 은행업에서 판매금융, 결제, 모기지중개업, 신용조합(Credit Unions), 증권업에서는 대외무역 관련 결제·금융,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지원 등에 중점을 둠

□ 밴쿠버의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2010년(GFCI 7) 이후 꾸준히 10~20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밴쿠버는 2016년(GFCI 19) 22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2018년 3월(GFCI 23) 현재 717점으로 15위를 기록하며 지난 발표보다 2단계 순위가 상승함

<그림 Ⅳ-7> 밴쿠버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자료: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2010~2018년 (각호)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1) 글로벌 금융플레이어로서의 역할

□ 캐나다를 대표하는 Big Five(업계를 지배하는 5대 은행)은행이 BC주에서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우위를 보임

○ 캐나다의 5개 대표은행인 Royal Bank of Canada, Toronto Dominion Bank, Scotiabank, Bank of Montreal,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가 BC주에서 영업 중임

○ HSBC, 중국 농업 은행, 인도 주립 은행 및 미즈호 금융 그룹은 BC주에 캐나다 본사를 두고 있음

○ 밴쿠버는 부유한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세계 10 위의 자산 관리 센터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중국공상 은행(ICBC)이 밴쿠버에 자산 관리 본부를 개설함

□ 밴쿠버는 미국 은행산업의 규제 이슈를 비롯하여 표준시간대(time zone)나 세제상의 이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성사시킴

○ 최근 BOC(Bank of China)는 미국의 4개 주에서 영업하던 무역금융센터(trade finance center)를 통합하여 밴쿠버로 영업기반을 이전

○ 미국의 경우 외국계 은행은 연방법과 주법의 규제를 받는 등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부문에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음

○ 밴쿠버의 표준시간대(time zone)는 아시아 국가의 금융회사가 본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유리하며, 캐나다 주 중에서 밴쿠버가 속한 British Columbia주의 세율(tax rate)이 은행직원에게 가장 유리

*** 인근 앨버타(Albert)주가 일률 과세(flat tax)인데 반해 BC주는 12만5천불까지 제일 낮은 세율(tax rate)를 제공하고 있음.**

2) 국제금융센터(AdvantageBC)

□ AdvantageBC는 밴쿠버의 국제금융센터로서 30년 전 설립된 Vancouver Board of Trade(1988)를 모태로 발전된 회원 중심의 협회임

○ British Columbia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는 1988년 동 협회가 결성됨과 동시에 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 Act를 제정함으로써 AdvantageBC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동 법의 제정은 BC주에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국제금융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 Act는 최근까지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Act로 존치하였으나, 2017년 9월 12일 현재 동 법에 포함된 주요 세제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의 효력 또한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Tax Refund Act에 따르면 국제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및 금융기관은* BC주 지방세인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 소속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연 만 불까지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환급효과가 발생

*** 밴쿠버뿐만 아니라 BC주 어디에 회사가 위치해도 무방함.**

○ 이러한 변화는 국제금융도시로서 밴쿠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감소했다기보다 이해관계자 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다양하고 고학력의 인력, 최고 수준의 IT 및 교통 인프라 기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등 밴쿠버의 핵심경쟁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3) 인민폐 거래소

□ 중국 인민폐 거래소는 전 세계 9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캐나다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인민폐 거래소로 지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캐나다 및 미주·중남미 지역 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거래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표준시간대 이점(Time Zone Advantage)도 존재

○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 달러화 결제를 거치는 거래 과정을 없애 수수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특히 밴쿠버는 아침 시각이 서유럽과 겹치고 마감 시각이 동아시아 업무의 시작과 맞물려 표준시간대 이점(Time Zone Advantage)이 존

재해 다른 지역과의 거래 시 시간 차이에 따른 시장 공백 상황을 염려할 필요가 없음

○ 현재 BOC는 일찍 개장하는 토론토 지역과 늦게 폐장하는 밴쿠버 두 지역에서 청산(settlement office)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캐나다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로 위안화 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새로운 수수료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음

6. 두바이(Dubai)

가. 개요

□ 두바이는 페르시아만의 남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114㎢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번째로 크고, 인구는 301만명(2018년 3월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최대임

○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가운데 하나인 두바이 토후국의 수도임. 도시는 아랍에미리트 북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바이-샤르자-아지만 대도시권을 이끄는 중심 도시임. 두바이는 요즘 도시 국가 또는 독립된 국가로 자주 오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UAE를 대표하여 "두바이"로 표기하기도 함

□ 두바이는 중동의 글로벌 도시이자 비즈니스 허브이며, 또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세계적인 주요 허브임

○ 석유 수입은 도시의 초기개발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매장량은 제한적이며 생산 수준은 낮음. 오늘날 두바이의 경제는 이제 관광, 항공,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의 수입에 의존함

□ 두바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스포츠 행사,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Burj Khalifa)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아시아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시장이 침체되면서 두바이 역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큰 타격을 입음

○ 그러나 2013년 옥스퍼드 비지니스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 토후국들이 도와주면서 점차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 2012년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22위에 올라 중동지역 도시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서(Mercer)는 2011년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함

○ 2012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t Unit)의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에서 55.9점을 얻으며 40위에 올랐으며 2013년 미래 도시 경쟁력 지수에서 향후 2025년에 두바이가 23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함

나. 경제

□ 2017년 두바이의 GDP는 410.5억 디르함(1,117.7억 달러)이며, 경제성장률은 3.7%임

○ 2017년 UAE의 명목GDP는 4,075.7억 달러로, 전체 GDP중 두바이는 27.4%정도를 차지함

<표 Ⅳ-5> 두바이 2016-2017년 항목별 GDP

(단위: 백만 디르함)

Economic Activity	النقاط المئوية Percentage Point	نسبة النمو Growth Rate %	*2017		2016	
			نسبة المساهمة % Percentage Contribution %	القيمة Value	نسبة المساهمة % Percentage Contribution %	القيمة Valu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0	4.2	0.1	520	0.1	499
Mining and quarrying	0.2	32.5	1.0	3,950	0.8	2,980
Manufacturing	0.1	0.9	9.0	37,103	9.3	36,760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0.2	5.1	3.4	13,832	3.3	13,156
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activities	0.0	19.1	0.1	269	0.1	226
Construction	0.3	5.4	6.5	26,751	6.4	25,386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0.4	1.5	25.8	105,797	26.3	104,227
Transportation and storage	0.4	3.3	11.2	46,080	11.3	44,620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0.0	0.4	4.0	16,463	4.1	16,40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1	2.1	4.0	16,399	4.1	16,061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0.2	2.2	11.0	45,085	11.1	44,123
Real estate activities	0.3	4.7	6.8	27,957	6.7	26,70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0.1	3.0	4.0	16,221	4.0	15,744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0.1	3.1	3.3	13,747	3.4	13,335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1.0	16.3	6.8	28,103	6.1	24,157
Education	0.1	8.6	0.7	2,894	0.7	2,663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0.1	11.1	1.0	4,187	1.0	3,770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0.0	0.1	0.3	1,167	0.3	1,166
Other service activities	0.0	6.2	0.5	1,987	0.5	1,871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0.0	3.4	0.5	2,054	0.5	1,986
Gross Domestic Product	**3.7**	**3.7**	**100**	**410,564**	**100**	**395,835**

자료: 두바이 경제정책부(Annual Economic Report 2017)

□ 두바이의 무역 인프라의 핵심요소는 석유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석유 및 천연 가스로부터의 수입은 토후국 전체 수입의 5% 미만을 차지함

○ 두바이는 하루에 50,000~70,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해양 분야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됨

○ 두바이의 석유 매장량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20년 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및 건설(22.6%), 무역(16%), 창업(15%) 및 금융 서비스(11%)가 두바이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두바이의 무역(석유 제외)은 2014년에 3,620억 달러를 기록, 총 무역량 중 수입은 2,3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과 재수출은 각각 310억 달러와 101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중국은 두바이의 가장 큰 국제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총 무역액 규모는 477억 달러로 2013년 대비 29% 증가함

○ 다음으로 인도가 297억 달러, 미국이 226.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142억 달러, 독일 123억 달러, 스위스와 일본은 117억 달러, 영국과의 무역액은 109억 달러임

□ 역사적으로 두바이와 두바이 크릭(Dubai Creek), 데이라(Deira, 당시 두바이시티와 독립)는 서구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항구로 신도시의 금융 및 금융 센터 대부분은 항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

○ 두바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금 수입이 제한된 1990년 이전까지 금 자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인도에 금괴를 수출하는 "활발한 밀수 거래"의 중심지였음

□ 1970년대에 건설된 두바이의 제벨 알리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 세계적으로 7위를 차지함

□ 두바이는 정보기술 및 금융과 같은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이며, 도시 전역에 산업별 자유 지역이 있음

□ 석유의존 경제에서 서비스 지향적 관광 중심으로 다양화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함

○ 그러나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간의 평가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자산은 2001년에서 2008년 11월까지 부동산가격의 64%까지 떨어짐

○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에미레이트 항공 타워, 버즈 칼리파, 팜 아일랜드 및 가장 비싼 호텔 인 버즈 알 아랍 (Burj Al Arab)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 및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건설되었음

○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둔화의 결과로 2008년과 2009년에 큰 하락을 경험했으며, 2009년 초까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가격, 건설 및 고용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2009년 2월 현재, 두바이의 대외부채는 약 800억 달러로 추산됨

다. 금융센터 및 증권거래소

□ 두바이 증권거래소(Dubai Financial Market: DFM)는 국내 및 해외 단기 매매 증권과 채권의 유통 시장으로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음

○ 2018년 8월 시가총액은 1,040억 달러로 전세계 증권거래소 중 40번째로 큰 거래소 임

□ 나스닥 두바이(NASDAQ Dubai)는 중동의 지역 및 국제 주식을 열거한 두바이 기반 증권 거래소임

*** 나스닥 두바이는 2005년 9월 두바이 국제금융거래소(DIFX)로 개설되었고, 2008년 나스닥 두바이로 브랜드가 바뀌었음**

○ 거래소를 통해 지역발행사는 지역 및 국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국제발행사는 1차 또는 이중상장을 통해 해당 지역의 투자가 가능함

○ 나스닥 두바이의 거래 대상 지역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나머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더 넓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터키 및 인도 대륙이 포함됨

○ 나스닥 두바이는 2004년 사업을 시작한 금융 자유구역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두바이 금융서비스국(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의해 규제됨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는 2004년 110헥타르 규모의 지구로,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MEASA) 시장을 위한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로 출범함

○ DIFC는 자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기관 및 사법 제도, 관습법 체계, 국제금융거래, 세제 친화적 정권, 대형 국제 경제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지역에는 다국적기업, 소매점, 레스토랑, 주거 공간, 호텔 등이 있으며 펀드 및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포함됨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세 개의 독립기구로 운영됨

○ DIFC 당국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전략적 개발, 운영 관리 및 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관리기관임

○ 두바이 금융서비스국(DFSA)은 중앙 및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DIFC의 모든 금융 및 비금융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센터에서 수행되는 모든 재정적 및 부수적 서비스를 규제함

○ DFSA는 돈세탁 방지, 대테러 자금 조달 및 제재 준수와 관련하여 DIFC에 있는 사람들의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패널티를 포함한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는 DIFC 법원, DFIC-LCIA 중재 센터, DIFC 법학원을 통합하며 센터의 독립적인 관리 및 사법 집행을 담당함

□ DIFC의 장점

○ 두바이는 중동지역의 이웃 주변국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확고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음

○ DIFC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기존 국제금융센터의 선진화된 금융 관련 규범을 벤치마킹하여 금융감독 회계기준 등이 중동지역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고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가까운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세금 면제, 100% 외국인 소유 허용, 무제한 과실 송금 등 DIFC 내 입주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 통신, 전기 등 각종 사회 인프라가 주변국에 비해 우수하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주요국에 대한 비자면제 및 항공, 호텔 등 비즈니스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에 비해 우수

○ DIFC 구성원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 언어소통이 100% 가능하며 각종 서류도 아랍어가 아닌 영어로만 제출

○ DIFC 관청(Government Office) 내에 보건소 등을 설치하여 입주기업 직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관련 건강검진 등 각종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자체적으로 제공

○ DIFC UAE는 국내법과 완전히 독립된 법률체계를 지니고 있어 DIFC UAE 입주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타르,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금융센터와 차별

□ DIFC의 단점

○ DIFC는 소매금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초설립 은행(Start-up)을 허용하지 않아 타 지역에서 기존에 설립 인가를 받은 은행이 아니면 DIFC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제약 존재

○ 또한 UAE내 예금을 수취할 수 없으며, 현지 화폐를 통한 일체의 금융거래가 불가

○ 높은 사무실 임차료

○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연간보고서 제출, 상업등기 갱신, 비자 발급 및 취소 등 모든 행정절차에 과다한 수수료 징수

□ DIFC는 '2024전략'으로 2014년 대비 향후 10년 동안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회사 유치를 3배로 늘리고, DIFC에서 관리중인 자산을 174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DIFC가 자유구역의 임대공간을 2014년 250만 평방피트에서 2024년 550만 평방피트로 2배로 늘리고 2024년까지 근무직원 수를 17,860명에서 50,000명으로 늘릴 계획임

7. 멜버른(Melbourne)

가. 개요

□ 호주의 2017년 말 명목 GDP는 1조 3,795억(전세계 GDP의 1.7%)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없이 27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호주 경제는 금융·보험·부동산·비즈니스 등 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건설 및 제조업은 취약한 형태임

○ 호주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6월 기준 전체 총부가가치의 76.5%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 및 제조업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특히, 전체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이 9.4%로 호주 경제성장 기여도 1위를 기록함

<표 Ⅳ-6> 호주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단위: %)

농림수산	광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0	6.3	7.9	6.3	76.5	9.4

주 : 2017년 6말 Gross Value Added 기준
자료: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8

□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VIC)는 메디컬, 바이오, 정보통신 산업 및 교육의 중심지이며, 멜버른항은 호주 최대 규모의 수입통관 항구임

○ 빅토리아주(VIC)에는 세계 탑10 바이오 및 메디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멜버른시는 바이오 메디칼의 중심지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공와우 전문회사 Cochlear사, 생체공학 안구 전문회사인 Bionic Eye사의 본사가 있음

○ 멜버른항은 호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6%를 차지고 있으며, 호주 전체 수입시장의 2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호주 최대 규모의 수입통관 항구임(2017년 기준)

○ 멜버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게임, 핀테크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Data-61, NBN Co,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사이버보안센터와 호주의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CSIRO)본부 역시 멜버른에 위치함

□ 또한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독자적인 상권 구축이 용이함

○ 영국 경제전문 언론사인 Economist에서 매년 전세계 14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 의료 서비스, 문화·환경,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평가하여 발표하는데 2017년 기준 7년 연속 1위를 기록

○ 이에 따라 인구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멜버른의 인구는 시드니에 이어 2번째로 높은 485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은 시드니를 앞서고 있어 향후 인구밀집지역에 따른 상권 구축이 용이함

* 2005년~ 2015년 사이 증가한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시드니는 70만 명, 멜버른은 83만 명, 현 추세라면 멜버른의 인구는 2053년에 시드니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22]

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 호주의 금융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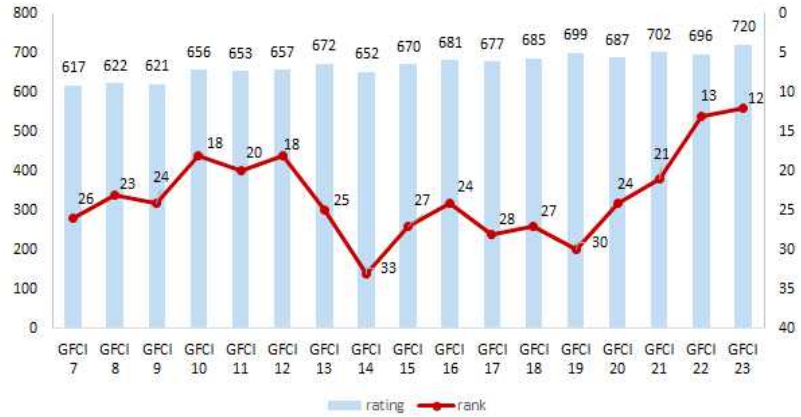
○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2017-2018)[23]에 따르면, 호주는 조사대상 137개 국가 중 전체 순위 21위를 차지했으며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항목에서 6위를 기록함

* 은행건전성(Soundness of banks) 항목은 4위

□ 멜버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2010년(GFCI 7) 26위(총점 617점)를 기록한 이후 20~30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2018년 3월 현재 12위(720점)를 기록함

22)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4.2
23) 2017-201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그림 Ⅳ-8> 멜버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자료: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2010~2018년 (각호)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1)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

□ 멜버른은 호주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7~2021년 스타트업 액션 플랜을 계획

○ 지난 10년 간 멜버른 스타트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전체의 25%까지 증가(6만개 직업)했으며,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투자유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멜버른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유니콘[24]으로 성장한 기업인 Realestate.com.au(부동산 디지털 광고), Seek.com.au(구인구직), Carsales.com.au(온라인 자동차 매매)의 가치는 각각 87억, 59억, 20억 호주 달러임.

○ 따라서 'Start, grow and go global'이라는 비전 아래 400여 개의 현지 스타트업 및 관련 기관,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마련

24)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도 하기 전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

○ 해외 우수 인재들의 창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정부 산하 LaunchVic, 비영리협회 Startup Victoria 등을 중심으로 자금지원과 멘토링,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또한 멜버른은 우수한 인재, 다양한 인종과 언어, 살기 좋은 거주환경 등의 장점을 보유

○ 멜버른은 호주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인종·다언어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됨

○ 이에 따라 최근 덴마크 Zendesk(고객서비스 소프트웨어), 미국 Slack(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미국 Square(카드 결제 소프트웨어) 등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시아 대양주 지역본부로 멜버른을 선택하고 있음

<표 Ⅳ-7> 빅토리아주 스타트업 지원 기관

주요기관	설립목적 및 활동내역
Launchvic	• 설립 목적: 2016년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새롭게 설립한 기관으로 스타트업, 새로운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4년 동안 6,000만 호주 달러의 예산 배정 • 활동 내역: 멘토링, 이벤트, 마케팅 캠페인 지원, 해외 인재 영입 등이 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26개의 프로젝트에 펀드 제공
Startup Victoria	• 설립 목적: 빅토리아 주정부와 PWC의 스폰서 하에 창업자들을 연결해 함께 격려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빅토리아주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발전을 도모 • 활동 내역: 1만7000명의 회원을 확보한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트업 비영리 협회, 정기적으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관련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할인 혜택
City of Melbourne (Small Business Grant)	• 설립 목적: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멜버른시의 명성을 높이고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마련 • 활동 내역: 1996년에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60여 개의 창업자들에게 총 800만 호주 달러의 자금을 지원. 혁신성과 창조성(30%), 사업성(25%), 금융 실용성(20%), 멜버른시에 기여도(20%), 도덕성 및 기타요소(5%)로 평가

자료 : Startup Victoria

□ 멜버른의 스타트업 유망업종은 바이오·메디컬 등 IT 산업을 포함한 6가지 분야임

○ 멜버른은 스타트업 유망업종으로 바이오·메디컬·디지털게임·스포츠·식품서비스·사이버보안 등 6가지 사업 분야를 'Startup Action Plan'에 포함

<표 Ⅳ-8> 멜버른의 스타트업 유망업종

산업분야	주요내용
바이오 테크 메디컬 테크	• 빅토리아주에 세계 탑10 바이오 및 메디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 • 특히 멜버른시는 바이오메디칼의 중심지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Cochlear Implant, Bionic Eye사의 본사가 있으며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
디지털 게임	• 호주 디지털 게임 개발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 서비스 업체의 절반이 멜버른에 기반. • 매년 30여 개의 게임 관련 코스를 공부한 1,000여명의 게임 전공 대학생을 배출해 우수한 인재와 공유 사무실 등을 보유
스포츠 테크	• 호주의 인기 스포츠 종목인 호주 풋볼 리그(AFL), 수영, 크리켓, 테니스, 네트볼, 스포츠 협회의 본사가 멜버른에 위치 • Catapult, GuardLab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
식품 서비스	• 멜버른은 미식가의 도시로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소셜 푸드, 유통산업의 규모가 증가. Social Food Project, Vinomofo와 같은 식품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이 성장
사이버 보안	• 최근 Data-61, NBN Co, 옥스포드 대학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센터가 멜버른에 설립. •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도 특별히 이 분야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

자료 : Melbourne Startup Action Plan Report

□ 또한 멜버른에는 사무실과 멘토링 등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 멜버른시를 포함한 빅토리아주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사무실(150여 개), 창업자들의 59%가 전문가들을 멘토 또는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음

○ 스타트업 기업의 81%가 대학교, 연구기관, 유통사, 관련 산업협회 등과 같은 외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음

2)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 정책

□ 호주는 다민족·다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유리함

○ 2001년부터 금융전공 우수학생에게 금융회사 인턴쉽을 제공하는 산학연계 과정인 'Axiss Scholar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정부(AXISS Education)와 금융협회·대학·직업연수기관·감독당국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협회(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Training Alliance: AFSTA)간 연계사업*을 통해 금융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금융회사의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영역별 전문과정 프로그램 , 금융전문인력 및 연수에 관한 토론회 개최, 금융자격제도의 관리,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등

8. 텔아비브(Tel Aviv)

가. 개요

□ 이스라엘은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지리적 특성상 방위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임

○ 이스라엘의 방산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전년대비 40% 증가한 91억 달러를 기록함

○ 국방 예산 규모는 194억 달러 수준이며,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군수부문 비중이 30%로 세계 1위임

<표 Ⅳ-9>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규모

(단위: 억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규모	75	65	56	57	65	91
증가율	29.3	-13.3	-13.8	2	14	40%

자료: 이스라엘 국방부 최신자료

□ 또한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국가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 스타트업 창업투자 및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이스라엘 전체 GDP(2017년 기준)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이상이며, 총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IMD[25]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이스라엘은 63개국 중 인구 및 GDP 대비 연구인력/R&D 투자부문 1위, ICT 서비스 수출 1위를 기록함

○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2017-2018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37개국 중 최신기술 가용성 4위, 기업의 기술수용능력 3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기술이전 6위를 차지함

○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전세계 창업투자의 3.5%를 유치함

○ 이스라엘의 나스닥 상장 기업수는 82개(2017년 2월 기준)로 해외기업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외국계) 나스닥 상장사의 20%를 차지

○ 또한 연간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으로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 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창업국가(Start-up Nation)임

□ 이스라엘의 우수한 IT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접근 역시 활발함

○ 구글, IBM, 애플, 삼성 등 27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스타트업 M&A,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진출하고 있음

25)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중국과의 로봇산업, 일본과의 무인기 등 전략분야의 기술협력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이스라엘은 41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세계 주요시장을 무관세로 접근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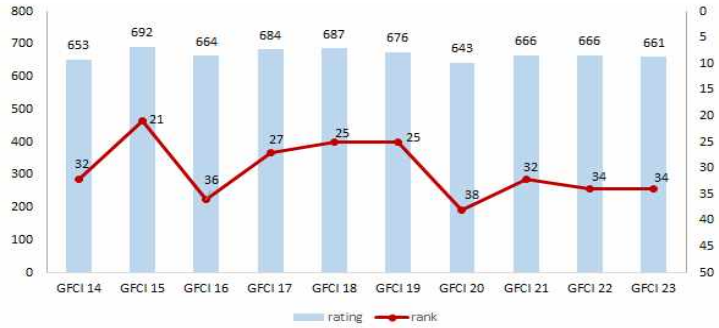
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 텔아비브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30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텔아비브는 2013년 9월 GFCI에서 총점 653점을 받으면서 총 80개 국가 중 32위로 처음 순위권에 등장함

○ 2014년 3월 21위를 기록한 이후 20~30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현재 총점 661점으로 34위를 기록함

<그림 Ⅳ-9> 텔아비브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자료: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각호)

다.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이스라엘은 전 지역에 IT 기업이 산재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텔아비브의 Kiryat Weizmann Science Park와 Herzliya Industrial Zone, 북부 하이파 시의 Matam R&D Park, 예루살렘을 잇는 삼각지대는 이스라엘의 Hi-tech Technopolis로 불리는 지역임

○ 특히 텔아비브 지역은 비교적 오래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로 금융과 행정, 그리고 와이즈만 연구소가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주요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Digital Equipment, 3Com, Motorola가 입주해 있음

□ 2016년 국가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이스라엘 기업은 6개로 미국·영국·호주·중국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기업을 보유한 국가이며, 다른 국가들이 2015년에 비해 기업수가 줄거나 비슷한 반면 이스라엘은 한 개가 증가함

<그림 Ⅳ-10> 국가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보유 현황

No.	2015		2016	
1	미국	35개	미국	25개
2	영국	18개	영국	12개
3	호주	9개	호주	9개
4	중국	8개	중국	8개
5	이스라엘	5개	이스라엘	6개
	독일	5개	캐나다	6개

자료 : 2016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 KPMG and H2 Ventures (2016)

□ 이스라엘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금융시스템에서 활용가능한 신용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 측면의 지원과 함께 하이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누파(TNUFA)'는 인큐베이팅 이전 단계의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초기 스타트업에게 최대 5만 달러, 승인비용의 최대 85%까지를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창업지원 서비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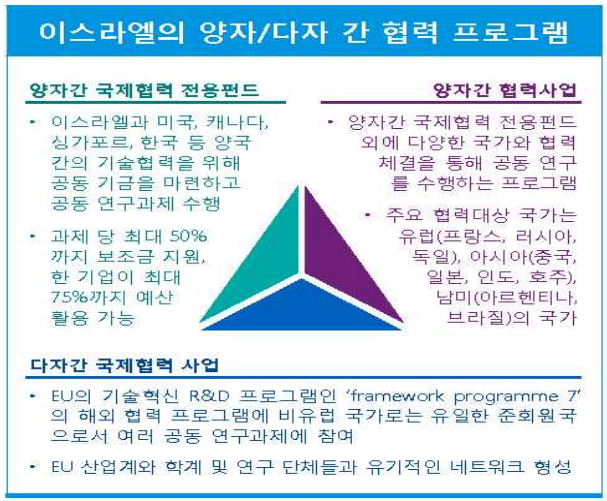
○ 또한 R&D펀드, 기술 인큐베이터, 헤즈넥(HEZNEK) 등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시킴에 따라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또 다른 스타트업을 만들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Ⅳ-10> 이스라엘의 혁신기술 스타트업 지원 정책

지원정책	주요내용
R&D 펀드	• 이스라엘의 혁신기술을 지원하는 종합프로그램 • 승인된 R&D비용중 20~50%까지 지원 가능 • 상업화 성공시, 연매출의 3~5%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 인큐베이터	•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 • 연간예산 3천만 달러, 기업기술개발 총 소요액의 최대 85%를 2년 동안 30~50만 달러 한도로 지원 • 상업화 성공시, 판매에 따른 로열티 납부
트누파 (TNUFA)	• 창업 이전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 각 프로젝트당 최대 5만 달러, 승인 비용의 최대 85%까지 정부지원
헤즈넥 (HEZNEK)	• 신규투자 및 기업설립을 위한 정부창업지원 기금 • 정부는 창업기업에 투자자 매칭펀드 조건으로 투자 • 2년 이내 기업 총 운영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자료: 이스라엘 산업지원 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그림 Ⅳ-11> 이스라엘의 양자/다자 간 협력 프로그램



자료: 이스라엘 산업지원 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9. 방콕(Bangkok)

가. 개요

□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타이만으로 흘러드는 짜오프라야 강 동쪽, 북위 13°45′, 동경 100°31′에 자리 잡고 있음

○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1782년 라마 1세가 나라를 세운 이래 수도로서 태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부와 동북부 그리고 남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임. 또한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 방콕 및 그 주변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1,520만 명(2017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방콕은 약 3천여년간 독립을 지속해 온 독립왕국으로서 태국의 문화유적과 풍물 등 각종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며 동서양을 잇는 아시아의 관문임

○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며 싱가포르, 홍콩과 맞먹을 지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고속 성장의 부작용으로 교통 혼잡, 수질악화 등 중요 기반시설 문제, 사회 문제를 지님

<표 Ⅳ-11>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f
인구	I	백만명	68.297	68.857	68.838	68.981	69.095	69.182
경제성장률	I/N	%	2.7	0.9	2.9	3.2	3.7(3.9)	3.5
명목 GDP	I	USD 10억	420.5	406.5	399.2	407.1	437.8	466.6
명목 GDP	I	THB 10억	12,921	13,204	13,673	14,367	15,171	15,979
실질 GDP	I	THB 10억	9,146	9,230	9,501	9,809	10,173	10,524
1인당 GDP(실질)	I	THB	133,917	134,434	138,023	142,197	147,227	152,122
1인당 GDP(명목)	I	THB	189,191	192,316	198,624	208,298	219,562	230,974
1인당 GDP(명목)	I	USD	6,157	5,921	5,799	5,902	6,336	6,745
1인당 GDP(구매력)	I	USD	15,259	15,592	16,183	16,885	17,786	18,734
소비자 물가	I	%	2.2	1.9	-0.9	0.2	0.6	1.0
실업률	T	%	0.7	0.8	0.9	1.0	1.2	0.7
민간소비	N	%	1.0	0.6	2.2	3.0	3.2	3.2
정부소비	N	%	2.5	2.1	3.0	2.2	0.5	3.2
총고정자본형성(투자)	N	%	-1.0	-2.4	4.4	2.8	0.9	5.5
총투자	I	%/GDP	27.4	24.0	22.2	22.0	22.7	24.1
저축률	I	%/GDP	26.3	27.7	30.3	33.5	32.8	32.2
수출	N	USD 십억	225.4	226.7	214.1	214.3	235.1	251.1
수출증감	N	%	-0.1	-0.3	-5.6	0.1	9.7	6.8
수입	N	USD 십억	218.7	209.4	187.2	177.1	203.2	222.5
수입증감	N	%	-0.1	-7.9	-10.6	-5.1	14.4	9.5
무역수지	N	USD 십억	6.7	17.3	26.8	36.5	31.9	28.5
경상수지	I	USD 10억	-4.8	15.1	32.1	46.8	44.0	37.9
경상수지 비중	I	%/GDP	-1.2	3.7	8.1	11.5	10.1	8.1
외국인투자금액	T	USD 십억	187.3	201.9	188.9	199.9	219.8*	-
정부(공공)부채	I	%/GDP	42.2	43.4	42.7	42.2	40.6	39.6
총 외채	T	USD 십억	141.9	141.7	131.1	132.2	148.3*	-
외환보유고	T	USD 십억	167.2	157.1	156.5	171.8	202.6	-
정책금리	T	%	2.25	2.00	1.50	1.50	1.50	1.50
은행간 금리	T	%	2.20	1.96	1.46	1.45	1.45	-
종합주가지수	T	지수	1,298.7	1,497.7	1,288.1	1,542.9	1,753.7	-
가계부채	T	%/GDP	78.6	79.9	81.2	79.8	78.3*	-
환율	T	THB/USD	30.73	32.48	34.25	35.30	33.94	-

주: 2017년 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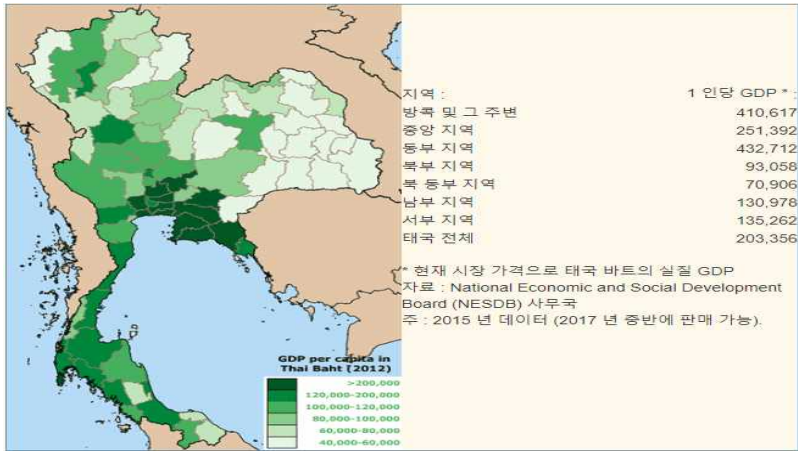
자료: IMF(I), 태국중앙은행(T),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N)

나. 경제현황

□ 2015년 방콕의 GDP는 2,080억 달러로 전체GDP의 52%를 차지하며 1인당 GDP는 410,617 바트임(약12,890달러)

○ 방콕과 주변 지역의 GDP는 태국의 가장 가난한 (가장 인구가 많은) Isaan Region 보다 5배~6배가 더 많음

<그림 Ⅳ-12> 2015년 태국 지역별 1인당 GDP



자료: NESDB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 2010년 방콕 및 그 주변지역의 GDP는 3조 1400억 바트(983억 4천만 달러)로 국내 총생산(GDP)의 29.1%를 차지함

○ 이는 1인당 GDP가 456,911바트(14,301달러)로 국가 평균인 160,556 바트(5,025 달러)의 거의 3배에 해당함

○ 방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합산 생산량은 4,773조(1,493억 9천만 달러)로 GDP의 44.2%에 달함

○ 방콕의 경제는 싱가포르, 홍콩, 도쿄, 오사카, 서울에 이어 1인당 GDP면에서 아시아 도시 중 여섯 번째임

□ 도매 및 소매업은 도시 경제에서 가장 큰 부문으로 방콕 전체 총생산액의 24.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14.3%, 부동산 임대 및 사업 활동(12.4%), 운송 및 통신(11.6%), 금융 중개(11.1%) 등의 순임

○ 방콕 자체가 태국 서비스 부문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49.0%에 해당함. 방콕 수도권을 고려할 때 제조업은 방콕 인근 지역의 산업 밀도를 반영하여 총 지역 생산의 28.2%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함. 관광은 2010년 매출 4,275억 바트(133.8억 달러)를 생성, 방콕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방콕은 태국의 주요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의 본사와 국내 최대의 회사를 가지고 있음

○ 다수의 다국적 기업은 다른 주요 아시아 비즈니스 센터와 비교하여 인력 및 회사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방콕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음

□ 소득 불평등은 방콕의 주요 쟁점이며, 특히 농촌지역 및 주변 국가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이민자 문제, 고소득층과 중산층과의 문제가 심함

○ 절대 빈곤율은 낮지만 방콕에 등록된 거주자 중 0.6%만이 2010년 기준 빈곤선 아래서 살고 있고, 도시의 지니계수가 0.48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있음을 나타냄

다. 가계소득 및 지출 분석

□ 2015년 태국의 연평균 가계소득은 32만 3천 바트(9,430달러), 가계지출은 25만 4,000 바트(7,400 달러)로 소득 대 지출 비중은 78.6% 수준임

□ 지역별 소득 수준은 방콕 및 주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어서 중부, 남부, 북동부, 북부의 순임

○ 태국 내 연소득 60만 바트(1만7,500 달러) 이상 가구 비중은 11.2%이며, 방콕 및 중부지역의 경우 23.5%가 이에 해당하나 북부지역의 경우 4.8%에 불과

○ 수도권 지역으로의 부의 집중 현상으로 고급소비재 및 서비스 상품의 주요 시장은 여전히 수도권 지역임

<표 Ⅳ-12> 태국의 지역별·소득구간별 연평균 가계소득

(단위: 바트, 달러, %)

	전체	방콕 및 주변*	중부	북부	북동부	남부
2015년 연평균 소득(밧)	322,980	492,024	319,212	227,424	253,128	315,432
2015년 연평균 소득 (달러)	9,430	14,366	9,320	6,640	7,391	9,210
2011년 연평균 소득(밧)	238,832	499,572	249,864	208,200	218,604	327,912
2011~15년 증감률(%)	15.8	-1.5	27.8	9.2	15.8	-3.8

주: 1) 방콕 및 주변지역은 방콕, 논타부리, 파툼타니 및 사뭇프라깐 지역을 의미
2) 2015년 평균환율 1달러=34.25 밧
자료원: 국가통계청(NSO)자료를 기반으로 방콕무역관 작성

자료: Kotra(태국인의 소득 및 소비 성향을 알면 태국이 보인다?, 2017년)

라. 태국 증권거래소(SET)

□ 방콕 증권거래소는 1962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개인소유로 운영되다가 제2차 국가 경제사회 발전계획(1967-1971)에 따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1975년 태국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였음

○ 2014년 9월 SET는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Sustainable Stock Exchanges*) 사업에 동참한 최초의 동남아 국가 및 아세안 회원국이 됨

* SSE는 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협약(UN 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UN PRI),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등 UN 산하기구들이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발족한 기구

□ 태국 증권거래소(SET)는 방콕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시가총액은 17.92조 바트(미화 5,600억 달러)이며, 상장기업 수는 688개임

□ 증권거래법(SEA) (1992)에 정의된 SET의 주요 역할

○ 상장 증권거래를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며 증권 거래 촉진에 필요한 필수 시스템 제공

○ 결제기관, 증권보관센터, 증권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과 같은 증권 거래소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행

○ SEC가 승인한 다른 업무를 수행

<그림 Ⅳ-13> 태국 증권거래소(SET)의 역할

10. 글로벌 금융중심지 확충 및 발전에 대한 시사점

□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지역적 특성 및 지역경제와의 관계, 지자체의 개발정책 등에 의한 영향력이나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나 신산업 정책, 금융서비스의 혁신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금융중심지

□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전문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금융종사자의 장기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또는 환경, 교통 등 도시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확충

○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우수한 금융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금융기업의 유치 외에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은 금융센터의 설립 등을 통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도시환경과 주거개선 노력도 강화*

* 최근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수요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거안정과 도시환경을 개선

나. 산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클러스터(cluster) 역할

□ 글로벌 선도 금융중심지는 지역경제의 주축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산업기반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충을 통해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특징

○ 함부르크 및 광저우 등의 경우 해운·항만업 또는 제조업 등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선행효과를 창출

○ 또한 실물경제의 둔화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 산업기반 확대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제고에 기여

□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별 집적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금융 역할도 확대

○ 클러스터 형성은 관련 기업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금융서비스의 역할을 강화

○ 특정 산업에 전문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별 동향을 감안하여 다양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글로벌 연계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업 관련 자회사 유치와 같은 선도효과를 창출해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

○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산업기반과 연계된 경우가 많고, 산업기반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역할이나 무역 및 수출 규모 등이 주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

○ 기존 업종뿐만 아니라 혁신형 기술업종의 경우에도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거나 발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에 의해 관련 전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를 확대

다. 혁신(innovation)과 연계한 금융중심지의 역할 강화

□ 최근 들어 제4차 산업이나 생명공학, 의학,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 기반 혁신산업 유치 및 확충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장기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경향

○ 기존 산업 위주의 금융중심지 역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IT 기

술혁신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정체 시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위축되는 경향

○ 반면 멜버른 또는 텔아비브 등의 경우와 같이 생명공학, 의학, IT, 군사기술,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등 신성장 산업 전략과 연계된 금융중심지의 위상은 개선되는 추세

□ 창업기업(start-ups), R&D 센터, 해외 유수 창업기업의 유치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형 금융서비스와 연계성을 제고

○ 창업기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사모펀드 등과 같은 전문투자기관 ICO, P2P,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혁신산업의 육성은 투자 중심 또는 장기금융 중심의 금융중심지 기능의 활성화에도 기여

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발전

□ 지역특성을 감안한 독립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근거한 성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협업 또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

○ 밴쿠버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 강화 전략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예: AdvantageBC)과도 밀접히 관련

○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 및 산업특화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민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관련 금융기반도 확대

□ 지역 내 공공부문과 기업, 학계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강화는 혁신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후속적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금융역할도 중요

○ 새로운 지역 산업의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으로써 지역 내 대학이나 기존 기업의 기술역량을 활용하는 등 민관 및 학계 간 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금융중심지의 경우 민관 및 학계 간 공동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금융역할도 긴요해지는 추세

마. 역내 금융허브 간 역할분담을 통한 독자적 위상 확보

□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국가별 경제여건이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복수 형태로 유지되는 경향

○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역사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도형·종합형 금융중심지(혹은 제1금융중심지) 이외에 산업적 특성, 지정학적 특성, 지자체의 정책 등에 의해 전문화 또는 차별화

○ 전문화 또는 특화 중심 금융중심지는 제1금융중심지와 지역적 차이(예: 밴쿠버와 토론토 혹은 멜버른과 시드니, 홍콩과 광저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가능

□ 제2금융중심지는 주로 지역적 특수성과 연계성이 높으며, 기존 제1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제1금융중심지와 연계되는 경우도 존재

○ 제2금융중심지는 제1금융중심지 대비 금융업무의 범위나 규모, 금융기관의 참여도가 낮은 반면 지리적 특성이나 산업적 특성에 의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제2금융중심지는 제1금융중심지에 비해 전문화, 특화,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접한 권역이나 산업기반을 연계하여 광역대형(belt-type) 네트워크 금융중심지도 형성

Ⅴ. 부산 금융중심지의 향후 10년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

1. 향후 10년 비전

□ 부산 금융중심지는 앞으로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차별성과 연계성, 대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존 금융기반의 지역화 강화를 통한 역할 제고, 대외 경제여건 및 신금융기술 촉진에 대응한 기술금융 확충,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동북아 지역의 금융역할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

○ 부산 금융중심지는 파생금융 및 해양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 금융중심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제고

○ 또한 금융시장의 기술적 변화 및 중국 및 아시아 경제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 기반 및 업무를 점진적으로 확충

○ 부산 금융중심지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북한 및 러시아, 일본 등 인접 지역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실물경제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금융 및 경제적 역할을 확대

○ 앞으로 부산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10년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성과 특화 전략, 지역화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를 아시아 및 동북아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금융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

□ 또한 부산 금융중심지는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규제합리화 추세를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서울 금융중심지 등 종합 금융중심지와 양립(pairing)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

○ 글로벌 금융산업은 초기 금융중심지 선정 당시와 달리 안정화 및 합리화 중심의 규율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안정성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부산 금융중심지는 해양 및 조선 등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고 파생, 백오피스 등의 특화금융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전략이 효과적

○ 부산 금융중심지는 특화 금융중심지로써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울과의 상호 협력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분담(pairing)을 강화

□ 특히 지역 내 금융산업 기반의 체계적 연계와 정책개발 등을 위한 조직기반의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부산 금융중심지의 지역리더십이 더욱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

○ 부산 금융중심지는 공공 금융기관의 이전과 정착을 통해 지역 내 금융산업의 위상이나 활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

○ 부산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10년은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조직기반 강화를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와 지역경제 간 연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추진체를 마련

○ 부산 금융중심지는 2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부산시를 중심으로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금융중심지 전략의 마련 및 개선 등에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경로(bottom-up)를 모색

□ 향후 부산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10년 비전 및 목표는 동북아 해양, 파생, 기술금융 중심의 특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30위권(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순위 기준) 내 안착과 더불어 금융산업 및 관련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GRDP 기준 8%대 달성을 지향

○ 부산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10년은 기존의 해양 및 선박금융 등의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을 장기적으로 회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입지를 개선함으로써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순위 기준 30위권(2018년 9월 기준 44위) 내에 안착

○ 또한 공공 금융기관 지역화의 확대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 역내 금융기반의 확충 및 성장을 통해 금융산업의 GRDP 비중을 8% 수준(2016년 기준 6.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

2. 전략적 방향성

□ 10년 후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은 다음의 4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

① 기존 해양선박, 파생금융 등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심화·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

*** 동 방안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 전략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중심지 간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에 해당**

② 혁신 경제에 대비한 클러스터 육성과 연계하여 기술금융 및 혁신금융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외연 및 범위를 확대

*** 부산 금융중심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생금융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세를 감안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여 신금융기술을 활용한 기술금융 및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

③ 해양 클러스터 및 물류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기반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역연계성을 확대

*** 특화형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지역경제나 인접 경제와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반 금융서비스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④ 남북 경협의 확대 가능성, 중국경제의 변화, 신남방정책 등과 같은 동북아 및 아시아경제 상황과 대외경제 기반의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개선

*** 남북 경협 등 지정학적 여건의 변화를 통해 부산 경제의 핵심 산업에 해당되는 해운·수산·항만·물류·기술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남방정책 등에 힘입어 파생금융의 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기존 차별화 전략의 강화, 심화, 발전

□ 선박 및 해양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관련 파급효과를 감안한 해양보험 및 재보험 등 금융서비스 확충을 장기적으로 모색

○ 선박 및 해양금융 등은 정책금융을 통해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의 회복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

○ 해운·선박·물류 등과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같이 핵심 기반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

□ 파생금융시장 및 백오피스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금융인프라 기반 및 신상품 개발 등을 계속 추진

○ 파생금융시장을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이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지역 내 금융시너지 효과를 창출

□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등을 촉진함으로써 부산 지역 내 금융기여도를 제고

○ 기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새로운 공공 금융기관 이전 시 단기간 내에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 혁신경제에 대비한 혁신금융 확충 및 연계

□ 신 금융기술 확대와 활용 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기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

○ 블록체인 및 AI, 오픈 뱅킹, 암호화폐, ICO,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 금융기술과 신 금융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현은 새로운 금융산업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거래소 기반 및 기술보증 등 기술금융 및 증권 인프라를 감안하여 신 금융기술 기업이나 신 금융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기관 등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기술금융 및 금융혁신을 연계한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제고

□ 신기술 기반의 확충은 해양금융이나 선박금융 등에 있어서 신기술과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이나 스마트시티 구축 등에 따른 ICT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신기술 기반 중심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관련 혁신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기존의 기술금융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금융 중심 금융클러스터 또는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스마트시티의 신기술 활용 또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운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은 신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지역경제 기반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확대

□ 물류산업 육성, 해운클러스터 육성, 스마트 시티 육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금융서비스를 확대

○ 물류산업 육성이나 해운클러스터, 스마트시티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금융기능을 연계 예를 들어 물류단지 육성에 따른 시설금융 또는 장기금융,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금융 등을 기존의 공공 금융기관 또는 지역보증제도와 적극 연계

□ MICE 산업 등과 같은 기존 시설기반을 활용하여 금융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벤처금융 등을 활용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금융 관련 국제컨퍼런스 등을 적극 유치하거나 영화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금융 또는 크라우드 펀딩 등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필요

4) 대외경제 기반 강화와 연계한 대외적 위상 제고

□ 남북경협 등과 같은 동북아 지정학적 변화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등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북아 특화 금융중심지 입지를 강화

○ 남북경협 확대 시 예상되는 해양·수산·물류산업 관련 금융서비스와 장기 개발금융 등에 대한 지자체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기금마련 등 협력방안을 검토

○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협력에 참여하고 지역 내 학계 및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식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지식교류프로그램은 남북경협 확대 시 증권시장이나 기술금융 등과 같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사전적인 지식교류를 통해 본격적인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Ⅵ. 분야별 주요 전략 agenda

1. 해양금융

가. 연합형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전략 추진 및 클러스터 멤버에의 공급

□ 국내외 우량 선주·화주로부터 받은 안건정보 및 우량 금융제공자로부터 받은 금융조건과 그밖의 해양금융과 관련된 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집행시점에 따른 투자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클러스터 조성

○ 해양금융은 실물경제와 금융의 접점에 있는 큰 시장이기에, 실물경제와 금융 양쪽을 상호연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

○ 그동안 해양금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영국은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라는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금융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옴

○ ICT기술의 발달 및 인공지능/인지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적인 구도가 재편되는 가운데, 부산에도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 특히, 부산항 등에서 창출되는 실물자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회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새로운 정보인프라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첫째, 상호 이질적인 데이터, 특히 비정형화된 데이터 (텍스트기반의 자연어, 음성데이터, 비디오데이터, 이미지 등)를 특정형식으로의 정합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 둘째, 현실세계에 가까운 모델링을 정보시스템에 구축하여 데이터와 시스템이 상호진화 할 수 있는 연결구도를 확보할 것. 셋째, 인간과 인공지능 모두가 자신의 관점에 맞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프라설계가 요구됨

□ 해외 해양클러스터와 대비하여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로서, 데이터 확보 및 모델링의 차원에서 다음 4대 자산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국내외 해운 클러스터에 가치를 공급하기위한 노력이 필요

知 (지적재산)	人 (인적재산)
- 국내외 해양금융 전문가들이 사내외 데이터베이스 및 이와 연계한 프로세스를 기계학습으로 구축,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계학습기반 금융플랫폼의 조기 구축 및 제공 - 또한 해당 플랫폼을 선박클러스터 전분야에 확산, 도입함으로써 정보/지식기반 의사결정프로세스를 확립	- 선박금융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기업을 조기발굴하여 부산에 유치하여, 핵심인재의 조기확보 및 이를 통한 국내 전문가 양성 및 해양클러스터 전분야의 경쟁력 강화
金 (금융자산)	物 (실물자산)
- 달러조달비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 No action letter 등의 도입을 통한 세제불확실성 해소함으로써 해외투자기관이 onshore SPC를 경유해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의 검토 - JOLCO (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의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 있는 tax equity투자제도의 검토	- 한국 조선소의 프리미엄 이미지의 유지를 위한 기존 노력을 지속 - IoT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혁신의 지속 - Fly-to-the-quality전략: 글로벌 핵심 선사, 선주 및 금융사를 연계하는 실적 구축을 통해 글로벌 선박금융플랫폼으로서의 부산의 이미지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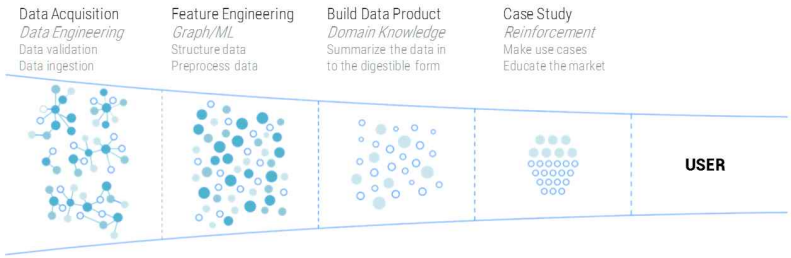
□ 상기 4대 자산 중, 현존하는 가장 큰 이슈인 "브레인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반(Knowledge Base) 구축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함

1) 지적재산

□ 선박금융의 노하우라는 "브레인"기능이 육성되면 선박금융의 경험을 갖춘 기존의 상업은행에도 투자은행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짐

○ 자본시장에서 상업은행과 비교해 투자은행은 안건조성, 수수료 산정 또는 언더라이팅,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등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가 축적되는 경우 기존 상업은행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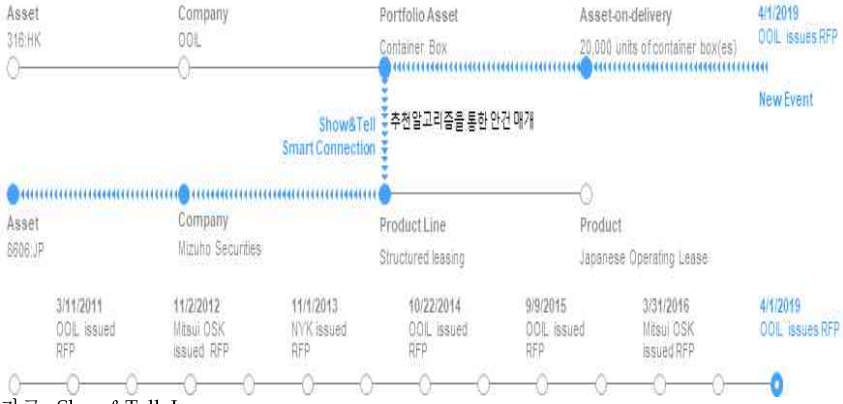
<그림 Ⅵ-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재산의 형성 프로세스



자료: Show&Tell Inc.

□ 실물자산시장, 금융자산시장을 어우르는 글로벌 마켓의 동향을 포함한, 하기의 매크로이벤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그림 Ⅵ-2> 연합형 마스터데이터베이스를 인프라로 활용한 인공지능의 이벤트 인식 및 그 대응의 예



자료: Show&Tell Inc.

□ 국내 투자가, 국내 선사를 정책적으로 우선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높은 수준(top profile)의 안건을 지속적으로 접하여 "지적재산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선박금융은 대형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며, 금융 집행 이후에는 장기간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이므로, 투자구도 설계 작업으로부터 금융비용의 최적화, 실질적인 문서화 작업 및 협상능력에 이른 각종 전문성을 요구함. 이는 긴 기간에 걸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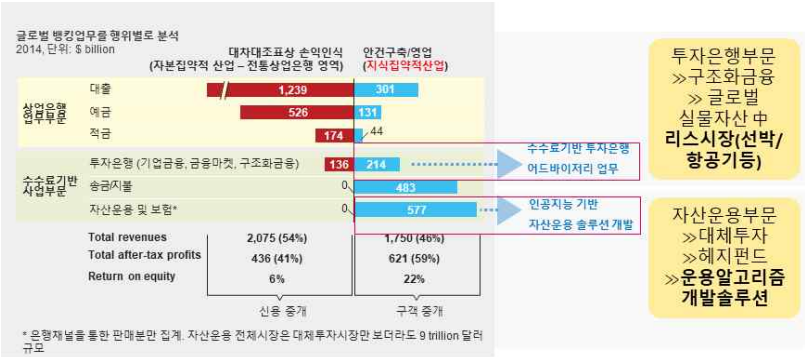
○ 이전 일본항공이 파산하여 관재인이 회사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확보했을 때를 예로 들면, 같은 구조화 금융의 구도로서 조성된 안건이라도 계약서의 핵심조항으로 보호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재인의 매각가능성이 갈린 적이 있음

○ 대형금액 기반의 실물자산의 금융안건은 호황기와 불황기 양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조성 프로세스 자체에서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함

□ 하기, 맥킨지와 월드뱅크에 의해 작성된 행위별 글로벌 뱅킹업무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집약적인 산업은 높은 수수료기반의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사업임. 부산이 가진 금융도시 추진업무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리스시장의 조성업무 및 자산운용부문에서의 자산운용 서비스업에 관한 인프라 확보 및 경쟁력 강화는 향후 큰 기회를 부산에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

<그림 Ⅵ-3> 글로벌 뱅킹업무의 행위별 분석



자료: 맥킨지, 월드뱅크 발표자료(2014)를 토대로 쇼앤텔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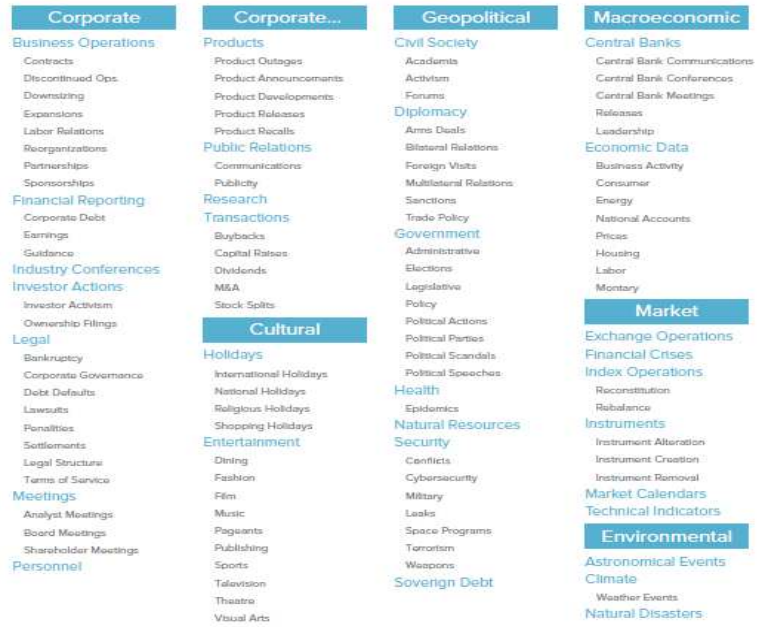
2) 인적자산

□ 기존의 "전문가"의 정의를 보다 광의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한 안건실행"에서 "전문가가 인프라로서의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안건실행"이라는 패러다임 체제로의 전환

○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 그리고 사내의 모든 정보를 주제기반(Topic base)으로 접근하거나, 온 디맨드 베이스(on-demand base)

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내어 인사이트 분석 혹은 프로세스 구축/실행에 활용하는 부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핵심이 되는 "슈퍼바이저"의 양성이 중요함. 이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따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 및 퀄리티가 결정이 됨. AI를 활용하여 선박금융의 지식기반을 구축하면서 선박금융을 리드하는 전문조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 및 팀 구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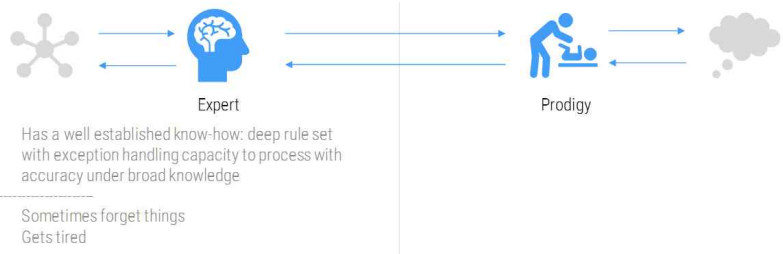
<그림 Ⅵ-4> 매크로이벤트의 종류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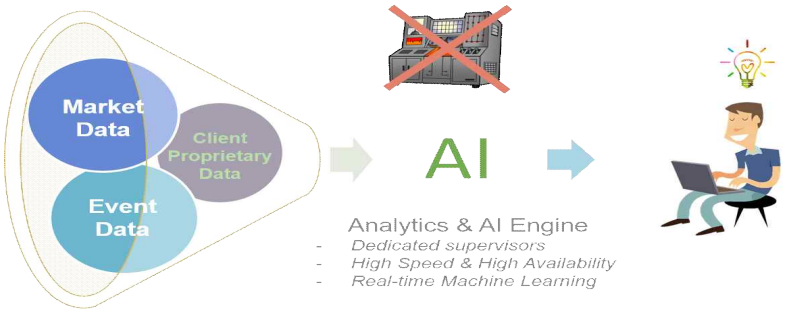
□ 지식기반 구축작업은 AI와 전문가의 협업(collaboration)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데이터들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인간과 AI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장점을 복합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임.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지역대학 등이 배출하는 인력 등을 협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예상

<그림 Ⅵ-5> 인공지능의 장단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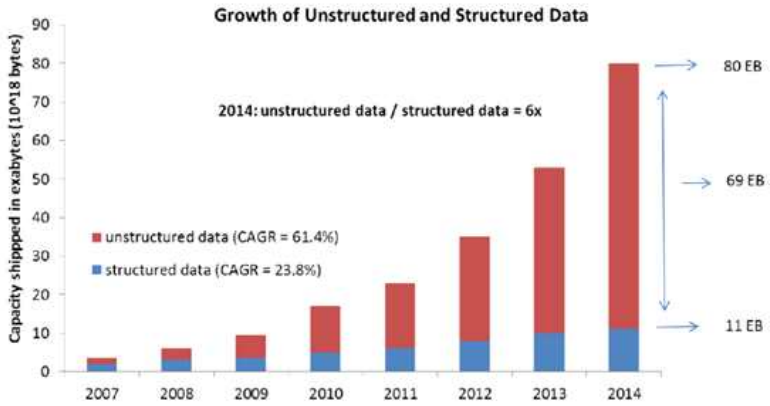
자료: Google자료를 기반으로 Show&Tell 작성

<그림 Ⅵ-6> 금융패러다임의 재정립에 있어 Supervisor의 중요성



자료: Google자료를 기반으로 Show&Tell 작성

<그림 Ⅵ-7> 비정형화기반 자료의 증가로 인한 인공지능/인지기술 도입필요성의 대두



자료: S&P Global

3) 금융자산

□ 그동안 한국의 기관투자가는 주로 두가지 이유로 선박투자의 검토를 꺼려왔음

○ 자체적인 달러 조달비용의 고비용 구조

○ 각 기관투자가에 요구되는 높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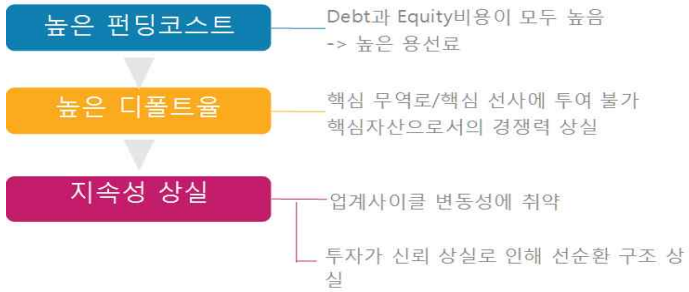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가가 제로금리로 접어들면서 선박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자체는 기관투자가가 검토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는 달러조달비용의 고비용구조가 구조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

○ 이에는 한국 원화 자체가 주요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함. 또한, 한국의 달러조달 창구가 대부분 산업은행의 산금채 등을 통하는 구조라는 점도 작용. 일본 지방은행의 경우,

엔화를 달러와 스왑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의 대부분 상업은행은 산금채 금리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비용을 조달한 것이 기준금리(Base Rate) 로 작용

○ Libor, Tibor 등의 기준금리로는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는다며 Tax Equity 등의 저렴한 에퀴티를 통해 총합비용(all-in rate)을 더욱 더 낮추려 노력하는 일본의 금융기관과 비교해 보면 넘을 수 없는 조달 비용의 차이가 존재

<그림 Ⅵ-8> 조달비용의 차이로 인한 악순환 구조



□ 달러의 조달비용으로 인해 한국의 선박금융은 출발선 자체가 글로벌 금융기관과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낮은 CAPEX 는 (1) 경쟁력있는 용선료, (2) 높은 안정성을 가진 안건 프로파일, (3) 탄탄한 수익성, (4) 낮은 디폴트율, (5) 높은 기업신용으로 이어지는 핵심요인임

○ 펀딩코스트는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로서 대출비용(Loan cost)과 자본비용(Equity cost)의 가중평균임. 대출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천함. 일본의 JOLCO (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가 대출비용보다 낮은 자본비용을 실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격경쟁력이 있는 WACC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임

□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함

○ 달러 조달비용의 이슈가 없는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조달을 역외투자회사 (Panama 등)를 통해 실현

○ 본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및 문제 해결방안의 탐구를 위한 관민 공동 간담회의를 주최하여 실질적인 금융안건의 데이터에 기반한 비용차이의 계량화 실시 및 대안방안 모색

4) 실물자산

□ 조선업의 활황을 경험하지 못한 인력이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의 품질관련문제(Quality issue)가 해외선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근의 선박 발주 등, 선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물류혁신의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해운물류의 효율화를 테크놀로지로 해결하기 위한 IoT기술의 접목과 항만의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지원 검토가 필요

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핀테크 기반 선박금융 투자은행 모델의 제시와 개발 (풀뿌리 기반, 민간형)

□ 한국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등의 실력있는 기술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함. 실체를 들여다보면, 마켓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 많으며, 특히

전문경영인이 현업과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상업화해 본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부족과 지식기반이 약한 상태로 기술만으로 결과를 도출하려는 프로세스가 많은 것이 원인임. 업계에서 노하우가 없는 리더가 이끄는 사업은 넘을 수 장벽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 전개에 있어 많은 장애물이 존재

□ 선박금융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리더가 이끄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그 회사의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해운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함

□ 지식기반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주체에 독자적인 운영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적재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투자은행 육성**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박금융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의 선박금융 시장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금융기관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의 선박금융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어 현재는 지역은행인 BNK부산은행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임

○ 따라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투자은행의 설립을 유도한다면 선박금융시장에서 그동안의 경험부족을 만회하고 민간영역에서 공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선박금융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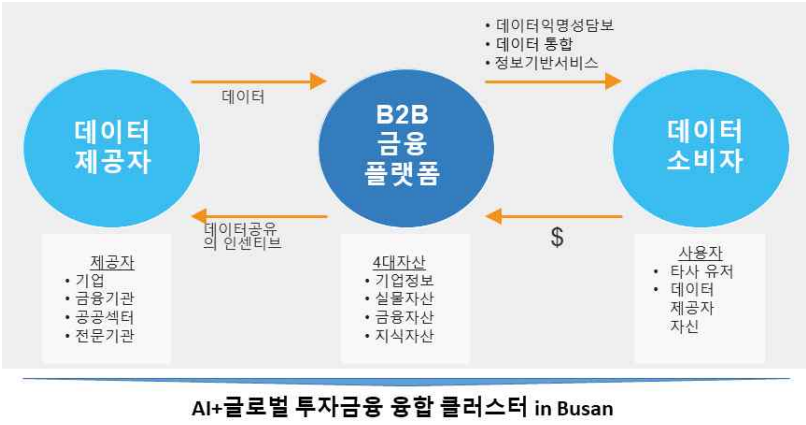
○ 또한 선박금융 투자가 네트워크 및 금융 노하우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은행에 접목한 선진사례를 부산이 제시함으로써 금융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다. 아시아 해운클러스터 연합에서의 리더십 발휘

□ 향후 지식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등 부산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외 클러스터 멤버를 확보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전략을 제안

□ 공공부문은 인프라 구축 및 간접지원의 측면에서 향후 시장참여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그림 Ⅵ-9> 해운클러스터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AI 솔루션 구축



자료: 대한민국정부 발표자료인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에 기반하여 Show&Tell Inc.에서 작성

□ 싱가포르의 PIER71의 성공사례와 같이, 해운·IoT관련 스타트업 등의 기술회사 및 솔루션의 육성을 검토. 또는 JIAM Tokyo와 같이 국내 사업관계자에 소개할 수 있는 데모센터를 설치하고, 이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큐레이터를 배치

□ 부산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로드쇼를 개최.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자하는 화주, 선사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고자 하는 유관업체들의 집적과 이를 활용한 부산금융중심지 홍보가 가능할 수 있음

2. 핀테크 및 기술금융

가. 규제자유지역 설립 추진

1)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 금융부문에 IT・융합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초석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의 파급력과 활용영역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세계경제포럼(WEF)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2027년 기준 전세계 GDP의 10%인 8조 달러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26]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27] 역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암호화폐(비트코인), 산업특화(자동차·유통·에너지 등 산업 유형별 비즈니스모델), 공공조직(행정 및 의료정보·공공서비스 제공)

○ 특히 Fin-tech는 지급결제를 비롯해 송금 및 대출, 투자, 펀딩, 자산관리서비스, 인증 등 금융의 모든 부문에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은 기존의 금융시장에 안착하는데 있어 기존 금융규제와의 충돌이 예상됨

□ 따라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금융규제의 높은 벽으로 인해 사장(死藏)되거나, 상용화의 지연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임

○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가 지급결제·송금·대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특별한 인허가 취득 없이 일정기간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2015년 영국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2) 국내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 금융당국은 금융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금,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서비스는 제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편익’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시범인가)하고 제한된 범위에

26) 「Deep shift –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WEF (2015.09)
27) 블록체인의 연간 성장률은 2020년 기준 120%, 사업적 부가가치는 2030년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서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하면 시범운영 기간인 최대 4년 동안 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음

○ 또한 시장테스트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핀테크 기업)에게 무과실 책임(absolute liability)[28]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자력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한 이후 최대 2년간은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 한편,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5년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2016년 11월 1차 샌드박스 지정업체 24개를 선정하여 운영 중

○ 호주는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를 운영 중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6년 7월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ICO(initial coin offering) 양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설치

□ 다행스럽게도 2018년 3월 발의했던「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마침내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

○ 비록 법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언급한지 1년 만에 이루어졌고, 이 정도의 더딘 규제완화 속도로는 글로벌 시장에

28)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우는 법률상의 원칙

서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음

3) 규제자유지역 설립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유치가 필수적이며, 부산지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에 용이한 지역임

○ 부산은 물류·항만의 중심지이며 금융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 유리한 지역임

○ 따라서 부산 지역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경우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 비해 규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낮고, 컨트롤이 편리할 수 있음

○ 또한 부산은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 행사 등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음

□ 부산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겠으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펀드조성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것임

□ 또한 부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협력(collaboration)이 가능하며, 관광서비스 및 금융 인프라 기반을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임에 따라 부산에 ICO 거래소 설립을 고려

○ 부산에 ICO 거래소 설립이 허용된다면, 금융서비스(결제서비스

등)를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4) 부산금융중심지의 규제자유지역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 2019년 4월 시행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 적용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의 규정만 존재. 따라서 부산금융중심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을 집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필요

□ (선제적 특구지정) 2019년 1월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효과가 적용됨. 따라서 규제자유특구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조합을 통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적용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을 지정 대상을 하며,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금융중심지를 '(가칭)문현금융특구'[29]로 지정할 수 있음

□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가능

○ 조례 제정으로 혁신기업의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혁신기업의 유치 및 집적화 유도

□ (제도설계)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테스트 종료 후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 연계 필요

29) 이는 후술하는 금융특구보다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혁신금융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적용과 그 지원에 관한사항만 적용되는 의미에서 특구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한 기술금융기업의 시범운영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이후 사업을 위해서 인허가가 필요. 감독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부산금융중심지 입주기업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컨설팅 운영) 특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제도 운영

○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초기단계로 법률 대응력과 자본조달능력이 떨어짐. 상품과 서비스 설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음

(참고) 제주도 ICO 거래소 유치 추진

□ 제주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지리적 장점을 내세워 2018년 8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을 공식화하고, 규제를 위한 협의체 및 ICO 거래소 유치 등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

○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립적 공간으로 기업과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 유리

○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비자 제도, 대형 행사, 비즈니스 미팅 등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지역임.

○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등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여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블록체인 특구와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부분이 ICO 허용 여부인데, 제주도는 단계적인 허용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

나.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모델 강화

1) 기술보증기금 현황과 전망

□ 기술보증기금은 부산금융중심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기술금융을 지역특화금융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부산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적합함

○ 기술보증기금은 초기에는 본점조직을 이원화하고 부산에 50% 정도의 인력만 상주하였으나, 지금은 95% 이상의 본부 인력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등 전국에 영업조직이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의 부산중심지 정착은 성공적으로 평가됨

*** 직원들의 이주비율 또한 30~4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타 지역 대비 기술보증기금의 부산지역 투자비율(예: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또한 높고, 부산시의 육성자금(천억원 수준)을 혁신형 기업에 지원할 때 기술보증기금이 평가를 담당하는 등 부산시와 우호적 관계 형성

○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기술신용평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인증제도로 발전시켜 기술평가 인력 확대에 기여할 계획

□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변화·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부산시에 소재한 핀테크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금융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

*** 기금은 위험감수(risk taking)[30]가 어려워 투자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공사화되면 벤처금융전문은행(SVB)처럼 벤처캐피탈(VC)이 선투자한 기업에 후속 투자하는 협업관계를 형성하면서 부산시에 벤처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30) 위험을 감지해서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을 위험지각(risk perception) 또는 위험인지(risk cognition)라 하며, 위험을 지각한 후에도 이를 감수할 각오로 행동하는 것이 위험감수(risk taking)임.

○ 기술평가 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2017년 6월부터 금융위에서 중소기업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기대

2) 부산시의 기술보증기금과 협력 과제

□ (협력·매칭 펀드 조성) 부산금융중심지의 기술기업지원을 목적으로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운영성과와 연동하여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

○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혹은 지역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재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

*** 초기에는 소규모로 운영하여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 금융중심지 추진조직 내에 혁신기술금융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

○ 지역 벤처캐피탈에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안 건의

○ 이스라엘 사례(요즈마펀드)를 준용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일정 역할을 수행

○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변화·확대될 경우 다양한 지역펀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창업타운 조성)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이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기술보증기금은 공적 벤처캐피탈로서 지역특화산업이 되었든 다른 산업이 되었든 기술을 평가하여 보증과 투자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투자부문은 네트워킹이 가능한 집적시설이 필요

○ 그 동안 부산시에는 판교나 마포의 테크노밸리와 같은 창업기업에 대한 집적시설이 부족하였으나, 부산시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기술창업타운이 육성될 경우 창업기업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기술기업 유치 → 핵심인력 집적 → 성공사례 확보 → 지속 확대'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활성화가 가능

□ (보증확대)지역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한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중심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

○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보증을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으로의 혁신기업 유치를 촉진

*** 기술기업의 사업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간 보증한도 또는 총한도를 유지**

○ 지원대상 또는 보증기간, 보증방식 등은 부산지역의 산업정책이나 신규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

*** 보증배율이나 보증방식 등도 기존 보증상품과 차별화함으로써 기금의 차별화(예: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방식 등)를 도모하는 것도 고려**

(참고) 이스라엘「요즈마펀드」

□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주도(1993~1998년)의 벤처투자정책으로 나스닥 상장이나 해외 기업으로의 피인수를 벤처펀드의 목표로 설정

○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산하의 수석과학관실이 1억 달러*의 재원을 바탕으로 요즈마펀드 설립

*** 모펀드방식으로 10개의 민간 요즈마펀드에 출자(8천만 달러), 수석과학관실에서 직접 운용(2천만 달러)**

○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분을 저금리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하는 등 기대수익을 높여 민간의 벤처캐피탈 참여를 유도

□ 요즈마펀드의 성공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벤처펀드 수는 19개에서 68개로 증가

○ 1993년 요즈마펀드 출범 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규모는 2.6억 달러였으나 1993~2000년까지 30.7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배 이상 증가

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유치 추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관련 규제 장벽으로 인해 스타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음

○ KPMG 인터내셔널이 뽑은 '2018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오른 한국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함

○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도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은산분리 규정에 따른 증자가 어려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7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뜻을 전달[31]했으나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 이렇듯 규제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부산금융중심지 지역 내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

○ 2018년 12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두 곳이 있는데,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에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은행과 동일한 소매금융(retail banking)위주의 영업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차별화를 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이 'IT 벤처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집적을 통해 기존 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사소재지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부산시가 '기업금융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 앞서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부산에 설립될 경우 부산지역에 스타핀테크 기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1)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시 의사 표명

(참고) Silicon Valley Bank 비즈니스 모델

1.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 Silicon Valley Bank는 지주회사인 SVB Financial Group의 자회사

○ '16년말기준, 자산이 447억달러, 자본금이 36억달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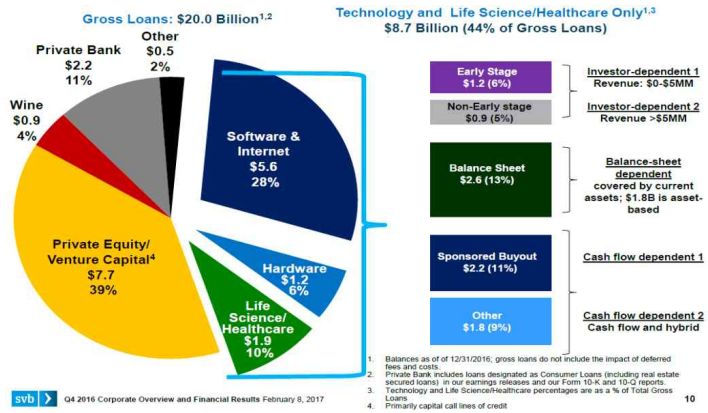
○ '16년 순이자마진(NIM)은 2.72%,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10.9%,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87%

2. 관계형 금융이 활발

□ Silicon Valley Bank 비즈니스 모델 특징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loans) 비중이 높고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도 수행한다는 점임

○ 기술(Software & Internet[32], Hardware[33])·생명과학/헬스케어(Life Science/Healthcare)[34] 등 혁신기업 대출은 전체의 44% 수준을 차지

대출 포트폴리오(Loan portfolio)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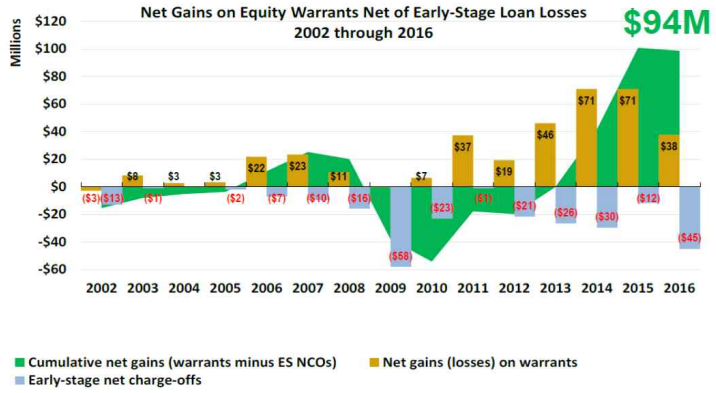


○ 특히, 이들 혁신기업의 초기 창업단계(early stage) 기업에 대한 대출은 12억달러로 전체대출의 6% 비중 : 동 대출의 대손율(loss rate)은 '16년의 경우 3.8% 수준*

*** 초기 창업단계 대출 대손율 추이 : '08~'16년평균 (3.4%), '09년(11%),'15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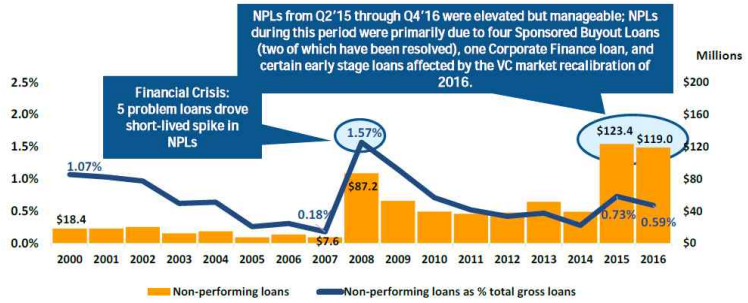
○ 초기 창업단계(early stage) 대출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은 평균적으로 주식매입권(equity warrants)에 의해 상쇄

2002~2016년중 net equity warrant gains과 net early stage loan losses



□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혁신기업 관련 data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가 ② 사모펀드(Private Equity) 및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업계와 구축된 유대관계(network) 등에 의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

부실여신(NPL) 및 부실여신비율 연도별 추이



3. 기업금융에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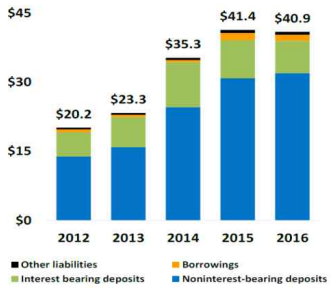
□ 총 부채('16년말 기준)*는 409억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이 기업으로부터의 예금이며 일반인(conventional retail sources)으로부터의 예금 수취는 없음

*** 자본금(stockholder equity)은 36억달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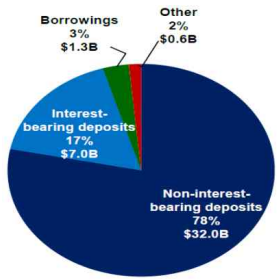
○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이자부 예금(non-interest bearing deposits) 78%, 이자부 예금(interest bearing deposits) 17%, 차입(borrowing) 3%, 기타 2% 비중을 각각 차지

B/S 부채 총액(단위: 10억불) 추이와 구성('16년말기준)

(총액 추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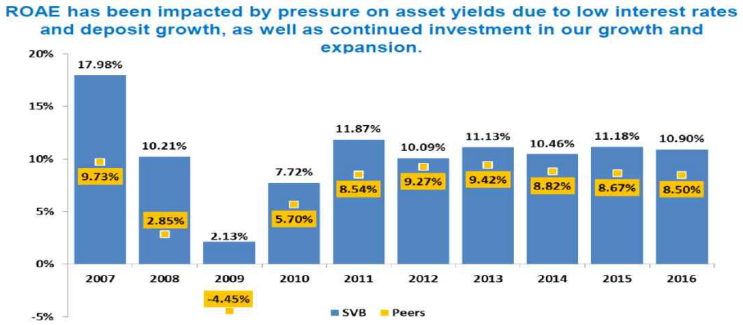
4.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 '16년의 경우 당기순이익(net income available to common stockholders)은 3.8억달러 규모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2.72%,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average SVBFG stockholder's equity)은 10.90%,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verage assets)은 0.87% 수준을 각각 보임

□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동종 업계 유사 기업(Peer Group) 그룹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동종 업계 유사 기업(Peer Group) 그룹과의 비교



* "Peers" refers to peer group as reported in our 2016 Proxy Statement, with adjustments to reflect recent acquisitions of several peers since the Proxy date. Peer ROAE data is from SNL Financial and reflects the most recent available data.

32)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services, digital content and advertising technology
33) semiconductors, communications, data storage and electronics
34) biotechnology, medical device,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healthcare services

3. 위안화 허브 등 동북아금융허브 역할

가. 위안화 역외 허브 관련 추세

1) 런던

가)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 영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입지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이 맞물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

○ 2011년 9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China-UK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통해 영국은 런던 금융 산업계의 역외 위안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역외 위안화 금융 비즈니스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2015년 10월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스와프를 3,500억 위안으로 확대하였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시작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 런던은 금융인프라 및 효율적인 체재, 우수한 인재 풀(pool), 첨단 IT 및 통신 시스템과 140개 국가와의 협정 등 위안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보

○ 500개 이상의 은행이 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등 런던은 최고의 글로벌 위안화 결제 중심지 위치를 확보

○ 런던의 위안화 청산비율은 2016년 12월 6.51%에서 2017년 12월

5.59%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7년 1분기 5.91에서 2018년 1분기 5.94로 소폭 증가

<표 Ⅵ-1> 중국을 제외한 위안화 글로벌 청산비율 분포(금액 기준)

순위	도시 및 국가	2016년	2017년
1	홍콩	74.08%	75.68%
2	런던	5.59%	6.51%
3	싱가포르	4.41%	4.93%
4	한국	2.99%	2.11%
5	미국	2.59%	3.03%
6	타이완	2.19%	2.68%
7	프랑스	1.55%	1.38%
8	호주	1.02%	0.95%
9	독일	0.68%	0.61%
10	룩셈부르크	0.35%	0.47%
11	마카오	0.25%	0.41%
12	캐나다	0.23%	0.38%
13	아랍에미리트	0.13%	0.15%
14	러시아	0.12%	0.08%
15	스위스	0.11%	0.09%
합계	전체	약 100%	약 100%

자료 : SWIFT Watch(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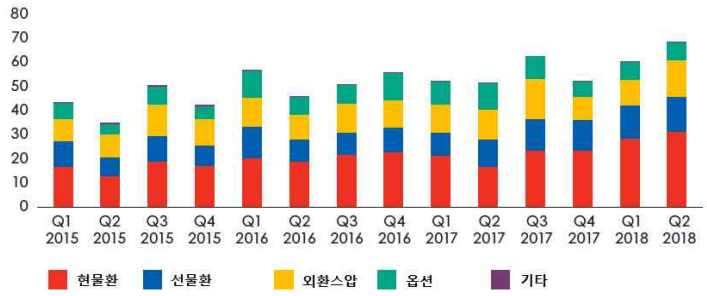
□ 2018년 2분기 기준 런던의 일일 CNH(역외시장인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거래량은 평균 690억 파운드로 영국 내 RMB(위안화) 외환시장 거래가 크게 증가

○ 직전분기 대비 13.54%, 전년도 대비 32.85%가 각각 증가

○ 이 중 영국 은행이 21.7%, 비영국 은행이 32.0%, 기타금융 기관이 46.3%를 차지

<그림 Ⅵ-10> 런던의 일평균 위안화 외환시장 거래량

(단위 : 10억 파운드)



자료 : London RMB Business Quarterl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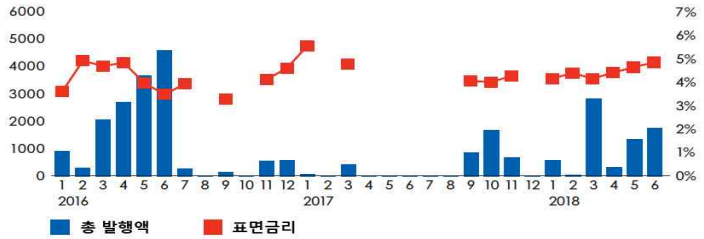
□ 2018년 2분기 기준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102개의 총 311.1억 위안 딤섬 채권이 상장

○ 2018년 2분기 기준 7개의 딤섬채(Dim Sum bond)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되었으며, 상장채권의 시장가치는 359억 위안, 평균 표면금리는 4.85%를 기록

○ 이들 채권 중 3개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금융기관인 QNB그룹(Qatar National Bank)에 의해 28억 위안이 발행되었으며 전체 신규 발행의 78%를 차지

<그림 Ⅵ-11> 런던 채권시장에서의 딤섬본드 및 표면금리

(단위 : 10억 위안) (단위 : %)



자료 : London RMB Business Quarterly(2018)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 싱가포르는 개방적인 문화, 서구형 제도, 지리적 우월성, 선진형 사회적 토대 등에 힘입어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차지

○ 싱가포르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역외계정의 허가, 조세경감, 금융규제완화, 금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치에 주력

○ 1980년대 들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외에 선물시장, 자산운용업 등의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육성전략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는 런던, 뉴욕, 도쿄 다음으로 이미 세계 4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 도약

□ 싱가포르는 2008년 4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북경사무소를 개소하고 2009년부터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를 시작하여 홍콩과의 차별화를 통한 위안화 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 2013년 2월에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공상은행(ICBC) 싱가포르 지점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고 2013년 10월 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 제도(RQFII) 한도에 500억 위안 부여

○ 2015년 11월 중국 인민은행(PBC)은 싱가포르의 RQFII 한도를 1,000억 위안으로 확대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 중심지로서 기존의 금융인프라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역외 위안화 허브를 실현

○ 2017년 CLS 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외에서 국가 간 거래되는 싱가포르-위안화 화폐 거래 비중은 3.77%, 거래량 기준 2.49%로 세계에서 7위를 차지

* 2002년 CLS 은행에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서비스 시스템을 시작한 이래로 CLS서비스 결제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7년 3월 기준 전 세계 외환스왑(FX) 거래의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

○ 2018년 3월 기준 위안화 예금액은 1,390억 위안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2015년 1월 2,340억 위안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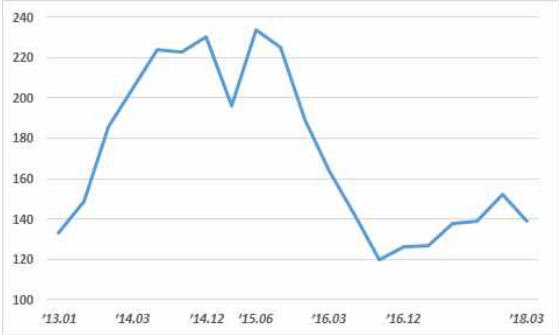
<표 Ⅵ-2> 위안화 글로벌 거래 비중(금액 기준)

순위	도시 및 국가	2017년
1	중국	30.05%
2	영국	25.89%
3	홍콩	19.70%
4	미국	5.40%
5	프랑스	4.53%
6	싱가포르	3.77%
7	일본	2.19%
8	호주	1.73%
9	스위스	1.71%
10	한국	1.18%

자료 : SWIFT Watch(2018)

<그림 Ⅵ-12> 싱가포르의 위안화 예금액 추이

(단위 : 10억 위안)



자료 :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통계

3) 밴쿠버

가)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지역의 브리티시콜롬비아(BC)의 대표 도시로써 지리적 장점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기관이 집적화

○ 밴쿠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북미의 상권이 교차하는 요충지로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의 핵심 허브로 태평양을 통한 북미 대륙과 아시아 시장 간 연결 고리 역할 제공

○ 또한 브리티시콜롬비아(BC)는 지난 8년간 약 100개가 넘는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북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공업 및 무역, 금융업이 성장세를 보임

□ 캐나다는 정부 차원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위안화 허브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위안화 직거래를 통해 중국자본의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서의 선점을 모색

○ 2014년 캐나다 연방정부와 중국 정부는 위안화 허브 및 통화 스왑(Currency Swap) 협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정부는 위안화 허브의 밴쿠버(또는 토론토와 공동) 유치를 위해 토론토금융업협회(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와 협의를 개시

○ 캐나다는 위안화 직거래를 통한 교역 확대와 자본의 유치를 통한 금융산업의 대외 위상 제고, 대내적인 세수 증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FDI 활성화 등을 기대

나) 밴쿠버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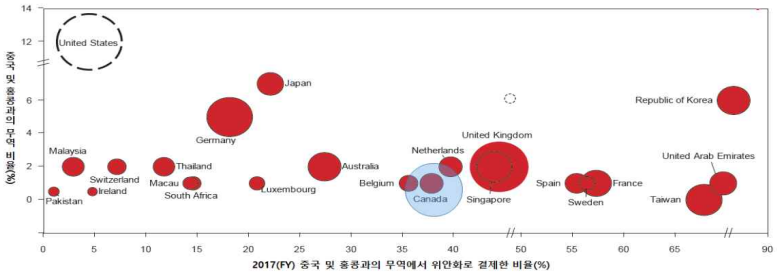
□ 캐나다의 글로벌 위안화 청산비율은 2016년에 0.23%, 2017년에 0.38%에도 불구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정부와 밴쿠버 국제금융센터(AdvantageBC)를 중심으로 북미 역외 위안화허브 구축 노력 지속

○ 2017년 캐나다의 대중국 무역 비중은 2%에 불과하나 위안화 결제비율은 40%에 이르는 등 위안화 결제의 허브 역할을 감당

*** 미국의 경우 무역 비중이 10%이상인 반면 위안화 결제 비율은 5%에 불과**

○ 밴쿠버는 역내 위안화 거래 계좌 및 위안화 표시 채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수수료 수입 증대를 기대

<그림 Ⅵ-13> 주요국 무역 비율 및 위안화 결제 비율



자료 : SWIFT Watch(2018)

4) 대만

가)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 대만은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경제 협력과 위안화 예금을 토대로 한 소매금융, 포모사(Formosa) 본드의 발행, 새로운 청산결제시스템 도입, 중국 내 특정지역과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허용 등을 통해 역외 위안화 허브를 추진

○ 대만은 통화의 국제화를 위해 1983년에 역외 금융센터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에 들어서는 위안화 비즈니스를 허용

○ 대만은 2010년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이후 대중국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써 상당 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대만 내 위안화 예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무역금융에 특화된 위안화 허브로 부상

* 2012년 위안화 청산은행(Bank of China) 지정,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2013년) 등 위안화 거래 인프라를 구축

○ 또한 대만은 비거주자 외국인투자자가 발행한 포모사 본드에 대해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세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 2014년에는 유로클리어(Euroclear)와 대만의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가 별도의 투자 절차 없이 직접 위안화 포모사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를 유치

* 2013년 9월 위안화 송금 및 자금이체 가능한 외환결제시스템 도입

○ 중국 정부는 홍콩(첸하이), 대만(쿤산), 싱가포르(쑤저우)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내 특구에서의 국경 간 위안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를 통한 통화국제화를 촉진

<표 Ⅵ-3>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시기	활동내용
2005년 10월	- Jinmen, Mazu 지역 금융기구의 위안화 환전업무 실시
2008년 7월	- 대만지역의 위안화 환전업무 확대 실시
2009년 4월	- '양안 금융협력에 관한 협의' 체결로, 홍콩을 통한 위안화 유통에 합의, '대만 위안화 현금 결제에 관한 협의'로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
2010년 6월	-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2011년 7월	- 역외금융은행(OBU)과 대만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위안화 비즈니스 허용
2012년 2월	- 개인이 위안화 표시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2012년 8월	- 대만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과 상호 결제은행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2013년 1월	- 중국은행(BOC) 대만지점, 대만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 RQFII 쿼터 1,000억 위안 획득
2013년 2월	- 대만 내 외환지정은행(DBU)의 위안화 비즈니스 개시
2013년 3월	- 대만 CTBC 은행,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첫 발행
2013년 4월	- 금융감독위원회(FSC), 외화자산투자 규제완화 방안 발표
2013년 7월	- 쿤산 양안산업 협력 시범구에서 각종 위안화 업무 가능
2013년 9월	- 대만 중앙은행, 중국 본토와 홍콩 및 기타 외환시장과의 위안화 송금 및 자금이체가 가능한 새로운 외환결제시스템 도입
2013년 10월	-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자격을 대만 내 중국 기업으로 확대
2014년 1월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관으로서 5억 위안 규모의 포모사본드 첫 발행
2014년 4월	- 대만 예탁결제원이 Euroclear와 대만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서비스 시작
2014년 6월	- 대만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산정 시 포모사본드에 대한 투자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2015)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 대만의 역외 위안화허브 역할은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통화스와프의 체결 지연, RQFII 금융기관의 인가 등 제약요인으로 싱가포르 등에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이지만 역외펀드, 중국내 경제-금융특구 지정,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연계는 특징적

○ 대만의 경우 무역결제가 위안화 중심으로 확대되고,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보

○ 싱가포르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금융 위안화 특구 지역 사례는 지역 간 협력을 토대로 한 위안화 허브의 장기적 구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평가

○ 정치·외교적 측면의 요인뿐만 아니라 위안화 구축 및 발전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이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등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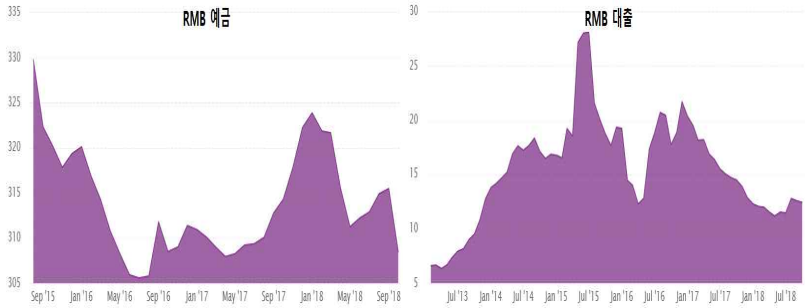
<그림 Ⅵ-14> 2018년(1~8월) 대중(對中) 대만 무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K-stat)

<그림 Ⅵ-15> 대만의 위안화(RMB) 예금 및 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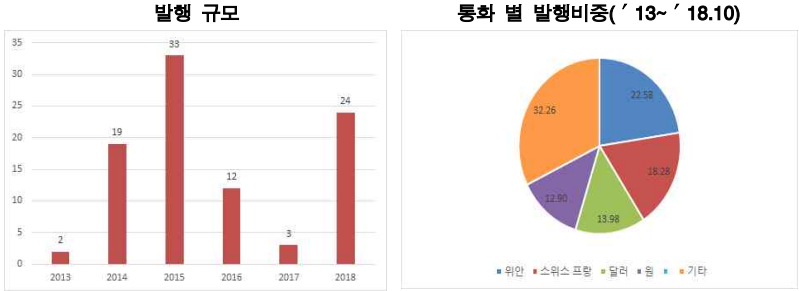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위안)



자료 : CEIC

<그림 Ⅵ-16> 대만 내 포모사 채권(formosa bond) 발행규모 추이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Bloomberg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위안화 허브(RMB Hub)

1) 위안화의 국제화

□ 2009년 3월 이후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

○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를 2011년 12월에 도입

○ 2016년 10월 1일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인 SDR(Special Drawing Rights)에 편입되면서 2017년 기준 세계 화폐시장 거래의 1.61%를 차지

* 2017년 기준 세계 화폐시장거래에서 파운드화(GBP)는 7.07%, 엔화(JPY)는 2.96%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

<표 Ⅵ-4> 위안화의 국제화 관련 내용

시기	활동내용
2009년	- 3월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 IMF SDR 기축통화론 발표
	- 4월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 소재 홍콩, 마카오 기업에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 7월 광시, 윈난지역 내 중국 기업의 對 아세안 10개국 거래 시 위안화 결제 허용
2010년 4월 28일	- 우리은행, 위안화 결제은행 자격 취득 후 최초 위안화 무역결제
2011년	- 1월 중국 시범기업 위안화 해외 직접투자 허용
	- 3월 위안화 무역결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인민은행)
	- 12월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 도입
2012년	- 3월 모든 기업에 위안화 결제 허용(위안화 결제 등록제 폐지)
	- 6월 엔-위안화 직거래 시작. - 8월 중국-대만 간 위안화 결제 합의
2013년 7월	- 인민은행, 대출금리 자유화
2014년	- 9월 위안화-유로화 직거래 개시
	- 11월 후강퉁 도입(상하이-홍콩 주식시장 간 상호투자)
	- 12월 한국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 출범, 중국 기업에 해외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2015년	- 10월 위안화 역외결제시스템(CIPS) 가동
	- 10월 24일 인민은행, 예금금리 자유화
	- 12월 광둥・톈진・푸젠 자유무역구, 1,000만 달러 한도 내 위안화 자유태환 허용
2016년	- 10월 1일 위안화 SDR 바스켓에 편입
	- 12월 5일 선강퉁 개시(선전-홍콩 주식시장 간 상호투자)

자료 : 중앙일보(2016.11.30.)

2)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의 형태

□ 위안화 역외 금융 중심지들은 각국의 경제 및 지리적 상황을 감안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홍콩을 중심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긴밀한 실물경제 협력 및 지리적인 강점과 대규모 위안화 보유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

○ 전통적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과 유럽지역의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등은 위안화 중개기능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통화 국제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 중국과의 실물경제 협력 강화와 상하이 외환거래소를 통한 양국 간 통화 직거래 시장 형성에 초점

<표 Ⅵ-5> 위안화 역외 허브 유형

유형	지역	활동내용
위안화 사용 허브형	홍콩, 대만, (싱가포르)	- 대규모 위안화 보유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 중화권+중국과 밀접한 실물경제 협력 - 위안화 실시간 거래 및 중국과의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국제금융센터 강화형	런던,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 기존 국제금융센터가 위안화 중개기능 추가 - 초기에는 홍콩을 통한 청산결제시스템 활용 -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확대에 사전적 대비
통화국제화 협력형 (직거래 시장)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자국 통화의 국제화 수준이 높은 국가 - 실물경제 협력의 확대 - 상하이 외환거래소에 양국 통화 직거래 시장의 개설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04)

□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선수요 후공급'으로 먼저 해외에서 위안화 수요를 창출하고 이후에 해외로 위안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평가

○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육성이 글로벌 리스크가 중국 역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완충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동북아 허브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1) 기본 방향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 역외 위안화 허브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능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위안화 거래 규모 확보, ② 위안화 관련 서비스와 플랫폼의 다양성 및 효율성 확보, ③ 위안화 금융수요의 흡수 능력, ④ 중국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연결성 등이 필요

○ 한국이 가진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는 중국과의 긴밀한 실물교류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2017년 기준으로 제4위의 수출 상대국이면서 동시에 제1위의 수입 상대국

○ 중국과의 실물무역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무역흑자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위안화 결제비중의 확대와 위안화 예금 증가 등은 한국 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기반에 긍정적

<그림 Ⅵ-17> 2018년 1분기 대중 무역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K-stat)

□ 향후 위안화 허브 전략은 중국경제의 향후 추세 등을 감안하되 특화형태의 역외 위안화 허브를 목표로 단계적 전략을 추진

○ 중국경제의 장기적 안정화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으로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계적 장기발전 모델에 초점

○ 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국제화와 인접 경제로서의 특수성,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감안하여 위안화 직거래 또는 위안화 표시 자금조달이 가능한 특화형 역외 RMB 허브를 목표*

* 통화 국제화 모델이나 국제금융센터 모델은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나 원화국제화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

* 무역 또는 투자 관련 위안화 거래의 확대와 중국계 기업을 활용한 위안화 거래시장의 확대 등을 모색하는 특화 모델로서의 역외시장을 추구

2) 세부 과제

가) 단계별 과제

[1 단계] 중국계 금융회사의 유치와 결제인프라 기반 확충

○ 중국 경제동향 및 추이를 감안하여 위안화 허브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중국계 금융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

○ 서울 중심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지점을 부산에 유치하거나 지역은행의 위안화 거래 관련 중국계 은행과의 협업 확대, 위안화 관련 통화파생상품의 거래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등을 추진 (예: KRX의 파생금융연구센터)

[2 단계] 혁신 중국계 기업의 유치 및 위안화 거래규제의 완화

○ 혁신 중국계 기업의 유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및 혁신에 따른 위안화 거래 수요를 창출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저변을 확대

○ 광저우 등 중국 내 혁신 지역과의 부산 경제·금융계간 협력을 증진하고 투자 로드쇼 등 공동개최 등을 모색

* 기존의 P2P 플랫폼 또는 블록체인,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예: 중국과 이스라엘 공동투자) 등의 협력 등

[3 단계] 역외 RMB허브 센터화 모색

○ 중국계 기업의 위안화 조달 및 위안화 거래 등이 가능한 위안화 허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안화 역외금융센터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장기적으로 검토(채권 발행 또는 중국 특정지역과 역외거래 허용, 세제 개편 등)

나) 중국계 기업유치 프로그램의 마련

□ 중국계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 국제비즈니스 프로그램(예: Busan Global Business Opportunities Program)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중심지, 동북아 금융중심지, 동북아 경제도시 순으로 발전해 나가는 순차적 전략을 고려

○ 중국계 금융기관 및 중국계 기업을 포함한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유치 전략은 위안화 금융허브로서의 핵심전략에 해당

○ 또한 위안화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서 금융기관 유치 전략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출기업이나 일본 및 중국, 대만 등의 수출기업을 동시에 유치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향후 5년~10년 동안 부산시의 광역경제권의 활성화 전략과 연계하여 동북아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위안화 허브 관련 특별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전략과 연계성을 제고*

* 기존의 각종 인센티브를 재점검하고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적 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심인프라 개선과의 연계, 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표 Ⅵ-6> 최근 부산시의 외국인투자(FDI) 현황

실적 / 연도	신고액		도착액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2017년	83	361,902	53	241,791	66.8%
2018년 상반기	36	223,020	29	147,031	65.9%

자료 : 부산광역시

4. 백오피스/백업 센터 구축

가. 중국 gateway로서의 부산금융중심지 역할 제고

□ 부산시는 현재 중국의 주요 도시 및 성(省)을 대상으로 학술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 중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특히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핀테크업체들을 중국에 소개하는 등의 gateway 역할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부산시의 대 중국 gateway로서의 상업적 역할은 위를 포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부산시 소재 핀테크업체들을 중국의 기업에 소개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 둘째,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이 외부에 홍보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시에 소재하지 않은 핀테크업체들까지 부산시를 통해 대 중국 네트워크를 확보하려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이들 핀테크기업들을 부산시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대 중국 서비스를 주로 하는 핀테크업체들을 별도로 모아 벤처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셋째, 중국 기업들은 부산시를 통해 연결된 국내 IT 벤처기업들과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실질적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이 경우 부산시)에 백오피스를 설립할 유인도 생길 수 있음

□ 부산시가 대 중국 gateway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한·중 RDM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하면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센터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 센터는 중국기업들의 니즈에 맞는 국내 IT 기업들을 찾아 매칭(matching)해주는 역할을 일차적으로 수행하게 됨

○ 그러나 한중 네트워크가 강화됨에 따라 부산을 R&D Hub로 활용하려는 중국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부산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부산시가 중국기업을 부산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회계 인프라[35], 콜센터[36] 및 자금통합관리센터[37] 등 관련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 RDM 클러스터를 구체화하고 부산금융중심지 내 중국 Gateway역할과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콜센터 및 자금통합관리 기능, 법률·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또는 특구

35) 법률 및 회계는 시장을 따라가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법률시장의 경우 대외개방을 추진한다면 부산에 이를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외국계 법률회사의 전초기지로 부산을 활용하게끔 조치

36) 콜센터 유치는 금융기관 내 콜센터 역할 강화, 높은 성장 전망,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효과 등 금융중심지로서의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37) 국가간 소액 지급결제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자간 관계에 의존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 국가내 다수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 공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

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 투자 및 중국관련 금융서비스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콜센터 또는 역외 자금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금융비즈니스 서비스에 특화하는 형태

○ IT 분야는 거래소의 역할 활대, 물류산업의 육성과 스마트 시티 등 업종 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IT를 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

○ 법률 및 회계 분야의 경우 금융중심지 기능이 활성화되고 중국 및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금융서비스 연계가 가시화되면 관련 기업의 지점설치 등 지역화 유인도 커질 것으로 예상

○ 콜센터 및 백업센터 등 금융 IT 서비스와 지원서비스(back-office) 기능을 통합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특구 또는 센터 기능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 예를 들어 북항 개발의 IT 및 영상 지구 등에 IT서비스 업무도 추가하여 금융 IT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특화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해당**

(참고) 한·중 RDM(R&D and Marketing)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 21세기 혁신의 대부분은 R&D Hub에서 시작되며, 융·복합 시대의 경우 소규모보다 다양한 분야의 R&D Center들과 대학들이 집적된 R&D Hub 구축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

○ 인구 3억, GDP 15조 달러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미국의 R&D Hub는 서부 실리콘벨리, 동부 보스턴과 이스라엘 등 3군데에 불과

○ 이스라엘의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 권력인 유대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미국을 내수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고, 기술개발을 통한 한 번의 성공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수십 년간의 많은 성공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R&D Hub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구가 7.5백만에 불과하여 디자인과 마케팅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중국은 향후 세계 최대 경제국가가 될 잠재력이 큰 나라이지만 현재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R&D Hub는 없는 상황

○ 중국은 인공위성, 핵무기 등 기초기술(basic technology) 개발을 위한 소규모 R&D 센터는 중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나 R&D Hub는 없는 상황

○ 중국은 2015년 1인당 GDP 10,000 달러, 2020년에는 국가 GDP가 21.4조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 국가이자 인구 14억의 최대 내수시장이 될 전망

○ 21세기 융·복합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은 중국 내에 3~4개의 R&D Hub를 준비하는 R&D 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

○ 문제는 상업적 기반의 기술(commercial technology) R&D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1인당 GDP 10,000달러 이후 2025년까지의 10년간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백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임

(참고) 한·중 RDM(R&D and Marketing)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형 중견·중소기업들은 재벌의 기술착취와 좁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고 재도약도 어려운 상태임

○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일부 글로벌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적·환경적 장점을 내세워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국을 내수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10,000불을 넘은지 17년이 경과하였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4시간 R&D가 가능함

○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개발과 활용이 세계 최고인 ICT 생태계 early adopter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테스트 마케팅이 가능한 적절한 경제규모(인구 5천만, 1인당 GDP 2.2만 불)를 나타냄

○ 대한국민의 근면성과 한국의 문화,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세계 최고 수준임

□ 초대형 내수시장인 중국과 24시간 R&D가 가능한 한국의 R&D Hub를 결합하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한국을 R&D Hub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 센터와 경쟁시키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권역으로 발전 도모

○ 중국의 전략적 투자자 기업은 중국 내 경쟁사들보다 우월한 기술력과 RDM Center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임

○ 한국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들은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의 재무적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높은 자본차익(capital gain)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국의 고급 인재들이 한국행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됨

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對일본 백업센터 활성화 추진

□ 일본은 지리적·지형적·기상적인 제반조건에 따라 태풍,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임

○ 특히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변동대에 위치하며, 전 세계의 0.25% 밖에 안되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지진 발생 횟수와 활화산 분포 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기업들에게 백업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안전한 데이터 운영 및 보관을 위해 한국에 백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근대적 지진관측 이후 4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15,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해 여름 일본 내 전력 공급이 15% 이상 줄어듦

○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잦은 전력 송출 중단은 일본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으며 백업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실제로 2011년 당시 일본 내에서 백업 데이터센터를 갖춘 기업은 17%에 불과**

○ 2011년 12월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KT와 손잡고 1천2백개 일본 기업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경남 김해에 설립했으며, 일본 NTT데이터 및 히타치제작소는 LG 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해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지진·해일 피해 걱정 없이 세계 최고 ICT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조건은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일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산은 지리적 장점과 면진

설계[38] 등 첨단설비를 통해 일본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세미나나 박람회 등을 통해 부산의 백업센터의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또한 일본 내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는 일본기업은 주로 IT 기업들이며, 향후 다양한 업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5. 파생금융상품 기반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가. 파생금융상품시장과 글로벌 위상 제고

□ 부산금융중심지의 파생상품 기반 강화는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차별화와 글로벌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에 해당

○ 2018년 10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는 주가지수상품 21개/채권금리상품 6개/통화상품 11개/Commodity상품 4개/주식상품 5개/글로벌지수상품 2개로 총 49개의 상품이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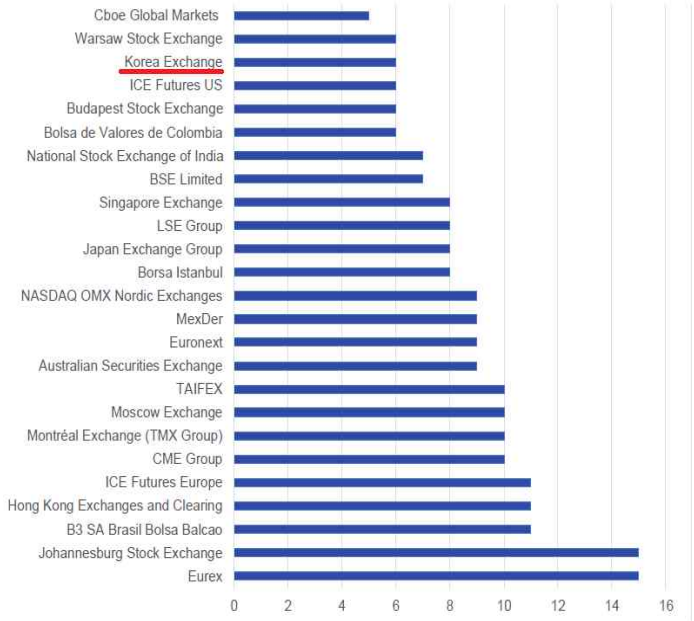
○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ohannesburg Stock Exchange)는 15개 형태의 파생상품을 제공하며 가장 많은 상품 형태를 보유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6개 종류의 파생상품 라인을 제공하며 전체 거래소 중 공동 20위**

38) 면진 장치를 이용한 내진 설계, 다양한 내진설계의 방법 중 하나로 댐퍼와 같은 면진 장치를 건물 및 교량의 하부에 설치하여 지면의 흔들림이 건물 구조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림 Ⅵ-18> 2017년 거래소별 파생상품 형태 수

(단위 : 개)



자료 : Word Federation of Exchanges(2018)

□ 한편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는 대외 거래소 간 경쟁심화와 규제강화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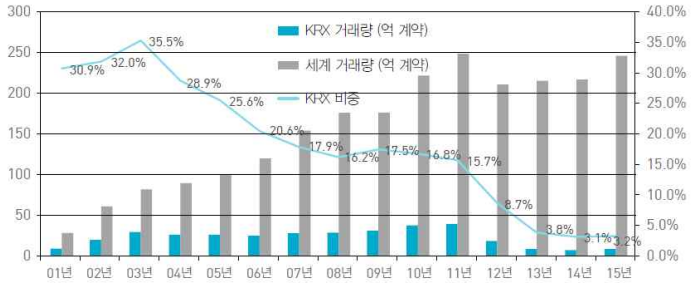
○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장내화에 따라 커지는 장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형거래소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 KRX의 파생상품거래량은 2001년~2011년 기간 중 4.5배 증가에 불과한 반면, 글로벌 선도거래소의 경우는 8.9배로 증가

○ 또한 동 기간 중 KRX의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개인투자자의 축소 및 기관투자자의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30.9%에서 15.7%로 크게 하락

<그림 Ⅵ-19> KRX 파생상품의 세계 거래량 비중 추이

(단위 : 1억 계약) (단위 : %)



자료 : KRX,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20년 성과 및 발전방향(2016)

□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감안할 필요

○ 국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 강화와 파생상품거래의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파생거래에 대한 대내적 수요충족에 초점

○ 국내 증권거래소는 중국 및 일본 등의 국제적 금융중심지 위상과 실물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협력 또는 역할분담을 고려

* 국내 증권 및 파생금융시장은 거래시간이나 거래상품 등에 있어서 차별화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

* 해외 거래소의 상품거래를 촉진하거나 교차, 연계 형태를 통해 국내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기존 정책을 유지

○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 국내 증권거래소의 해외합작 또는 플랫폼 공유 등 기존 협력을 토대로 증권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확대를 장기적으로 모색

○ 부산금융중심지 내 시장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증권 파생금융 관련 시장, 제도, 감독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

1) 기본방향

□ 한국거래소(KRX)는 증권투자업무의 지역집중을 통해 금융중심지 업무기반을 확충하는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역량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데 초점

○ 증권투자업무 인프라의 지역화 비중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금융중심지 내 기여도 및 리더십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

○ 대내적 수요의 제한적 기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외적, 국제적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필요

○ 아시아 지역 내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과 관련된 신상품 개발을 적극 모색

2) 세부과제

가) TR기능의 활성화 및 감독기능 확충

□ 거래소 기능 및 증권투자업무의 집중화를 통해 금융중심지 업무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TR) 기능을 확보

* CCP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TR의 기능 및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TR 관리자로서의 거래소 역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부산 내 감독기능 확충이나 데이터서비스 업무 등으로 확대

* 증권업무 관련 시장감시기능 및 장외거래에 대한 감독 관련 기능의 지역사무소 또는 지역 전산기반을 확대

나) 아시아 시장 관련 거래소 역할 강화

□ 아시아 시장과 관련된 거래소의 거래기반이나 역할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내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 아시아시장(일본 및 중국 제외)에 대한 주가지수와 연동된 상장지수펀드의 개발 등을 통해 아시아 시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제고

○ 아시아 국채지수(ASEAN 국가) 또는 신성장국가(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장지수증권(Equity Linked Notes) 거래기반 확충을 모색

○ 지수개발 관련 전문가 육성이나 연구 등을 강화하여 지수연계투자(index 또는 passive asset management)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

<표 Ⅵ-7> 아시아 국채 시장 규모(2018년 6월)

(단위 : 10억 달러)

순위	도시 및 국가	2018년 2분기
1	일본	9,754
2	중국	6,548
3	한국	841
4	태국	262
5	말레이시아	179
6	싱가포르	174
7	인도네시아	154
8	홍콩	148
9	필리핀	86
10	베트남	48
	합계	18,194

자료 : SWIFT Watch(2018)

다) 상품파생시장 관련 연계 및 교차기반 모색

□ 장기적으로 거래플랫폼 연계 또는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상품파생금융상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 오사카, CBOT, 상하이 등의 특화상품의 교차상장을 확대함으로써 상품파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상품파생 관련 24시간 거래를 확대하는 형태**

○ 해운 관련 파생상품 및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수출입 규모 또는 양국 간 산업연계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한 중국 등과 연계거래 활성화를 모색

라) 외화표시 증권의 거래 활성화를 모색

□ 장기적으로 외화표시 증권의 거래 등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 교차상장이나 유치 등을 통해 외화표시 증권거래를 모색함으로써 거래소의 글로벌 주식시장 또는 자산운용시장과의 연계성을 제고

○ 표준화 및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채권거래 플랫폼 및 국제 펀드거래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예탁결제 기능(ICSD: 가칭 Asia Clear)의 확충 방안도 적극 추진**

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파생시장 인지도 제고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장기적 활성화에 따른 장외시장거래 확대 및 파생시장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중개기관 또는 플랫폼의 유치를 적극 모색

○ 탄소배출권 시장은 장내시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장외거래 또는 파생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단계별로

거래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2단계 (2018-2020), 3단계 (2021 이후)

○ 탄소배출권 관련 중개기관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시장조성 관련 부서 등 관련 업무의 지역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국제적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020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중심지 입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

바) 증권 유관기관의 지식공유프로그램 지역 내 활용 확대

□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s)의 지역 내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산 금융중심지의 아시아 인지도를 제고

○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파생상품 및 아시아 국채시장 통합, 해운금융, ADB와 연구협력 등 다양한 지식공유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주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지역 학계 및 전문 인력, 지역 공공금융기관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아시아 내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역량 및 인지도를 제고

6. 자산운용업 활성화

가. 자산운용업 환경 분석

□ 전국 모든 자산운용 대상 여유 자금의 서울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모든 주요 자산운용사가 서울에 본부 및 관련 업무조직을 집중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금융중개 기능의 서울 집중화 현상의 일부분으로서 자산운용업도 예외가 아님

○ 대표적 부산지역 금융회사인 BNK그룹도 자산운용사를 서울 여의도에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부산지역의 여유자금도 서울소재 자산운용사들에게 집중되고, 부산지역에는 단지 이들 자산운용사의 지점만이 존재하는 형태임

□ 한편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도시 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민연금 자산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 된 사례임

○ 민간 금융회사의 이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공공 금융회사 또는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지자체 및 지방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은 전반적인 시장통합, 패시브(passive) 운용 활성화, 비용 효율화 등의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투자자보호가 가속화되고 있음

○ 다양한 글로벌 인덱스(global index)의 구축, 지역 내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운용의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선진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패시브 운용 상품인 ETF(Exchange Traded Fund)시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낮은 수수료로 투자가 가능해짐

○ 이와 같은 패시브시장의 확대는 액티브운용 상품이 패시브운용 상품 대비 지속적으로 초과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반면, 저비용의 효율적인 패시브 시장이 확대되면서 패시브 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자산운용의 테크닉 차원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기반한 다양한 트레이딩 플랫폼이 출현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경쟁은 강화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시장(public market) 뿐만 아니라 전문적 투자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모시장(private market)으로 확대되고 있음

나. 전략적 방향성

□ 자산운용 시장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감안하여 부산의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자산운용업의 부산 지역시장 확보 및 역량강화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 부산지역의 자금부터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지역 소재 자산운용사가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시장 확보가 필요함

○ 완전 경쟁적인 자산운용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소재 자산운용사의 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부산지역 내 본점을 두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요 시장 참가자(key market player)로서 존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 일단 부산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클러스터 형성, 상호 작용을 통해 부산지역과 타 지역의 운용자금을 흡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의 자산운용업이 발전하게 될 것임

□ 일단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의한 지역적 자산운용업이 확산된 이후 궁극적으로 부산지역 내 글로벌수준의 시장 참가자(market player) 육성을 통해서 글로벌 자산운용 허브화를 지향할 수 있음

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자산운용업 지역시장 공략의 개념

□ 우선적으로 "부산지역 소재 자금은 부산소재 자산운용사(market player)에 의한 운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부산지역 소재 자금도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부산소재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부산소재 자산운용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더라도 궁극적 투자대상 운용처는 국내외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 상품 (국내외 주식, 채권, ETF, 파생상품, 부동산 등)이며 대부분의 자산시장이 비대면 전산거래로 이루어지므로 자산운용사의 부산지역 소재 여부가 투자실행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불리할 이유는 없음

○ 단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산운용업 관련 종사자들의 비공식적(informal) 연결망(network)을 통한 정보 취득 차원에서 부산지역 소재 시장참가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은 있을 것임

□ 부산소재 자산운용사가 출현하고 이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산운용의 실력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평판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될 경우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산 이외 지역 자금이 부산으로 집적되면서 서울과 경쟁 가능한 부산의 자산운용허브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시발점은 부산소재 자산운용사가 출현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라. 부산소재 금융회사의 부산지역 자금운용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 부산소재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측면 경쟁력 강화 방안은 시장참가자인 해당 금융회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음

□ 저금리 환경하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

○ 만기장기화, 구조화상품(기업연금 유동화 상품 등), 만기매칭형 펀드, 타겟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등 저금리 하에서 상대적 금리경쟁력을 보유한 상품은 안정적인 위험성향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음

□ 고객 요구에 맞는 상품구조 및 마케팅 전략의 구축

○ 예를 들어 부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퇴직연금, 지역민의 여유자산 운용 상품 등에 다음과 같은 상품구조 및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예1) 영세사업자 및 확정기여형 위주 퇴직연금 가입 공략을 위한 투자기간 장기화, 투자상품 다변화, 위험성향을 감안한 자산배분 위주 마케팅

○ (예2) 글로벌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한 일임형 랩(wrap) 운용

*** 동적 모델포트폴리오 조정 (Dynamic Model Portfolio Adjustment)**

*** 무료 수준의 저렴한 랩(wrap)수수료율을 통한 운용자산(AUM) 확대**

***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

○ (예3) 안정적 대체투자자산 편입(해외 인프라, 부동산 등)을 통한 현금흐름 안정화

*** 투자자산 만기 장기화(5년 이상)를 통한 장기계약 유도**

*** 위험성향에 따른 고수익추구 고객 군 확보**

*** 자산운용 집중화를 통한 저비용 사업구조 유지**

□ 자산운용과 관련된 전산(digitalization) 투자 및 관련 플랫폼 구축

○ 예를 들어 퇴직연금/IRP고객을 위한 전용 플랫폼, 자산운용과 관련된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구축 등

□ 운용실적 및 자산운용관련 서비스 질 제고가 실질적으로 체감되어야 지역고객 확보가 가능

□ 한편 금융그룹의 경우 자산운용계열사 간 협업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산운용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험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구성 및 동적 포트폴리오 조정(Dynamic Adjustment)의 공유

○ 글로벌투자, 대체자산 등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 자산운용 관리에 용이한 영업 플랫폼 확보

□ 이러한 시장경쟁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산지역의 “star market player”가 탄생하는 경우 부산지역의 자산운용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임

○ 결국은 투자 결정에 가장 중요한 투자자 문화 배양이 필요함

□ 한편 새로운 자산운용 사업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기금형 퇴직연금,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적자금 운용에 적합한 OCIO(outsourced CIO) 사업모델이 이에 해당함

□ OCIO는 투자자(Asset owner)가 자산운용 업무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외부의 투자 관리 전문회사에 일임 형태로 위탁함으로써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 서비스업자가 투자자의 CIO 역할, 즉 자산운용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맡아 수행하는 사업모델임

□ OCIO 사업모델 및 관련 시장은 국내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 사업모델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시장 전망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Ⅵ-8> OCIO(Outsourced CIO) 사업모델

구분	내용
OCIO 시장 현황 및 전망	· 전세계 OCIO 시장 규모는 2007년 0.9조 달러에서 2017년 1.6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4%씩 성장해 2022년에는 2.7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OCIO의 개념	· OCIO는 투자자들로부터 자산운용 업무를 일임 형식으로 위탁 받은 외부의 최고투자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 서비스를 지칭함. 다시 말해 투자자(Asset owner)가 자산운용 업무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외부의 투자 관리 전문회사에 일임 형태로 위탁함으로써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 서비스 업자가 투자자의 CIO 역할, 즉 자산운용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맡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
OCIO의 유형 및 특징	1) 투자업무 위탁 (Investment Outsourcing)의 분류 - 개별펀드 운용위탁 방식 - 일임운용 위탁 방식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위탁방식 - 재간접일임 (Manager of Managers) 위탁방식 - 분산 CIO 위탁방식 - 투자자문방식 2) OCIO와 투자자문의 비교 - 투자자문과 OCIO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느냐 여부에 있음

구분	내용
OCIO의 유형 및 특징	3) 투자자의 재량권(Discretion) 부여에 따라 맞춤형 OCIO 서비스 제공 - OCIO 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 의사 결정 체계의 효과성, 내부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 기관 내 타 부서 대비 자산운용 업무의 중요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외부 위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OCIO 서비스 제공사는 투자자의 자산운용 업무 현황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에 적합하도록 요청 업무의 일부에 국한해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산 운용 업무 전반을 위임 받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4) OCIO의 주요 업무 - OCIO 서비스 제공사의 주요 업무는 투자자의 업무 위탁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자산운용 업무 전반을 포괄 - 전술적 자산배분과 유형(스타일) 배분, 하위운용사의 선정, 단기자금과 같은 일부 자산의 직접 운용 및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
OCIO 도입 주체와 외부 위탁 비중	· OCIO도입 주체별로 OCIO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연금기관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영리 기관과 민간기관 및 기업이 각각 34%와 13%인 것으로 조사 ·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 전체로 보면 포트폴리오 전체(100%)를 OCIO로 위탁하는 비중은 2015년 54%에서 2017년 65%로 증가했으며, 기관투자자의 운용 자금 규모별(소형, 중형, 대형) 조사에서도 운용 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위탁하는 비중은 매년 확대
OCIO Vendor 현황과 서비스 제공사의 다양화	· 1970년대 초기의 외부 위탁(Outsourcing)은 자산배분이나 펀드매니저 선정과 같은 일부 업무에 대한 자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기관투자자의 자금 운용 성격에 맞추어 자산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 · OCIO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다양화 - 2016년 말 기준 위탁 자금 규모 상위 10개 OCIO Vendor에는 투자 컨설팅 전문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도 포진 - 가격 경쟁력, 운용 자산의 범위, 위탁 운용 경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위 OCIO Vendor로 자금이 몰리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구분	내용
OCIO 도입 목적과 이유	· OCIO 도입은 절대수익(Absolute return) 추구보다는 위험축소(De-risking)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 기관투자자일수록 위험축소를 위해 OCIO를 도입하는 비중이 높아짐 · 가장 최근 자료(2018 Outsourced-Chief Investment Officer Survey)를 살펴보면 OCIO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Critical)한 이유는 '내부 자원 부족(Lack of internal resources)'이 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현재의 내부 자원으로는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한 원활한 자산 운용 업무 수행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위험 관리 및 수익률 제고, 철저한 관리감독 등 자산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개선 욕구가 존재
OCIO를 도입을 꺼리는 사례와 이유	· OCIO 도입을 꺼리는 이유 - 부적합한 OCIO를 선정할 위험에 대해 고민 - 자산운용사 선정에 대한 개방형 체계(Open Architecture)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염려 -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접근성과 리더십의 포기 - 투자기관이 기존 운용 자산을 운용사들로부터 회수하여 OCIO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문제
국내 OCIO 규모 및 역사	· 국내에 OCIO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OCIO를 고용한 2014년부터임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최초로 OCIO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이어서 OCIO 도입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 공적 연기금이 아닌 일반 기업이 고유자금 3,000억원을 OCIO 도입체제로 운영함. ·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형 방식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OCIO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 · 국내의 경우도 퇴직연금 관련 법률이 조만간 제정된다면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퇴직연금 OCIO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 국내에는 공적 연기금을 필두로 점차 OCIO 시스템 도입이 확대 - 그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00조원에 육박하며, 추후 퇴직연금이 기금형 체계를 도입하고, 고유자금이 충분한 일반 기업들이 OCIO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 OCIO 시장은 가파르게 양적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구분	내용
국내 주요 OCIO 특성 및 구조	· 2001년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자산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연기금투자풀을 도입 · 2012년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운용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 2013년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금만을 위한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OCIO(전담운용기관)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OCIO로 선정하여 국내 최초의 완성형 OCIO 체계를 도입 ·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기금이 OCIO 체계 전환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OCIO 시장의 외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짐 · 2015년 4월 조달청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의 OCIO로서 한국투자증권을, 산재보험기금의 OCIO로서 삼성자산운용을 각각 선정하며 2015년 7월 1일 제2의 완성형 OCIO 도입 사례가 됨
국내 OCIO 비즈니스의 향후 과제	· 축적되는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에 따른 OCIO 기능 제고 - 퇴직연금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이 OCIO시장에 등장함에 따라서 OCIO가 표방하는 고객 맞춤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 OCIO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 해외투자와 국내외 대체투자 및 실물투자와 같은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군의 투자 상품에 대한 자문과 위탁 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due diligence,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체크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문화 · 인력,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 - 다양한 고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OCIO의 역량은 결정될 것이며, 이는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구분	내용
국내 OCIO 비즈니스의 향후 과제	· 보수의 현실화 - 국내 OCIO 시장에서 고객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보수 수준의 결정은 과거 다른 기금과의 상대 비교가 아닌, 기금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원가 계산에 기반을 두어야 함
OCIO 도입의 기대 효과	· 최종 결과 중심(Outcome-oriented)의 투자자 요구에 부응 - 주요 글로벌 OCIO 서비스 제공사들은 실질적 최종 결과 중심의 투자 솔루션*을 통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위험 감내도에 맞추어 대체투자를 포함한 자산배분 전략 및 자산운용 실행·관리·감독 솔루션을 제공 * 최종 결과 중심의 투자 솔루션이란 투자에 대한 고객의 초점을 투자 과정보다는 투자 결과로 이동시키는 제안 · 복잡한 분산 포트폴리오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구축 - OCIO 도입을 통해 전략적 자산배분과 같은 투자계획과 전술적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 등의 투자 실행 및 관리를 분리시킴으로써 각자의 영역에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 · 전문적 투자 위험관리 및 개별 운용사 관리 -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투자된 '모든 자산'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정의, 분류할 수 있는 전문경험과 이를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가 필요 - OCIO 서비스 제공사는 위험관리 전문 인력을 통해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 등의 기준을 고객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산운용 체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자산운용(CIO: Chief Investment Officer) 및 위험관리(CRO: Chief Risk Officer) 기능을 OCIO 서비스 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재와 같은 내부 자원의 부족 문제를 보완
OCIO 도입 시 위임수준과 OCIO회사 수의 결정	· OCIO를 도입하는 투자기관들은 몇 개의 OCIO에 어느 수준의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 스스로의 자금운용 성격에 맞추어 결정 · OCIO에 대한 부분적 권한위임을 통해 전문성을 더 확대할 수 있고, 총괄적 권한위임을 통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자료: 국내외 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위탁 현황 및 OCIO도입 시 기대효과 연구, 채수호 외(2018)

마. 자산운용사의 육성 및 부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부산지역에 자산운용사를 육성 또는 신규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상정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1)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직접적 비용 지원, 2)부산시 운용 자산(예: 시 운용 기금 등) 및 지역 소재 기업의 운용 자산을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직접적 비용 지원 방안은 부산 지역에 신규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에게 미들오피스/백오피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 도쿄도(東京都)는 '국제금융도시 동경 구상(國際金融都市 東京 構想)' 발표(2017년 11월 10일)에서 자산운용업자의 유치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기 자산운용업자의 미들·백오피스[39] 업무에 의한 부담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밝힘

○ 자산운용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안의 관건은 부산시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금액의 규모, 지원의 부대조건인데 동 조건의 혜택 수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임

□ 둘째, 부산시 운용 자산(예: 시 운용 기금 등) 및 지역 소재 기업의 운용 자산을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방안은 직접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지만 부산 지역 자산운용사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산시 또는 지역소재 기업의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자산운용 결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

39) 자산운용업에 있어 업무운영체제로서 시장과 상대하여 주식 및 채권등의 매매를 행하는 업무를 프론트오피스라고 하는데 반해, 미들오피스는 프론트오피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펀드의 운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행하는 업무를 말하고, 백오피스는 프론트오피스에서 집행된 거래의 결제처리 및 펀드의 기준가 평가산출 등을 하는 업무를 지칭

적 지원에 의한 사후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함

○ 또한 지역소재 기업의 자금을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에게 우선적으로 위탁운용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캠페인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바. 자산운용사의 육성을 위한 민관조직체계 설립

□ 이상과 같은 부산 지역내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경우 정책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의 의사결정 기능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의사결정조직(가칭 '부산자산운용센터')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 도쿄도는 자산운용업 강화 및 도쿄의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일본국제자산운용센터(The Consortium for Japan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Center Promotion: JIAM -TOKYO-)를 설립함

(참고) 일본 국제자산운용센터(JIAM -TOKYO-) 현황

(The Consortium for Japan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Center Promotion)

□ 설립 목적

○ 일본 자산운용업 강화 및 도쿄의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 연 혁

○ 2016년 도쿄시 정부, 금융업협회 등의 협업을 통해 설립

□ 기구 성격

○ 비영리 민간단체

□ 조직, 인력 및 지배구조

○ 대표이사진 및 자문위원회 운영

* (대표이사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
* (자문위원회) 특별 회원사인 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투자자문협회 및 거래소그룹 대표들로 구성

□ 회원사

○ 정회원, 특별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성

구 분	회 원 사
정회원 (창립회원)	헤이와 부동산
특별회원	일본증권업협회, 일본투자신탁협회, 일본투자자문협회, 일본거래소그룹
후원 회원	액센츄어, Atsumi & Sakai, 블룸버그, 딜로이트, 고디언 캐피탈, JP 모건 증권, KPMG, 노무라, S&P,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미토모 미쓰이, UBS 증권 등 증권/신탁 업계 및 자문/법률 회사 등

□ 주요 활동

○ 일본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IR

*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및 '17년 서울 IR, '18년 파리 및 홍콩 IR 등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 IR 개최 등을 통한 일본 자산운용업계 홍보 및 정보 제공

○ 진입회사에 대한 인허가 취득 및 설립 지원

* 일본 내 자산운용법인 설립 관련 인허가 취득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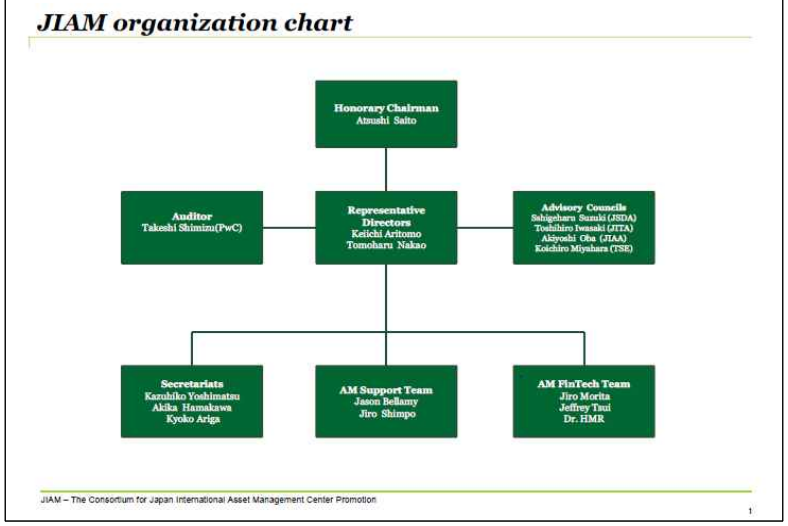
○ 자산운용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제안

* 자산운용업계 국제 네트워크 구축 노력
* 자산운용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연구 추진 및 도쿄 내 자산운용사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 공동방안 모색

○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활용

* 핀테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암 스퀘어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지원 강화

<그림 1> 일본 국제 자산운용센터 조직 현황



자료: JAIM 홈페이지

<표 1> 일본 국제 자산운용센터 주요 임원

성함 및 직책	주요 경력
명예회장 아쓰시 사이토 (Atsushi Saito)	□ 주요 경력 ○ ('14년~) 세계거래소연맹 이사 ○ ('15년~'17년) KKR 일본법인 회장
대표이사 케이치 아리토모 (Keiichi Aritomo)	□ 주요 경력 ○ ('17년~) 켄쇼 테크놀로지스 아시아 대표 ○ ('14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샌프란시스코 법인 파트너
대표이사 토모하루 나카오 (Tomoharu Nakao)	□ 주요 경력 ○ ('13년~) 헤이와 부동산 전무이사

□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는 향후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기능 확대 및 조직 개편이 실행될 경우 상호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를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산하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하부의사 결정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자산운용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부산금융중심지와 관련된 궁극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될 경우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와 기능 중복이 불가피함

○ 따라서 '부산자산운용센터(가칭)'는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산하 자산운용업관련 하부 위원회(asset management sub-committee)로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JIAM은 설립 초기 Paris Europlace와 긴밀히 관민의 밸런스 조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JIAM의 초기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Paris Europlace 역시 지금까지도 공적인 예산을 20%내외로 한정하는 등, 공적자금의 운용으로 인해 집행의 유연성 및 관료조직(Bureaucracy)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JIAM은 지자체의 강한 의지로 인해 최근 도쿄도의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근 보였던 빠른 실적을 향후에도 계속하여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음. 부산시로서는 민간조직의 장점인 스피드와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및 클러스터 참가자의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구도를 모색할 필요

7. 남북경협과 연계한 금융 등 비즈니스 강화

가. 남북경협의 현황

□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통일에 대한 사명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 '7·7선언'은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루는 민족공동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남북 간 냉전구조를 화해무드로 바꾸는데 필요한 기본방향을 담은 선언

○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7·7선언' 후속조치로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 등에서 제시되었고 북한과의 교역이 공식화

□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노선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을 기점으로 남북경협의 양적 확장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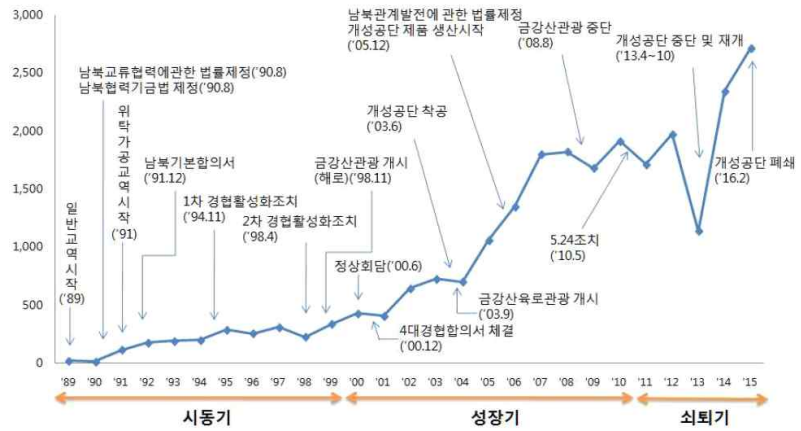
○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

○ 2000년 8월 현대 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개성공단 건설 및 운영 합의서'를 체결, 2008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노무현 정부는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과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이후 2007년 11월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3대 남북경협사업 확대에 합의한 바 있음

<그림 Ⅵ-20> 남북교역 규모 및 남북경협의 전개과정('89~'16년)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KDB Report(2018.04)

나. 남북 경협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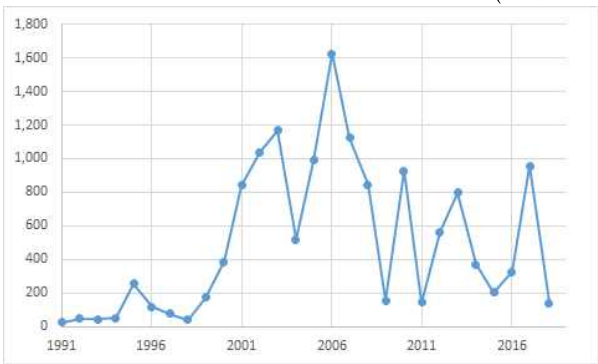
□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 액은 2018년 9월말 기준 1,391억 원으로 정부출연금 501억 원, 정부외출연금 1천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784억 원, 운용수익 등으로 106억 원으로 조성

○ 2018년도 9월말 현재 지출내역은 무상지원이 1,607억 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상지원은 21억 원에 불과

○ 무상지원 중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피해 지원으로 95.9억 원, 유동(재고)자산 추가 피해지원 233억 원으로 기업들에 대한 복구 비용지원을 주로 지출

<그림 Ⅵ-21> 남북교역 규모

(단위 : 10억 원)



자료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다. 남북 경협과 부산금융중심지의 역할

□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발표, 남북경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

□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도시 차원의 남북협력이 중요하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함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참여가 요구될 전망

○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북한에게 새로운 경제적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경우에 남북 경협을 통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 예상

○ 남북경협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더욱 중요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수반될 필요

○ 통일부 통일백서(2018)에 따르면 광역 17개, 기초 39개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사업의 재원으로 14개 광역 지자

체가 799억 8,700만원, 10개 기초 자치단체가 96억 5,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 향후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남북철도망의 시발지로서 파급효과, 부산지역 기업의 새로운 생산 및 수출거점 마련, 물류 및 금융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추진 과제

1) 기본 방향

□ 부산의 지정학적 입지는 남북교류 확대 초기에는 인천 등과 비교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태평양(일본) 및 동해안, 러시아를 연계한 경협모델의 차별성을 부각한 동해안 중심의 남북경협 모델로서 수산, 해운 및 항만, 인프라, 물류 등을 연계할 경우 장기 발전모델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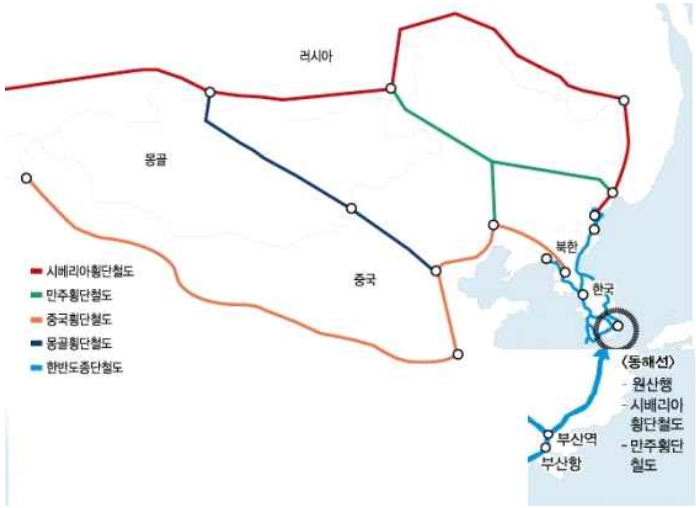
○ 부산시는 환동해 경제권의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부산-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루트를 개척하고자 노력 중

* 훈춘→자루비노항→부산항의 대상 품목은 생수, 냉동수산물, 곡물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확대,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IT· 물류운송 장비의 첨단화 등을 통해 글로벌 1일 물류권을 기대

* 한일 양국에 동시에 등록된 더블넘버 트레일러 운영 방식인 밀크런(Milk run)으로 이미 일본(부산-후쿠오카)과는 글로벌 1일 물류시스템을 확보

<그림 Ⅵ-22> 부산역과 부산항 물류허브 연계도



자료 : 머니투데이 2018. 5.11에서 일부 발췌

□ 역내 금융기관의 협력 유도와 중앙정부-부산시 간 협력 모델 개발, 물류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금융모델의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을 중심으로 관련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동해안 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부산시 자체 자금 이외 경협기금 중 장기 예산(또는 기금) 확보와 주변국의 자본, 기업 등과의 합작 벤처투자, 항만 인근 배후 산업단지의 국내 공공기관 개발 및 개발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한 경협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남북경협은 비핵화와 관련한 대북제재의 해소 추이에 따른 시점 위험(timing risk)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물류산업을 통한 남북경협과 지역경제간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타당성 및 동남경제권과의 협력방안도 검토

○ 또한 남북경협에 대비해 파급효과가 큰 물류 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그것을 촉매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

2) 세부 과제

가)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신기술 기반 물류중심지 육성과 금융기반 확충

○ 블록체인 등 4차산업 혁명, 5G, ICT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시티 물류중심지 육성

***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세물머리지역 중심의 66만평에 이르는 에코델타시티 2곳처럼 스마트시티를 항만거점지역과 연계 및 확대**

○ 블록체인 및 혁신 기술기업 지원 등에 있어서 물류 중심지 입주기업이나 관련 인프라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보증 또는 대출프로그램을 마련

나) 남동권역의 산업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아시아지역 물류센터 역할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검토하고, 관련 물류산업 및 연관 산업의 성장 전략을 광역권 형태로 추진

○ 남동권의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남동권 물류산업 육성을 광역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 간 공동협의체 또는 포럼 등을 추진

○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간 아시아 물류기지 유치를 위한 기획단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 유인 프로그램을 마련

*** 미국 및 일본 등 글로벌 소매 및 유통업체를 포함한 잠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운, 항공, 물류, 금융서비스 등을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체계를 구축**

다) 해상보험 및 대재해보험, 무역보험 등과 관련된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

○ 물류중심지 역할 확대를 통해 해상보험, 대재해보험, 재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보험수요를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

○ 우선 국내 손해보험사 또는 신설 재보험사 또는 외국계 재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유치 노력을 추진

*** 재보험시장 개방 시**

○ 해양 및 항만시설 등 장기금융 활성화를 위해 향후 동북아개발은행 또는 정책금융기관, 대형금융기관 등과 장기 협업 방안을 모색(예: 공적 보증과 연계한 지역금융기관의 장기금융 확충, 남북경협기금을 활용한 남북물류 협력 확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적격펀드의 설치 등)

라)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한 러시아 및 북한개발 관련 금융기반 확충

○ 북한 및 러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상공회의소 또는 지역경제단체 등을 통한 경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

○ 수산금융 관련 국내 선도금융기관의 유치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금융기반을 강화

○ 북한 경협 관련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대북 경협 관련 기금을 마련하거나 중앙정부와 매칭(matching) 방식을 통해 “부산 동북아협력기금(가칭)” 마련 등을 검토

마) 북미발-아시아향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의 검토

○ 부산항을 통해 북미의 에너지를 수입 저장 (울산에 신축 중인 LNG terminal등을 활용)

○ 이후 육상운송로를 통하여 운반함으로써, 해운과 육상물류의 연계

○ 북미 에너지 기업과 연계하여 경제성, 실현성의 논의

○ 고정자산인 선박의 운용주체, 관리노하우의 습득,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운송비용의 효율화 등을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육상물류와 해운을 별도로 생각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예로, 일본의 "철도 운수기구의 선박 공유 건조 제도"라는 것이 있음. 간단히 설명하면 철도 운수기구 및 해상 운송 사업자가 해상 사업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해당 선박을 일정 기간 공유하고 철도 운수기구는 해상 운송 사업자에게 사용 ·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임. 공유 기간 동안 해상 운송 사업자는 철도 운수기구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다가 공유 기간 만료시 기구의 지분 (잔존 가액)을 매입하여 해상 운송 사업자의 100% 소유 선박이 되도록 하는 구조

8.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및 관련 인프라

가. 금융특구 설정

□ 현행 금융중심지법 만으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다양한 파격적 인센티브(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위안화 허브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함

□ 금융특구를 설정하고 특구 내에서의 직접적이고 과감한 특례적용이 없이는 다양한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의 추진 동력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금융특구법을 제정하여 금융특구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반여건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금융중심지추진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중심지추진체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는 금융위원장, 기재부장관, 해당 금융특구 지자체장 등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하여 의사결정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특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2)금융특구법 제정을 통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금융특구법 제정을 통한 특구지역 내 차별성을 감안한 정책 집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과 관련되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이 개정되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하여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설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 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이 가능케 함. 또한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와 같은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 없이 혁신기업이 독자적으로 금융혁신 사항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해짐

□ 현재 입법화되어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추가하여, 금융특구법 제정을 통한 금융특구 설정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컨설팅, 신용조사 등 다양한 금융인프라에 대한 관련 법률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및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금융중심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개정 지역특구법의 주요내용

□ 지역특구법의 주요 내용

○ (추진방향)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기술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특구 신설

○ 규제혁파,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다른 특구와 중복 논란을 피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차별화

○ 규제자유특구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간 연계를 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구 지정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내 입지 우선 고려 등 타 특구와 연계 추진

<표 1>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비교

구 분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설) 규제자유특구
대 상	모든 기초지자체	수도권 제외 광역지자체
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계획 (민간사업자와 공동)
신청	기초지자체→중기부	광역지자체 → 중기부
협의	중기부↔관계행정기관	중기부↔관계행정기관
심의 의결	지역특구위원회 (위원장 :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지정·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고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고시 (중기부)
지정 효과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인센 티브	없음	세제 및 재정 지원

○ (주요내용) 신제품·신서비스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향토사업 중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 신설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와 달리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더불어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가 적용

<표 2> 규제자유특구 적용 규제특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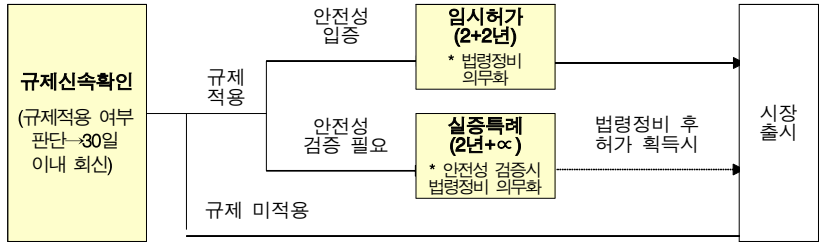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미적용	적용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 (규제 신속확인) 지역혁신성장사업과 관련하여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 →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임시허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적으로 허가 부여 → 시장출시 가능

○ (실증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실증을 허용

<그림 1> 규제혁신 3종 세트 개념도



나. 금융특구와 연계된 외국인 및 금융종사자의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

□ 관련 법률에 의거한 금융특구가 지정될 경우 금융중심지 제반 조건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외국인 및 금융종사자의 종합적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 형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집적이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의 공통점은 외국인들이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임

○ 특히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정주하는데 영어 공용국가 대비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가급적 해소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외국인 정주 클러스터(가칭 'Busan Foreigners' Village')를 조성하여 외국인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적절한 가격에 임대차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가족단위의 정주를 위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가 중요한 정주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해외 유수대학의 Busan Campus 유치 방안 등을 고려

□ 또한 영어 사용 주민센터 운영 등 부산이 실질적인 외국인 베드타운(bed town)이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환경 조성이 필요

□ 한편 서울 소재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논의가 시작된 바 유치 대상 금융공공기관이 부산 이전 시 임직원에 대한 거주지 우선 공급 등 다양한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

다. 금융포럼 및 행사 유치

□ 현재는 부산국제금융포럼이 운영되지 않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향후 부산시,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부산금융포럼을 창립하여 금융중심지 발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민간 금융회사,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정책 당국의 당면 어젠다에 관련된 연구 심포지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함

○ 부산금융포럼을 진행하는 기간을 '금융중심지 주간(week)'으로 지정하고 동 기간 중 관련 금융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 예를 들어 1개 기관 당 1개 이상 세미나/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주간'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함

□ 부산 소재 금융관련 공공기관/학회/협회 등의 행사를 확대 유치하여 부산을 금융관련 리서치 허브(Research Hub)로 육성

○ 부산 소재 금융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는 BIFC 유치를 의무화하여 BIFC의 가시성을 확대

○ 입주 공공기관, 협회, 학회 등과 행사 유치를 위해서 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해당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도록 추진함. 예를 들어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해양금융관련 학회의 설립 및 행사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언론기관, FATF TREI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등의 글로벌 행사 유치도 필요

9. BIFC 확대 발전

가. BIFC 입주기관과의 협업생태계 확대 발전

□ 기존 BIFC 입주기관과의 협업 생태계는 이미 일정 단계 이상으로 구축되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BIFC입주 기관이 금융중심지 협업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동 기관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 중심지추진체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거래정보거래소(Trade Repository)를 2020년까지 설립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학술용 KRX Data Library 설치, 선물산업협회(FIA)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시와 공동출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 밸리(valley)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까지 증권박물관을 건립하고 2020년까지 부산전산센터를 신설할 예정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조개선기업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공공 유휴자산 관리 및 개발 등 적극적 민간/공공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중임

나. 금융공기업 유치단 T/F구성

□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이전 대상 금융공기업의 부산시 선점 유치를 위해서 금융공기업 유치단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전 가능한 수도권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음

○ 유치단 T/F는 지자체/지역구 의원/민간단체 중심으로 민관 협동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이들 금융공기업은 규모 및 인력, 이전시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존 BIFC입주 금융공공기관 대비 우월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 금융공기업으로 평가되는 기관임

□ 만약 이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정무적으로 가시화된다면 기타 지방도시 대비 부산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주 여건 및 기존 BIFC의 집적 효과 등으로 인해 타 지방도시 대비 부산의 강점은 인정되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강조할 필요

□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가 가시화 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T/F의 1:1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부산이전에 대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타 도시대비 우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0.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

가. 회원제(Membership)도입 방안

□ 부산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나 현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추진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부산금융중심지는 부산시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민간중심의 정책포럼[40]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사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

체적인 계획과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조직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융위),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감원) 등 중앙정부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추진력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임

□ 금융중심지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런던, 토론토,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등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조직(PPP)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영국의 더씨티유케이(TheCityUK)는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중심기구로서 금융산업경쟁력 제고와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런던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9월 이후 부동의 1위[41]를 기록하고 있음

○ 토론토 금융연합(TFSA)는 정부·금융업·학계 회원(64개사)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조직으로, 투자유치·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줄곧 10~15위권에 머물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2017년 이후 7위[42]로 상승함

□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도 회원제(Membership)제도 도입을 통해 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중심지 조직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現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주축으로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회원제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조직과 혜택을 확대

○ 회원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개선이나 정책방안의 결정 시

40) (사)금융중심지혁신포럼, (사)국제금융포럼
41) 2015년 9월(GFCI 18)~ 2018년 3월(GFCI 23)
42) 2017년 9월(GFCI 22), 2018년 3월(GFCI 23) 기준 7위 기록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정부와 금융회사들 간 정보 교류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의사결정시 중앙정부와 중심지 지원조직 간 협업체계가 강화될 수 있음

나.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 강화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금융회사·학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조직(PPP) 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필요

○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부산시장으로 구성되고, 소수의 민간전문위원들을 선출직으로 포함

○ 하부위원은 부산시·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되며,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 예산 및 기획, 자산운용업, 금융중심지 인프라, 금융회사 유치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 강화된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은 부산형 금융발전모델 개발, 대북금융시스템 구축지원 등을 통해 부산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 실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국내외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회의) 유치 전략수립 및 시행

○ 부산형 금융발전모델 개발 및 분석

○ 금융산업정책연구 수행

*** 국내외 금융동향 조사·분석 및 금융중심지 제도 개선·연구 등**

*** 금융정책 등에 대한 연구용역수행 · 금융회사 용역수행**

*** 금융중심지 제도 및 발전 정책 연구**

*** 정부 · 금융계 · 언론계 · 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

*** 국내외 금융경제 정보 수집 · 분석**

○ 대북 금융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등 대북사업 지원
○ 대북 협력사업 파이낸싱 연구 개발
○ 북한 인프라 개발 대비 금융지원체제 구축

□ 무엇보다도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위임받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추진조직의 다양한 전략 및 정책들이 채택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추진조직의 책임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판단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재량 강화와 더불어 조직의 상기기능 확대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이 실질적인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회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구성과 지자체의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는 출연체계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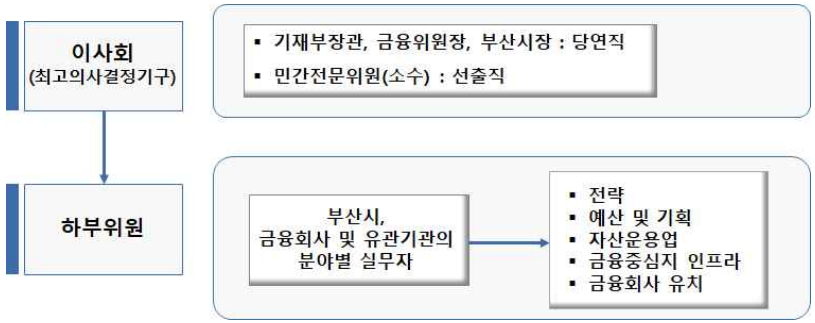
* 예를 들어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이전한 공공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부산 중심의 금융그룹 또는 부산지역 내 금융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지역내 기업 관련 협회, 핵심기업의 대표자 등이 해당

* 부산금융중심지의 공적 역할을 감안하여 지방 재정 또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 지역 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예: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을 통해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출연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

○ 이사회의 하부 기구로서 전문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주요 금융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임원급 또는 상위 실무급 조직을 통해 상시기능 확대와 협업체계를 강화

<그림 Ⅵ-23>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예시)



(참고) 일반적인 PPP모델의 정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3]에서는 민관협력조직(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정부와 하나 이상의 민간부문 파트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이 계약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라는 목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이러한 계약 구조를 통한 효율성은 민간 측에 위험을 충분히 이전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정의함.[44]

□ OECD를 제외한 ADB, IMF, EC 등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PPP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대신하거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 위험분담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PPP 정의>

기구/국가	정의
OECD	정부(서비스 제공)와 민간(수익)의 목적이 일치하는 사업에서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을 분담
ADB	인프라 및 인프라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협력을 일컬으며 민간은 위험분담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IMF	경제사회 부문 인프라 사업 수행 시 민간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부는 인프라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민간으로 이전
EC	공공부문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프라 건설과 개선 및 관리유지 서비스를 제공
영국	공공부문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부담

자료: OECD(2008); 장현승(2013, p. 2, 재인용).

43) OECD(2008), p. 17.
44) 기획재정부, KDI(2013), p. 11.

다. 해외 사례

1) 캐나다

□ 캐나다의 4대 금융중심지(토론토·밴쿠버·몬트리올·캘거리)는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조직(PPP)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표 Ⅵ-9 > 캐나다 4대 금융중심지 추진 조직

도시명	추진조직
토론토 (Toronto)	TFSA : 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 (토론토 금융연합)
밴쿠버 (Vancouver)	Advantage 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 (밴쿠버 국제금융센터)
몬트리올 (Montreal)	Finance Montreal (금융몬트리올)
캘거리 (Calgary)	Calgary Economic Development (캘거리 경제개발)

자료 : 부산경제진흥원(2016.8) 재인용

가) 토론토 금융연합(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

□ 토론토는 금융 서비스 클러스터와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로 성장하기 위해 토론토 금융연합(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 이라는 민관협력 조직을 2001년 창설해 운영하고 있음

○ 토론토 금융연합은 설립초기에는 중앙정부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금융 서비스 산업 발전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정부·국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토론토 금융연합은 성장(Growth), 지명도(Reputation), 경쟁력(competitiveness)

등 3가지를 주업무로 수행함

○ 성장(Growth): 토론토 금융부문의 직장과 투자의 성장을 위해 부문간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함

○ 지명도(Reputation): 국제적인 금융허브로서 국내외에 지명도를 제고하기 위해 토론토 금융부문의 장점을 주지시킴

○ 경쟁력(competitiveness): 매력적인 기업환경과 우수한 인적 자원의 거주지로서 토론토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1) 정책 발굴 및 추진, (2) 인력양성 전략 발굴 및 추진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의 실현을 위해 산하에 '국제금융위험연구소(GRI, Global Risk Institute in Financial Services)', '금융전문교육센터 (CoE, Centre of Excellence in Financial Services Education)'를 운영

□ 토론토 금융연합의 대표위원회는 4명의 정부기관 고위층(토론토 시장, 온타리오 주지사, 온타리오 재정부 장관, 캐나다 재정부 장관)과 15개의 금융기관 CEO(은행, 연금기관, 투자기관 등)를 포함해 구성하고 있음

○ Executive Team(집행임원, 5명) FSA의 집행임원들의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적인 자질을 활용하여, 토론토가 financial services centre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

○ Leadership Council(대표위원회, 21명)은 고위급 정치 지도자와 토론토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장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캐나다의 저명인사인 Barclays Capital사의 회장인 Hon. Michael Wilson이 맡고 있음

<그림 Ⅵ-24> 토론토 금융연합

자료 : 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

□ 토론토 금융연합은 정부기관, 은행, 투자회사, 연기금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핀테크, 기후변화 관련 과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여 금융부문의 경쟁력과 성장을 이끌고 있음

○ 토론토 금융연합은 온타리오주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 11월 'FinTech Accelerator Office'를 개설함

○ 'FinTech Accelerator Office'은 국내외 금융기관과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를 연결하고, 멘토링 및 투자, 컨퍼런스·세미나를 통해 비즈니스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 또한 지속가능 금융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표 Ⅵ-10> 토론토 금융연합의 회원사

구분	회사명
Domestic-Based Financial Institutions	Aequitas, AGF, BMO, CIBC, CPP Investment Board DBRS, GMP Securities L.P. Intact Financial Corporation Manulife, National Bank of Canada, OMERS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OPTrust Power Financial Corporation (includes Great-West Life Company and Mackenzie Investments) RBC, TMX, Sun Life, TD Bank Group
Global-Based Financial Institutions	Aviva Canada Inc,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Citibank Canada,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anada), Primerica Lif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State Street Trust Company of Canada
Government and Industry Associations	Canadian Bankers Association Canadian Credit Union Association Canadian ETF Association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Inc Canadian Securities Institute, CFA Society Toronto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of Ontario City of Markham, City of Toronto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Council Halton Region, Insurance Bureau of Canada Investment Funds Institute of Canada Investment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Province of Ontario
Academia	Centennial College School of Business George Brown College Humber Colleg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 Northeastern University Rotma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Toronto Schulich Executive Education Centre, Schulich School of Business, York University Seneca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Sheridan College Ted Rogers School of Management, Ryerson University University of Waterloo
Business and Professional Services	Accenture, Border Ladner Gervais, CenturyLink, Cisco Systems Deloitte Inc., Ernst & Young, McMillan LLP, MNP LLP Morneau Shepell, Norton Rose Canada Pricewater house Coopers LLP Robert Half International Robert Walters, Thomson Reuters

자료 : Toronto Financial Services Alliance

나) 밴쿠버 국제금융센터(Advantage BC)

□ 밴쿠버의 Advantage BC는 1986년에 설립된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re)로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 홍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국제금융센터는 BC 주에서 국제 사업을 하면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 및 기업과 연계하며, 회원사들에게 국제 사업 활동(IB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른 회원사들과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

□ 국제금융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국제 사업 활동(IBA) 프로그램 가입유무에 따라 정회원(Core Members)과 준회원(Associate Members)으로 구분됨

○ 정회원(Core Members)은 국제 사업 활동(IBA)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생명과학·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준회원(Associate Members)은 국제 비즈니스 센터의 금융 및 인프라를 제공받고 있으나 국제 사업 활동(IBA) 프로그램에는 미가입됨

○ 국제금융센터는 회원들을 대표하여 BC 주 정부와 소통하며, 조세 감면 프로그램, 국제사업활동법(IBAA)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표 Ⅵ-11> 밴쿠버 국제금융센터의 정회원사

Core Members	• Alectos Therapeutics Inc. • Bank of China (Canada) • Bank of Nova Scotia • Canaccord Genuity Corp. • Canfor Pulp International Ltd. • Canfor Wood International Ltd. • Chrysalix Energy • CIBC • Citizens Bank of Canada • Coast Capital Savings Credit Union • CRH Medical Corporation • Exchange Corporation Canada • First Resolution Management Corporation • GenomeDX • Genus Capital Management • Global Relay Communications • Graymont Capital Inc. • Harmony Distribution • Haywood Securities Inc. • Haywood Securities (USA) Inc. • HSBC Bank Canada • HSBC Global Asset Management (Canada) Ltd. • HSBC Investment Funds (Canada) Inc.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anada) • Interamerican Investments Inc. • JP Morgan Asset Management (Canada) Inc. • KEB Hana Bank Canada • Kuehne & Nagel Services Ltd. • Mondiale Asset Management Inc. • Nerd Corps International Distribution Inc. • Northstar Trade Finance Inc. • Oakridge Accounting Services Ltd. • Orbis Investments (Canada) Limited • Pacad Investment Ltd. • Pacific Capital Real Estate Corp • PI Financial Corp. • PI Financial (US) Corp. • Pinnacle Canada Fund Administration Ltd. • Poly Culture North America Investment Corporation Limited • Protiva Biotherapeutics Inc. • QLT Inc. • Raymond James Ltd. • Raymond James (USA) Ltd. • RBC Dominion Securities Inc. • RBC Global Asset Management Inc. • RBC PHN Investment Counsel Inc. • Ritchie Bros. Auctioneers (Canada) Ltd. • Ritchie Bros. Financial Services Ltd. • Royal Bank of Canada • Scotia Capital • Shoreline West Asset Management • Sierra View Holidings • Stemcell Technologies Inc. • Sunstone Advisors (U.S.) Inc. • Tolko Finance Ltd. • Toronto-Dominion Bank • True Gold Mining • UBS Bank (Canada) • Vancouver Bullion & Currency Exchange • Vancouver City Savings Credit Union • Versant Ventures Canada Limited • Vicap Ltd. • Water Street Releasing (DBA Omnifilms) • Welichem Biotech Inc. • West Fraser International Ltd. • Westminster Management Corporation

자료 : Advantage BC

<표 Ⅵ-12> 밴쿠버 국제금융센터의 준회원사

Associate Members	• 360 Securities • Agricultural Bank of China • Amber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Bank of Canada •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rdel Entertainment • BC Chamber of Commerce • BC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BCEDA) • BC Innovation Council • BC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 BC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 BDO Canada LLP • Bennett Jones • Blake, Cassels & Graydon LLP • BMO Financial Group • Borden Ladner Gervais LLP • Boughton Law Corporation • British Canadian Business Association • Business Council of British Columbia • Canada, Australia & New Zealand Business Association • Canada China Business Council • Canada India Business Council • Canada-Jap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 Canada Korea Business Association • Canada Pacific Russia Trade Centre • Canadian Captive Insurance Association • Canadian German Chamber of Industry & Commerce • Canadian Manufacturers & Exporters • Chamber of Shipping of BC • China Union Mobile Pay • Contessa Capital Canada Corporation • Creative BC • Davison Law Group • Deloitte • Dentons Canada LLP • Devencore • DigiBC • DLA Piper (Canada) LLP • DS Lawyers Canada LLP • EncoreFX Inc. • Ernst & Young LLP • Farris, Vaughn, Wills & Murphy LLP • Fasken Marlineau DuMoulin LLP • Fortune World Media Inc. • F-Pacific Optical Communication Co Ltd. • GF Securities (Canada) Company Limited • Globe Group • Gowling WLG • Grant Thornton LLP • Hong Kong-Canada Business Association • HQ Vancouver • Hungerford Tomyn Lawrenson and Nichols • Integro Canada Limited • International Forest Products Limited (Interfor) • International Geneological Search Inc. • Investment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 Istuary Innovation Group • KPMG LLP • Lawson Lundell LLP • Life Sciences BC • Macdonald Commercial Real Estate Services Ltd. • Manning Elliott LLP • Manpower • McCarthy Tetrault LLP • McMillan LLP • MEP Law • Miller Thomson LLP • Mitsubishi Canada Ltd. • Mizuho Bank Ltd. • MMK Consulting Inc. • MNP LLP • Modern Investment Group (Canada) Ltd • Odlum Brown • Pacific Corridor Enterprise Council • Pacific Northwest Economic Region • Pacific Rim Group • Parly Holdings Ltd. • Phebe and Company Law Corporation • PricewaterhouseCoopers LLP • RepliCel Life Sciences Inc. • Scottish Canadian Business Association of BC • Shaw Sabey & Associates • Smythe LLP • Société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Colombie-Britannique • State Bank of India • Surrey Board of Trade • Teck Resources Ltd. • Thorsteinssons LLP, Tax Lawyers • Turkish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 Union Mobile Financial Technology (Canada) Corporation •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 Vancouver Board of Trade • Vancouver Economic Commission • Vanderluit & Associates, Inc. • Wavefront Wireless Innovation • Wolrige Mahon LLP

자료 : Advantage BC

다) 몬트리올(Finance Montreal)

□ 파이낸스 몬트리올(Finance Montreal)은 퀘벡주 내 금융산업 발전 및 육성을 통한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민간기구임

○ 퀘벡 정부 요청에 따라 금융업계 기관들이 설립

□ 파이낸스 몬트리올은 금융산업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업무로 함

○핀테크 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연금펀드 외형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신규시장 발굴

○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을 몬트리올에 유치하여 몬트리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온라인 인턴십 플랫폼* 운영 등 금융업 경력 개발 지원 및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마련

***학생들이 인턴십 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몬트리올 금융산업의 지역 내, 국내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업무 수행시 지속가능성장 개념을 고려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허브 조성, 핀테크 포럼·국제 연금컨퍼런스를 개최

□ 이사회는 정회원사 경영진들로 구성

○ 대표이사회는 24개 회원대표 회사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최상위 의결기구임

○ 집행이사회는 금융사 및 유관기관 회원사 경영진 36명으로 구성

<표 Ⅵ-13> 파이낸스 몬트리올의 회원사

구 분	회원사
회원대표 (24개사)	-금융회사 :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D 은행), RBC, 노동조합개발기금, 몬트리올 은행,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등 -유관기관 : 몬트리올 거래소, 퀘백주 재무부, 몬트리올 시 등
파트너 회원 (9개사)	BNP 파리바, 언스트앤영, KPMG, 피에라 캐피탈 등
준회원 (10개사)	캐나다 은행 연합회, 몬트리올 CFA 협회, 셰르부르크 대학교 등

2) 더씨티유케이(The City UK)

□ 더씨티유케이(The City UK)는 영국의 금융전문서비스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업계 및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국제적 사업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민관협력기구임

○ 시티오브런던코퍼레이션(City of London Corporation)으로부터 710,000 파운드 자금 차입 및 시설 리스 차입

○ 국제 금융서비스 리미티드(IFSL,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Limited)의 인력과 기능 흡수

○ 영국 무역투자부(UKTI, United Kingdom Trade and Investment)의 금융서비스부문 자문위원회(FSSAB, Financial Services Sector Advisory Board)를 인수하여 해외추진위원회(OPC, Overseas Promotion Committee) 설립

○ 2011. 5월 영국이슬람금융사무국(UKIFS, UK Islamic Finance Secretariat) 흡수

□ 주요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로 구성

○ 이사회는 21개 회사 참여,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정책위원장(Chairman of Policy) 및 Greater London Authority의 부시장(Deputy Mayor of London)이 멤버로 참여

* 관계규정, 회사정관, 관련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하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 및 금융전문서비스 부문의 성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시하는 역할 수행

○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는 60개 회사 참여, 시티오브런던코퍼레이션의 로드메이어(Lord Mayor of London)가 대표직을 맡음

* 자문위원회는 금융서비스산업의 최고위 실무진을 상당부문 포함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사하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와 협력함.

○ 예산은 정부 보조금 및 회원사 분담금으로 조달함

□ 더씨티유케이는 회원제(Membership)로 운영되며, 국제홍보, 정부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간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국제금융센터로서 영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홍보(International promotion)

○ 국내전략(Domestic strategy)- 영국금융산업 국내지원, 이해를 위한 심화된 풀 구성

○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간활동(Cross industry activity) 지원

○ 선도여론 형성(Shaping thought leadership)

○ 포럼 등 참가(Participation in forums and roundtables)

○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 주요이슈 분석(Development of research and analysis)

○ 브랜드인지도(Brand visibility): 금융부문 및 정책결정자들 대상, 소비자이슈 관련 분석

○ 사절단(Delegation visits), 국제행사 및 주요행사(International and high-profile events) 등 참가에 따른 네트워킹 기회

3) 파리 유로플레이스 (Paris Europlace)

□ 파리 유로플레이스(Paris Europlace)는 홍보를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및 투자자 등의 프랑스 금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기구임

○ 프랑스 중앙은행, 예탁기관,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 일드프랑스 지역협의회, 유로클리어 프랑스, 유로넥스트, 파리시*가 1993년 공동으로 설립

* Banque de France, Caisse des dépôts,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de région Paris Île-de-France, Conseil régional d'île-de-France, Euroclear** France, Euronext***, Ville de Paris

** 유로본드 거래 결제기관

***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3개국의 단일 증권거래소

□ 유로플레이스는 브렉시트(Brexit)를 계기로 프랑스 금융시장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지속가능금융,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함

○ 성장과 고용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500여개의 혁신 프로젝트 등 프랑스 내 핀테크 회사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마련

○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녹색금융)을 위한 다양한 금융주체간 연합 및 국제적 교류 추진

* 투자판단에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경제(Governance,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정보를 고려하는 투자수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및 프랑스와 유럽 중소기업의 중국과의 상업거래 지원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글로벌 금융회사 및 투자자

를 대상으로 국제금융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금융중심지 업무 지원

□ 유로플레이스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회(Committee)로 구성되며,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

○ 이사회는 JP모건 등 금융사 및 비금융업종인 LVMH* 등 다양한 업종 회원사들의 최고 경영자 49명으로 구성

***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Louis Vuitton Moët Hennessy) 그룹**

*** 의장 : 제라드 메스트랄레(Gérard Mestrallet) 파리 유로플레이스 회장**

○ 운영위원회는 유로넥스트를 포함하여 프랑스 중앙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등의 최고 경영자급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알랭 파피아스(Alain Papiasse) BNP 파리바 그룹 부 최고운영책임자임

○ 위원회는 기업발행인위원회(27명)와 기관투자자위원회(35명)로 구성

○ 예산은 400여개 회원사로부터 조달한 회원비로 운영

<표 Ⅵ-14> 파리 유로플레이스의 회원사

구 분	회원수	회원사
창립멤버	8	프랑스 중앙은행, 유로넥스트, 유로클리어 등
전문가 단체	29	주 프랑스 미국 상공회의소, 프랑스 회계법인협회, 프랑스 민간기업협회 등
법률회사	24	Allen & Overy, JEANTET 등
주식회사	27	에어버스 그룹, 에어프랑스-KLM 등
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38	AXA, BNP파리바 자산운용, 블랙록 등
부동산회사	3	Affine, Gecina, Unibail-Rodamco
은행 및 금융회사	28	소시에테 제네랄, SC은행, HSBC 그룹 등
거래 및 결제 플랫폼	3	유로클리어, 유로넥스트, LCH. 클리어넷
중개회사	5	Exane, Kepler Cheuvreux 등
컨설팅, 감사, 회계법인	7	KPMG, 언스트앤영 등
평가회사	2	Nota-PME, Vigeo
대학, 연구 및 금융교육센터	16	파리 7대학, 리옹 1대학 등
기타 중소기업 및 금융혁신 클러스터	173	Actuaris, BDO, CFBP 등

4) 룩셈부르크 포 파이낸스(Luxembourg for Finance)

□ 룩셈부르크 포 파이낸스(Luxembourg for Finance)는 룩셈부르크를 금융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업협회(PROFIL)가 2008년에 설립한 민·관 합동기구임

□ 룩셈부르크 포 파이낸스의 주업무는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지속가능금융 및 기업 유치를 통한 금융중심지 지원임

○ 핀테크 발전을 위해 민관합작 벤처인 룩셈부르크 금융혁신청(LHoFT, 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 주도로 국내외 핀테크 산업계간 협력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국가(도시)와 해당 국가(도시)의 특색에 맞게 협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개발

○ 지속가능 개발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룩셈부르크 지속가능금융 포럼을 운영('18.5월 개최)

○ 연 2회 IR 개최·해외 주요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의 룩셈부르크 진입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중심지 지원업무를 수행

○ 특히 유로지역의 위안화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위안화 대출 및 예금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위안화 포럼* 개최

*** '14년부터 매년 6월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의 현 경제상황, 금융개혁, 인터넷 금융혁명 및 향후 유럽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

□ 룩셈부르크 포 파이낸스는 재무부장관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금융산업연합회(Luxembourg Financial Industry Federation) 회원사들이 참여

○ 회원사로는 상공회의소, 자산운용협회, 은행협회, 보험협회 등 14개 업권별 대표기관이 가입되어있으며, 총 근무직원은 17명

○ 예산은 재무부 80%, 금융산업연합회 20%의 비중으로 조달함

5)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Frankfurt Main Finance)

□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Frankfurt Main Finance)는 프랑크푸르트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헤센[45] 주정부 주도로 2008년에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임

□ 독일의 금융시장 홍보 및 금융 및 핀테크 산업 관련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을 제고

○ 매년 해외 금융중심지를 방문하여 독일 금융시장을 홍보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향을 모색

○ 프랑크푸르트 금융 정상회의('11년부터 매년 개최), 핀테크 포럼('15년), 브렉시트 커뮤니케이션('16년) 개최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 추진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유망 핀테크 업체를 선정하여 독일 핀테크 상(Golden Garage)을 수여

□ 중앙위원회는 집행위원회 및 실무그룹인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내부직원 없이 유관기관 인력을 활용

○ 집행위원회는 연방장관 및 일반 기업체 임원 등 이사회에서 선출한 12명의 인원으로 구성

○ 상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으로 1년에 4회 개최되며, 집행위원회와 경영진이 수행하는 상시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 예산은 회원사들로부터 매년 조달하는 회비로 마련

□ 회원사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핀테크 회원으로 구성되며 총 43개임.

45) 헤센(Hessen) 주는 독일 16개 연방 주의 하나로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유럽의 금융·경제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시가 소재하고 있음.

<표 Ⅵ-15>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 회원사

구 분	성격	회원수	회원사
정회원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14	헤세주, 프랑크푸르트시, 에쉬본시 등 지방정부, 멧츨러(Metzler), 도이치 은행, 모건스탠리 등 금융회사, 증권거래소, SWIFT 등 금융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후원 회원	투표권은 없지만 회의 참석은 가능	21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금융회사, White & Case 등 법무법인, 베인 앤 컴퍼니, 올리버 와이만 등 컨설팅 회사 등으로 구성
핀테크 회원	설립된 지 5년 미만, 직원 50명 미만의 독일 핀테크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권은 없으나 총회 참석은 가능	8	액셀러레이터 프랑크푸르트, Raisin, SDG Investments 등

6)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및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아랍에미리트(두바이)를 국제금융의 중요 거점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국왕이 2002년에 설립한 정부기관임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2024 전략 및 핀테크 허브 추진 등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10개년 발전계획인 2024년까지 1,000개 금융회사, 50,000명 금융종사자, 2,500억달러 운용자산 및 4,000억달러 금융자산 달성 목표로 회원사 간 시너지 창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강화, 숙련된 금융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지역 최초의 핀테크 액셀러레이터인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를 설립('17년)하여 핀테크 허브 추진하고 있음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센터당국, 금융감독당국, 분쟁조정당국, 총 3개의 독립기구에 의해 운영되며, 상원·이사회 등을 구성

○ 국제금융센터당국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운영전략 개발, 운영・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앙기구임

○ 금융감독당국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관할하는 금융서비스를 감독하는 독립기구임

○ 분쟁조정당국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내 독립 사법기구로, 법원, 중재법원 및 유언등록기구로 구성됨

○ 또한 국제금융센터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상원(9인)과 국제금융센터당국 이사회(7인 이사)를 운영 중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회원사는 2017년 말 현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내 473개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1,853개 기업 및 22,338명의 종사로 구성

○ 주요 회원사로는 중국 4대 은행 등 글로벌 25위권 이내 은행 17개, 로이드 등 31개 보험사 및 글로벌 25위권 이내 자산운용사 12개사 등이 포함

Ⅶ.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지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변화된 금융환경하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 생태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산의 향후 금융중심지 중심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음

□ 2010년에 설정된 부산 금융중심정책의 비전은 “국제적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중심 특화금융중심지”이며, 동 비전 달성을 위해 아래 4개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였음

○ 1. 지역적 측면의 단계적 접근: 동북아 시장 => 글로벌 시장

○ 2.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업무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3.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인력, 영업환경, 시장접근, 인프라, 일반경쟁력

○ 4. 평판 확립을 통한 금융중심지 이미지 제고

□ 이상의 비전 및 전략적 방향성은 적정했다고 판단되며, 지난 10여년간 관련 정책 및 액션플랜의 성취도를 분야별로 평가해보면 가시적 성과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선박금융의 경우 국내 선박금융 기능의 부산 이전 및 교육 기능 확충 등은 성공적이었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해운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는 미진함

○ 파생금융의 경우 중앙청산소 유치 등 관련기관의 유치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전반적인 파생상품거래량 차원의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백오피스/백업센터의 경우 일부 국내 중심지 기능은 확보하였으

나 글로벌 기준의 아웃소싱 기반 구축은 미진함

○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차원에서 BIFC로의 금융공기업 이전,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무형의 금융중심지 인프라 형성 차원에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님

○ 한편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은 상당히 개선되어 2014년 3월 발표한 GFCI에서 처음 27위로 진입하였고 2016년 이후 40~70위권을 유지하면서 평판 확립을 통한 금융중심지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임

□ 이상의 성과를 분석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주요 부분은 금융공기업의 이전 등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보유한 공공부분이며 실질적인 금융시장 형성 및 민간금융회사의 활동에 의한 금융중심지 조성 효과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반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금융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가 간 협력에 근거한 금융시장의 회복 국면을 유지함

□ 또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연관된 기술혁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탈중앙화, 혁신 및 효율성 추구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국가 간 산업 및 금융 패권을 위한 경쟁이 격화됨

□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 속에서 런던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 간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자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음

□ 최근 10여년간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이는 도시는 광저우, 칭다오, 톈진(이상 중국),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이상 캐나다), 두바이, 아부다비(이상 중동국가), 멜버른, 오사카, 방콕, 함부르크, 텔아비브 등임

□ 이들 도시들이 추구하는 금융중심지 전략의 특징을 요약하면 살기 좋은 도시, 주변 사업과의 연계 클러스터 형성, 혁신산업과 연계성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역내 금융허브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독자적 위상 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부산이 향후 추진해야 할 금융중심지 전략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의 차별성을 강화한 기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고 특히 혁신 경제와 연관된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VI장에서는 향후 10여년 동안 부산금융중심지가 추진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전략 어젠다(agenda)를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10개 분야별 전략 어젠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의 구체성을 보유한 액션 과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있는 반면, 이보다 상위 개념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이 전략 어젠다 별 성격이 차별화되는 것은 해당 분야별로 관련 이슈 및 환경적 변화가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향후 환경 예측이 어렵거나 금융시장의 경쟁적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판가름 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분야 및 이슈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제3인터넷 은행 부산유치, 추가 이전 대상 금융 공기

업의 부산 유치 등은 금융당국 또는 정치권 등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단기간에 관련 이슈 및 환경변화가 가시화 될 수 있음

○ 또한 환경적 요인보다는 정책적 의지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도 당국의 의도 여부에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에 과제 추진이 가능할 수 도 있음

○ 반면 위안화 허브화, 부산소재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적 어젠다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금융시장 참가자의 경쟁관계 속에서 판가름이 나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략적 어젠다의 추진 시계(time horizon)를 굳이 분류해 보자면 관련 환경 변화 및 이슈가 이미 상당부분 가시화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어젠다와 그 이외의 중장기 어젠다로 구분이 가능할 것임

□ 분야별 어젠다를 이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단기(단) 또는 중장기(중장) 시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해양금융(단)

○ 핀테크 및 기술금융(단)

○ 위안화 허브 등 동북아금융허브 역할(중장)

○ 백오피스/백업 센터 구축(단)

○ 파생금융상품 기반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중장)

○ 자산운용업 활성화(중장)

○ 남북경협과 연계한 금융 등 비즈니스 강화(단)

○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및 관련 인프라(중장)

○ BIFC 확대발전(단)

○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단)

□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한 단기/중장기 시계의 구분은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추진 기간 구분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 어젠다 내에서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 특히 '중심지 추진 조직체계 강화'는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수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도시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프로세스상의 전제조건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논의된 10개 부분의 전략적 어젠다와 관련하여 저인망식으로 상정 가능한 다수의 과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제도 포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금융중심지 정책의 본질은 실현 가능성이 비록 낮다고 판단되어도 단기간에 실망할 필요없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10년을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 하에서 꾸준히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바람직함

○ 수백 년에 걸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10년의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일관적 정진이 필요함

<부 록>

1. Finanzplatz Hamburg (Mr. Jörn Le Cerf)

□ 함부르크의 경제적 성공요인은 역사적, 문화적, 기업과 정부 간 협업 등에 의한 결과

○ 함부르크는 가족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만 존재할 뿐이며, 강소기업으로서의 영속성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업의 독자적 책임감이 강한 문화와 상업적 관계로 인해 신뢰관계를 중시

* 상공회의소(Honorable Merchants of Chamber of Commerce)에 약 1,000여개 기업이 회원

○ 함부르크 경제는 장기적 전략과 안정적인 접근, 전문적 접근(professional approach)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특정 산업에 집중될 수 없는 상황

○ 조선업의 경우 현재 소규모 산업이며, 서비스 중심의 메트로폴리스를 지향

* 미디어, 게임, 청년방송, 신문, 산업서비스, 바이오,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기술자회사, 다임러의 자회사, 식품제조업, 금융서비스 등이 중요.

○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강소기업을 지향하며 보험업무, 자산관리, 의료보험, 보험브로커 등 소규모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

○ Hamburg City는 스스로를 금융중심지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중심의 글로벌 은행지점 등은 존재하지만 이들 은행의 지역기반은 제한적

* M&A 등으로 업무기반이 중앙 집중화 되면서 지점 등의 역할은 위축
* 함부르크 내 금융기관은 1인 이상 10,000 여개이나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예: broker)이며, 50인 이상 기준으로 한다면 100 ~200여개로 추정
* 함부르크 소재 금융회사들은 북구 금융권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고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

□ Finanzplatz Hamburg는 네트워크 운영 및 News Letter 발송, 프로모션 중심의 사적기관으로써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협력하는 민간 기구에 해당

○ Finanzplatz는 함부르크 시가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주로 금융기관 또는 협회, 개인 등이 주축

* 시 정부는 전체 예산의 5% 내외를 지원
* 약 120여개의 기관 및 개인, 협회 등이 참여
* 회원비는 참여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간 100 EUR~5,000 EUR 수준

○ 이사회는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부르크 지방정부의 재무장관(Senate of Finance in the Ministry of Hamburg)이 참여하며, 현재 이사회 의장은 저축은행 대표가 겸직

* 이사회의 기능은 분기별로 주로 예산 또는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안과 의결을 담당
* 최근에는 디지털 또는 핀테크 이니셔티브에 대해 관심
* Chamber of Commerce의 입장에서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및 지역 금융비전 마련 등 금융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은행협회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로비 목적의 기관과 차별화

○ Finanzplatz Hamburg는 민간기구로서의 역할과 정치적 독립성 등을 유지

□ Finanzplatz Hamburg은 2007년 설치된 이후 직접 고용된 직원 없이 상공회의소가 하부위원회 등을 통해 협력하는 형태

○ 상공회의소가 Finanzplatz Hamburg의 하부기관을 통해 각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함부르크 내의 금융서비스 활성화 목표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인프라를 상공회의소(현재 약 250인 내외)와 공유하고 공동 협력하는 형태임

□ 함부르크 투자은행은 기존의 주택개발공사 형태의 기관을 전환, 확대하는 형태로 약 3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에 초점

○ 초기 자본은 민간 출자와 공공자금으로 구성된 일종의 지방정부 소유의 지역개발은행(투자은행)에 해당

□ Creative Gesellschaft를 통해 베를린에서 스타트업 비즈니스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

○ 베를린은 정부의 자금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함부르크는 주정부의 재정으로 활용

○ 아티스트의 사업화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잡 쉐어링(job sharing)을 통한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공유 등이 활성화

□ HafenCity는 Hambourg City가 토지 제공이나 지역 인프라를 제공하는 반면 주택 및 빌딩 등은 민간 중심으로 개발

*** 엘피아노 오케스트라 하우스 개발 등을 통해 랜드마크 마련**

□ 로지스틱스 클러스터(Logistics Cluster)는 인접 지역 대비 경쟁력 확보와 정치적 관심, 역사적 연계성 등으로 인해 구축

○ logistics cluster는 정책적으로 추진된 공공 클러스터에 해당

○ 전통적으로 운송보험이 발달하는 등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간 역사적 관계가 밀접

○ 해운 관련 거래소 및 곡물거래소 등이 있으나 현재는 주로 표준계약의 마련 등 협회적 역할이 강하고 회원 간 거래 중심으로 그 역할은 낮은 편

□ 함부르크가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상은 실질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Z/Yen Group에 의한 설문조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촉구 등에 기인

○ 함부르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혁신도시(Innovation City)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프랑크푸르트 등 타 지역과 달리 점진적이며 자력적인 발전을 목표

2. PwC Luxembourg (Mr. D. Yasdani, Mr. C. Saint-Mard, Ms. S. Lu)

□ 룩셈부르크는 펀드 산업 중심의 백오피스 허브(back-office Hub)에 해당

□ 룩셈부르크의 성공요인

○ 1980년대에 도입된 해외 공모형 펀드(UCIT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제도의 선제적 활용을 통해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

○ 금융서비스의 백오피스 기능은 경쟁이나 인센티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법적 및 감독의 탄력적 대응, 시장수요를 반영한 기업친화적 정책에 의해 경쟁력을 확보

○ 제도적 경쟁력은 법률, 회계, 컨설팅, 세제 등과 관련된 글로벌 기관을 통해 전문성(expertises)을 확보함으로써 허브로서의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는데 초점

*** 아시아의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주목할 필요**

○ 각 분야의 핵심기업(anchor clients)을 유치하고, ALFI 및 LFF 등 자율협회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

*** 중국계 은행들은 유럽 진출 거점으로써 활용**

□ 아시안 펀드패스포트의 육성은 각 국가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business mind)를 갖고서 추진해갈 수 있는 체계를 필요

○ 금융허브 육성에 있어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룩셈부르크 사례는 규제당국의 유연성, 펀드 산업에 초점을 둔 집중화, 상품의 승인 등에 있어서 펀드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감독리더십이 중요**

*** 세제 측면에서 룩셈부르크의 매력도는 거의 없는 상황**

*** 프론트엔드(front-end)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 감독, 회계, 법률, 컨설팅, 법적기구(vehicle)을 유치(domicile)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런던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와는 완전히 특화된 금융허브모델을 구축**

□ 부산 등 금융중심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부산의 입지나 역할을 고민할 필요

○ 언어, 안정성, 전문인력(talents), 소득세, 거주여건 등을 외국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불리한 점이 없는 접근방법

○ 정부가 비즈니스 중심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자연적 우위(natural advantage)를 제도적 우위(institutional advantage)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허브의 성공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친화적 접근(marry approach, not dating approach)이 필요

3. Luxembourg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Association (LPEA) (Mr. Dusan Gladovic)

□ LPEA는 국제적인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25개의 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182개의 회원이 참여

○ 약 83 private equity와 약 99개의 서비스 기관들이 참여

○ 5개의 실무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 약 200여개의 회원기관이 참여

○ EU의 Invest Europe과 협업(affiliation)

□ LPEA의 서비스는 회원의 관계형성, 업계기준의 정립, 정보 공유 및 교육, 연구 및 시장조사(market intelligence), 회원의 행사 지원, 대외관계(public advocacy) 등이 해당

○ 대외관계: 금융관련 고위당국자 위원회, Invest Europe의 세제 및 법률, 규제 위원회, EC 및 OECD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의 규제당국과 교류, 금융 관련 해외순방 등에 참여

○ 홍보: 국제 투자로드쇼 개최, 컨퍼런스 참여, 비디오 및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모션 등을 담당

○ 지식공유: 5개의 실무위원회와 2개의 임시위원회(ad-hoc committee), Young PE Leaders Initiative, GP Survey, PE Insight/Out 잡지 발간, 월간 뉴스레터 등을 제공

□ 룩셈부르크는 글로벌 선도 사모펀드의 참여와 법률 및 세제체계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약 4,000억 EUR, 유럽 사모펀드를 유치

○ 약 6,000여명의 사모펀드 관련 전문인력이 활동

○ 고자산가 및 패밀리 오피스, 프라이빗 뱅크가 주요투자자이며, 벤처캐피탈 및 차입(debt)*에 의한 인수(buyout) 중심으로 운영

* 사모부채펀드(private debt fund)는 최근 3년간 약 5배 성장

○ 2013년 대안 투자 펀드 매니저 지침(AIFMD) 도입 이후 규제강화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불만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을 적극 활용

* EU 규제의 부분적인 자율성을 허용함에 따라 독일 또는 프랑스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 현재 특화 유한책임사원(specialized LP)이 약 2,200 여개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UCITS 관련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후선업무 관련 비용을 절감

□ 룩셈부르크가 사모펀드 운용에 있어서 갖는 장점은 정치적 및 법적 안정성, One-stop 서비스 제공, 폭넓은 이중관세 협약, 통합감독기구(a single regulator)에 따른 대안 투자 펀드 매니저 지침(AIMFD) 준수의 용의성, 후선 및 중간업무의 효율화가 용이한 데 기인

* GP survey (2018)에 따르면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스위스, 네델란드 등에 비해 룩셈부르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역외에서 역내이동(from offshore to onshore) 추세 하에서 룩셈부르크의 상대적 우위를 점유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집중화된 관리업무(central administration)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평가

□ LPEA는 2010년에 설립되어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종의 기업단체(trade associations)으로서 현재 4명이 상근

* 회비는 2,000 ~ 3, 500 EUR 내외

4. Association of the Luxembourg Fund Industry (ALFI) (Mr. Cammile Thommes)

□ ALFI는 투자펀드 및 관련 기관을 포괄하는 협회로, 회비 및 자체 행사 등을 통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민간협회에 해당

○ 현재 약 1,500여개의 회원기관이 있으며, 이중 약 1,100개의 투자펀드, 400여개의 여타 금융기관 및 IT기업, 법률 및 회계기업 등 전체 펀드업무 관련 기관이 참여

○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독립기구로써 행사개최를 통한 수입 및 회비(membership fee)로 운영

* 단, 규제당국이나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은 지원

* 회비 비중은 전체 수입의 약 50%를 차지

○ 일반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

□ 1998년 UCITS의 승인(transposition) 이후 현재 약 27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개의 팀*을 운영

* 규제 및 법률 분야, 이벤트 등 행사 분야, 회원 서비스 분야

○ 회비는 투자회사의 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약 2,200~10,00 EUR 또는 운용자산 규모(AUM)에 따라 약 400~6,000 EUR 수준

○ 회원기관의 운용자산은 1988년 약 3,000억 EUR에서 약 4.4경 EUR로 성장

○ 펀드산업은 전체 룩셈부르크 세수의 약 8% 내외를 차지

□ UCITS 사례가 아시아의 펀드패스포트(fund passport) 시장에 대한 시사점

○ 룩셈부르크 정부는 UCITS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국경간 거래를 통한 투자상품 또는 독자적인 브랜드 형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U 규제체계 내에서 해외규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

* EU의 경우 규제체계 또는 세제 등의 수렴화(harmonization)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 아시아 시장의 경우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제약요인의 해소나 국가별 펀드 판매에 대한 차이점 해소, 기관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 기준 또는 최소기준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

○ 룩셈부르크의 전략은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지역적 또는 역내역량을 활용하거나 확충, EU의 규율체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transpose) 수용가능성을 제고, UCITS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promotion),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플랫폼(internationally-oriented platform) 구축, 규제당국과 펀드산업 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사후적 제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규제의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를 통한 규제위험의 최소화 정책(up-front approach),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 등을 목표로 한 접근 등이 특징적

□ UCITS을 활용한 한국계 투자기관의 참여 및 노력은 확대되는 중

○ 한국계 투자기관은 기존(well-established)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형태로 해외 자산운용시장에 진출(bypass model)

○ 룩셈부르크의 UCITS은 유럽 및 미국 등 선진시장의 투자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 한국계 자산운용기관의 장기적인 과제는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역량의 제고, 투자성과 및 브랜드 구축이 될 것임

□ 향후 자산운용시장의 판매모델은 디지털화와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대로 구조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

○ UCITS 기관들이 플랫폼 중심의 기업을 인수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B2C(business-to-consumer) 판매모델은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

□ 한편 UCITS을 활용한 해양금융의 활성화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낮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감안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5. Luxembourg for Finance (LFF) (Mr. Nicolas Mackel)

□ LFF는 펀드산업 뿐만 아니라 협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역할 제고를 위해 룩셈부르크 정부와 민간 간 파트너십 형태로 설립

○ LFF는 금융서비스 기반의 확충과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2000년대 중반에 설립

○ 초기에는 민간과 정부가 50%씩 예산을 분담하였으나, 5년 전부터 정부의 예산분담이 약 80%내외로 확대

* 정부의 역할 확대는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추세와 자체 마케팅 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장기비전이나 신시장 확충을 위한 규제 또는 정책적 노력이 차별적으로 요구되기 때문

○ LFF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참여한 협회 등이 관련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은행, 펀드, 보험 등 3개 협회와 상공회의소가 참여

* 주주는 정부와 4개 민간기관을 대표하는 2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에는 협회별로 각각 참여

□ LFF는 금융서비스 관련 신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잠재고객의 발굴이나 대외 마케팅, 이벤트 등을 통한 금융시장 확충에 초점

○ LFF의 업무기반은 신시장 개발 분야, 잠재고객의 개발 및 확충, 시장정보 및 마케팅 활동, 이벤트 등을 통한 협력 등이 해당

* 신시장 개발은 지역별 혹은 주제별(예: 최근의 RMB 및 Fintech), 잠재고객 개발(예: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

* 마케팅 인텔리전스(marketing intelligence)와 이벤트, 홍보 등은 룩셈부르크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시장분석 또는 행사 등을 지원하는 형태

□ LFF의 이사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며, 경영위원회 (Steering & Management committee) 등에 재무부 대표 및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하여 사업 및 업무를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

○ LFF의 이사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수행

○ 연간 예산은 5~6백만 EUR 수준이며, 약 17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

○ 분기별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에 대한 월별 보고체계를 유지

□ LFF는 재무부의 조언기구(Advisors of Ministry)*에 참여

* LFF를 포함하여 회계, 법률, 은행, 보험, 펀드산업의 대표자, 거래소 대표 등 약 12~15인으로 구성

□ LFF의 역할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로비 역할은 하지 않으며, 워킹그룹 등에 참여하여 정책적 제언이나 민간 부문의 실무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형태

○ 초기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협회와 같은 로비 역할은 정관에 의해 배제

○ 설립 당시부터 재무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예산규모는 약 2배 정도 증가

○ 유럽 금융네트워크(Network of European Finance)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관련 정보와 협력체계를 유지

* 서울시 등과 MOU체결을 통해 파트너쉽은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진행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

□ 한편 브렉시트(Brexit)는 협상의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 못할 것(예: no passporting right)으로 전망되며 유럽 사업은 대륙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이탈로 인해 영국 내 유럽 사업은 대륙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이전 수요 중 금융서비스의 약 50% 내외는 룩셈부르크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

*** 일본계 보험사를 포함한 약 10-20개 보험사, 은행(모건, 시티, 삭소, 싱가포르, 로이즈 등)은 기존의 룩셈부르크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할 계획**

*** 알리페이 등 핀테크 및 지불결제 기업의 이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현재 약 47,000 금융업 종사자가 있으며, 차별적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불구 지난 2년 동안 약 3,000 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 아시아 시장에서 룩셈부르크와 같은 금융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유럽의회(E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framework) 과정과 제도 간 **수렴화**(harmonization) 노력, **상호인정** 체계 (mutual recognition) 등을 통해 나타난 **시장신뢰도**(market integrity) 구축 과정을 받아들일 필요

○ 룩셈부르크의 성공요인은 지역 내 금융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생성되어 왔기 때문

○ 생태계 생성은 1980년대 EC를 중심으로 국가별 규제체계를 통합시장(integrating market)과 단일시장의 형성(pan-European market)에 대한 유럽의 규율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대와 이를 활용한 선발주자로서(head start)의 대응이 성과를 창출

*** 중국의 경우에도 룩셈부르크 정부가 선도적으로 UCITS의 확대를 위해 규제당국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글로벌화를 촉진**

*** 펀드산업에 대한 전문성(expertises) 확충과 이를 토대로 민관 협력으로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